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7 호 (352)

차 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업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수행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하게 하심으로써 풍파와 시련으로 가득찬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철두철미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우리 인민을 령도하시여 악독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의 괴수 미제를 타승하시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지난날 현대적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이였던 우리 나라를 력사상 류례없는 짧은 기간에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과거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온 우리 인민을 오늘 강력하고 발전된 존엄있는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조선은 《주체의 조국》으로 되였으며 《반제반미투쟁의 기수》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은 오늘 민족적해방과 독립의 공고화를 위하여, 사회적진보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의 앞길을 등대처럼 밝혀주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있다.

참으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주체사상이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더없는 영예와 행복감으로 충만되여있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로 가슴불태우고있다.

1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맑스-레닌주의의 발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적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1폐지)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나라 혁명에 리롭게 처리해나가는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말하여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결국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확고한 자주성과 창조성,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훌륭히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성들과 우리 혁명 및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11폐지)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 그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혁명은 일반적으로 매개 나라 내부의 계급적 및 민족적 모순의 발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피착취피압박대중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

혁명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수입하는것도 아니며 매개 나라 인민대중의 사활적인 요구로서 일어나고 수행되는 것이다. 착취자, 침략자들이 피착취, 피압박 대중에게 자유와 해방과 유족한 생활을 선사할수 없다.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그들자신의 힘, 그들자신의 투쟁으로써만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명백한 진리이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어떤 다른 사람이 조선혁명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하거나 처방을 내릴수 없으며 그 누가 우리 인민을 대신하여 조선혁명을 해줄수도 없다.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은 조선인민자체의 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국제적이며 세계공통적이다. 그러나 매개 나라 로동계급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실현할수 없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전과정에서 자기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려하고 그 훌륭한 유

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최대한의 민족적번영을 이룩해야 한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발전에 이바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환경과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풍부히 한다.

이와 같이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통하여 세계혁명은 발전하고 종국적으로 승리하며 모든 민족들의 최대한의 번영을 통하여 세계에서 민족적차이도 없어진다. 이것은 매개 나라와 전세계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실천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맑스-레닌주의리론에 의하여 지도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은 행동의 지침으로서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하며 그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리론은 또한 매개 나라들의 혁명투쟁의 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서 그것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풍부화된다.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리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제정신으로 살고 맑스-레닌주의일반리론에 창조적으로 대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처리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는 바로 혁명의 발생발전에 관한 이러한 합법칙성들에 기초를 두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의 합법칙성들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사상은 현실적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단계에서 제기된 절실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활동하시는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는 전세계적규모에서 혁명이 일정에 오르고 그것이 급속히 확대발전하는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우선 세계적범위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는 시기였으며 다음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그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급속히 확대되여갔으며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창건발전되고 혁명의 지도력량이 장성하여 각이한 민족적특성과 력사적조건 밑에서 다양한 과업들을 가진 혁명투쟁이 벌어지게 되였다. 크고 발전된 나라들과 함께 수많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작은 나라들에서도 혁명투쟁이 광범히 벌어지게 된 력사적조건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 외세의존사상 등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들이 해독을 끼치고 혁명발전을 저애할 위험성이 커지게 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특징짓는 이러한 력사적조건들은 혁명하는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자주성과 창조성,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세울데 대한 문제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점점 더 확대발전하면서 이러한 요구를 더욱더 절박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당면의 문제로 되였으며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지도력량은 더욱 장성하고 혁명은 더한층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였으며 공산주의운동에는 국제적중앙도 없어지게 되였다. 국제무대에서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은 전례없이 격렬해졌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는 새로이 기회주의가 나타나 심대한 해독적작용을 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옳은 로선과 정책을 수립할수 없고 원칙성을 고수할수 없으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수 없게 되였다.

혁명수행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부터 특별히 날카롭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조건,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1폐지)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진 사대주의가 교조주의, 종파주의와 결합되여 혁명발전에 심대한 해독을 끼쳐왔으며 우리 혁명의 내외적환경과 조건은 매우 복잡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혁명은 류달리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조선혁명은 식민지의 조건에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의 길, 강대한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야 했으며 반제반봉건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혀 새로운 길을 헤쳐나가야 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맑스-레닌주의일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가는가 못하는가,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것을 훌륭히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첫시기부터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우리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로 나섰다.

실로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그의 력사적사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사상으로서 창시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 혁명발전의 사활적인 요구를 반영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은 오직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지도사상, 지도리론은 언제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조되고 발전된다.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이 수행되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만이 혁명발전의 근본요구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줄수 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통찰력을 겸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극빈한 농가에서, 력사상 류례를 모르는 애국적이고 혁명

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그이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남달리 부지런한 학습, 고난에 찬 생활체험을 통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성장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불요불굴의 반일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아버님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은 오직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정신을 이어받으시였다.

어리실 시절부터 남달리 뛰여난 재능과 혁명적열정을 지니시고 일찌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신 그이께서는 로동계급의 철저한 당성과 혁명적원칙성을 완전무결하게 체현하시고 그의 력사적사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는 또한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 나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낌없이 바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는 또한 어떤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그 본질을 꿰뚫어보시고 혁명이 나아갈 길을 거침없이 밝혀주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다.

견강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알수 없었던 혁명발전의 객관적법칙의 요구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 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심오하게 통찰하시고 그에 대처할 위대한 새로운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맑스-레닌주의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선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시고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실제적인 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로동계급의 세계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자기의 혁명위업에 대한 견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입니다. 주체는 조선혁명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주체는 바로 자기 나라 혁명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우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견해와 관점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이 나옴으로써 세계혁명의 한 고리인 매개 나라 혁명은 그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분공된 국제주의적의무이며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하는것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세계혁명에 가장 잘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명확한 견해를 세울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이러한 견해는 계급과 민족의 불가분적련관성,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의 유기적인 통일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통찰과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력사적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창조적사상으로서 맑스-레닌주의세계관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세계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 사상적무기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혁명에 실천적으로 복무하기 위한 사상적무기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나옴으로써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주체로 삼고 모든것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실천에 실제적으로 복무할수 있도

록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할 때에만 맑스주의철학이 가르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법칙들에 관한 지식은 실지에 혁명투쟁의 사상적무기로 전변될수 있다.

사람들은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섬으로써 바로 자기 나라 현실, 자기 나라의 계급관계에 기초한 산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자기 나라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자기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임무에 대한 자각과 이를 위해 몸바쳐 투쟁하려는 혁명적의지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사람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섬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혁명에도 충실하게 진정한 국제주의사상으로 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여 사람들은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대주의, 교조주의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되여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세우고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한 참말로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실제적으로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세울수 있게 하시였을뿐아니라 그들이 실지에 혁명과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진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갈수 있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따라서 매개 나라는 자기의 혁명위업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인이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견지하며 자기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주체사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과 협조를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하고 동지적인것으로 되게 하며 국제주의적지원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여줌으로써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강화하고 세계혁명발전을 강력히 추동할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또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을 위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거하시여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유일하게 정확한 독창적인 해답을 주시고 맑스-레닌주의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를 창조하시였다.

민족해방혁명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반미투쟁 등 현시대가 제기한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포괄하고있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그 진

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일관된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이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와 전세계에서의 모든 혁명운동의 가장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하며 맑스-레닌주의과학의 창조적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을 담보하는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실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획기적전환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한 인류의 전진운동을 위한 그이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공헌으로 된다.

2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시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찬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고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과의 기본담보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6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오래동안 침략자들에게 짓밟혔던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민족적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명확히 천명하시고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령도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당창건방침 등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완수하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 일관된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이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이 주체적인 혁명로선들을 철저히 관철하심으로써 반룡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해방후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끄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으

로 인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미제국주의와 직접적으로 대치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게 되는 조건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이것을 정확히 푸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은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시고 실천에 구현하신 혁명근거지창설로선을 새로운 정세에 맞게 발전시키신것으로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로선이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민주기지창설로선과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 그리고 그이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과업은 1~2년이란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되고 나라의 북반부는 강력한 혁명기지로 전변되였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엇보다도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당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시여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천재적인 령군술로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전후시기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창조적으로 규정하고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그것을 견결히 관철해나가지 않고서는 북반부에서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나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유일하게 옳은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령도하여오시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로선과 방침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현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킨것이며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최대한으로 촉진하려는 철저한 자주적립장으로 일관된 유일하게 정확한 방침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이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완수되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토대우에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세기적인 비약이 류례없는 짧은 기간에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제시하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은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기회주의 등 온갖 반맑스-레닌주의적 경향과 사조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일관하게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다.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 종파분자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자기의 주권과 당을 가지게 된 시기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본따며 하면서 계속 우리 당의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방해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은 전쟁때 심하게 나타났으며 전후에 와서 더욱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인 1955년에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당앞에 나서는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우리 인민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혀있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의 사상독소를 없애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열어놓았다. 우리 당은 또한 이때로부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새로이 나타난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력히 벌리게 하시는 한편 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드높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유일한 자로 삼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아래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반맑스-레닌주의적사조를 극복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인 승리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상분야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게 된것이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

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 사대주의사상은 민족적예속과 노예적굴종의 사상이며 망국배족의 사조이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것은 조선인민의 오랜 세월에 걸친 력사적과제로 되여 있었다. 조선인민의 이 세기적인 숙원, 오랜 기간 미해결문제로 남아있었던 이 력사적과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와서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되였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살며 싸우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110페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완전한 통일의 실현은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강철의 당으로, 혁명투쟁의 앞길에서 부닥치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성과적으로 이겨내면서 우리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수 있는 불패의 힘을 가진 당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 건설과 우리 나라 전반적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완전한 통일이 실현된 결과 우리 인민들속에서 당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는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더욱 공고히 되였다.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석같은 통일단결이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원히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되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으로 구현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에서 자주로선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자주로선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행사하는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이 성과적으로 실현된 결과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가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동안에 완수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자립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자위로선은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침략자들의 분별없는 모험도 일격에 분쇄할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가진 자위의 나라로 되게 하였다. 주체사상과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을 견결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정치적자주권과 경제적자립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었다.

실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이 가져다 준 위대한 결실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이끄시고계신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지도사상으로 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을 창건하였다. 통일혁명당이 창건됨으로써 남조선혁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새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날로 앙양되는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미제식민지통치는 반드시 붕괴되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은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앞길을 해발과 같이 밝혀주시고계시며 그들의 자유, 해방과 민족적독립,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시고계신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혁명하는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전략 특히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투쟁전략에서 커다란 신심과 용기와 힘을 얻어 혁명대오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을 긴밀히 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고있으며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반제투쟁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속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과 공미굴종사상, 대미의존사상이 깨여져나가게 되였으며 반제투쟁을 회피하던 사람들도 반제투쟁대렬에 나서게 되고 반제투쟁에서 소극적이던 사람들

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였다.

또한 오늘 경제적으로 뒤떨어졌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결실에 무한히 고무되여 신식민주의의 도구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를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에서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오늘 자체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으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은 뚜렷한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성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자기들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고 대외활동을 벌리고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리하여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동지적협조의 원칙에서 국가와 인민들, 당들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혁명뿐만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력사적경험에 의하여 검증된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다.

그러기에 오늘 수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현대인류의 모든 진보적사상의 최고봉》으로, 《혁명을 하고있는 모든 나라 인민이 다 자기의 구체적현실에 적용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현 20세기에 의의가 있을뿐만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인류의 투쟁을 위하여 영생불멸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속에서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의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력사 연구소조들과 그 출판위원회들이 수많이 조직되여 로작과 혁명력사에 대한 연구와 출판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지어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인민들속에는 《김일성전선》, 《김일성부대》 등을 편성하고 가렬한 전투의 탄우속에서도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을 가슴에 품고다니면서 연구하는 투쟁조직들도 있다.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발전, 인류력사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고계시는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으며 그이의 사상을 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로 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보며 따라배우는 위대한 나라로 되였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태여나 그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우는 영예보다 더 고귀한 영예는 없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혁명해나가는 긍지보다 더높은 긍지는 없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과 교시들,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더욱 실속있게 학습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른다는 립장과 태도를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하며 오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주의를 좀먹고 자본주의를 복구하려는 매우 위험한 사상인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이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우리 내부에서 그 사소한 표현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진행함으로써 그 어떤 불건전한 사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불패의 기치이며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을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지도사상으로 계속 억세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며 우리 인민을 영원히 주체사상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민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그리고 외국의 수많은 젊은 벗들과 진보적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속에서 진행된 금번 사로청 제6차대회에서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강령적연설을 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을 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공산주의청년운동의 혁명적본질을 심오히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앞당기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내놓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오히 학습하고 그 진수를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일찌기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위대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 그리고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에서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력사적필연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한,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영웅적이고도 보람찬 투쟁의 로정을 걸어왔으며 이 전투적로정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워놓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수많은 애국청년들은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려 젊은 공산주의혁명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조선청년들의 혁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해방후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불굴의 투지와 창의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이 땅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며 락후했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 아름답게 건설되고 날로 더욱 번영하는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는 그리고 행복한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항상 충실한 조선의 남녀청년들

의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의 참된 근위대, 결사대로서,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 제도를 창설하는 젊은 혁명전사로서, 뒤떨어지고 가난하던 자기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만드는 젊은 건설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지난 기간 우리 청년들이 자랑찬 혁명투쟁의 로정을 걸어왔으며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을 창시하시고 그를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공산주의운동에서 청년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한부분으로서의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비롯하여 《새날소년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혁명적인 청소년조직들을 내오시고 이에 광범한 애국적청소년들을 묶어세워 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으며 청년들로 하여금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의 성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의 매단계마다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청년들을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로, 혁명의 계승자들로 훌륭히 키우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공훈을 세울수 있도록 이끄시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더불어 자랑찬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선청년들은 근 반세기동안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오직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이 행정에서 우리 청년들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의 젊은 공산주의자로서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력사에 찬란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을뿐아니라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와 새 사회 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들의 특질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청년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투쟁은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았다고 하여 결코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우와 같은 책, 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주의하에서도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하나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하는것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하여 계승되며 완수된다. 아비지가 다하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다하지 못하면 손자가 하며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종국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우리의 젊은 새세대들에게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과 투쟁업적을 계승발전시켜 조선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맡겨져있다.

우리 청년들앞에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임무는 모든 청년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가장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는 아직 나라를 전반밖에 해방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인 남조선을 철천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가 되살아나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다.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는 지주, 매판자본가들과 친미, 친일주구들의 반동적인 식민지파쑈통치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모든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혁명투쟁을 멈출수 없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계속 힘있게 투쟁함으로써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청년들과 함께 전세계에서 반제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청년들이 혁명의 대를 이음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또한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들의 청년적인 기질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년들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로력전선에서 돌격대이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선구자이며 사회주의조국보위의 믿음직한 담당자들이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며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좋아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것은 혁명하는 시대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기개이며 고유한 특질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야 할 현실적요구에 맞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가 되며 사회주의조국보위의 초소에 서는것은 누구보다도 긴장하며 혈기왕성하고 용감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새 사회건설의 위대한 력량이며 가장 믿음직한 담당자들인 청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조국보위에 적극 참가하여 청춘의 정열과 위대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지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혁명의 대를 이음데 대한 위대한 사상은 그이의 계속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지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닦아진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기며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이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과 청년문제의 본질적요구가 혁명의 계승자에 관한 문제이며 혁명의 대를 잇는 문제이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력사적경험은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앞에 나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끝까지 수행되는가, 수행되지 못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새 사회건설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들의 청년적인 기질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계승자문제, 혁명의 대를 잇는 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문제로 보시고 이 문제를 공산주의청년운동발전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총적방향은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조직들과 청년들앞에 나서는 모든 과업이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데 돌려져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에 대한 천재적해명에 기초하여 제시된 과업이다.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청년운동이 로동계급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며 그것을 다음대에 가서도 계속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준것이다.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원칙적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한 혁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진시키며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면 혁명투쟁에서 단련되지 못한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육성하지 않는다면 혁명을 계속할수 없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도중에 멈출수 있다.

경험은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소홀히 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속에서 부르죠아반동사상의 영향이 강화되여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으며 결과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온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끝까지 완수하는데 있어서 관건적문제로 제기된다.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청년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들과 청년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청년운동의 중요한 사명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청년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이다.

청년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만 청년운동이 로동계급의 계급적토대우에서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여나갈수 있다.

천재적사상리론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필연성과 함께 그 내용과 방도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꾸준히 따라배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청년들이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며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는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있게 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청년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이 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이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한다는것은 자신들이 바로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이 땅우에 대대손손 영원토록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꽃피도록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현실에 훌륭히 구현하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모든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며 그들이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할 혁명투쟁의 근본내용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며 사로청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자신을 꾸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조선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서의 임무를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령적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

를 계속하여야 한다》에서 청년들이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하는것이 오늘 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임무를 다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다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9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에서 청년들이 앞장서며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하는것이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서 혁명을 계속 힘차게 전진시켜 강력한 물질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명시하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들, 물질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반전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은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탄광과 광산, 림산과 수산, 농촌경리부문 그리고 발전소와 간석지 건설장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기개를 떨칠 보람찬 일터이다.

청년들이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더 깊이 체득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공화국북반부에서처럼 전조선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혁명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에서 청년들이 선봉대, 돌격대가 되라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생기발랄하고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창조적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혁명을 급속히 전진시키며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빨리 건설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며 그들을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는 투쟁의 기치이다.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임무를 정확히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조국보위는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떨쳐나서 사회주의조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는것은 청년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쓸어버리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며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할뿐아니라 원쑤들의

침략과 반동들의 파괴암해책동을 때려부시고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첨예한 계급투쟁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는것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히 보위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며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킬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오직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타도하여야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파탄시켜야만 새로운 재난의 위험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전반적조선혁명과 남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 그 발전의 합법칙성과 조선청년운동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남조선 혁명과 청년운동 발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판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따라 공화국북반부 전체 청년들은 남조선청년들의 불행한 처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과 한투쟁대오에 같이 서있는 심정으로 남조선청년들의 의로운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하며 남조선청년들은 당면하여 원쑤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투쟁과의 조직적유대를 강화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함으로써만 전국적판도에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에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혁명적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혁명적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반제반미투쟁의 선두대렬에서 보무당당히 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청년들로 하여금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청년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 연설,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청년운동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갖는 강령적

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위대한 고전적로작은 그이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내놓으신 공산주의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집대성이며 그이께서 일찌기 조선공산주의청소년운동을 창시하시고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그를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풍부한 경험의 일반화이며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실로 수령님의 이 강령적문헌은 제국주의와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반대하고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쉬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을 투쟁과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청년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그이께서 청소년사업에 주신 여러 로작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학습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져있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도 신성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며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행복이 있으며 휘황한 미래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앞으로의 강화발전과 조선청년들의 찬란한 미래도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우리의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혁명의 대를 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젊은 혁명전사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녀성문제해결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

강 춘 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오늘 우리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남녀평등권법령의 발포,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온갖 사회적질곡과 계급적 및 인신적 예속으로부터 우리 나라 모든 녀성들을 영원히 해방시키시려는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장구한 혁명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녀성문제해결에 있어서 일대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맞이하는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과 녀성들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영광찬란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천재적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문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에 관한 문제이며 그들을 모두 사회생활의 참다운 주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도록 하는 문제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이 위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녀성문제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녀성해방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밝혀주신 천재적인 혁명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이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문제를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함께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사회가 참말로 착취없고 평등한 사회로 될수 있으며 또 모든 녀성들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그러한 사회만이 참말로 행복하고 화목한 사회로 될수 있다.

녀성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또한 혁명투쟁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부터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녀성들은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남자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성원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한 거대한 혁명력량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발전할수 있으며 녀성들이 각성되여 혁명적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사회전체의 혁명력량이 강화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사회생활과 혁명투쟁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이처럼 중요하며 따라서 녀성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바로 여기에 녀성문제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는 근거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반영하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녀성해방의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없는 인륜적평등과 부녀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것.》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녀성해방의 강령으로서 당면하게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와 꼭같은 정치적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녀성들을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할뿐아니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근본요구들도 실현할것을 예견한 독창적인 혁명강령이다.

이 강령은 세기적암흑과 질곡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새 희망과 투쟁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녀성해방의 명확한 진로를 밝혀주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해방과 녀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어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 이것은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세울때에만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녀성들의 진정한 사회정치적해방을 가져오자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우리 조국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기치밑에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의 한 고리로 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만 조국의 자유독립과 함께 녀성들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수 있다는 위대한 사상이 천명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녀성해방의 이 전략적방침은 당시 조성된 우리 나라 혁명정세와 조선녀성들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방침이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 녀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당시 조선녀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통치와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왔으며 자본주의적관계와 봉건유교도덕이 서로 얽혀져 인신적으로도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사회정치생활에 전혀 참가할수 없었을뿐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가질수 없었다. 녀성들은 오직 무제한한 착취와 압박의 대상이였으며 천대와 멸시, 롱락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녀성들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빚어내게 한 장본인은 일제식민지통치제도였다.

일제식민지통치제도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조선녀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찾을수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온갖 불평등과 인신적예속에서 해방될수 없었다. 따라서 녀성들을 해방하고 녀성문제를 옳게 풀자면 무엇보다먼저 일제식민지통치를 혁명적폭력으로 전복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하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또한 녀성들자신이 녀성해방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녀성들이 해방되여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자면 봉건제도와 식민지통치제도를 없애버려야 하며 이것을 없애버리려면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녀성들이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남자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녀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반제민족해방투쟁과 반봉건투쟁에 적극 참가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녀성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적극 참가시킬데 대한 이 방침에는 녀성들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사회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적립장이 일관되여있으며 동시에 녀성대중을 사회혁명의 중요한 력량으로 보시는 그이의 녀성들에 대한 높은 신임이 깃들어있다.

이 방침은 또한 녀성들자신이 총을 잡고 항일무장투쟁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투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뿐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여 혁명가로 준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전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들의 해방과 녀성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녀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을 내오고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일본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자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는 군중들을 묶어세워야 한다.…앞으로 청년들은 청년조직에, 소년들은 소년조직에, 부녀자들은 부녀조직에 다 망라되여 일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더 견결히 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녀성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해방을 가져오자면 각계각층의 광범한 녀성대중을 망라한 대중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

녀성들의 대중적인 정치조직건설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나설뿐아니라 녀성운동자체의 필수적인 요구로 나선다. 그것은 녀성조직이 녀성운동의 직접적인 담당자이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녀성들의 정치조직이 있어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 보다 광범한 녀성대중을 힘차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녀성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투쟁의 유일성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광범한 녀성들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

을 모두 혁명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부단히 혁명화하여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 때만이 조국의 광복도, 녀성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도 더욱 촉진되게 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시여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녀성운동은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옳바른 맑스-레닌주의적지도리론과 혁명적투쟁강령을 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녀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로선에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모든 녀성들이 전체 인민들과 함께 자신의 힘과 투쟁으로 사회적해방과 녀성문제를 끝까지 해결할데 대한 철저한 혁명적립장이 반영되여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녀성문제해결의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에 진행된 항일빨찌산의 녀성대원들은 일찌기 반제반봉건민족해방투쟁에 직접 총을 메고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이러한 실천투쟁속에서 조선녀성해방과 남녀평등권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였습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녀성해방과 녀성문제해결을 위하여 녀성들의 혁명조직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가시는곳마다에서 반일부녀회조직을 내오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묶어세우시고 각성시키시였으며 그들을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1926년에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어머님을 지도방조하시여 반일부녀단체를 조직하시고 조국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강반석어머님을 회장으로 모신 반일부녀회조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광복과 녀성해방투쟁방침을 실현하는 우리 나라 녀성들의 첫 맑스-레닌주의적대중적조직이였다.

이 부녀회의 조직과 그 빛나는 활동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녀성해방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닦아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 넓은 지역에서 부녀회조직을 확대발전시키시고 녀성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자주 부녀회원들의 모임에 친히 참석하시여 부녀회일군들에게 사업 방향과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녀성들의 혁명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여주시였다.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부녀회는 유격근거지에서는 물론 반유격근거지와 적통치구역에까지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녀성들의 믿음직한 반일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부녀회의 조직정치생활을 통하여 각성되였으며 견결한 녀성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군중을 반일투쟁과 혁명조직에 묶어세

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그들을 깨우치고 혁명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몸소 광범한 녀성군중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야학, 토론회, 강연회 등을 직접 조직하시였으며 신문, 잡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발간하시여 녀성들에게 반일애국사상과 맑스-레닌주의혁명사상을 넣어주시였다. 또한 다양한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대중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으며 여러 농촌들에 학교를 세우시고 여기에 자라나는 녀성세대들을 광범히 받아들여 그들에게 혁명적인 교육을 실시하심으로써 녀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광범한 녀성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의식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착취와 억압,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녀성들이 직접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으며 조선녀성해방운동의 선구자로 자라났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광범한 애국녀성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였을뿐아니라 녀성들을 직접 항일유격대에 받아들여 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많은 녀성들이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과 녀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녀대원들은 철천의 원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무장대오에 직접 참가하여 빛나는 위훈을 떨쳤으며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작식대, 재봉대, 병원 등에서와 적구에서 각각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항일유격대의 전투력강화와 군사정치활동의 성과적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유격근거지에서 남녀평등권을 실시하심으로써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을 위한 위대한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직접 체험하고있는것처럼 유격근거지에서는 모든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동등한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고있다. 그리하여 수천년의 력사를 통하여 돈과 권세에 억눌리고 짓밟혀온 우리 나라 녀성들의 세기적인 념원이 처음으로 빛나게 실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제반민주주의적개혁들을 실시하시여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시였다.

유격근거지에서 실시된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의 결과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이 실현되고 열여섯살이상의 모든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였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였다.

뿐만아니라 유격근거지의 녀성들은 부녀회조직에 굳게 뭉쳐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호미를 들고 적들의 그칠줄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보위하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유격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이리하여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녀성운동앞에 나서는 녀성해방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장차 전국적판도에서 녀성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제적 보장, 이것은 식민지적 및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 속에서 허덕이던 전체 조선녀성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항일유격대 녀성대원들과 부녀회원들, 모든 애국적녀성들은 영명하고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살며 싸우는것을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면서 일편단심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녀대원들과 녀성들의 충실성은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표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녀성혁명투사들은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싸웠으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투쟁하였다.

적들의 단두대에서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여 끝까지 투쟁한 녀성혁명투사들의 불멸의 이야기,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일제침략군 토벌대놈들을 단신으로 맞받아나가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무리죽음을 준 용감한 녀전사들,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눈을 빼앗기고 젖가슴을 도리우면서도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켜 싸운 불굴의 녀성투사들, 밤낮으로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여 600여벌의 군복을 제기일에 기어이 생산보장한 재봉대원들, 적들의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그이의 혁명사상을 심장으로 새기며 활동한 녀성정치공작원들의 투쟁모습 등에서 잘 알수 있는바와 같이 녀대원들과 녀성혁명가들은 수령을 위하여, 조국의 독립과 녀성의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용감히 싸웠다.

그들의 불멸의 투쟁정신은 오늘 우리 녀성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동시에 이것은 탁월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녀성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설때 얼마나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새 사회 건설에서 녀성들이 노는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실증하여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녀성해방의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 녀성들뿐아니라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미제강점하의 남조선녀성들과 싸우는 세계혁명적녀성들에게 위대한 투쟁의 본보기로 된다.

또한 이것은 녀성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위대한 기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조선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보람찬 투쟁이기도 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과 녀성문제해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들은 해방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시고 그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녀성문제해결에 전당과 전체 녀성들을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착취받고 압박받던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46년 7월 30일,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봉건적 및 식민지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 같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의 세기적숙망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녀성들의 사회경제적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혁명단계에 이르러 모든 녀성들을 온갖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며 사회주의근로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 망라시키시는 한편 녀성들에게 충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주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단계에 들어선 현시기에 와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을 사회주의사회의 녀성운동과 녀성문제의 기본내용으로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녀성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녀성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늘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재능있는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났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고있다. 그리하여 지난날 사회정치생활에서 완전히 무권리하였고 갖은 멸시와 천대만을 받아오던 녀성들이 오늘은 훌륭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현대적기업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 대규모적집단경리를 운영하는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 로력혁신자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원, 의사, 학자, 예술가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나라 녀성들의 처지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녀성문제해결에서는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였다.

실로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크나큰 배려속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녀성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또다시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내세우시였다. 이것은 오직 우리 근로자들과 녀성들을 언제나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베풀어질수 있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이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강령적과업을 앞당겨 수행하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모든 녀성들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며 당면하게는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더욱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

강 석 숭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행정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심화발전하는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다시금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과업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중요담보로 된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는가 또는 약화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적립장과 기회주의적립장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며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심오하게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 관한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창조적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의 진수와 그 정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해서는 당을 튼튼히 꾸리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한편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

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이 천명되어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조직으로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모든 정치적조직들이 나아갈 방향과 투쟁방도들을 제시하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 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이러한 정치적지도, 당적령도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의 창건자이며 당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사상을 정치적리념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수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의 기본을 이룬다.

탁월한 수령은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강령을 내놓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때문에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존재, 당의 령도적역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실로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사상과 그의 령도는 당의 존재자체를 규정하는 근본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촉진시키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계급적원쑤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며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는데 온갖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는것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헐뜯으려는 혁명의 원쑤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고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임무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당의 통일단결과 그 령도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면 될수록 더욱더 강화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당의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창조적사상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쳐나가는 창조적인 사업이며 복잡하고 어려운 투쟁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하나의 위대한 전환으로 되나 이것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며 더구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임무가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로동계급의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

여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끊임없이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서 나서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은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소유하고 누구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심오한 혁명리론과 탁월한 령도예술을 소유하고 혁명승리를 위한 길을 밝혀주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지도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기본임무와 현시기 심화발전되는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조성된 정세의 요구 등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당의 기본임무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입니다. 우리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당의 전투력을 높여 우리앞에 나선 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단계에서 우리 당앞에 나서는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정치적령도자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조국의 광명한 미래도 바랄수 없다.

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당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도 결국은 우리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인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사업도,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오직 당의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국가, 경제, 문화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이 오늘 당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수행에서 행동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목적지향성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나라의 국내외적환경이 복잡하고 혁명과 건설 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국내외환경이 복잡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일것을 절박하

게 요구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7페지)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새 전쟁도발과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그 이중의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이 상전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수정주의적 사상조류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거세하며 우경투항주의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그들은 사회주의제도확립이후시기 당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거부해나서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은 류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으며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장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는 더욱더 높아지고있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가로막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 *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발전하는 현실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제건설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지도는 당적령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특히 오늘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요구에 비추어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경제건설의 규모가 방대해졌으며 부문들간의 내부적련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밀접해졌다. 이로부터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더 한층 강화할데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나선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이러한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유일적인 지도는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가장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지도통제할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우리 당만이 인민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촉진시킬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위원회들이 키잡이를 잘하는것입니다. 당이 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한다는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토의에 기초하여 당정책의 집행 방향과 방도를 규정하고 옳바른 결정을 채택하며 해당부문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여 그것을 옳게 집행하도록 정치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합니다.》(우와 같은 책, 13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인전대와의 호상관계, 당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과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키잡이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심으로써 인전대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과 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키잡이에 관한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령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가장 원칙적인 령도방법이다.

모든 당위원회들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자기앞에 새롭게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로론하여 옳은 해결대책을 세우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당조직들과 당원들, 근로단체들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이 옳게 관철되도록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경제사업지도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행정경제일군들의 자립적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며 사업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부족점들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갈수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요한것은 국가경제기관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국가경제기관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직접 창시하시였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확증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이와 함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도록 하는데 계속 깊은 당적주의를 돌려야 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입니다.

당조직들은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속에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3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인민정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가장 정확히 정식화되여있으며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명시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각급 인민위원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 또한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꾸려주며 보살피는 호주이다.

그러므로 인민위원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먼저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인민들속에서 신망이 높은 우수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 기능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인민위원회가 주권행사를 원만히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호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치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내에서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이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당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제기구들을 창설하며 그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들은 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폭력수단과 국가법령을 가지고 보장한다.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 사법, 검찰 기관들에 대한 당적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무력건설에서의 기본요구입니다. 인민군대는 오직 당의 령도밑에서만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9페지)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과 정치도덕적우월성은 당의 정치적지도밑에서만 전면적으로 발휘될수 있다.

군대안의 각급 당위원회는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인민군대내 당위원회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직집행되도록 하는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모든 군사정치적문제들을 다 해당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여야 하며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일군들은 군사사업을 하고 정치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하며 후방일군들은 후방사업을 하도록 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당위원회들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안에서 당정치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정치기관들과 정치일군들 특히 정치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이렇듯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혁명군대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에 관한 리론에 탁월한 기여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중요구성부분인 로농적위대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과 함께 사회안전사업과 사법, 검찰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였다.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특히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각종 파괴암해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안전사업과 사법, 검찰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은 당과 수령님을 정치적으로 보위하며 모든 부문에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계급적원수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제때에 적발폭로분쇄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우리 당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뒤떨어졌던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실로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해야 할 가장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놓여있다.

우리는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그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과 태도

김 철 만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천의 로동계급속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눈부신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열여덟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놈들을 내리막길에 처박아놓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와 특히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우리 인민이 국방건설과 혁명무력건설 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태도를 다시금 천명하시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의 전쟁확대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습니다. 남조선의 박정희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 전쟁을 적극 준비하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에 직접 가담하고있습니다.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였으며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전반적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6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다.

나라의 정세가 극히 첨예한 조건에서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과 태도로 철저히 교양하는것은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전쟁에 대한 원칙적립장과 태도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입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11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전쟁의 본질과 계급적성격, 그 발생근원에 대한 과학적해명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은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다. 따라서 전쟁은 계급들과 국가들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무장충돌과 군사행동으로서 소여사회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반영한다.

제국주의전쟁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

적소유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침략과 전쟁, 이것은 독점자본의 착취적 및 략탈적 본성과 분리할수 없는 제국주의의 속성이며 기본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은 사라질수 없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본질과 성격, 그 발생근원 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시여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전쟁에 대처하여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립장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참된 혁명가들은 언제든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외래제국주의침략도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물리치고 자기를 보위하려는 자주적인 립장을 지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해서도 주체적립장,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적립장,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전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주체적립장,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은 국방건설방침과 군사로선, 전략전술적문제 등 전쟁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제정신을 가지고 주로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가장 정확히 그리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며 인민들과 군인들을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시킬수 있게 하고 나라의 모든 군사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전쟁에 대하여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은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의 내부력량이다. 제국주의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매개 나라의 주체적인 정치경제력과 함께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이 준비되여있지 않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오직 자위적군사력을 굳건히 마련하여야만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하고 나라의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전취물을 자체의 힘으로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다.

전쟁에 대하여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선행한 모든 전쟁 특히는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현대전쟁은 전선과 후방의 구별이 없는 립체전이다. 현대전쟁은 최신과학기술의 모든 성과들이 도입되고 비상히 높은 기동력, 대량살륙무기와 원거리타격수단들이 동원되며 방대한 인적 및 물질적 수요를 전제로 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기술적우세》를 떠벌이면서 원거리타격수단과 높은 기동력에 의한 불의의 타격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는 조건에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전쟁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강력한 자

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공업을 창설하고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환경, 경제발전수준, 민족의 체질에 맞게 무기와 전투기재를 충분히 마련하여 온 나라를 요새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야만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원만히 장기적으로 보장할수 있고 불의의 타격으로부터 사람과 무기를 보존할수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도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소탕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4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전쟁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립장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되고 근로인민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전쟁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계급도, 사회정치적세력도 없으며 전쟁을 일으킬 경제적근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국방력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체를 방위하기 위한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국방력은 말그대로 방위적성격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려 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침략하려 하지 않는다. 남에 대한 위협과 침략, 이것은 우리 당의 정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우리의 참을성있는 노력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다치려 하지 않지만 그 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전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쑤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데 대한 우리 당의 단호한 립장은 전쟁승리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현대전쟁에 대처하여 방대한 인적 및 물질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금성철벽의 전인민적방위체계 등은 우리 인민의 전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원천이며 그 어떤 제국주의국가도 가질수 없는 전쟁승리의 항구적요인들이다. 그 어떤 원쑤들이 침략하여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의 단호한 립장과 준엄한 경고는 바로 이러한 전쟁승리의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력한것이다.

지난날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일당백의 영웅적인민군용사들이 미제침략자들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통채로 나포하고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을 단방에 박살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매일같이 모험적도발에 날뛰는 원쑤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있는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당의 립장과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힘있게 실증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하며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침략자들이 력사적으로 조선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는 대신 또다시 모험

적인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때에는 제놈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속에서 영영 타죽고말것이며 여기에서 얻을것이란 죽음과 시체뿐일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그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84~58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부정의의 침략전쟁을 철저히 반대하는 동시에 정의의 전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의 혁명적립장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자본의 힘이 국제적인것처럼 국제적인 운동이다. 개별적인 나라들의 해방운동, 민족해방전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부분이다. 따라서 정의의 전쟁, 민족해방전쟁을 하는 인민들은 국제로동계급과 혁명이 먼저 승리한 나라들의 지지성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은 이 나라들에 물심량면의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할 의무가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며 싸우는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지성원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긴다. 싸우는 나라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사심없는 지지성원은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의 각을 뜨고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키게 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뿐아니라 세계혁명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정당한 길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정의의 전쟁, 민족해방전쟁에 대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원조와 지지성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다.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과 태도를 독창적으로 밝히신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사상은 국제국내정세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 세계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선행한 모든 전쟁 특히 현대전쟁의 경험을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전기간에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전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또 하나의 불멸의 공헌으로 된다.

* *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에 대한 혁명적립장과 태도를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를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완수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방침,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마침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는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되여 정권도, 민족자체의 군사적토대도 없으며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필요한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조선에서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몸소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우리 혁명발전의 전도, 특히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전조선을 제놈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음흉한 책동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이에 대처할수 있는 강력한 인민무력을 제때에 창건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를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도록 이끄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을 그 관철에로 조직동원하심으로써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전쟁에서 정치도덕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종과 병종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적의 배후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 등 많은 중요한 군사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고 새로운 군사예술을 창조하시였을뿐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실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승리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적인민의 승리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무력에 대한 혁명군대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유와 독립과 진보를 위하여 일떠선 인민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서도 정복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부패성을 폭로하였으며 세계피압박민족들에게 미제가 결코 불패의 적이 아니며 그와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289페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탁월한 군사사상, 자위적군사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전쟁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위대한 시위였다. 그것은 또한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혁명력량,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탁월한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시면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국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옳게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총결기간 미제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격화되고 정세가 더욱 긴장되는데 따라 우리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7페지)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를 개편하시는 한편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끄심으로써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한 강력한 나라의 방위력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정치도덕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하여 인민군장병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군대안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소홀히 하고 군사기술적사업에만 매여달리려는 경향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장병들속에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찼으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려는 높은 정치적열의와 견결한 혁명정신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 방침이 훌륭히 관철된 결과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된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하시는 한편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그 관철에로 힘차게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싸울수 있게 되였다. 또한 온 나라의 모든 지역은 철옹성같은 방위시설로 뒤덮였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도 요새화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한 가장 위력한 방위시설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어떤 원쑤들이 언제, 어느곳으로, 어떤 형태의 무력침공을 감행하더라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 *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고 긴장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계속 강화되고있으며 놈들의 새 전쟁 도발음모는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때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으며 작은 사건이 큰 전쟁으로 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로골화되는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계속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특히 정세가 긴장될수록 전체 근로자들과 조국보위의 임무를 직접 맡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자위의 정신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하며 이미 쌓아놓은 튼튼한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에 의거하여 나라를 방위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0페지)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는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자위의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그이의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친위대, 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고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 그 2중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온갖 세계반동파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인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한번 원쑤놈과 판가리싸움을 해야 한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군대내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군대내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군인들의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붉은기중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을 수령님의 붉은 혁명전사로, 불굴의 혁명투사로 준비시키며 군대를 공산주의적으로 단련된 강철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군인들속에서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 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군대내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이 확립되여야 일단 유사시에도 지휘관과 병사들,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원쑤놈을 족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완성하며 그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71페지)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며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체 인민군군인들을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과 무기와 군사기술기재에 정통하도록 할 때 그들은 최신군사기술로 반톱까지 무장한 적이 덤벼든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수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수령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 전군간부화와 전군현대화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금성철벽의 전인민적방위체계를 더욱 완성할수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입하는 원쑤놈을 한놈도 살아서 돌아갈수 없도록 모조리 소멸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전선과 후방의 인적 및 물적 수요를 장기적으로 원만히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후방을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지며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음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

김 정 희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이룩하신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기업관리를 정규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기업관리정규화의 본질과 필연성,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더 개선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훌륭히 건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기업관리의 정규화, 이것은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신 전혀 새로운 문제이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하는것과 함께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으며 경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가장 우월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여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과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우리 인민의 새로운 투쟁강령,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촉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요구에 맞게…기업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8페지)

기업관리를 정규화한다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관리운영의 기본방법으로

되는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며 경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을 규범화하며 제도화한다는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관리는 어디까지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에 기본을 두고 근로자들의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그들이 기업관리의 모든 행정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한다는것은 결국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본질적요구에 따라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계획화, 자재공급, 설비관리, 생산지도, 로동행정, 재정관리, 후방사업 등 기업관리의 모든 측면을 엄격히 규범화하며 모든 일군들이 일치한 동작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경제관리운영 질서와 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다음 경제관리의 성과를 좌우하는 성숙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이러한 우월성과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는 문제는 경제관리를 정규화함으로써만 더욱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그것은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일뿐아니라 그것이 또한 경제관리체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의 모든 측면들과 일군들의 행동준칙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요구에 맞게 규정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경제관리체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안받침하여준다.

그리하여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을 관리규범과 일군들의 생산활동에 구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요구를 구현하여 국가계획수행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 사회주의적협동생산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하고 인민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의 요구를 확고히 실현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완전히 부합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자본가들이 순전히 몽둥이로써 해먹는 그런 방식으로써는 결코 일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되여 일하도록 교양하며 모든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생활원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를 제도화, 규범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밝혀주고있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자본가들의 리윤추구에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할수없이 일하게 된다. 그들은 생산에서 열성을 낼수 없으며 더구나 자각성과 창발성이란 있을수 없다. 이로부터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돈에다 얽매여놓고 그들을 순전히 몽둥

이로써 두터먹는 방법으로 저들의 공장을 관리운영하는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열의는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전체 인민이 같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있는 사회이며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원칙에 의하여 생활할것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질적우월성과 집단주의에 기초한 성격, 바로 여기에 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의식수준과 자각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그들이 다같이 지키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나가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인민경제를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한다면 개별적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은 그안에 있는 직장이나 작업반들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사회주의경제에서는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맞물려돌아갈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규범화되여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질서와 규범이 있어야만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를 옳게 운영하여나갈수 있으며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통일적으로 더 잘 관리하여나갈수 있다.

경제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개인리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을 뿌리뽑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낡은 사상 잔재가 사회주의건설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칙적요구이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동록실사하고 보관관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재산을 리용처리하는데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제관리운영에서 정연한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낡은 사상이 발붙일 틈을 없애고 나라의 귀중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잘 관리하여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다.

그것은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집단주의적생활습성을 기르고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참다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는것이 또한 실지 생산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운영을 위한 유능한 관리간부를 빨리 키워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하여야 할 현실적요구를 전면적으로 통찰하시고 그것을 담당 수행하여야 할 관리간부문제해결의 혁명적인 방도를 밝히신 위대한 사상이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관리간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특히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부문들간의 련계가 복잡해졌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조건에서 유능한 관리간부를 더 많이 육성하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관리간부를 양성하는데서 학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규화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실천을 통하여 관리간부를 양성하는것은 고도로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공장과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보다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관리간부에 대한 인민경제의 빨리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여야 거기에서 기업관리의 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규범화된 공장관리운영질서에 숙련되고 습관된 유능한 관리간부를 짧은 기간에 많이 양성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것은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부대관리를 정규화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고 그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정규화를 위한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일 좋기는…빨찌산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첫째로 모범부대를 꾸리고 거기서 간부를 키워 다른데 보내주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모범부대와 함께 다니고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으신 부대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사상은 항일유격대의 전대오를 필승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혁명무력으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부대관리를 정규화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어느한 중대 또는 련대를 모범적으로 꾸리시고 그 모범을 전부대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일 가렬한 전투와 간고한 행군이 계속되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 몸소 부대를 인솔하시고 다니시면서 싸움하는 방법, 정찰하는 방법 그리고 숙영할 때 천막을 치고 밥을 짓는 방법, 우등불을 피우는 방법과 함께 학습하고 글짓는 방법, 정치사업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모범중대 또는 모범련대로 만드시고 그 모범을 전부대에 일반화하시였다. 또한 거기에서 키우신 대원들과 간부들을 다른 부대에 지휘관으로 파견하시여 많은 부대를 짧은 시일안에 규률있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만드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신후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혁명무력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부대관리의 고귀한 전통에 기초하시여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창건할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인민군대를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시뿐만아니라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부대와 구분대들을 찾으시여 전투는 물론 아침기상으로부터 내무정돈, 전투준비, 전투훈련 등 일과생활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하시였다. 정전직후에는 각급 지휘관들을 양성하는것과 함

께 특히 구분대의 군사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것을 중요하게 책임진 특무장들을 훈련하는 조선인민군 특무장강습소를 내오시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한 규률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현대적정규군으로, 강력한 간부군대로 만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부대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은 기업관리정규화의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부대관리나 경제관리나 그 리치는 같다. 혁명군대가 정규화되여야 전투력이 강한것과 같이 사회주의경제관리도 정규화되여야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부대관리의 고귀한 전통과 해방후 현대적정규군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경제관리에 구현하시여 경제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성된 현실적요구와 장래발전전망을 전재적예지로 내다보시면서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독창적으로 끊임없이 개선하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첫날부터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사업반전을 저애하는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체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전후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였으며 생산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혁명적전환으로 되는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계획 및 통계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현하시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었다. 이것은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제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을 창조하신데 기초하시여 그 우월성과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게 하는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천명하시고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철저히 구현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가운데서도 무엇보다먼저 관리간부를 양성하는 정규대학과 각 정들에 작업반장학교, 직장장학교를 설치하시고 공장대학들에도 관리일군양성반을 조직하심으로써 경제관리의 정규화를 위한 정연한 교육체계를 세워주시였다. 또한 정규화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밝히시고 교재집필과 교수용 영화제작,연구실과 실습공장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와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를 완전히 과학적로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규화교육체계를 세우시는 한편 본보기공장들을 꾸리시고 실물교육을 통하여 간부를 양성하며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안전기공장, 황해제철소, 강선제강소 등 공업부문별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며 우수한 관리간부들을 선발배치하고 거기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기업관리를 질서정연하게 하도록 하심으로써 경제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유능한 간부들을 수많이 양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한편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청산리와 숙천군 그리고 창성군에 각각 벌방지대와 산간지대들에서의 사회주의농촌경리운영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여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

신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사상과 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끊임없이 앙양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는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와 기업관리를 정규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이 가져온 빛나는 열매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관한 리론과 경험에 튼튼히 의거하여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장 빠른 길로 확신성있게 건설할수 있게 되였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적경제관리사상이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와 함께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문제를 리론실천적으로 밝히시여 맑스-레닌주의경제관리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시고 전면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함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　　*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방도와 구체적과업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위한 독창적인 정규화교육체계를 내오시고 또한 한 단위에서 정규화된 표준공장을 꾸리여 그 모범을 일반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대규모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가장 빠른 기간에 정규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정규화교육체계에 따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정규화된 관리규범에 숙련된 우수한 관리간부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관리학교를 나와야만 관리할줄 알게 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생산을 정상화하며 국가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일군들에 대한 양성체계를 수립하고 그들에게 기업관리운영방법을 가르쳐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정규화교육사상은 리론실무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경제관리일군들을 양성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교육의 능동적역할을 강화하여 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사상이다.

정규화교육체계를 통하여 지배인, 직장장, 작업반장 등 모든 관리일군들을 판에 박은듯이 양성해내보내야 그들이 나가서 낡은 경제관리운영 질서와 제도를 대담하게 마스고 사회주의적관리규범에 의한 경제관리운영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울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신 정규화교육체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것이다.

각급 양성기관들에서는 정규화교육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더 잘 갖추어 양성기관자체를 정규화하는것과 함께 교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유능한 관리간부들을 더 많이 양성하며 간부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인민경제부문별로 모범공장을 잘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은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모범공장 몇개를 꾸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 무엇으로 실무교육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칠판에다 써놓고 연설을 많이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군들이 졸업장을 받고 학교문을 나간 다음날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범공장을 꾸리고 실습시키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모범공장은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위한 실물교육의 본보기로 되며 정규화된 관리규범에 숙련된 우수한 관리간부들을 길러내는 간부양성기지로 된다. 그것은 또한 기업관리방법을 완성하여 로동정량을 비롯한 기술경제적지표들을 표준화하도록 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관리규범 그자체를 개선할수 있게 하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업관리의 정규화를 실현하여나갈수 있게 한다.

모범공장을 꾸리는 목적은 실물교육을 통하여 기업관리를 정규화하려는데 있는것만큼 이와 같은 모범공장은 완전히 정규화된 표준공장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거기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그이의 교시와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는 혁명화된 붉은 집단으로 되여야 하며 또한 대안체계의 요구를 구현한 관리규범대로 계획화, 자재공급, 설비관리, 생산지도, 로동행정, 재정관리, 후방사업 등 경영활동의 모든 고리들이 엄격히 규범화되여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동정량을 비롯한 경영활동의 모든 질적지표들이 해당부문의 공장들가운데서 가장 선진적이며 표준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생산문화가 철저히 확립되여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경제기술적으로나, 문화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해당부문 공장들가운데서 본보기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모범으로써 다른 공장들을 이끌어나가는 선구자적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다.

모범공장을 잘 꾸리기 위해서는 지도일군들자신이 모범공장창설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공장창설대상으로 선정된 단위들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일군들속에 모범공장을 꾸리는 사업의 중요성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인식시키며 모두가 이 사업에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체계의 요구대로 정연한 관리운영 질서와 제도를 세우자면 공장지도일군들자신이 관리규범과 기업관리의 구체적실무에 정통하여야 한다. 즉 작업반을 지도하려면 작업반장자신이 관리규범에 따라 사람과의 사업은 어떻게 하며, 계획토의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루작업의 조직과 총화는 어떻게 하고 설비, 자재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환히 꿰들고 그것을 일상적인 관리활동에 구현할수 있도록 습관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범공장창설단위들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갖추어주며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여주는 등 모든 면에서 적극 도와주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제도와 행동규범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직 규정이 없는것은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규정들도 다 검토하여보고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는것은 다 다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536페지)

모든 일군들이 다같이 지키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나가도록 하는 공동행동준칙과 제도, 사업질서를 규정하여놓은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범은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기초이며 그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확립할수 없다.

경제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범,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범, 규정들을 옳게 제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그리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관리분야에서 낡은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의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훌륭히 완성하여나갈수 있으며 경제관리의 정규화를 옳게 실현할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범, 규정들을 옳게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공업기업소관리규범》을 깊이 침투시켜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관리법과 규범, 규정의 내용과 그 의의를 똑똑히 알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욱 자각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그이께서 창시하신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사상과 방침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경제관리분야에서 나타나는 수정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상의 사소한 표현과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지도일군들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기업관리를 정규화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조직하고 실속있게 지도통제하며 혁명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기업관리의 정규화에 대한 그이의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과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우리의 경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빨리 앞당겨나가자.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석탄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자

조 동 섭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그이의 올해 신년사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몸소 회천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상반년 《100일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6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서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앙양되고있는 혁명적대고조는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경제의 빨리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회천명에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전당이 석탄공업에 힘을 집중하며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석탄생산에서 보다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며 탄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에 있어서 석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석탄전선을 첫돌파구로 규정하시고 이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힘을 집중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석탄공업은 전반적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발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의 발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다른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사실 석탄을 잘 캐는가 못캐는가에 따라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참말로 석탄생산은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29~230폐지)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앞세우는 것은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연료, 동력, 원료를 원만히 대주고 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의 끊임없는 장성을 보장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더우기 오늘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는 것은 6개년계획의 전반적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화력발전소의 능력은 2.2배로 높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전력생산에서 석탄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당은 또한 이 기간에 흑색야금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연료에 기초한 제철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게 되며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빨리 발전시키게 된다. 이리하여 석탄은 공업의 동력으로, 연료로서뿐만아니라 현대화학공업의 귀중한 원료로서 더욱더 많이 요구된다.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만 이미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물론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들의 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금속, 비료, 세멘트 등 인민경제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의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

다.

현시기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을 새로운 더욱 높은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것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뿐아니라 이 부문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무엇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더욱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주도록 하며 그 첫사업으로서 석탄공업부문의 기계화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석탄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된 오늘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탄광작업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우리 나라 석탄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우리 탄부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실로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석탄공업발전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며 전반적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석탄공업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석탄공업의 발전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경제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을 다른 공업부문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침, 기존탄광들을 개건확장하는것과 함께 새 탄광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큰규모의 탄광과 중소규모의 탄광들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방침, 로천채굴을 널리 조직하고 모든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울데 대한 방침 그리고 채취공업에서 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할데 대한 방침 등 석탄공업발전을 위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방침들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석탄공업부문에 매해 거액의 투자가 실시되고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들이 돌려짐으로써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또한 석탄공업발전에 상응하게 대안체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새로운 탄광관리운영체계가 세워졌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많은 탄광들을 몸소 찾으시고 우리 탄부들의 로동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탄부들에게 공산주의의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라는 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들을 대자연정복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였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육친의 정으로 하나하나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지난 기간 석탄공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석탄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7개년계획의 높은 석탄고지를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에서보다도 제일먼저 점령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석탄생산량에서 이미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을 확고히 따라앞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석탄공업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끊임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였을뿐아니라 6개년계획수행에서도 석탄공업이 계속 앞서나가도록 또다시 이 부문에 전당적, 전국가적 지원을 돌릴데 대하여 배려하여주시였으며 인민경제 어느 부문보다도 어렵고 힘든 로동이 제일 많은 우리 석탄공업부문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부터 먼저 덜어주도록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전선을 전반적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첫돌파구로 규정하시고 년초부터 석탄공업부문에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석탄문제를 제일 먼저 풀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데 뒤이어 몸소 회천땅에서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심으로써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과 함께 석탄공업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는 인민경제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석탄공업부문에서도 올해 년초부터 더욱 커다란 생산적앙양을 끊임없이 일으킬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로 되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석탄전선에서는 올해 《100일전투》 기간에만 하여도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탄광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하고 새로운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굴뚫기와 채탄속도를 높임으로써 석탄생산을 훨씬 늘이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다.

참으로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위대한 봉화는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명에서도 일대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석탄공업부문에서 계속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적과업과 그 실현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오늘 석탄공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이 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석탄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만 석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생산과 기술 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특히 그이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석탄공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철저히 침투시켜 그들자신의 뼈와 살로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 부문 지도일군들로부터 매개 탄부들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그들모두가 수령님의 붉은 혁명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를 빛내이기 위하여 6개년계획수행의 진격로를 열어제끼는 어렵고도 보람찬 투쟁에서 있는 힘과 지혜와 열성을 다 내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이 제시한 3대기술혁명방침에 따라 탄광작업의 기

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광산과 유연탄광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하며 우리 나라 석탄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무연탄광들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8페지)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와 자동화를 적극 밀고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석탄공업발전을 위한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의 빨리 늘어나는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도, 이 부문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하루속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도 가장 절실한 문제가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신운동이다.

우리는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신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만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들수 있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중량기계들과 대형기계들이 마음대로 일할수 있도록 갱도를 건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무동발을 쇠동발로 바꾸며 굴진기막장에 종합굴진기, 착암대차, 버럭적재기 등 성능높은 굴진기계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갱건설과 굴진기를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한다.

채탄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는것은 오늘 석탄공업부문 기술혁신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원통식채탄기와 보습식채탄기 그리고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쇠동발을 널리 받아들여 채탄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이와 함께 석탄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채탄막장에 강력콘베아와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운반계통을 집중화, 대형화하며 점차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현대화된 탄광건설에 맞게 보다 밝은 조명과 발전된 통신수단, 자동화된 배수장치와 강력한 통기체계를 적극 받아들이며 로천채굴에서는 현존설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파쇄공정을 기계화하며 기계설비의 대형화를 적극 실현하여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기계공장들과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탄공업부문에서 탄광기계공장들과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만 탄광작업의 기계화를 다그치고 설비리용률을 높이며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는데 필요한 중요 설비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자체로 만들어쓸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는 탄광기계공장들과 탄광설비보수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그 생산능력과 보수능력을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새로운 탄광설비부속품공장, 탄광로동보호기구공장들을 꾸려야 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탄광기계설비들과 부속품, 로동보호기구들을 생산보장하며 설비를 제때에 보수하여 그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무동력직장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적극 만들어쓰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은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

의 하나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생산자대중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석탄공업부문의 기술혁신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며 우리 나라 탄광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 반자동화와 자동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석탄전선을 직접 말고있는 우리 일군들이 당의 석탄공업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어떻게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중요하게 달려있다.

금년 상반년도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와 당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모든 단위들에서는 례외없이 석탄생산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였다.

오늘 석탄공업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까지 완수하기 위한 결정적고리는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철저히 실현하는데 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연을 정복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기술혁명에서도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상혁명,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지 않고서는 혁신을 일으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신운동을 막아나서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것을 대담하게 짓부시고 집단적혁신운동을 일으켜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탄광지도일군들은 당면한 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특히 자체의 공무동력기지와 기술력량을 옳게 틀어쥐고 석탄생산의 모든 공정에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며 매개 탄부들에 이르기까지 기술혁신과제를 똑바로 주고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지도방조하며 기술을 혁신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전선을 담당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빠른 시일안에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탐사와 굴진기를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너넉히 마련하며 중소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등 모든 분야에서 당의 석탄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는 장마철에 석탄생산을 정상화하고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탄광지도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며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 끝장을 내고야마는 혁명적인 사업 체계와 방법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로력을 절약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현시기 석탄생산을 늘임에 있어서 매우 절박한 과업이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키우고 엄격한 규률을 세워 로력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한사람이 두몫, 세몫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보호사업을 강화하여 로동자들이 어디서나 안전한 조건에서 일하게 하며 한건의 사고도 내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아하는 우리 탄부들에게 돌려주시는 두터운 배려가 그들에게 제때에 더 잘 가닿도록 하는것은 탄광지도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탄광지도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가 높을수록 그들의 생활에 더 깊은 관심을 돌리며 고기, 달알, 남새, 기름 등 여러가지 부식물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오직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전당이 석탄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며 기계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석탄공업을 적극 지원하여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생산은 전반적인민경제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밑에서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

6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전당과 전국이 달라붙어 석탄전선을 지원하는것은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 탄부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요구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탄광작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과 중요자재들을 더 많이, 더 좋게 만들어 제때에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유압식종합기계동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쇠동발과 채탄기, 종합굴진기, 착암대차, 강력콘베아, 압축기, 권양기, 적재기, 전차, 전기기자재, 공작기계 등 질좋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여 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철강재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와이야로프, 배관, 여러가지 레루와 규격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며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도 철강재를 극력 절약하여 석탄전선을 지원하며 주강로를 가지고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파철을 리용하여 주강동발을 많이 생산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림업 및 건재공업 부문, 화학공업을 비롯한 련관된 부문에서는 탄광들에 필요한 동발나무와 세멘트, 여러가지 화학 자재와 제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며 교통운수부문에서는 탄광작업의 기계화에 요구되는 물동을 먼저 실어주며 캐낸 석탄을 지체없이 실어날라야 한다.

인민경제의 빨리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뿐아니라 석탄을 쓰는 모든 곳에서 그것을 극력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석탄문제를 푸는데서도 절약은 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근로자들속에서 석탄절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석탄을 아끼지 않고 랑비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 힘들여 캐낸 석탄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탄광작업의 기계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키자.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현단계의 남조선혁명앞에 나선 중요과업

최 원 흡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로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교훈과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남조선혁명의 당면한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파쑈민주화에 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며 강력한 혁명력량을 꾸리고 그를 정권전취를 위한 결정적투쟁에로 가장 빨리 준비시킬수 있게 하는 진공적인 방침이다.

이 독창적인 방침은 현단계에 있어서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승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파쑈민주화투쟁에 관한 방침과 전술적지도에서 제기되는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알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혁명발전에 더욱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현실태와 그 발전전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9～90페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는것이 현시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이 전례없이 우심해진 조건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면서 현시기 당면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혁명의 전략전술적과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빛나게 수행하며 혁명승리를 최대한 앞당길수 있게 하는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파쑈민주화투쟁방침은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며 그를 정권전취를 위한 전략적과업해결에 복종시킴으로써 혁명의 유리한 국면을 개척할수 있게 하는 가장 탁월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과학적인 혁명리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서 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각성단련시키고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앞당길데 대한 원칙적립장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현시기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강화하는것이 남조선혁명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며 혁명승리를 추진하는 중요담보로 되는 근거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남조선의 혁명정세와 그리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수준과 대중운동발전수준에 맞게 혁명운동을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있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을 뒤덮고있는 미제와 박정희도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혁명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짓밟히고 파쑈적폭압이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있을수 없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할수 없고 혁명운동이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미제의 예속화정책과 전쟁정책의 산물로서 그것은 력사상 류례없는 횡포성과 악랄성을 띠고있으며 제국주의식민지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와 전쟁정책 실현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파쑈적인 살인악법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켜놓았다. 놈들은 인민대중의 온갖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데 폭압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언론, 출판기관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파쑈통치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인민들의 사회정치생활의 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당면한 생활상 요구도 실현될수 없고 어떠한 사회적진보도 바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의 초보적요구마저 무참히 짓밟히고있을뿐아니라 로동시간단축,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상 요구도,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도 가혹한 탄압을 받고있으며 남북간의 접촉과 조국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도 총칼의 탄압과 형벌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충실한 개 박정희괴뢰도당의 횡포무도한 군사파쑈적폭압은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으며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오직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때만이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고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민주화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식화정도와 대중운동발전의 현수준에 맞게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혁명은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며 그것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따라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투쟁과업과 형태는 대중의 요구와 각오정도에 따라 규정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있고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킬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대중의 의식수준은 혁명의 객관적요구의 높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대중운동은 투쟁구호와 투쟁형태, 투쟁에 인입되는 계급계층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성을 띠고있다. 발전하는 혁명정세는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각성시켜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며 대중운동을 결정적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선 대중의 준비정도와 절박한 리해관계에 맞게 반제,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

면서 그를 확고한 군중적지반우에 올려세워야 하며 전략적과업은 해결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투쟁에로 점차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발전시키는것이 혁명승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특히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대중적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빨리 장성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혁명의 승리를 바라는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우연적인것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됩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9페지)

혁명승리는 우연적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여야만 달성될수 있다.

따라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키워나가는것은 혁명준비기의 전기간에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중심적인 전략적과업이며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도 결국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앞당기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대중투쟁은 인민들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촉진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의 구호밑에 모든 합법적가능성을 리용하여 각종 투쟁을 적극 벌리는것은 투쟁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빨리 각성단련시키고 그들을 투쟁조직과 혁명적군중단체들에 묶어세우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이 심화발전되여 군사파쑈독재가 타도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혁명적당의 합법적활동과 군중단체들의 자유로운 조직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것이며 그를 통하여 혁명력량은 비상히 장성강화될것이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이렇듯 현단계의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당면투쟁과업으로서 그를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대중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혁명의 전략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제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현단계의 남조선혁명의 당면과업으로 제시하심과 함께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에서 민주화투쟁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그에 대한 전술적지도원칙과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대중적운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정치투쟁과 이여의 모든 형태의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9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정치투쟁과 경

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의 민주화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을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대중투쟁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사회정치생활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는것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본질적내용을 이루며 대중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남조선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의 합법적지위가 보장되여야 하며 모든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선진사상을 선택하며 자기의 의사를 발표하며 자기의 리념을 선전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는 강력한 정치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수 있으며 그것은 경제투쟁과 결합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기본을 이루는 정치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진다. 정치투쟁이 없이는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도 쟁취할수 없으며 정치투쟁을 떠난 혁명운동이란 생각할수 없다.

당면한 생활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은 그자체로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나 대중투쟁을 점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며 정치적으로 뒤떨어진 계층까지도 투쟁에 끌어들여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게 한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이 두가지 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객관적요구로 될뿐아니라 이 투쟁을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진다.

원래 사회의 민주화투쟁은 정치투쟁이긴 하나 정치투쟁 하나만으로는 민주화를 옳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자면 우선 사회정치생활령역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근로대중의 안정된 생활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경제생활의 안정이 없이 민주주의가 충분히 발휘될수 없다. 또한 경제투쟁은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이 강력히 전개되는 조건에서만 성과있게 진행될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만 정치투쟁도 잘하고 경제투쟁자체도 발전시켜 근로대중의 근본리익과 당면한 리익을 다같이 구현해나갈수 있다.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이야말로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국에 처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진 남조선의 현실정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놈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며 투쟁을 빨리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정확한 전술적지도원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하는것과 함께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청년학생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청년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그들의 민족적 및 사회적 처지와 특성, 민주주의적 혁명성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그들의 선도적역할은 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게 한다.

청년학생운동의 이러한 혁명적지위와 역할은 이미 4.19인민봉기와 3.24투쟁, 6.3봉기, 《3선개헌》반대투쟁 그리고 금번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선거》반대투쟁 등 대중투쟁의 발전과정에서 명백히 실증되였다. 오늘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원쑤들의 야만적인 파쑈적폭압을 박차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 및 전쟁 정책과 박정희괴뢰악당의 협잡선거와 장기집권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청년학생운동을 철저한 혁명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은 그를 목적의식화하면서 기본군중의 투쟁과 결합하는것이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목적의식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로동계급의 계급적 관점과 립장, 태도와 방법을 부단히 체득시키며 정확한 구호를 가지고 투쟁을 벌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확한 투쟁구호는 당의 정치적목적과 청년학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투쟁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는것으로 하여 청년학생운동의 목적의식적발전과 승리를 보장하는 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학생운동을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를 기본군중의 투쟁과 결합시키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운동은 오직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만 진정한 혁명운동으로 될수 있으며 해방투쟁에서 위대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19～120페지)

청년학생운동을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를 로동자, 농민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반제,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의 혁명적역할과 청년학생운동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운동은 학원의 민주화를 비롯한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며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은 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따라서 청년학생들의 민주주의운동이 로동자, 농민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그것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계급적리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진정한 혁명운동으로 될수 있으며 로동자, 농민의 정치투쟁도 빨리 확대발전할수 있다.

식민지반봉건사회인 남조선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은 사회의 기본계급으로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의 주되는 력량이며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킬 때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가장 정확한 전술적원칙에 기초하여 확대발전시킬수 있으며 남조선혁명운동발전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고 혁명승리를 앞당길수 있다.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독재를 짓부시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망라한 대중적투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남조선의 모든 혁명력량과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대중적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승리할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합된 힘으로 대중적인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혁명투쟁의 일반적합법칙성과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한 전술적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혁명에서 광범한 계급계층을 전취하고 반혁명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

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전략전술의 기본요구의 하나이다.

남조선에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인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군사파쑈테로통치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는 혁명력량,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는 강력한 대중적투쟁을 벌려야만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등 광범한 계급계층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독재밑에서 가혹한 착취와 민족적억압을 받고있으며 다같이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을 광범한 대중적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남조선의 중간세력을 포함한 광범한 반파쑈, 반독재 력량은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독재를 짓부시기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려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 놈들의 파쑈폭압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할수 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파쑈민주화투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의 하나는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당면한 모든 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의 전반적발전과정의 한부분을 이루는 반파쑈민주화투쟁도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반드시 전략적과업수행을 위한 보다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발전되여야 한다는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의 직접적인 대상은 군사파쑈독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늦춰도 된다는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군사파쑈정권을 타도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도구를 파괴하고 놈들의 지탱점을 허물어버림으로써 원쑤들을 보다 성과적으로 타승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남조선의 반동적인 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화할수 없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할수 없으며 반미투쟁도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당면한 모든 투쟁을 반드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혁명력량을 철저히 준비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혁명적폭력은 혁명적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실현하며 혁명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유일하게 옳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에서 반혁명적폭력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는 혁명적폭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발전하여 투쟁이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갈수록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더욱더 필사적으로 반항해나서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반혁명적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혁명력량이 일상적으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력사는 아직까지 그 어떤 식민지통치자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해 타도됨이 없이 스스로 제놈들의 지배권

을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둥지를 틀고있으며 놈들은 갖은 교활하고 야수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유지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의 군사파쑈적폭압을 반대하여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리면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설수 있는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해나가야 하며 결정적투쟁으로 원쑤들을 철저히 때려부셔야 한다.

*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반파쑈민주화에 관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쓸어버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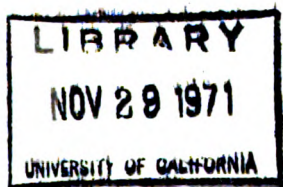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파쑈민주화투쟁에 관한 방침은 민주주의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력사적조건과 혁명투쟁의 실천적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사상으로서 그것은 현시기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는 당면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이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대중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급속히 심화발전될것이며 필연적으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쓸어버리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거세찬 반미구국항쟁으로 전변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밑에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총칼과 온갖 사기와 협잡, 정치적모략으로 전례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또다시 괴뢰대통령감투를 눌러썼으나 제놈의 장기집권과 매국배족행위를 반대배격하는 남조선인민대중의 강력한 항거와 준엄한 심판을 면치못할것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반파쑈민주화투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단련될것이며 반드시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악당을 쓸어버리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 7 호 (루계 352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7월 1일　　발행 • 1971년 7월 5일
ㄱ—14224　　값 50 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8 호 (353)

차 례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존경하는 캄보쟈의 귀한 손님 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평양시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비롯한 캄보쟈의 귀한 손님들과 상봉하게 되는 커다란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며 견결한 반제투사이며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모니크 시하누크친왕부인 그리고 친왕의 가족 및 친척들과 그밖의 캄보쟈손님 여러분들을 다시금 열렬히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과 전체 애국적캄보쟈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이번에 국가원수친왕께서 또다시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것은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입니다. (우렁찬 박수)

그동안 우리 인민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오래 헤여졌던 친형제를 다시 만나는것과 같은 기쁜 심정을 가지고 당신들을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

친왕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싸우는 캄보쟈인민에 대한 굳은 전투적련대성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조선과 캄보쟈는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전선으로 잇닿아 있습니다.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캄보쟈인민의 형제적친선의 정과 아울러 반미구국항전에서 캄보쟈인민이 거두고있는 빛나는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하여준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새로운 큰 고무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국가원수친왕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괴뢰고용병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서 회생성과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700만의 캄보쟈인구가운데서 400만의 주민들을 망라하는 전국령토의 10분의 7을 이미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박수) 이것은 매우 큰 정치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승리입니다. (우렁찬 박수) 캄보쟈민족해방인민무장력은 지난 건조기의 9개월동안에만 하여도 캄보쟈의 여러 지역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괴뢰고용병들에게 련이어 섬멸적타격을 가하였으며 캄보쟈해방지역을 전국해방의 믿음직한 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박수)

우리는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이 모든 성과를 자신의 승리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캄보쟈인민이 거둔 이 승리는 바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특히 이 승리는 국가원수친왕께서 지난 시기 일관하게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정당한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쌓아올린 커다란 공적과 인민들속에서 누리고있는 국가원수친왕의 두터운 신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애국적캄보쟈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가혹한 전쟁을 겪고있는 오늘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지난날 국가원수친왕께서 견지하여온 대내외정책들이 전적으로 옳았다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국가원수친왕을 더욱 높이 존경하며 그의 두리에 날로 굳게 뭉쳐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도 국가원수친왕의 력사적인 1970년 3월 23일 5개항목선언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로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국가원수친왕의 친근하고 강력적인 목소리는 날마다 온 캄보쟈땅에 울려퍼져 싸우는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원쑤들에게는 커다란 공포감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캄보쟈민족통일전선의 기치와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의 령도밑에 조국을 완전히 해방할 때까지 추호도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타협도 없이 미제를 반대하여 계속 싸울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께서는 캄보쟈인민에게 보내는 스물네번째와 스물다섯번째 편지에서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가 캄보쟈인민의 성스러운 반미구국항전을 완전한 승리에로 이끌어갈데 대한 결의를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시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은 용감한 반제투사로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위업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두터운 신임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국가원수친왕이 지닌 높은 국제적신망으로 하여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는 캄보쟈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서 이미 세계의 27개 주권국가들의 공식적승인을 받았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날로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국제무대에서 참말로 반제기치를 들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령도하는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를 승인하며 미제의 앞잡이 론 놀—시리크마타크반역도당을 단호히 배격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로 되고있습니다. (박수)

지금 애국적캄보쟈인민의 투쟁기세는 매우 높으며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종국적승리의 앞길이 환히 열려져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의 앞잡이 론 놀—시리크 마타크 반역도당은 프놈펜의 좁은 지역에 포위되여 날로 심해지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허더이고있으며 그들의 명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어용출판물까지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이 멀지 않아 반드시 자기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게 될것이며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독립되고 평화롭고 반제적이며 인민적인 번영하는 새 캄보쟈를 건설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합니다. (우렁찬 박수)

캄보쟈인민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두고있는 승리는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반제해방투쟁에 큰 기여로 되며 우리 인민의 반미투쟁에 대한 귀중한 지원으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세계의 어느곳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든지간에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고 캄보쟈인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령도하의 왕국민족련합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캄보쟈인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다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또다시 엄숙히 천명합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오늘 캄보쟈인민을 비롯하여 인도지나 인민들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고있을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침략전쟁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전쟁의 불길을 웰남민주공화국과 캄보쟈, 라오스에로 확대하였으나 그것은 침략자들자신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을뿐입니다.

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인도지나인민들의 수뇌자회의의 전투적기치밑에 굳세 단결하여 나아가는 인도지나인민들의 불굴의 영

웅적투쟁앞에서 미제가 악명높은 《닉슨주의》의 간판밑에 추진시키고있는 전쟁의 《웰남화》계획과 《인도지나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책동도 전면적으로 파산되여가고있습니다.

웰남인민은 불굴의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무력침략을 용감하게 짓부시고 미제의 《불패성》에 대한 신화를 다시한번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평화와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박수) 웰남인민은 호지명동지의 신성한 유언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전선에서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라오스인민은 올해에 남부라오스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침공작전을 용감히 짓부셔버리고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적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면서 해방전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요즘 미국안에서 폭로된 미국방성의 웰남침략전쟁에 관한 비밀문건은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한 범죄의 장본인이 바로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앞에 더욱 남김없이 폭로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머물러있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침략전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자기의 모든 륙해공군침략군과 추종국가 및 괴뢰들의 군대들 그리고 온갖 살인무기들과 전쟁수단들을 모조리 걷어가지고 무조건 완전히 물러가야 합니다. (박수)

우리는 이 기회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형제적웰남인민과 라오스인민의 정의의 구국투쟁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며 얼마전 웰남에 관한 빠리회의에서 남부웰남공화 림시혁명정부대표단이 제기한 웰남문제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7개 항목의 새로운 발기와 라오스애국전선이 라오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난 4월 27일과 6월 22일에 제기한 새로운 제의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인도지나 세 나라 인민들이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침략자들의 마지막 한놈을 때려눕힐 때까지 견결히 싸움으로써 반드시 영광스러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동지들과 벗들!

오늘 아세아는 혁명적폭풍이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생명선이 끊어져가고있습니다.

바로 아세아에 혁명하는 나라들, 또한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그들의 단결이 강하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집중하여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민족해방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침략책동을 다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단결된 이 지역 인민들의 단호한 반격에 부딪쳐 패배를 거듭함으로써 아세아에 더이상 그대로 버티고있을수 없는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갔으며 오늘 마침내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전면적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미제가 조선침략전쟁에서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래 인도지나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심

대한 패배를 당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발악적책동도 이미 기울어진 그들의 운명을 결코 건질수 없으며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가로막을수도 없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습니다. 미국안에서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대중적으로 앙양되고있으며 경제의 침체와 통화팽창은 지속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국제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적불안은 날로 심화되고있으며 지배층내의 모순은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미제가 그의 침략무력을 세계곳곳에 분산배치하여놓은 군사전략상 약점은 갈수록 드러나고있으며 시장과 세력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은 날로 첨예화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인도지나를 비롯하여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계속 얻어맞고 녹아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가는 저들의 처지를 건져내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으로서 악명높은 《닉슨주의》를 내놓고 이른바 정책변경에 대하여 떠들면서 보다 교활하고 모험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여나섰으나 이것 역시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의 혁명력량을 공격하는데서 큰 힘을 넣은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봉쇄하고 질식시키려는것이였습니다.

중국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하자 미제는 처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적대시하며 모든 반동세력들을 동원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켜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인민에 대한 군사적침략위협과 적대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제의 봉쇄 및 고립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질식되기는커녕 아세아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강국으로,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요즘에 와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로 승인하고 그와 외교관계를 설정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였으며 미제의 중국봉쇄정책은 수치스러운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막다른골목에 빠져들어간 력사적환경에서 얼마전 닉슨은 자기의 중국방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위대한 혁명적변혁과정을 《힘》으로써 저지시켜보려고 스무해이상이나 무모하게 추구하여온 미제의 중국적대시정책이 마침내 완전히 파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며 미제가 세계의 강대한 반제혁명력량의 압력앞에 드디여 굴복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렁찬 박수)

결국 닉슨은 지난날 조선전쟁에서 패배한 미제침략자들이 판문점에 흰기를 들고 나오듯이 베이징으로 흰기를 들고 찾아오게 된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모든 사실은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의 붕괴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닉슨의 중국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세계에서는 여러가지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닉슨의 중국방문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니라 패배자의 행각이며 미제국주의의 서산락일의 운명을 그대로 반영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의 큰 승리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승리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반제혁명투쟁을 하여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적들의 창끝에는 창끝으로 맞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적들의 기만전술에는 혁명적원칙성으로 대하여 그것을 짓부셔버린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세련되고 단련된 당이며 인민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도 중화인민공화국은 아세아반제혁명력량의 믿음직한 기둥으로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견결히 맞서 투쟁하고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세아와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을 적극 지원하고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기의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견지할것이며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계속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는것을 천명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지금 닉슨의 중국방문계획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진영내부는 새로운 혼란과 와해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미제에 진심으로 추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시하여오던 일본수상 사또는 당황망조하여 매일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반동적정책의 파산을 가리워보려고 날뛰고있습니다. 미제에 맹종하여오던 그밖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도 모두 갈팡질팡하고있으며 특히 장개석도당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일대 불안과 공포에 싸여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날을 따라 우리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혼란에 빠져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세찬 공격을 들이대여 제국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박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여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옛진지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인도지나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여러가지 군사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아세아의 전반적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있습니다.

미제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가 재생됨으로써 아세아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

여가고있습니다.

1969년 11월의 미일 《공동성명》으로부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자동연장과 얼마전에 있은 미일간의 《오끼나와반환협정》의 체결에 이르는 모든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이미 공공연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얼마전에도 미제는 미국방장관을 직접 일본과 남조선에 보내여 일본침략무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그들이 미군대신으로 아세아침략작전을 담당하도록 하며 남조선에서의 《미, 일, 한 공동작전체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모의를 꾸미게 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에 편승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망상하면서 국내체제의 파쑈화를 다그치고있으며 해외침략의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습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입만 벌리면 일본이 《아세아의 주역》을 놀아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남조선, 대만, 인도지나를 포함하는 아세아의 넓은 지역을 저들의 《방위권》으로 선포하고 조선전선에 일본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추진시키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쑤들의 최후발악적인 《량면전술》에 언제나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어떠한 흉계도 제때에 짓부셔버림으로써 죽어가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아세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없애며 참다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조선과 대만에서, 인도지나와 일본에서 그리고 그들이 발붙이고있는 아세아의 모든곳에서 물러가야 하며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무장시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일반동들이 다른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그 나라 인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그만두어야 하며 매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 인민들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렁찬 박수)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물러가지 않고 침략책동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인민들의 단합된 투쟁에 의하여 모든곳에서 쫓겨나고말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에 대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그들의 침략을 직접 당하고있는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되여왔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책동은 조선, 캄보쟈, 중국, 윁남,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인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줍니다.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언제나 어깨겯고 일치한 보조로 싸워왔으며 실생활을 통하여 자기들의 운명이 서로 분리

될수 없다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아세아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공모결탁에 의한 침략과 전쟁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지난날 한전호속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싸워이긴것처럼 앞으로도 혁명전우로서, 형제적동맹자로서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만단의 태세를 더욱 굳게 하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바로 얼마전에도 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열돐을 계기로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당및정부대표단들이 교환되고 두 나라의 수도 평양과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 성대한 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습니다. 이 기념행사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함께 싸워이기려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피로써 맺어졌으며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형제적 친선단결은 불패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제적중국인민과 함께 나갈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모든 지역의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일본인민과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아랍인민의 투쟁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의 공고화를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투쟁과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미제국주의자들이 지금은 비록 허장성세하지만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모두 달라붙어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박수)

일본군국주의자들도 침략의 야망에 사로잡혀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쓰라린 참패로부터 교훈을 찾지 않고 또다시 옛침략의 발자취를 따라 나간다면 그들 역시 종국적멸망의 비참한 운명을 면하지 못할것입니다. (박수)

동지들과 벗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지 않고 의연히 주저앉아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려고 발악하며 미제의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오늘 우리는 한순간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어떤 불의의 사태에서도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사회주의경제건설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덤벼들 때에는 어느때나 그들을 철저히 때려부실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갖추어놓았습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성과에 고무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꺾어버리며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혁명의 편에 날로 유리하게 전변되는 정세발전에 겁을 먹은 남조선의 현 괴뢰도당은 미제의 옷소매에 계속 매여달리는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의탁하여 여명을 부지하여보려고 부질없이 날뛰고있으며 저들의 매국배족적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막을수 없는 기세로 높아가는 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기 위하여 모략적인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더욱 소란스럽게 떠들고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도당의 이 어리석은 기만적모략책동은 그 누구를 속일수 없으며 자기들의 기울어진 운명을 구원하지도 못할것입니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힘쓰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4월에 8개 항목으로 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또다시 내놓았습니다. (박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이 공명정대한 평화통일방안에 대하여 이번에도 아무 대답이 없이 그저 빈말로만 《평화통일》을 운운하고있습니다. 만일 남조선위정자들이 정말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선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할것이 아니라 그들을 남조선에서 나가게 하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것을 그만두며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및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그들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협상에 나설수 있도록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8개 항목 평화통일방안을 접수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딴 문제로 치더라도 그들이 참말로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무엇때문에 남북이 접촉하고 협상하는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

남조선위정자들이 남북간의 초보적접촉마저도 거절하면서 이른바 《평화통일》에 대하여 입으로 떠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민들의 더큰 증오와 분노를 사게 될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배양》이 될 1973년도이후시기 또는 1970년대후반

기에 가서야 통일문제가 론의될수 있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있는데 그 속심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그때까지 남조선에 전면적으로 끌어들인 다음 이른바 《승공통일》의 망상을 실현해보겠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선사람끼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지지성원밑에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왕국은 오래전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을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로 인정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왔습니다. (우렁찬 박수)

나는 이에 대하여 노로돔 시하누크친왕과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왕국민족련합정부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은 전투적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쟈인민과 같은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을 자기의 친근한 벗으로 가지고있는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단결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이번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의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하고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 있어서뿐아니라 아세아 혁명적나라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보다 강화발전시키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위업을 촉진시키는데 새로운 큰 기여로 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끝으로 우리 인민이 반미공동투쟁에서 앞으로도 캄보쟈인민과 영원히 어깨겯고 함께 싸워나갈것이며 그들의 믿음직한 전우로, 동맹자로 남아있을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하면서 존경하는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의 현명한 령도밑에 용감한 캄보쟈인민이 반미구국투쟁에서 보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위원장으로 하는 캄보쟈민족통일전선과 캄보쟈왕국 민족련합정부 만세!

아세아 혁명적인민들의 단결 만세!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모두 일어서서 장내를 뒤흔드는 만세소리, 폭풍같은 환호,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 발표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6년 8월 5일 중앙당학교 제1회졸업식에서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스물다섯돐이 된다.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가 이룩된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특별한 감회에 잠겨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인 연설을 되새겨보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연설에서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당의 립장과 사상 즉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지키는 혁명투사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곤난한 환경에서도 언제나 우리 당의 립장과 사상을 튼튼히 지키는 혁명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우리 선렬들은 원쑤들의 단두대에서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여러 동무들도 우리 당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선혁명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끝까지 고수하여야만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은 우리 당의 참된 아들딸로서 인민들의 응당한 사랑과 지지를 받게 될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곤난앞에서 조금이라도 동요한다면 반드시 력사의 전진에서 뒤떨어지고말것입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주체사상의 전통에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주체적립장을 지키며 조선혁명의 리익을 고수하여 싸워야만 조선의 참된 혁명가가 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수령께서는 이 연설에서 또한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을 믿고 그들을 조직동원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애국력량을 결속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또한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제시하시면서 **《원쑤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결속된 강철의 대오로 만드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인 연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전반적혁명반전을 다그치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라는 연설을 하신 당시 우리 나라 정세는 복잡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을 침략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고 국내반동들도 미제의 비호밑에 인민을 반대하여 날뛰였다.

당내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각종 기회주의적사상을 퍼뜨리면서 인민들을

혼란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오늘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과 인민이 걸어온 전행정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 자랑찬 로정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였기때문에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할수 있었다.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후 불과 몇해사이에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이 관철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공고화되였다.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으로 가득차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세계혁명운동의 전반적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의 빛나는 열매이며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증명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싸워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과 위대한 성과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할 때 그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뚫고 더 큰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신심과 결의를 굳게 하여준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이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혁명적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책임성,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제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책임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적용하여나가는 창조적인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요구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립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자기 임무를 다할수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데 있다.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기본임무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주제는 곧 자기 나라 혁명이다.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해서는 그 나라 당이 책임지고있다. 또한 매개 나라의 실정을 잘 아는것도 그 나라 당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처리해나가는데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주적립장을 지켜야 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독자성과 자주성을 가질 때에만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바른 혁명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만일 주체를 잃고 사대주의에 빠지면 독자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여 이때한 창발성도 발휘할수 없게 되며 나중에는 옳고 그른것도 가리지 못하고 남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자주성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나라 내부예비를 동원하지 못하게 되며 모든것을 남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자주성과 독자성을 잃게 되면 로선과 정책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으며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다 범하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야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며 자기 나라 건설은 자기 인민의 로동과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립장이다.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당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남에게 의존하여서는 혁명도 건설도 할수 없다. 그 누구도 주인을 대신하여 혁명을 해줄수는 없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는것이다. 혁명의 승패는 무엇보다먼저 매개 나라 당이 자체의 혁명력량을 어떻게 꾸리고 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물론 매개 나라의 혁명은 세계혁명과의 련관속에서 발전하며 국제혁명력량의 지원을 받는다. 혁명과 건설에서 국제적 지지와 원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것은 내부요인이며 외부의 지지성원은 보조적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다.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고 주인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과 건설에서 큰 은을 낼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자기의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자력갱생을 위주로 하고 외부의 지지성원은 부차적인것으로 여기는 정신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서 자체의 힘을 믿고 거기

에 의거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혁명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으며 사소한 곤난앞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잃고 동요하고 주저앉거나 소극성과 보수주의에 빠지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에서의 전진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력사적경험은 남에게 맹종맹동하려는 사상을 뿌리빼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전진도상에서 제기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 혁명투쟁의 승리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창조적립장을 지켜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혁명과 건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에서 언제나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지켜야만 혁명을 옳바른 방향에로 이끌수 있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인 학설이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합되여야만 세계를 개조하는 무기로서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게 된다.

맑스-레닌주의원리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명제를 제시할뿐이고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줄수는 없다. 나라마다 혁명발전단계가 다르고 혁명정세와 조건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의 수행방도도 똑 같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여 나가야 한다. 만일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기성명제나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따버릇한다면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할수 없게 된다.

더우기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에서 혁명운동이 확대되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은 지난날에는 제기되지 않았거나 예견하지도 못하였던 수많은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을 련이어 제기한다. 로동계급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주체적립장에 서서 맑스-레닌주의원리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뿐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만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참으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성과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필연적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사상리론실천적무기이다.

주체사상은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동시에 민족리기주의와 민족배타주의도 철저히 반대한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상은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을뿐더러 도리여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체를 세우는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잘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기 위한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임무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국제적혁명임무에 충실할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추진시키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그것이 확대발전되는 과정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잘되여야만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혁명적인민들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성의껏 지원할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임무를 다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운동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참다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이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력사는 곧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며 주체사상이 모든 분야에 구현되여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한 력사이다.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그러하였다.

조선인민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첫날부터 외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왔으나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했던 투쟁의 첫시기에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따라 전진함으로써 비로소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 나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을 이끄시게 된 1920년대말～1930년대초 우리 나라 형편은 참으로 간고하고 엄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식민지테로통치와 살인적인 략탈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실정에 적용할만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리론도, 실천적경험도 없었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진행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으로서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였다. 그리하여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부터 구체적인 투쟁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오직 맑스-레닌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새롭게 탐구하고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하였으며 오직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투쟁의 앞길을 개척하여나가야 하였다. 이것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울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은 사대주의로 하여 막대한 해독을 입었다. 지난날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 침략자를 물리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등에 업고 여러 파로 갈라져 권력다툼만 하였기때문에 결국 나라를 일제에게 강점당하고말았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초기에도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은 우리 현실에 발을 붙이고 투쟁의 길을 찾으며 자체의 혁명력량을 꾸리고 혁명투쟁을 전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제로선》이요 뭐요 하면서 남의 풍에 놀며 파벌싸움만 일삼다가 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고말았다.

사대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혁명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 민족과 혁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과학적

으로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의 이 근본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심으로써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조선혁명은 맑스-레닌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자체의 지도사상과 지도리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구체적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항일무장투쟁로선은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수행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철저한 혁명적로선이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일대전환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로선이였다. 그것은 조선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념원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유일하게 정확한 반일민족해방투쟁로선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적무장투쟁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제당의 《승인》을 운운하면서 제각기 《공산당》간판을 내거는것으로 당을 창건하려는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물리치시고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혁명적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과 국제적으로 반제반파쑈통일전선운동의 선구자적모범으로 된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비로소 정확한 투쟁의 길을 찾게 되였으며 혁명대렬은 유일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하게 나아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맑스-레닌주의적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으며 유격전쟁의 아무러한 교범도 경험도 없는 조건에서 새롭게 무장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시여 항일유격대를 부단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밖으로는 적들의 반악적공세를 쳐부시는 한편 안으로는 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온갖 파괴책동을 물리치는 심각한 투쟁을 통하여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유격근거지내에서 쏘베트형태의 정권을 세우며 당장 사회주의적시책을 실시하려고 한 사대주의자들의 교조주의적, 좌경기회주의적 책동을 반대배격하시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관철하심으로써 유격근거지와 혁명대오를 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제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정권형태를 밝힌 로선으로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1930년대전반기에 사대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서로 대치시키면서 민족적임무를 부인해나섰으며 극좌적인 행동으로 혁명대렬을 혼란시키고 조선혁명앞에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원칙성과 강의한 의지와 명확한 론리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민족적임무를 부인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반맑스주의적견해와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자주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며 당창건준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까지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전국적범위에서 앙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집대성한 그 10대강령을 반포하시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극복되고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으며 1930년대후반기에 조선혁명은 새로운 일대 앙양을 가져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심오히 천명하시였으며 1938년에 조선혁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주체를 세우고 주체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의 전통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전략전술로 항일유격대원들,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히 무장되였으며 혁명대렬내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가 세워졌다.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이 보장되고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높아졌다.

수많은 혁명투사들, 공산주의자들이 육성되고 혁명의 골간부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모든 혁명투사들,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이 이루어졌으며 혁명투쟁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고 주체로선을 관철한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철저하게 주체적로선, 주체적립장, 주체적력량에 기초하여 전개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영광스러운 투쟁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줄기차게 전개되면서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력사를 금문자로 장식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릴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기치밑에 싸웠기때문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원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주체를 세워 조선혁명을 잘하는 동시에 주체사상의 기본요구로부터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중국공산주의자들, 중국인민의 반일력량과 반제공동전선을 맺고 함께 싸움으로써 중국혁명을 피로써 지원하였다. 또한 일제가 쏘련과 몽골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을 때 적을 배후에서 타격하는 수많은 전투들을 진행함으로써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였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몽골인민의 투쟁을 도와주었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조건에서도 항일무장투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세계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위대한 주체의 전통,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해방후 조선혁명의 승리적발전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튼튼한 터

전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해방된 우리 나라 현실에 구현하시여 가장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고 우리 인민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는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는 한편 반동세력을 긁어모아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의 지반을 꾸리면서 전조선을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려고 미쳐날뛰였다. 사대주의자들, 종파분자들은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어떤자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부르죠아공화국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었고 어떤자들은 우리 혁명의 성격도 모르고 즉시 사회주의혁명을 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새 조국 건설에 일떠선 인민들을 혼란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사대주의에 물젖은 적지않은 사람들은 조선문제가 어떤 외부세력들에 의하여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만 쳐다보고있었다.

실로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였다.

이 엄숙한 시기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주체적인 혁명로선, 혁명적민주기지창설로선을 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당은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고 민주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장차 조선민족을 완전히 해방하며 조선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를 북조선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적인 정치로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주기지창설로선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나라의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기지로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철저하게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서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바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시고 내놓으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하여 우리는 주체적혁명력량을 빨리 꾸릴수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모든 반동세력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혁명과 건설을 진공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꾸리시고 조선인민을 혁명과 건설에로 승리적으로 조직동원하시기 위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여 통일적인 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제각기 《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날뛰던 종파분자들의 음모행위와 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맑스-레닌주의적당건설원칙에 튼튼히 서서 당을 창건할수 있게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독창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관철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짧은 시일내에 강철같은 혁명적당으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진정한 인민정권수립을 방해해나선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시고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축적하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제형의 인민정권을 세우심으로써 혁명에서 근본문제인 주권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이 통일되기전에 무슨 군대가 필요한가?》고 떠드는 반당분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자위의 원칙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였다.

당과 인민정권과 인민군대가 창건되고 광범한 군중이 당주위에 튼튼히 뭉침으로써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주동적으로 추진시키고 보위할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와 혁명의 무기가 마련되고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꾸려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당의 립장과 사상을 고수하는 혁명투사가 되라》를 비롯하여 일련의 연설과 로작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립장을 고수하고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할것을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민주개혁방침을 제시하시고 북반부에서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먼 장래까지 예견하신 민주주의적사회경제개혁을 가장 철저히 실현하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민주기지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일찌기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주기지창설로선이 구현됨으로써 북반부는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져졌다.

만일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제때에 튼튼히 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할수도 없었을 것이며 조선혁명의 오늘과 같은 발전을 생각할수도 없을것이다.

혁명적실천과 력사적경험은 다시한번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싸워나감으로써만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으며 힘겨운 결사전이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싸워 끝내 미제를 타승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군사분야와 사상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하심으로써 우리 혁명력량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시였으며 전쟁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기본도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과 군인들속에서 당사업,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당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혁명의 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로 그 중심을 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사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지리적특성과 우리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남의 전법을 기계적으로 본따려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군사과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전쟁에서 정치사상적요인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종과 병종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나라의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많은 새로운 군사 전략과 전술을 내놓으시였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확증하시였다. 또한 수령께서는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 적의 배후에서의 제2전선의 형성, 갱도전, 습격전, 산악지대에서의 포화력의 집중적리용과 유동포활동의 강화, 저격수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등 여러가지 새로운 군사예술을 창조하시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써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과 인민군대는 필승불패라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으며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주체를 세우고 견결히 일떠서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혁명적진리를 빛나게 확증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또한 형제나라인민들, 세계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지지성원에 의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형제적중국인민은 지원군을 보내여 우리 인민을 피로써 도와주었으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미제를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함으로써 싸우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승리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되였다.

3

전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당은 이 시기에 사상과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각 분야에서 사대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전면적으로 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는 오랜 기간 우리 혁명에 해독을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력사적인 오물을 청산하기 위한 진공적인 심각한 투쟁이 벌어진 시기이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인 구현을 이룩한 시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지켜왔으며 전체 인민들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 부원으로 우리 나라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한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여왔습니다.**》

전후 경제복구와 사회주의개조시기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당이 진행한 주되는 투쟁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창조적인 혁명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였으며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당의 자주적립장,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정전과 함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여지없이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극도로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짧은 시일안에 안정향상시켜야 하였으며 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하였다. 북반부사회발전의 요구

에 기초하여 복구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도 적극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태밑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것인가, 기존명제나 남의 경험에서는 대답을 찾을수 없었다.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이 할일이 많고 난관이 중첩된 엄혹한 전후의 첫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현실과 혁명의 전도를 천재적으로 통찰하시고 이제까지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새로운 경제건설로선과 사회주의개조방침을 내놓으시여 당과 인민 앞에 휘황한 앞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 그리고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개조방침은 아무러한 전례도, 경험도 없는 전혀 새로운 로선과 방침이였으며 철두철미 자체의 독자적판단과 결심에 기초한 완전히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이였다. 이것은 전쟁에 의한 파괴가 혹심하더라도 당과 주권,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는이상 다시 일어설수 있고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주체적립장을 구현한 자주적로선이며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방침이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파괴된 경공업과 농업을 복구발전시킬수 없었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울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밑천을 마련할수 없었으며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을 청산하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쌓을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뒤로 미루고서는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높일수 없었으며 원래 농업과 경공업이 몹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었다. 나라의 튼튼한 경제토대를 닦으면서 동시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당면문제와 전망문제를 다같이 원만히 풀어나가는 길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켜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과학적로선이며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하고 발전시킨 창조적로선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의 힘과 내부원천에 기초하여 빨리 전진하기 위한 혁명적로선이였다.

전후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은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성숙된 요구로 제기하였다.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며 또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 전후 우리 나라 조건에서 먼저 농촌경리를 협동화하여 생산력발전과 기술혁명의 넓은 길을 열어놓으며 도시의 자본주의적요소를 수탈하지 않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반적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가장 부합될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지향과 기업가, 상인들 자신의 리익에도 알맞는것이였다.

실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개조방침은 전쟁의 파괴로부터 지체없이 복구와 개건에로 나가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륭성발전을 확고히 이룩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열어준 정당한 로선이며 현실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대담하게 해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보다 높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전체 인민은 수령께서 제시하신 이 로선과 방침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섰다. 그러나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사로잡힌 반당종파분자들은 경제건설과 사회주의개조를 위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선과 방침을 처음부터 집요하

계 반대하여나섰다.

독자적사고력은 전혀없이 덮어놓고 남을 본따며 남이 하는 소리를 따라 외우는데만 습관된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남이 해본 일이 없는것을 내놓는다》느니, 《시기상조》라느니 하면서 시비하였으며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중공업건설에 치우친다》느니, 《기계에서 밥이 나오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뒤에서 방해하였다. 우리의 벗들가운데도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현실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당의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 로선과 방침을 반대한 사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존문헌에 씌여져있지 않거나 이전에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이것은 기존명제에 대한 가련한 교조적인 태도의 표현이며 남의 경험에 대한 맹목적인 굴종의 표현이였다.

남이 해보지 못한것을 우리가 하며 남이 내놓지 못한것을 우리가 내놓는다 하여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남이 제기하거나 해본 경험이 없는것이라도 하여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립장에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도 구속되지 않고 대담하게 그것을 집행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혁명이 요구하고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이상 그 어떤 기존명제나 기성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작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택한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을 헐뜯은자들의 주장은 또한 앞으로야 어떻게 되든지 모든것을 눈앞의 리익과 당면한 소비에 돌려 탕진해버리자는것이였으며 결국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물론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된 빈터우에서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난관을 이겨내면서 경제토대도 닦고 인민생활도 추켜세우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해나간다는것은 매우 어려운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하여, 그리고 다만 일시적안일을 추구하여 혁명의 근본요구를 저버릴수 없었고 나라와 인민의 장래를 망치는 길을 택할수 없었다.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보장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제밀천을 가지고 자기의 살림살이를 꾸릴수 없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장래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잘해나갈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자력갱생하여 자체의 힘과 자기 나라 자원을 효과있게 동원하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새 생활을 훌륭히 창조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건설의 성스러운 위업에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바쳐 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더 찾아내면서 자기 손으로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걸리고있던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만일 우리가 주체적립장을 버리고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이 주장한대로 중공업건설에서 손을 떼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뒤로 미루었다면 우리 나라는 오늘과 같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자주적이고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되기는 고사하고 뒤떨어진 처지에서 벗어

나지 못하였을것이며 우리 혁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것이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는것은 결코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과 대치되지 않으며 형제나라들사이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로 자기 힘에 의거하고 자력갱생하면서 형제나라들과의 련대성과 호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 우리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긴밀히 호상협조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적지않은 원조도 받았다. 이는 우리의 복구건설에 도움이 되였다.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자력갱생하는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국제적 협조와 련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만 쳐다보고 남의 원조만 바라면서 자체로 노력하지 않으려는 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관점과 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의 주체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날카로와졌다.

사대주의에 물젖은 완고한 교조주의자들은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고 기계적으로 모방하면서 계속 우리 당의 자주적 로선과 정책의 관철을 집요하게 방해하였다. 이자들은 우리 당의 정책을 연구하고 선전하는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것도 가림없이 덮어놓고 남의것을 끌어들였으며 남에게 맹종맹동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까지 거부하는데로 나갔다. 나중에는 자기것은 다 나쁘고 남의것은 다 좋다고 하는 민족허무주의에 굴러떨어졌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극도에 이르렀으며 그 해독성은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제때에 되는 옳바른 조치와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를 위한 전당적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우리 혁명의 요구와 당사상사업정형을 깊이 분석하시고 주체사상의 혁명적본질과 주체확립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전면적으로 다시 천명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특히 사상전선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와 그 관철을 위한 우리 당의 단호한 투쟁은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며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1955년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강한 사상투쟁을 하여왔다.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투쟁에서 1955년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

우리 당안에서 나타난 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사대주의자들이였다. 그리고 이자들이 국제적으로 수정주의조류가 대두하자 그것을 우리 나라에 밀수입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그것을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은 특히 1956~1957년 무렵에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양봉음위의 교묘한 방법으로 정체를 가장하여 당안에 숨어있던 소수의 반당종파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수정주의의 기초우에서 서로 결탁하여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우리 당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다. 간악한 이 혁명의 배신자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였을뿐만아니라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위해 우리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으려는 범죄적음모책동까지 서슴없이 감행해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국제적인 《반공》소동에 발맞추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동공세를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수정주의가 우심하게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조성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하는것은 당의 존망과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섰다. 혁명의 앞길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내외원쑤들의 공세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는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기 당원들과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지에 의거하여 적들의 반동공세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공격에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였습니다. 당은 기회주의를 짓부시기 위한 힘찬 당내사상투쟁과 적들의 반혁명책동을 반대하는 전인민적정치투쟁을 벌리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당의 이 방침은 조성된 정세에서 전당과 전체 인민이 분발하여 혁명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내외원쑤들의 모든 공세를 철저히 짓부시고 부닥친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진공적인 방침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인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그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방도를 밝히시고 직접 전국각지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당의 결심을 알려주시였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인민대중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열성과 창발성과 재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인민대중을 믿고 그 힘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은 주체사상의 요구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안팎의 원쑤들의 공격을 단호히 짓부시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였으며 그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혁명적고조와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와 천리마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혁명적책동도, 반당종파분자들의 공격도 다 날아났으며 우리 당은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되였으며 5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를 2년반에 점령하는 위대한 기적과 전변이 일어났다.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언제나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의 자랑스러운 열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천리마운동은 수령의 두리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나가 용감히 물리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적기개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시위하였다.

주체사상, 주체적로선과 주체적인 립장은 참으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으며 위대한 전변을 가져왔다. 만일 이 엄중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당이 자주적인 립장이 없이 바람부는대로 흔들리는 당이였다면 우리 혁명은 명맥을 끊기우고 말았을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과 인민을 이끄심으로써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 기회주의 바람이 불고 제국주의자들의 공세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반당분자들이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한 환경에서도 모든 난관을 물리쳤을뿐만아니라 오히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실천적경험과 생활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할 때 어떤 바람이 불고 난관이 조성되여도 그것을 돌파할뿐만아니라 불리한 정세를 유리한 정세로 전변시킬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주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5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새로운 희망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에 들어섰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의 전 행정이 그러한바와 같이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 적의를 품은 내외원쑤들의 준동과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물리치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새롭고 광활한 전망을 펼쳐준 7개년계획을 실현하는 첫 전투에 들어섰던 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으며 장성하는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면서 정세를 한층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 전쟁준비에 더욱 광분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도발을 우심하게 감행하였다.

국제적으로 또한 미제는 꾸바혁명을 반대하여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고 남부웰남에서 침략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길에 들어섰다.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였으며 전쟁의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짙어갔다.

이러한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언제나 정세발전의 추이를 예리하게 통찰하시면서 혁명의 진로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발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험을 배태한 새로운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자 지체없이 당과 인민 앞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에서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으며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계속 빨리 전진시키면서 이에 병행하여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조

국보위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다. 여기에는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보위하며 책임적으로 완수할데 대한 주체사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확고히 구현되여있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는 끝까지 견결히 싸울데 대한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이 일관되여있다.

철두철미 반제적이고 자주적인 혁명로선인 우리 당의 이 로선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거하여 있을수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하며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로선이다.

제국주의가 있는 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질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것이 파괴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전쟁과 그로 인한 파괴를 두려워하면서 경제건설을 홀시한다면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없고 도대체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수할수 없게 된다.

반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국방력을 응당하게 강화하지 않는다면 도리여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고사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도 없다.

우리 당은 이러한 좌경적 및 우경적 편향을 철저히 반대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함이 없이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추진시켜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된 사태와 우리 혁명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당대표자회에서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계급적본질을 심오히 해명하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과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특성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규정하시고 사회주의국가는 항상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은 여기에서 발로되는 온갖 그릇된 편향을 엄격히 경계하면서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히 진행하는 동시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정력적으로 밀고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혁명적로선을 관철하는 투쟁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년간 수정주의적조류가 외부로부터 침습해들어오자 당안에 숨어있던 수정주의분자, 부르죠아분자들은 머리를 쳐들었으며 특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나왔다. 이자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수 없다는 수정주의적궤변에 매달리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같이 빨리 전진시키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마비시키려 하였다. 또한 이자들은 사상투쟁, 계급투쟁을 마비시키고 부화와 안일을 조장시키는 수정주의적날라리바람을 끌어들이며 썩어빠진 반동적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부활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교묘하게 책동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당대표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당면하게 당의 가장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시고 그를 위한 전당적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 생산장성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반동적리론을 철저히 론박하시는 한편 반당수정주의분자들과 이자들이 퍼뜨린 부르죠아적 및 기회주의적 사상독소를 반대하는 당내투쟁을 힘있게 벌

리도록 지도하시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천리마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수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해왔으며 당의 로선의 진수를 심장으로 파악한 우리의 슬기로운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단매에 쳐부실 멸적의 투지로 분초를 다투어 두몫, 세몫 일하는 혁명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온갖 침체와 보수를 짓부시고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였다. 그리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고 련일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 세찬 불길속에서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은 철저히 분쇄되였으며 우리 당은 당안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고 전당이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철통같이 뭉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국방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면서도 방대한 7개년계획을 앞당겨 훌륭히 점령하고 사회주의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 미제침략자들이 끊임없이 덤벼들며 걸음마다 난관과 장애가 겹겹이 가로놓인 어려운 조건에서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없이 신심과 투지와 락관에 넘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와 찬란한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기간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의 빛나는 열매입니다.》

독립되고 부강한 새 조국 건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는 오직 주체의 기치,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만이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당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혁명로선을 고수관철할수 있으며 그 어떤 사나운 풍파와 시련도 뚫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사상,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우리들에게 오늘의 찬란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준 불멸의 기치이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과 수많은 벗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우러러보며 그이의 혁명사상이 구현되고 빛나는 승리가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주체의 조국》으로 부르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오늘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상생활과 정치, 경제, 국방, 문화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과 사고방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사상에서 주체확립은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등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억누르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한 사상혁명에서의 위대한 승리이다.

사상에서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자기의것을 깔보고 남의것을 덮어놓고 좋아하며 통채로 삼키려는 그릇된 현상이 없어졌으며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매우 높아지고 언제나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되였다.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체 우리 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수령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긍지를 높이 간직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하고 있다.

모든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전면적으로 서게 된 결과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 이것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된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다.

전당이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단결되여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며 아무리 거세찬 풍파도 뚫고나아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의 계급진지를 강화하며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질과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반석같이 다져졌다.

만일 사회주의하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이른바 《순수한 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를 표방하면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마비시키고 계급투쟁을 포기한다면 부르조아영향이 널리 퍼지고 적대분자들의 준동이 강화되여 결국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 반대로 근로자들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면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경계하는 동시에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극소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며 쟁취할수 있는 모든 군중을 자기 주위에 굳게 묶어세웠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 독창적인 방침이 있음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벌어지는 첨예한 계급투쟁의 환경속에서 특히 미제의 무장도발책동과 놈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가 강화되고있고 이로 인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시련을 겪고있는 조건에서도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걸음마다 분쇄할수 있었으며 온 사회를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하나의 위력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현대적인 자립적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것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는 우리 당 경제정책의 위대한 열매이다.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들이 반드시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원료, 자재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성과적으로 쌓아올릴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민족적불평등을 없앨수 있으며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나라들과 기술경제협조를 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사회주의경제체계의 전반적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하였기때문에 지난날 그처럼 락후하던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고있을뿐아니라 이미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발전된 공업국가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 따라앞섰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각종 최신형기계설비들과 정밀한 기계화, 자동화 수단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현대적대규모공장들을 척척 건설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가 전망성이 큰 매우 안전하고 강력한 생활력을 가진 경제로서 놀라운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 우리의 민족간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립적인 경제이기때문이다. 우리는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으며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며 기술경제적협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농촌문제해결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에 관계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를 옳게 푸는것은 로동계급의 동맹자인 농민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개선하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매 단계마다 농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전재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과학적인 길을 제시하심으로써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 밑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상혁명과 문화혁명,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 결과 농민들의 문화기술기능수준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튼튼해졌다. 농업이 점차 공업화되고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 접근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는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새롭게 해결한 탁월한 모범이다.

주체사상을 체현하고있으며 군중로선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계획적지도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서 자기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우리는 주체를 세우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한 결과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는 좌경적편향과 경제를 자본주의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극복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빠른 속도로 촉진시킬수 있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도입됨으로써 나라의 온갖 자원과 예비가 적극 동원되고 합리적으로 리용되고있으며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진 조건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교육문화분야에서도 빛나게 구현되였다.

가장 선진적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모두가 일할 나이까지 무료로 공부하고있으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새 인간으로, 능력있는 새 사회건설자로 자라고있다. 우리 나라는 근 50만에 가까운 믿음직한 자체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떠한 어려운 건설사업과 혁명과업도 자체로 해결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현대적 공장과 기업소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이 완성되여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이 똑똑히 서고 과학수준이 높아짐으로써 후대들을 혁명의 참다운 후계자로 육성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사상, 부르죠아반동사상과 복고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에서 민족적인 문화가 활짝 꽃피고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로 되였으며 모두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무병장수하며 문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되였다.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이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체의 강력한 방위력을 가진 철벽의 나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과 자위적군사로선이 실생활에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는 자체의 국방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우리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켰다. 우리는 군대안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소홀히 하고 군사기술적인 사업에만 매여달리려는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무엇보다먼저 군인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군사기술사업을 옳게 배합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우리는 특히 산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현대적무기와 함께 재래식무기를 옳게 배합하며 자체의 국방공업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의 지리지형조건과 우리 인민군대의 체질에 맞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였다.

우리는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다 총을 메고 쏠줄 알게 되였으며 온 나라가 요새화되였다.

이와 같이 국방건설에서 자위의 원칙을 틀어쥐고 주체를 확고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무력침공도 성과적으로 쳐물리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바로 자체의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미제가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이씨—121》사건들을 련이어 도발하면서 우리 나라의 문턱까지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시도하였을 때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놈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쳐부실수 있었으며 원쑤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오늘에 와서 그 어떠한 원쑤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수 없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과 견결한 반제반미적립장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독립국가들, 크고작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의 벗들은 늘어나고있으며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우리 나라는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실현함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민족적임무와 국제주의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때문에 미제를 반대하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온갖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전세계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다.

4

우리는 지난 기간 실로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할 일이 많다. 우리는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

이 투쟁에서 승리의 담보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온갖 곤난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나아갈것이며 우리앞에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조국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문화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또한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은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되고있으며 그 전진도상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여있다. 우리는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대치하여 어려운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이른바 《닉슨주의》를 내걸고 남조선강점 《미군감축》이란 모략책동의 연막뒤에서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현대적살인무기들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군사분계선일대와 우리 나라 령해 및 령공에서 매일과 같이 악랄한 무장도발을 일으키고있으며 침략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처지가 어

려워짐에 따라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목적을 추구하고있다. 그들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준비하는데서 자기의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을 적극 끌어들이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진출기지로 삼고 일본군국주의를 《돌격대》로 삼아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최근 미일반동통치배들간에 조작된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협정》과 악명높은 미제호전광들의 거듭되는 일본과 남조선 행각은 미일침략자들의 공모결탁이 갈수록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되살아났으며 미제를 등에 업고 다시금 해외 팽창과 침략의 길에 들어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계획을 직접 행동에 옮기는 위험한 모험의 길에 들어섰다.

일본군국주의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전지역을 저들의 작전지역에 포괄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준비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그들은 군국주의우두머리들과 장교집단들을 끊임없이 남조선에 파견하여 침략계획을 추진시키고있으며 조선에서의 신건을 가상한 《자위대》훈련을 거듭하고있다. 또한 일본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긴급수송체계》를 짜놓고 출병할 태세를 갖추고있다.

사태는 19세기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농민들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구실밑에 대대적으로 침략무력을 끌고 조선땅에 기여들던 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일침략자들의 2중의 주구인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는 전례없는 파쑈탄압만행을 감행하고있으며 상전들의 지시에 따라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오늘의 긴장된 정세하에서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 추켜들고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원쑤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대처하여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지고 아무리 어려운 시련에 부닥친다 하여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정신으로 사고하고 자기 힘을 믿고 투쟁한다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불리한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전변시킬수 있으며 마침내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지난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15성상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승리하였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 맑스-레닌주의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경제가 있고 불패의 혁명군대와 전인민적무장이 있고 요새화된 강토가 있는이상 우리는 어떠한 침략자라도 능히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께서 창건하신 백전백승

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이 있으며 정권이 있고 군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칠석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있으며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쟁에서 이겼고 전후의 온갖 시련을 헤치며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있다.

이 투쟁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을 굳게 하였고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단련되였다. 어떠한 난관이 닥쳐와도 우리의 전진을 멈춰세울수 없다. 미제를 비롯한 세계반동과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군사적위협으로써도 조선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강한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무각과 같은것이며 그 멸망은 불가피하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면서 허장성세하지만 그들역시 멸망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제는 세계도처에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녹아나고있으며 멸망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멸망에 직면한자들이 그러하듯이 미제는 모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이다. 오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우리 당의 립장과 사상을 튼튼히 지키는 혁명투사가 될수 있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가장 선차적인 혁명임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칠석같이 묶어세우며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붉은 대오로 꾸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어서나 전쟁준비를 다그치는데 있어서나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이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앞으로도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원들과 군중들 속에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들과 교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며 그 진수와 전반사상, 수행방도와 의의를 옳게 체득하여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여 타협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계급투쟁을 강화

하고 사상혁명을 앞세워 우리 제도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한편 인민대중에 대하여서는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모두다 석명의 편에 쟁취하여야 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오늘 우리앞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도 튼튼히 하고 국방공업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현대적공업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이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미일침략자들이 도발하려는 전쟁에 대처할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해 군수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며 필요한 물자의 예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시에 경제를 급속히 전시체제로 개편하며 전시조건에서도 생산을 지장없이 계속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전쟁준비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일정한 부담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혁명의 근본적리익이 이것을 요구하고있다는것을 잘알고있다. 있는 경제밑천을 다 풀어놓고 호화롭게 살다가 망국노가 되느니보다 생활을 검박하게 하면서도 국방력을 강화하여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나라의 경제력도 튼튼히 하고 방위력도 철벽으로 다져나갈것이다.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속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천명에 몸소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려 올해계획을 9.9절전으로 앞당겨 끝내며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전으로 기어이 넘쳐 수행하기 위해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전체 근로자들은 원쑤들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철벽으로 다지며 적들의 어떠한 분별없는 모험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게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전쟁준비를 잘함으로써 우리는 남반부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줄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기게 될것이다.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남반부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파악하여감에 따라 투쟁은 한층 더 고조되고있다. 생활은 그들에게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미제를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매국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뒤집어엎고 생존의 권리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각성되고 조직된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미제를 쫓아내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기여드는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잠재력은 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남북의 4천만 겨레들이 하나로 단합되면 그것은 참으로 강대한 힘이 될것이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침략에 미쳐날뛰여도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다.

북반부혁명력량과 남반부의 광범한

해국력량이 단합되여 투쟁한다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모든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려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대한 혁명기지를 가지고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멈춰세울 힘은 없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더 많은 우리의 지지자들과 동정자들을 쟁취하는것은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이것은 원쑤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우리의 혁명위업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할것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굳게 뭉쳐 싸우는것이 주요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앞으로도 혁명적전우이며 형제인 중국인민과 단결하여 싸울것이며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과 단결하여 싸울것이며 일본인민들과 단결하여 싸울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모든 인민들과 단결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나라,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각각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라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곳마다에서 뜨게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들이 단결하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 전략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사면팔방으로 미제에 공격을 들이대여 미제의 각을 떠야 한다. 비록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남에 대한 의존심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큰 적을 능히 타승할수 있다. 조선전쟁과 꾸바혁명, 웰남인민의 영웅적반미구국항전의 모든 경험이 이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의 모든 사태발전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더욱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힘을 믿고 미제를 비롯한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은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지도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과학적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되였으며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확고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변함없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로 확고히 나아갈것이다.

곤난앞에서 실망할줄 모르고 난관앞에서 굴할줄 모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하며 계속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가 약속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

류 화 경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40여년이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이 가리키는 영광의 길을 따라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있었음으로 하여 오랜 세월 파란곡절을 겪어오던 조선혁명은 비로소 옳바른 투쟁의 '길에 들어서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혁명은 위대한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다.

바로 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이 관철되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그것을 뿌리로 하여 오늘 이 땅우에 세기적변혁과 창조, 민족적대번영과 륭성의 새시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침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첫 시기부터 조선인민앞에 첨예하고 절실한 문제로 나선것은 이 운동을 가장 옳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는 것이였다.

혁명투쟁에서 정확한 로선과 방침,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우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정확한 혁명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거기에 철저히 의거하여 혁명투쟁이 령도되여야만 대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튼튼히 묶어세워 그들을 옳바른 승리의 한길로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다.'

특히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은 자체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확립을 더욱 절실하고 첨예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지난날 일제강점하의 우리 나라는 매우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모든 정치적권력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요경제명맥까지도 독점하고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략탈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모든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장본인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였으며 조선혁명의 근본장애물은 놈들의 식민지통치제도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봉건적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예속자본을 길러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의 사회적지반으로 삼았다.

일제에 의하여 보존되고 조장된 봉건적관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함께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커다란 질곡

으로 되였다.

봉건적지주들과 예속자본가들을 비롯한 반동계급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뒤받침해주었다.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극소수의 반동계급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을 다른편으로 한 량자사이에는 심각한 모순과 첨예한 대립이 조성되였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나섰다.

조선인민은 일찌부터 외래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일제의 강점을 전후하여 의병운동, 독립군운동, 애국문화정치운동이 전개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맑스-레닌주의영향하에 로동자, 농민 운동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없었음으로 하여 반일력량의 단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분산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결국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특히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1929년말~193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추세를 띠고 더욱 앙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시기 정세를 특징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제국주의의 파쑈적탄압이 격화되고 모든 합법적활동의 가능성이 말살된 조건에서 장성하는 대중의 혁명투쟁은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항쟁형태에로 넘어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국내 각지에서는 반일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김일성선집》, 제5권, 206~207페지)

일제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 자기 나라를 휩쓸고있던 파국적인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침략전쟁준비를 서두르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일제의 폭압에 폭력으로 대항해나서게 되였다.

당시에 조성되였던 정세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은 대중의 혁명적진출을 더욱 적극화하며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릴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정확한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움에 있어서 날카롭게 나선 것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는 문제였다.

다아는바와 같이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혁명적진출은 종파분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많은 저애를 받았으며 실패를 거듭하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소위 《지도자》로 자처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대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반일투쟁에 일떠선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할 대신에 큰 나라에 기대를 걸고 거기에 의존하여 《독립》을 달성해보려고 망상하였다.

사대주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 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은 저마다 《지도자》로 《리론가》로 자처하고있었지만 누구 하나 똑똑한 주견과 방침도 내놓을수 없었으며 빈말공부와 파벌싸움을 일삼았다.

우리 나라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파괴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에 허무맹랑한 좌우경적구호를 던지면서 파

벌싸움을 계속하였다.

1930년에 와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남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소위《국제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조선혁명구호마저 집어던지고 《조선독립의 구호를 가지고는 계급해방을 할수 없다.》고 떠벌였으며 좌경모험주의적맹동으로 무모한 5.30폭동에로 대중을 내몰았다. 그리하여 혁명운동은 또다시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로부터 사상적으로 해방됨이 없이는 조선혁명의 정확한 로선과 방침을 세울수 없었으며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수립함에 있어서 근본문제로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다. …유일한 길은 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쓰라린 교훈을 남겨놓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확립하는 길만이 혁명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특수성,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의 공산당의 출현과 그 대렬의 확대, 국제혁명앞에 제기된 과업의 복잡성과 다양성 등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분석하시고 매개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창조성과 독자성을 발휘하여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시여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0년 여름 카룬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이미부터 구상하여오시던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들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무장투쟁로선, 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들에서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및 그 실현방도에 관한 문제 그리고 혁명의 참모부인 당에 관한 문제 등 조선혁명수행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전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로선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 특히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리론을 새로운 력사적 시대에 맞게 독창적으로 밝히신것으로서 옳은 투쟁로선과 투쟁전략을 못가졌던 탓으로 하여 우여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겪고있던 조선혁명의 앞길을 등대처럼 밝혀주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일대전환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바로 이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아무러한 로선상 착오도 없이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혁명적기치,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이 밝혀준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혁명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의 기저에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조선

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또 할수 있다는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놓여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을 최대한으로 추진시켜야 한다는 창조적립장이 놓여있다.

또한 이 로선의 기저에는 조선혁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세계혁명에 기여하시려는 혁명적립장이 놓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로선을 처음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족이며 조선청년들이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이 일제에 의하여 짓밟히고 학대받는것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는 일제를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하고 독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있을수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산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지주, 자본가놈들을 또한 그대로 둘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고 무산대중의 숙망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 혁명과업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무산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해야 하며 다음에 조국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세계혁명도 수행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식민지반봉건적인 사회경제관계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고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당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원쑤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을 민족적으로 억압하며 멸시하고 천대하였으며 민족자체를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였으며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식민지반봉건적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장본인이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직접 착취하고 억압하고있는 계급적원쑤였다.

그러므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주공방향은 일제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인구의 절대다수인 농민대중이 지주의 봉건적착취에서 시달리고 농업생산력이 봉건적토지소유관계에 얽매여있는 조건에서 농민들을 봉건적관계에서 해방하는 반봉건토지혁명과업이 민족해방의 과업과 동시에 제기되였다.

따라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이 두개혁명은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주체적립장에서 식민지나라들, 특히는 일제의 전형적식민지였던 조선의 사회경제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시여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천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새 경지를 개척하여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에서 당시 우리 나라의 각계급들과 계층들의 립장과 계급적력량관계의 분석에 기초하시여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적아를 옳게 구분하여 공격대상과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력량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혁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혁명의 대상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며 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광범한 농민 및 소자산계급이며

민족자본가들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같이 할수 있다고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밑에서 혁명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선진계급이다.

로동계급은 부단히 장성강화되는 계급으로서 단결력과 조직력이 강한 계급이며 가장 철저한 혁명적계급이다. 특히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2중3중의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기때문에 반일사상과 혁명사상이 어느 계급보다도 강하였으며 처음부터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나라 농민은 식민지략탈자들과 봉건지주들의 채찍밑에서 혹심한 착취를 당하여왔으므로 반일사상과 반봉건의식이 매우 높았으며 혁명성도 강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력량으로서 이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장 많이 가진 계급이였다.

도시소자산계급은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이들도 일제의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여 나설수 있었다.

민족자본가들은 주로 중소상공업자들로서 일제의 독점정책으로 말미암아 파산의 운명에 놓여있는 자기들의 처지로부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광범한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에 이르기까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으며 여기로부터 이들은 모두 혁명의 동력으로 될수 있었다.

반면에 지주계급은 일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관계의 보존에 절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반동적인 계급이였다.

예속자본가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로동계급을 비롯한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유지강화에 적극 복무하였다. 이자들의 대부분은 또한 지주경리와 련결되여있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일제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억압하는데 복무하였으며 조선인민을 반대하였다.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반대하여나선 반동계급과 계층이였으며 혁명의 대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같이 식민지사회의 계급적관계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이 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권문제, 로농동맹문제, 광범한 반제반봉건적혁명력량의 통일전선문제 등 혁명의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편에 묶어세울수 있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쟁취하고 적을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을 밝히시면서 이 혁명은 어디까지나 계속혁명의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수행에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은 혁명을 계속하여 한나라에서의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뿐아니라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수행할데 대한 철저한 자주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하고있으며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식민지문제, 특히는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킨 주체적인 혁명로선이였다.

지난 시기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과 종파분자들은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루

어보려고 헛되이 망상하거나 큰 나라만 쳐다보면서 《독립》을 구걸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혁명의 동력과 투쟁대상 등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암중모색하던 조선인민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할데 대한 결정적인 투쟁형태와 방도를 제시하고있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철저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투쟁대상인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이다. …그러므로 일제는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조선을 독립시켜야 하는가?! 외국의 원조로써는 절대로 독립을 찾을수 없다. …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서 싸워이기는것이다. 그러자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이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포함한 모든 혁명투쟁에서 최고형태의 투쟁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에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위력한 타격력으로 되기때문이며 특히 식민지인민들이 제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독립과 해방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기때문이다.

력사적교훈은 평화적시위나 파업, 소작쟁의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반혁명적폭력이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면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민족해방위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적아간의 력량대비에 있어서나 투쟁조건에 있어서 간고성과 장기성을 띠고있었다.

그러므로 분산적인 무장소조활동이나 한두번의 무장폭동으로써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할수 없었으며 상비적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만이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었다.

이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은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혁명로선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로선이 주체적혁명로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로선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길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입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

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은 자기의 전위대인 당이 없이는 군중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울수 없고 그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할수 없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특수성,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력사적교훈과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반드시 철저한 조직사상적준비밑에 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이룩함에 있어서 기성의 명제나 경험을 기계적으로 따를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을 투쟁속에서 육성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골간부대를 꾸리며 종파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조선혁명에 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공산당을 이렇게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창건해야만 당은 진실로 혁명의 참모부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전위부대로,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조직으로 될수 있었다.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주력군을 마련하는 동시에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력량을 광범히 결속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혁명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우선 그들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은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자기 주위에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더우기 강대한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서 이 문제는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오신 통일전선로선은 모든 반일력량을 단합하여 반일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전개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전략적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계급, 계층들을 통일전선에 다 망라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이 자기가 지향하는 혁명과업수행에로 광범한 반일력량을 옳게 이끌고나갈수 있게 하며 통일전선이 확고한 사회정치적지반우에서 튼튼히 꾸려질수 있게 하는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오신 통일전선로선은 이처럼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한데 묶어세움으로써 주체적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며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케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오신 조선혁명에 관한 로선은 혁명의 주력군을 불패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광범한 군중을 그 주위에 굳게 결속함으로써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할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

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근본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우리 나라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로선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철저한 구현으로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력사상 처음으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로선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혁명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조선혁명은 비로소 명확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가지게 되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실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혁명로선은 오래동안 수난의 력사를 따라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고 참된 투쟁과 해방의 길을 찾지 못하여 안타까이 헤매이던 우리 인민에게 희망과 재생의 길, 조국의 해방과 독립의 길을 환히 비쳐준 혁명의 등대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준비, 통일전선운동 등 우리 혁명앞에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풀어나가게 되였으며 그처럼 목마르게 기다리던 민족의 영도자, 탁월한 수령을 모시게 된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로 확신성있게 걸어나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은 또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로동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나라에서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혁명적폭력—무장투쟁이 차지하는 결정적의의와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전략적문제 등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해결을 기다리던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심으로써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고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투쟁강령으로서 력사상 처음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맑스-레닌주의와 확고히 결합시키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구현인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사에 영생불멸의 위대한 공적을 남기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이끌어오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커다란 혁명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

방 기 문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다른 근로자정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강화발전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갔다.

1946년 8월 29일 두개의 근로자정당이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된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며 당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꾸림에 있어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립대회에서 하신 보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와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천재적로작들에서 대중적당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들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불멸의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함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대중적당창건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창건의 필요성, 로동당의 목적과 임무 그리고 당을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로작들은 조성된 정치정세, 당앞에 제기된 혁명임무 그리고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대중적당건설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발전에서 위대한 공헌을 한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로작들에서 천명하신 대중적당건설방침은 우리 당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훌륭히 령도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으며 오늘도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력사적조건과 조성된 정치정세, 계급적력량관계, 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을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당시 나라에 조성된 복잡하고도 첨예한 대내외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대중적당건설의 객관적 필연성을 밝혀주시였다.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조국해방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민주조국 건설을 위한 현명한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반부인민들은 해방후 한해동안에 제반

민주개혁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혁명기지로 꾸려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민주개혁사상이 가장 빛나게 그리고 가장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북반부에서는 모든 식민지적 및 봉건적 관계가 청산되고 새 사회 건설의 휘황한 길이 열려졌다. 또한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의 정치적각오는 전례없이 높아지고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북조선은 전체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명백히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오직 북조선의 혁명기지에 튼튼히 의거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북반부와는 달리 남반부는 조선인민의 100여년의 피맺힌 원쑤 미제와 그 주구 민족반역자들의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반동과 식민지예속화의 길로 뒤걸음질치고있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자들은 군사적침략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로골화하면서 남조선에서 민주력량을 분렬파괴하고 반동지반을 꾸리기 위하여 갖은 발악적인 책동을 다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혁명의 배신자들, 종파분자들은 혁명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저마다 자기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미쳐날뛰였다.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한때 200여개의 정당이 나와 삼인일당, 오인일파로 분렬되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추악한 파벌싸움만을 하고있었다. 결과 근로대중이 단합된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갈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남북조선의 일체 애국적민주력량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켜야 할 임무가 나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한해동안 북반부에서 이룩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경험과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사태발전의 심각한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의 기본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것은 주체적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수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근로대중이 분렬되는것은 최대의 위험입니다. 우리의 투쟁임무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근로대중은 더욱 튼튼히 뭉쳐야 하며 단합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앞에 제기된 위대한 민주과업을 완수하는데서 가장 결정적인것은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참모부,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선봉대를 꾸리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직 로동당을 창립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7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민주주의와 반동간에 누가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대중을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혁명력량을 꾸리자면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려야 하며 그 기초우에서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그래야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

세를 보장할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단결시키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자면 여기에서 지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참모부, 근로인민의 유일한 전투적선봉대를 꾸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한 유일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의 조직적결속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오직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인 로동당의 창립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필연적결과라고 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적무기이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모든 피착취근로대중을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며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광범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한다.

수령의 사상을 실현할것을 목적으로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조직된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혁명가들의 대렬을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우리 당을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더욱 긴절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나가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이면서 농민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계급뿐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가운데서 선진분자들을 당에 받아들여 혁명가로 키우고 또 그들이 전체 농민과 근로인테리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우리의 형편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고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유일적으로 조직동원하는데 지장을 주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앞에 제기된 이러한 복잡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산당을 다른 근로자정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강유력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천재적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고전적로작들에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창건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합당과정에서 나타난 좌우경적편향들을 극복하고 대중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괴뢰도당들 그리고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극심하였음에도 가장 빠른 시일안에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대중적정당으로 강화발전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전체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권위를 획득하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력

과 고상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겸비하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투쟁시기에 몸소 육성하신 공산주의적핵심골간이 있었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직접 육성하신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있은것은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출신당원들을 당에 받아들인다해도 능히 그들을 소화하여 공산주의자로 교양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함께 해방후 1년간의 실천투쟁과정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근로인테리의 리해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사이의 동맹을 강화할수 있는 정치, 경제적 기초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대중적당건설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대중적당건설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대중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강력한 대중적정당으로 가장 빨리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천재적로작들에서 창립된 로동당을 강유력한 전투적부대로 만들기 위한 강령적과업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이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 앞에 나선 임무가 복잡하면 할수록, 원쑤들과의 투쟁이 첨예하면 할수록 조선근로대중의 선봉대인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시 우리 당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하루바삐 통일된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조국의 민주주의적독립을 방해하는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세력들을 소탕하여야 하였으며 북반부에서 실시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들을 공고히 하고 그를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했다. 이러한 투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여 강유력한 전투부대로 되게 하는것이 선결문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단결과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모든 경향과 무자비하게 싸워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이다. 수령님의 유일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통일단결되지 못할 때에는 언제나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공산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방금 합친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작들에서 두개의 근로자당을 방금 합쳐놓았기때문에 우리 대렬내에는 여러가지 서로 같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므로 당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의 근본문제로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전당에 확고히 세우는 동시에 온갖 종파주의적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갖 종파주의적경향과의 투쟁은 오늘 우리 당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운동에 력사적으로 막대한 해독을 끼친 저주로운 종파주의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 우리 당을 통일적이며 위력있는 강철의 대오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분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죄행을 뉘우칠 대신 해방후에 또다시 우리 당안에 기여들어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며 혁명발전에 헤아릴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이런 조건하에서 각양각색의 종파분자들의 일거일동에 최대의 경각성을 높이며 이들을 철저히 청산함으로써만 우리 당을 강철같은 전투적부대로 만들수 있었다.

종파적경향과 날카로운 투쟁을 진행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당원들에게 력사적으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끼친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진행하도록 반종파투쟁의 날을 날카롭게 세운 결과 우리 당은 빠른 시일내에 수령님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묶어세운 불패의 대오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간부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간부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당의 강령과 결정을 성과적으로 집행할만한 간부가 없다면 강령과 결정이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한갖 공문에 지나지 못할것입니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우와 같은 책, 8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님의 령도는 결국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문제는 간부들에 의하여 해결된다. 간부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당의 핵심진지를 공고히 하고 당대렬을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당의 령도력을 높이고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 당이 창건되자 곧 집권당으로 되였으며 더우기 대중적정당으로 급속히 발전한 사정은 우리 당에 있어서 간부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간부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빠른 시일내에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할 굳은 각오가 되여있는 자체의 훌륭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령도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은 또한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군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군중과의 혈연적련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나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81페지)

당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과 혈연적련계를

강화해야 그들속에서 선진투사들을 당에 받아들여 당자체를 공고발전시킬수 있고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렇듯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위력의 원천이며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문제를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이 문제에 시종일관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묶어세우게 되였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는 진실로 혁명적인 당으로 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다른 근로자당과 합당하여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으로 급속히 확대발전된 조건하에서 빠른 시일내에 당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핵심당원들을 육성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적당을 건설하면서 세포핵심을 부단히 육성하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조직로선입니다.》(우와 같은 책, 577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당의 일관한 조직로선인 핵심당원을 육성확대할데 대한 방침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대중적정당으로 발전된 조건하에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가장 빨리 따라세울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준 현명한 방침이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준비정도가 각이한 모든 당원들을 단번에 똑같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핵심을 길러내고 또 그들이 다른 당원들을 교양하여 점차 모든 당원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한다.

당핵심을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많은 공산주의적핵심들이 새로 자라났으며 당원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빨리 발전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를 비롯한 천재적로작들은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방침이 천명되여있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강령적문헌으로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로작들은 우리 당을 근로대중의 통일적인 강력한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여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갈수 있게 한 력사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 근로대중의 통일적정당인 로동당으로 발전하게 된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합당의 결과로 우리 당은 로동계급뿐만아니라 근로농민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묶어세운 대중적정당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8페지)

수령님께서 로작들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건설방침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당은 두개의 근로자당의 존속으로 근로인민의 혁명력량을 분렬시킬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로동계급뿐만아니라 농민과 근로인테리들의 선진분자들을 자기 대렬에 결속시킨 가장 위력한 대중적당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릴수 있게 되였다. 또한 혁명력량을 분렬시켜 제놈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해보려던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들은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혁명력량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는데서 거대한 기여를 한 고전적문헌이다.

수령님의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로동계급의 당의 자체발전과 당의 당면한 혁명임무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적요구에 맞게 당을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적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을데 대한 문제, 맑스-레닌주의 당건설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기초우에서 로동계급뿐만아니라 농민과 근로인테리들가운데서 가장 견실하고 선진적이며 자각적인 사람들을 당대렬에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당을 빠른 기일내에 질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당핵심을 키울데 대한 문제,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교양 특히 자기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대중적당건설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원칙들은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을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들에서 천명하신 대중적당건설방침과 우리 당의 경험은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들, 주민구성에서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당을 어떻게 건설하여 강화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근로대중의 통일적당건설 사상과 방침들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당은 자기 대오에 로동계급과 근로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고 광범한 인민대중과 혈연적련계를 맺고있는 조선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되여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대중적당건설 사상과 방침들을 높이 받들고 그이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당건설분야에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공고발전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을 더욱 위력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영원히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의 기초를 닦은 혁명적변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중요산업이 국유화된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적변혁이였다.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히신 독창적인 국유화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 위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국유화사상과 우리 나라에서의 그 빛나는 실현은 제국주의식민지명에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운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중요산업 국유화법령발포 스물다섯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와 우리 혁명의 성격 및 그 장래전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일환으로서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 경제에서는 일제자본이 공업을 비롯한 중요부문들을 독차지하고있었으며 민족자본의 발전은 매우 억제되여있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우리앞에는 토지개혁과 함께 산업국유화가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는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이 가지고있던 산업, 운수, 체신, 은행들을 국유화하여 나라의 기본생산수단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07페지)

우리 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으로 실시된 산업국유화는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몰수하여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철저히 복무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혁명적방침이였다.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당시에 이미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정식화하시고 해방후 20개조정강에서 구체화하신 독창적인 국유화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본국가 및 일본인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 및 매국적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국유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강령에 전면적으로 계승되였으며 그 력사적무리로 되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중

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우리 혁명과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

오직 일제와 그와 결탁하였던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를 청산하고 경제의 기본명맥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소탕할수 있었으며 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를 강화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의 튼튼한 기초를 쌓을수 있었다.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는것은 식민지적 예속의 경제적지반을 허물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적 개혁이다.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나라의 정치적독립의 물질적기초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예속자본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공화국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며 공업의 압도적부분에서 사회주의적국영경제를 창설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요산업의 국유화방침은 력사상 처음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마스고 나라의 민주화과업을 완수하게 하는 한편 그 과정에 사회주의적국영경제를 창설하여 인민경제에서 그 지도적역할을 강화하며 혁명을 계속 전진시킬수 있게 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적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계속혁명의 사상과 반제혁명사상이 가장 정확하게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국유화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먼저 국유화의 대상을 가장 옳게 규정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북반부에서도 일제와 예속자본가, 친일파들의 공장만 빼앗았습니다. 개인기업가, 상인들의 소유까지 다 빼앗은것은 아닙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19페지)

수령님께서는 중요산업의 국유화에서 몰수대상을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 친일파의 소유에 국한시키시고 민족자본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하시였다. 그뿐아니라 민족자본가들의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장려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해방당시 우리 나라 경제형편과 우리 혁명의 성격, 그 과업에 완전히 맞는 가장 옳은 방침이였다.

일제의 오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민족공업의 발전은 몹시 억제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공업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을뿐아니라 제놈들의 식민지적략탈과 침략전쟁확대를 위하여 건설하여놓았던 일부 보잘것없는 산업시설들마저 모두 독점하고있었다. 일제와 그와 결탁한 예속자본가들의 지배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한 질곡이였다. 그러므로 일제와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일체 소유를 청산하는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기본과업으로 되였다.

민족자본은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에 억압당하고 파산과 몰락의 운명에 처하여있었으며 따라서 제국주의적지배와 봉건적착취관계를 없애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일제와 국내반동의 경제적지반을 마스는 한편 민족적리익에 이바지하려는 민족자본가들에게는 발전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을 새 사회 건설에 인입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은 혁명의 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며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또한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부흥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국유화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국유화의 대상을 무상으로 닦께번

에 몰수하여 인민의 소유로 넘긴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북조선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 땅우에 건설하여놓은 모든 공장,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기관 등이 그 유일한 합법적주인인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였습니다. 그뿐아니라 일본인들과 함께 도주한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들도 모두 무상으로 몰수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63페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의 소유를 국유화하는데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는가 하는것은 국유화의 철저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요산업의 국유화에서 그 대상을 모두 무상으로 단꺼번에 몰수하는 혁명적인 방침을 취하시였다. 이것은 유상몰수 또는 매상과 무상몰수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국유화방법과는 다른 가장 혁명적이며 철저하게 반제적인 방침이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유화된 산업시설들을 일부 개인들의 리윤을 위하여 리용되게 할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도록 그것을 전체 인민의 소유로 넘기도록 하시였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는 위대한 반제민족해방의 위업은 오직 이와 같이 폭력적인 수단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몰수대상을 인민의 소유로 만들어야만 가장 철저히 수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철저하게 주체적이며 반제적인 혁명적국유화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같은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해방후 매우 짧은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자립적민족공업을 창설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복리를 빨리 향상시킬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중요산업국유화는 오직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어떠한 편향에도 빠짐이 없이 승리적으로 실현될수 있었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국유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진두에서 가장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제때에 창건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시였으며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가장 철저하게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업국유화에 앞서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 기업소들을 몸소 찾으시여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로동계급에게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의 사명과 무거운 책임감,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깨우쳐주시고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에로 그들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국유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몸소 면밀하게 조직진행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업국유화와 같은 치렬한 계급투쟁에서는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과 파괴암해책동이 감행된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제반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있도록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시는 한편 산업국유화를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 기업소들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공장위원회들을 널리 조직하는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발기에 의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널리 조직된 공장위원회들은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정치적열성과 혁명적각성을

비상히 높이고 산업국유화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급속히 복구정비하여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키는데서 커다란 혁명적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국유화를 성과적으로 실시하신데 뒤이어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을 훌륭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도록 우리 인민을 정확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산업국유화의 승리에 기초하시여 인민경제를 빨리 부흥발전시킬수 있도록 국유화된 산업을 계획적으로 관리운영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이것은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된 산업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한 담보로 되였다. 그것은 또한 개인상공업에 비한 국영기업의 결정적우월성을 보여주고 공업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며 생산력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국유화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국유화법령이 발포된 후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제와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총 1,034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무상으로 몰수되여 전체 산업의 90%이상에 달하는 압도적부분이 인민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국유화의 승리는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국유화방침의 승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전취물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실현된 산업국유화는 이 땅우에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중요산업이 국유화되여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국영경제의 지도적역할이 보장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부문에서는 파도기 첫시기부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이것은 전후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며 짧은 기간안에 사회주의제도의 전면적인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나라의 주인으로뿐아니라 산업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으며 새 사회 건설에서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계획경제를 실시할수 있는 전제를 조성하였으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지난날 현대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자립적인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통하여 해방후 첫시기에 벌써 나라의 장래공업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자립적인 민족공업창설을 위한 일관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전후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국유화의 승리와 그 력사적경험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뿐아니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에서 커다란 의의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북조선에서의 산업국유화는 동방의 여러 나라 인민들과 로동계급을 얽매여놓은 제국주의철쇄의 한 고리를 처

올으로 굶어놓은 영광스러운 사변이였으며 동방의 피압박인민들에게 식민지략탈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분쇄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217페지)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국유화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적진보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를 처음으로 튼튼히 닦은 빛나는 모범이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처음으로 가장 철저히 완수한 혁명적변혁이다. 그것은 정치적독립을 달성하고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여러 나라 피압박인민들에게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때려부시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며 그들에게 보람찬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적힘으로 된다.

오늘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 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앞에는 단합된 힘으로 자기 나라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는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야 할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의 길은 계급적착취와 민족적억압을 없애고 전체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날을 따라 멸망의 길로 더욱 더 줄달음치고있다.

우리의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자면 식민지국가인민들은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위한 정확한 투쟁강령을 내세우고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투쟁을 벌리며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놈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청산하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사회의 혁명적개혁을 실현하여야 한다.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투쟁강령으로, 전투적기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은 반드시 중요산업국유화와 같은 혁명적변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겪은 쓰라린 진통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과 민족적독립과 번영에로의 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산업국유화의 력사적경험은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소탕하며 이 사업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다른 민주개혁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산업의 국유화는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할수 있게 하여주며 한편 토지문제의 옳은 해결은 국유화된 산업이 자체의 튼튼한 식량과 원료기지를 가지며 민족공업의 국내시장을 개척확장함으로써 인민경제전반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산업국유화에서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이 가지고있던 생산수단들과 모든 자원들을 다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넘겨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을 강화하며 국유화를 제대에 철저히 할수록 유리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마슬수 있으며 자기 나라의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민족공업을 건설하여나갈수 있다.

산업을 국유화하여 민족공업건설을 위한 사회적기초를 마련한 다음에는 자체의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중요산업을 국유화한 다음 곧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창설하는 투쟁에 착수하였다. 우리 당은 산업국유화의 승리에 기초하여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에 이미 우리 공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국내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자체로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자립적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특히 인민경제발전에서 국영부문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국영부문과 협동조합부문과 개인경리부문을 옳게 결합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이것은 과도기 첫시기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주의의 진지를 강화하면서 자립적민족공업건설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공업건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벌어진 전후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우리 당은 전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복구기의 과업을 수행하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데 달라붙었다. 우리 당은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를 닦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을 따라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주체와 자력갱생, 이것은 실로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정확한 공업화로선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당의 현명한 령도 그리고 우리 인민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로력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웅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가장 빠른 길로 전진시킬수 있었으며 중중첩첩한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의 력사적경험은 나라의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인민들이 주체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정치, 경제적 지반을 철저히 마스며 혁명력량을 묶어세워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때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넓은 길이 활짝 열린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지난날 가난하고 락후하던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되게 하는 빠른 길이며 억눌리고 헐벗고 굶주리던 인민을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옳은 길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며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길것이다.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

리 경 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6~87페지)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이 출현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목적지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조직화되였으며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오직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 리론과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풀어나아가고있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통일혁명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나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적전쟁정책과 군사파쑈폭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대중의 애국적민주주의 운동과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아가고있다.

*　　*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 로동계급의 당으로서의 통일혁명당이 나온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이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움직이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남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반제반봉건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적당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이 없이는 인민대중에게 명확한 투쟁강령을 줄수 없으며 혁명군중을 굳게 묶어세울수 없으며 군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할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41~14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현명한 수령을 모셔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혁명은 우리 당과 4천만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한 구성부분이며 남조선인민들도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인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광범한 인민대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가져야만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는 반동통치제도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전취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뿐만아니라 그 투쟁의 선두에 서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가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최고형태의 조직이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이다.

당은 자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투쟁강령을 내세우고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명확한 전망과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당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한다.

당은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맑스-레닌주의적전략전술을 세우고 혁명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은 로동자, 농민, 진보적인테리들 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이는 혁명력량의 장성도 혁명운동의 성과적발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의 투쟁은 비상히 앙양되였으나 진정한 혁명적핵심을 가진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으며 전후에도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가 없었기때문에 인민대중을 결정적투쟁에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의 령도적역할이 보장됨이 없이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지난날의 남조선혁명운동의 교훈과 경험이 잘 보여준다.

8.15직후 남조선에서는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비상히 앙양되였었다. 그러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수령님께 충직한 진정한 혁명핵심들로써 꾸려진 당이 없었고 그러한 당의 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지 못하였다. 당시 남로당의 지도층에 잠입하였던 반혁명간첩종파도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대

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는 고사하고 오히며 혁명을 말아먹고 당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전후에도 남조선에서는 여러차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으나 혁명적당이 없었고 당의 통일적령도가 보장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인민대중을 결정적인 투쟁에로 이끌지 못하였다. 혁명적당이 없었고 뚜렷한 투쟁강령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널리 참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4월인민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에도 혁명적당의 통일적령도가 없었기때문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주동적으로 리용할수 없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우와 같은 책, 393~394페지)

남조선에서 혁명발전을 촉진하고 그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다그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여야 하는것이다.

사회혁명이 폭발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승리의 조건인 혁명의 객관적요인과 혁명의 주관적요인이 다같이 성숙되여야 한다. 혁명의 객관적요인만으로는 아직 혁명이 일어날수 없으며 또 혁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승리할수 없다. 력사에는 혁명의 객관적요인은 조성되였으나 혁명의 주관적요인이 성숙되지 못한 탓으로 하여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였거나 혁명은 폭발되였으나 승리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남조선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로 성숙되여가는 혁명의 객관적정세에 맞게 혁명의 주관적요인의 준비를 따라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다그치고 그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혁명력량의 투쟁능력과 준비정도는 주로 당의 전투력과 령도에 크게 의존된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을 다그치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는 기본담보로 된다. 당건설을 다그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야만 혁명의 강력한 주력군을 마련하고 그 주위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도 형성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마침내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원쑤들을 때려부시는 결정적투쟁에서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남조선의 통일혁명당은 바로 남조선 혁명운동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나온 혁명적이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침을 전략과 전술로 삼고있는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을 령도하는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진정한 정치적참모부로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하자면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당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여야 하며 명백한 정치강령을 제기하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대중투쟁을 정확

하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통일혁명당의 강령과 선언에는 이러한 원칙적문제들이 정확히 반영되여 있다.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강령과 선언에서 당의 지도리념과 계급적지반, 투쟁목적 그리고 남조선혁명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강령과 선언에서 우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그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것은 통일혁명당이 지난 시기 남조선에 조직되였던 진보당, 사회대중당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며 남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정치적참모부이며 혁명적인 당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지도사상문제는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전투성, 그의 령도적역할을 규정짓는 본질적징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반드시 자기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유일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내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있거나 사상의지와 행동상 강철같은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당에는 중앙집권적규률이 없고 무정부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여 종파와 분파가 생기는 법이며 따라서 이러한 당은 도대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옳게 지도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발톱까지 무장한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앞에서 로동계급을 무장해제시키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가장 일반적합법칙성을 밝혀주고있으며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과거 남로당의 쓰라린 경험과 교훈에서 얻어진 과학적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완성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남조선지역에서의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것은 자기의 혁명적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남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조선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으로서 과거와 현재뿐만아니라 미래에도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에게 영광에 찬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따라서 남조선의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인 통일혁명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는것은 백번 정당하며 여기에 바로 통일혁명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과거 남로당의 심각한 교훈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은 전당이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종파주의의 발생과 그 분렬파괴책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혁명투쟁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인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당은 하나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수 없고 무질서와 무규률, 혼란과 분산성을 극복할수 없으며

이색분자, 암해분자의 침투와 그 파괴책동을 막아낼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통일적맑스-레닌주의당인 통일혁명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함으로써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의 류례없는 군사파쑈폭압하에서도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 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남조선혁명을 유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정치적참모부로 자라났다.

통일혁명당은 또한 강령과 선언에서 자기의 계급적지반을 명백히 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자기 선언에서 《우리 당은 사회의 기간적역군인 로동계급과 농민을 위시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며 옹호한다. 당은 이들 로동자, 농민들과 근로인테리들의 선각분자들로 조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통일혁명당이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통일혁명당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고 선포하였다. 통일혁명당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고 밝힌것은 바로 당의 력사적뿌리를 고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루어진 빛나는 혁명전통과 투쟁경험은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끝없이 귀중한 재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5페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당은 당의 력사적뿌리를 이루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그를 계승발전시키며 혁명하기를 거부하는 당들은 례외없이 혁명전통을 반대하며 그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을 인민들의 의식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책동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남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지도해야 할 통일혁명당이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통일혁명당은 강령에서 당의 최고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부패한 식민지반봉건적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그 무덤우에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이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우리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며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할수 없으며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반민족적, 반인민적 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수도 없고 조국통일의 위업도 성취할수 없다.

오직 미제를 몰아내야만 남조선혁명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으며 당의 최고강령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통일혁명당은 무엇보다도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

장시키는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삼고 그것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대중을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97폐지)

통일혁명당은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당은 간고한 적구환경에서도 《통일혁명당의 목소리》방송과 당기관지 《혁명전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출판물을 통하여 수령님의 중요연설들과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해설선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남조선에서 더욱 광범히, 더욱 심도있게 침투됨에 따라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촉진되고 당의 대중적지반이 확대되고있으며 그속에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대렬이 급속히 자라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오직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절대적기준으로 삼아 혁명동지들을 판별하고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한 지도적핵심을 육성하여 당의 조직적골간을 꾸려나가고있다.

통일혁명당은 그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체계정연한 당조직체계와 광범한 군중적지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대오로 성장하였으며 과학적인 강령과 백전백승의 전략전술을 소유한 남조선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 발전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에 철저히 립각하여 남조선에서 대중운동과 혁명투쟁을 옳게 조직지도해나가고 있다.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혁명가들은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며 지하와 산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지난해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른바 《3선개헌》반대투쟁과 얼마전에 있은 괴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역할을 하고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그의 영향하에 남조선에서의 대중운동과 투쟁은 더욱더 조직성과 목적의식성을 띠고 발전하고있다.

특히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통일혁명당의 적극적인 정치선전활동의 영향하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과 투쟁과정에서 통일혁명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통일혁명당이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남조선의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

을 옹호하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진정한 향도적 력량이라는것을 잘 보여준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향도아래 전개되고있는 남조선혁명의 전도는 매우 락관적이다.

남조선에서 모든 정세발전의 추이는 날로 혁명의 편에는 유리하게, 적들에게는 불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원쑤들은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자유와 해방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그이의 령도밑에 이룩된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기지가 있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며 남조선혁명은 통일혁명당의 기치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승리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제8호 (루계 35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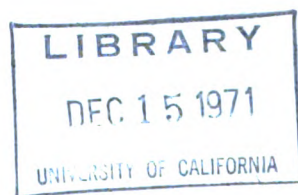
인 쇄 • 1971년 8월 1일　　발 행 • 1971년 8월 5일

7—14225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9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9 호 (354)

차 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 및 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 및 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석같이 묶어세우고 그이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세차게 다그쳐나가는 백전백승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된것은 무엇보다도 영명하신 수령님께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하여 오랜기간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오신데서 이루어진 고귀한 열매이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탁월한 사상이며 혁명적당건설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사상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당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과 건설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확고히 틀어쥐여야 할 위력한 사상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로 된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당 및 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근 반세기에 걸친 혁명투쟁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 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사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 정책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수령과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며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모든 당원들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당건설의 근본문제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특성과 수령이 노는 역할 특히는 수령의 혁명사상이 가지는 의의, 수령과 당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종전의 모든 혁명과는 달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사회, 계급적분렬을 내포하는 낡은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회와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며 자연도 개조해나가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철저한 계급투쟁이며 변혁과정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는 절대로 이룩될수 없으며 오직 력사발전, 사회발전의 법칙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리용하는데 기초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는 의식적인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또한 그들자신뿐만아니라 전체 피압박피착취대중을 해방하며 인류를 해방하는 위대한 사업으로서 력사상 류례없는 규모로 광범한 대중이 인입되며 인민대중이 광범하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면 할수록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되는 력사적운동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에 더 광범히,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할수록 대중운동에 대한 지도문제와 특히 령도자의 역할문제는 더욱 날카롭게 나섭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오직 사회발전법칙, 계급투쟁의 법칙들을 리용하여 의식적, 계획적으[illegible] 수행되며 거기에는 전례없이 광범한 [illegible]이 참가하는만큼 혁명투쟁에 광범[illegible]중이 참가할수록 수령의 명도는 [illegible]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발전법칙의 지식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야 하며 그들을 조직화하고 하나로 묶어세워야 하며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전술을 세우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과 그 수행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위대한 정치적수령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매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은 력사발전의 특성, 혁명발전의 법칙, 계급투쟁의 법칙들, 맑스-레닌주의일반원칙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는것으로 하여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자기 나라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가장 잘 맞는 지도사상을 내놓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탁월한 혁명사상,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며 혁명과업수행에로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인민의 수령으로 추대되는것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그 나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이와 같이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요구하며 이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제시된다. 이처럼 탁월한 수령의 역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요구할뿐아니라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광범한 대중을 교양하고 단결시키며 수령이 제시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 계급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을 가져야만 한다.

때문에 혁명의 길을 개척하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무엇보다도먼저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것이다.

수령은 당을 통하여 자기의 혁명사상을 대중속에서 구현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해나간다. 수령이 없는 당은 지휘판이 없는 군대와 같다.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해주는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당은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없다.

당의 옳바른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은 인민대중에 대한 령도계급으로서 그들을 자기주위에 묶어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이끌수 없다.

이리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은 서로 뗄수 없는 전일체를 이루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바쳐지는 이 전일체가 통일적으로 움직여나가도록 함에 있어서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당과 전체 계급과 대중이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한결같이 투쟁하여야 할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라침판이다.

특히 로동계급의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며 첫째가는 무기인 당에 있어서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문제는 각별하게 제기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할 목적밑에 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수령의 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도 허용될수 없다. 한가지 무기에 이런 포탄 저런 포탄을 쓸수 없고 이런 탄약 저런 탄약을 마구 쓸수 없듯이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수령의 사상 하나만이 있을수 있다. 만약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는 다른 어떤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하나의 당이라고 할수 없으며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어떤 다른 사상의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수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그 사상의 관철을 위해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움직여야 한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으로서 로동계급의 당 및 혁명 발전을 위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illegible]계를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 사상, [illegible]적 기초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로동[illegible]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illegible]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하게 하도록 [illegible]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illegible]이며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려는 로동계급의 선진투사들로써 조직된 전투적조직이다. 당이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사상적으로 튼튼히 통일되면 될수록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 따라서 당의 조직적결속과 사상리론적통일을 공고히 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 및 사상리론적 기초를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대로서의 역할과 그의 조직된 부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다.

참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기초, 사상리론적기초를 공고발전시켜 그 생활력, 전투력을 불패의것으로 만드는 길이며 당건설의 초석을 굳건히 하는 길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생명, 그 전투력의 원천은 그 대렬의 통일단결에 있으며 그 통일단결은 조직적 및 사상리론적으로 공고화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우선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기초를 공고발전시킨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대렬의 강철같은 조직적통일이 없이는 그 어떤 기능도 수행할수 없으며 자기존재도 유지할수 없다. 전체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밑에 한마음한뜻으로 움직이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접수하고 철저하게 옹호관철하는 혁명적질서와 중앙집권적규률, 이것은 당의 존재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그 힘의 주요원천이다.

당대렬의 이와 같은 조직적통일은 단순한 규률과 질서에 의하여 유지되는것이 아니다. 당내에 철저한 혁명적질서와 중앙집권적규률을 세우고 당대렬의 강철같은 조직적통일을 보장하는 실제적기초는 바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전당의 조직적의사인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접수하고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단결하며 수령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움직이는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는 때라야만 혁명적 질서와 규률이 확고히 수립될수 있으며 강철같은 당의 조직적 통일이 이룩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기초와 함께 그 사상리론적기초를 공고히 한다.

당의 조직적통일은 그 사상적통일과 떼여서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원래 하나의 사상, 하나의 목적, 하나의 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이다. 당이 자기 나라와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자면 전당이 오직 하나의 지도사상, 하나의 지도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되여있어야 한다. 전당의 확고한 사상적통일은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의 전제이며 모든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는 전제로 된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상적통일은 오직 로동계급의 사상과 목적,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대표하며 체현하는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이룩될수 있다. 전당이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사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와 어긋나는 어떤 사상도 허용하지 않는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는 때라야만 당의 사상적통일은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될수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의 조직적 및 사상리론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당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불패의것으로 만듦으로써 로동계급의 선봉적 및 조직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야 맑스-레닌주의당은 그 어떤 사상적 혼란도, 조직적분산성도 종파와 분파의 발생도 막아낼수 있으며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높은 위신과 권위를 지니고 대중을 승리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으며 조직된 부대로서의 단결의 힘과 전투력을 고도로 발휘하여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원만히 해결하여나갈수 있다.

이렇듯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당의 조직사상리론적기초를 공고발전시켜 로동계급의 선봉적 및 조직적 부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근본초석,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불패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하여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이 그 당을 창건한 탁월한 수령의 이름으로 영원히 빛나는 혁명적당으로 계속 강화발전하여나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자기 당의 혁명적, 계급적 성격을 영원히 보존강화하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위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준 위대한 사상이다.

오늘 혁명적당건설위업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기회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성을 고수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당건설분야에서의 기회주의적본질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 당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부인하며 약화시키려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의 철석같은 통일을 파괴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마비시키는것으로서 그것은 시실에 있어서 혁명을 포기하고 원쑤들을 도와주는 반혁명적책동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수령의 역할을 부인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거부하는 기회주의적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고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강화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학설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천재적사상이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서 당의 령도의 필연성을 밝히고 당의 일련의 전략전술적원칙들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계승하고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학설을 발전시키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밝히고 당을 로동계급의 선봉적 및 조직적 부대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해명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혁명적당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 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시여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학설을 우리 시대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을 밝혀주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학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와 혁명적당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과 실천의 기본출발점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이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초석이며 기본원칙으로 된다는 심오한 진리를 천명하심으로써 당건설의 원칙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백히 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당안에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하는 문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전략전술적지도를 보장하는 문제들과 당을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학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리론을 근본핵으로 하여 당건설의 모든 원칙들과 당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정연하게 체계화한 전일적인 학설로 발전되게 되였다.

진정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위업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며 그 보편적의의로 하여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당들의 공동의 재부로, 그들의 활동의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사상이다.

2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완전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을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로 내세우시고 그 해결을 위하여 근 반세기에 걸친 복잡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지난날 파벌싸움, 종파싸움으로 하여 실패를 면할수 없었던 민족운동,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에서 쓰라린 교훈을 분석하시고 하나의 사상, 유일하게 정당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전체 항일혁명투쟁대오를 철저히 무장시키시고 한사람같이 묶어세우심으로써 청사에 길이 빛날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고귀하고도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해방후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심에 있어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삼으시였다.

력사적경험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그에 기초한 전당

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간고하고도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는 력사적과정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과는 배치되는 적대사상과 온갖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들이 국내외에 남아있고 당안에서도 온갖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당밖의 적대적사조들과 부단히 투쟁하면서 당안에 남아있는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울수 없고 당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할수 없다.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게 된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에서 창건되였으며 당과 혁명을 파괴하려는 놈들의 온갖 발광적인 책동을 짓부시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자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야 했다.

당은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나타난 기회주의의 침습과 그 해독적작용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은 당밖의 원쑤들과 반혁명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할뿐아니라 당내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기회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등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벌려야 했다.

실로 우리 당에 있어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그 어느 당의 력사에서도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복잡하고도 간고한 사업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당, 한 나라의 혁명에 두가지 지도사상이 있을수 없고 유일적인 지도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는것은 당 및 혁명 발전의 필연적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근본조건이라는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으로부터 이 간고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선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기 위한 원칙적투쟁을 몸소 조직하시고 정확히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특히 고질적인 반당종파분자, 부르죠아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돌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종파투쟁이 우리 당건설에서와 당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 로동운동에서 종파의 여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의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조직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 오늘 우리 세대의 당원들에게 부과되였습니다.》 (《김일성선집》, 제5권, 247～248페지)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운동에 헤아릴수 없이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오물을 종국적으로 청산하는것은 유일적인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력사적과업이였다. 종파분자들은 당창건초시기부터 제각기 당을 반대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으며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저들의 더러운 종파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섰다. 이자들은 당의 모든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정책들을 반대하여나섰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이 추악한 혁명의 배신자들은 지어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당반국가적음모까지 서슴없이 꾸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당원대중을 발동하시여 반당반혁명종파도당들의 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그 사상여독을 극복하기 위한 전당적인 사상정치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은 1956년 8월전원회의와 1958년 3월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의 오물을 숙청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당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분자들은 혁명의 길에서 이미 오래전에 변절한 혁명의 배신자들이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외부로부터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침습하여들어오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이 더욱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날카로와짐에 따라 저들의 반혁명적정체를 드러내놓았다. 이자들은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신을 헐뜯으려고 비렬하게 책동하였으며 양봉음위의 방법으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또한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널리 퍼뜨려 우리 당을 수정주의길로, 우경투항주의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적독소를 극복청산하는것은 반당반혁명적종파분자들과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우리 당안에서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키며 더욱 높은 수준에로 올려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긴절한 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단호히 폭로분쇄하시였으며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던 온갖 경향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의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근원과 사상여독을 명백히 밝히시였으며 전당적인 사상투쟁을 날카롭게 벌려 그것을 철저히 뿌리뽑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질적인 종파분자, 부르죠아 및 수정주의분자들과 그 사상여독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로력투쟁과 밀접히 결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앞에 난관과 시련이 겹쳤던 어려운 시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힘을 믿으시고 몸소 그들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의 공격과 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림으로써 당대렬의 통일을 실현하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0～111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였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있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당 발전에 심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례외없이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였으며 그들의 반당종파활동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근원도 사대주의였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상적독소는 오래동안 우리의 일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자주의식을 좀먹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방해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실

전에서 적지않게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기회주의적사상조류가 대두되자 그것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는데까지 이르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1955년이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뿐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미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 제4차대회이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갖 반당적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시는 한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하며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어 그것을 자로 하여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였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 집행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에서 표현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관철하며 그에 대하여 형식주의적으로 대하며 그 집행을 태공하거나 중도반단하는 일체 현상들과 날카롭게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을 해치려는 당밖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뿐만아니라 당안에 기여든 각양각색의 반당반혁명분자들과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는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투쟁속에서 전당에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웠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11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할 강유력한 혁명적당을 꾸릴데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종파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사상,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있으며 모든 당원들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 통일단결은 전체 당원들의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열화같은 흠모, 끝없는 충성심에 기초한 가장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 막을수도 억누를수도 없는 전체 당원들의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에 토대한것이기에 위대한것이며 불패인것이다.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

당의 통일단결이 완전히 실현됨으로써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였으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였다.

당의 통일단결이 튼튼해지고 그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됨에 따라 대중속에서 당의 위신과 영향력은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이 급속히 추진되고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오늘 온 사회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것으로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강유력한 추동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길수 있게 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가장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이며 일찌기 우리 혁명력사에서,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없었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위대한 통일단결이다.

우리 당은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의 당, 국가 기관, 근로단체 등 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의 모든 정치기구들은 오직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움직이고있다.

바로 이러한 강한 혁명적질서가 세워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전체 당원들과 군중속에 거침없이 들어가고 그것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전당과 전사회에 대한 수령님의 유일적인 령도가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기적락후성을 짧은 기간에 털어 버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이렇듯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참모부인 우리 당에 이룩된 확고부동한 유일사상체계, 이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된 류례없이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전당의 통일단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이 위대한 업적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고 있으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이 불멸의 업적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만 이룩하실수 있었다.

반세기를 하루와 같이 조국의 자유와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수령님,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극히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빈궁과 천대밖에 모르던 우리 인민을 지상락원에로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그 무엇으로도 허물수 없는 높고도 높은 위신앞에서는 어떤 악랄한 교활적인 반당종파분자들도 배겨낼수 없었다.

또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에서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자취를 감추지 않을수 없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와 높은 권위, 그이께서 창시하

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그이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 이 모든 것은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류례없는 통일단결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민족최대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면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전투적강령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힘있게 앞당겨야 한다. 이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담보로 되는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19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업의 총적과업이다.

제국주의의 반동적인 정치사상공세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반혁명적인 사상조류가 또다시 당안에 침습할수 있고 당안에서 잡종당원이 생겨날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약화시킬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진공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당안에 침습하지 못하며 또 생겨나지도 못하도록 사상투쟁의 무기를 높이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님의 친위대, 근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뿐만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고 그이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수령님의 당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 로선과 그 빛나는 실현

박 영 순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과 주권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그 행정에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6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깊은 력사적뿌리를 두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미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시여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유격근거지에서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이 과정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을 창설하고 그를 공고발전시킴에 있어서 확고한 기초로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번영과 융성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무한한 행복의 뿌리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를 관철하는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촉진하며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이 보다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권문제를 혁명의 근본문제로 인정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이 로선은 이미 조국해방투쟁당시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우리 나라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진정한 인민정권을 창설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기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와 건설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로동계급은 낡은 통치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손에 주권을 튼튼히 틀어쥐며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완전한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이룩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정권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에서 장차 우리 나라에 수립될 정권의 성격과 형태, 그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그리고 정권전취의 방도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정권의 성격과 형태는 중요하게 그 정권은 어느 계급이 령도하며 거기에 어떤 계급들이 참가하며 그 정권이 소여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회정치적과업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시 일제강점하의 우리 나라는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복잡하게 뒤엉킨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고 일제식민지통치의 전복과 민족해방을 혁명의 당면임무로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의 대상은 일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고 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소자산계급과 민족자본가들이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 수립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심오하게 정식화되고 집대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강령 제1조에는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광범한 반일통일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수립할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혁명정부는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모든 반제반봉건적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한 정권으로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정권형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로동계급과 빈농민만을 정권에 인입하는 《쏘베트》정권형태와는 달리 광범한 농민들과 도시수공업자, 소상인, 민족자본가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반일력량을 최대한으로 정권에 참가시키는 새로운 정권형태로서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옳은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의 당면과업으로서 토지문제해결로부터 모든 사회생활에서 일제 및 봉건 잔재의 숙청,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8시간로동제와

남녀평등권의 실시, 인민교육제도의 확립 등에 이르는 제반민주주의적인 시책들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권전취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혁명적폭력, 무장투쟁에 의거해야 하며 선거놀음이나 그 어떤 평화적방법으로는 실현될수 없다. 력사는 아직 그 어떤 식민지통치배들이나 반동지배층도 혁명적폭력에 의하여 격파됨이 없이 스스로 인민대중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정권을 내놓은 실례를 알지 못한다.

로동계급은 오직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착취계급의 권력기구를 뒤집어엎고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할수 있다.

조선에서의 일제식민지통치기구는 반혁명적인 파쑈적폭압기구였다. 따라서 주권전취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항일무장투쟁과 같은 혁명적폭력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투쟁이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우리 인민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빛나는 혁명투쟁이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의 성격과 당면임무에 철저히 부합된것으로서 정치적자주성의 원칙이 빛나게 구현된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또한 이 로선은 주권수립에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여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당한 로선이였다. 따라서 이 로선은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최대한으로 묶어세우고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무기, 혁명적기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쏘베트》로선을 주장해나선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되였으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에게는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인민혁명정부로선은 또한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변천된 력사적조건, 식민지반봉건사회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킨 완전히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로동계급이 세워야 할 정권형태로서는 콤뮨과 쏘베트밖에 알지 못하였으며 또 이것만이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로동계급이 전취해야 할 유일한 정권형태로 인정되여왔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혁명의 성격과 임무,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관계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만이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에 완전히 부합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에 참가시키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이였다.

그리하여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제국주

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인민의 새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었다.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 이르러 전세계적규모에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벌리고있는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에게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수립하며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특히 종주국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는 달리 식민지나라들에서는 민족해방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계급과 농민들뿐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보다 광범한 반제력량이 혁명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인민민주주의적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이에 적응한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절실히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오직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혁명의 산무기로 구사하시는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국가와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식민지나라에서 주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것으로서 새로운 력사적시대가 요구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리론의 창시로 된다.

그것은 또한 식민지나라들에서 주권의 성격과 형태, 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임무와 그 수행방도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주었으며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인민혁명정부의 조국으로 되였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유격근거지에 수립된 인민혁명정부의 실제 사업과 활동을 통하여 빛나게 구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몸소 조직령도하시였다.

유격근거지에 낡은 통치기구를 청산하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일제의 거듭되는 《토벌》공세를 분쇄하며 《쏘베트》를 주장한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속에서 진행되였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물젖은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은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당면임무를 무시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는 《쏘베트》로선을 통채로 본받아 《사회주의의 즉시 실현》을 주장해나섰다. 이자들은 일체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농의 토지까지도 몰수하는 극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그리고 주민지대를 인위적으로 《적색구역》과 《백색구역》으로 갈라놓고 적통치구역내의 인민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하였다. 한편 그들은 반유격구인민들에 대해서는 《량면파》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떠들었다.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이러한 망동으로 하여 통일전선실현에 큰 장애가 조성되게 되였으며 큰 포부와 희망을 안고 해방지구를 찾아왔던 수많은 반일력량을 잃어버릴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조성된 엄

중한 사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좌경적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과 해독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상리론적으로 신랄히 폭로분쇄하시고 근거지내의 모든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인민혁명정부의 성격과 임무를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것도 아니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부이며 이 정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녀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며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다 일할수 있고 다 잘살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에게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정권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되였으며 완전유격근거지들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진정한 정권인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민족재생의 기쁨을 안겨주는 혁명의 기치로 되였으며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끄는데서 거대한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신후 곧 유격근거지내에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인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는 사업을 몸소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인민정권건설에서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에 기초하시여 인민혁명정부로 하여금 제반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는 근거지인민들에게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여주었다. 그리고 열여섯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 선거권을 비롯한 정치적권리를 박탈하고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렸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를 통하여 토지문제와 농민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시고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토지만을 몰수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함께 당면하게는 주되는 적인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동원할데 대한 통일전선적요구를 다같이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와 매국적인 친일지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였다.

토지개혁의 결과 근거지내의 농민들은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그들의 세기적숙망은 빛나게 실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통하여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를 선포하시고 가렴잡세를 페지하도록 하시였으며 남녀평등권을 선포하고 사회경제문화의 모든 부문

에서 녀성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주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혁명정부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근거지에 병기창과 피복창을 차려놓고 무기의 제작수리와 피복문제 등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농사를 지어 어려운 식량문제를 풀어나갔다.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이 거듭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민들에게 축력과 농기구, 종곡까지 마련해주었으며 적위대, 소년선봉대, 청년의용군들로 하여금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자》는 구호밑에 영농사업을 보장하도록 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근거지내의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하였으며 예방사업도 강화하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학습교재와 혁명적출판물, 의약품 등도 자체로 만들어냈다.

인민혁명정부는 또한 항일유격대를 핵심으로 한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격근거지를 튼튼히 보위하였으며 자위의 혁명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확대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내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야 한다.…어린 아동단원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튼튼히 무장한다면 유격근거지로 달려드는 《토벌대》놈들을 물리칠수 있으며 놈들의 간첩, 암해책동도 제때에 분쇄할수 있다. 전체 인민이 무장하면 어떠한 원수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내 모든 인민들의 가슴속에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유격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운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를 성과적으로 구현하심으로써 근거지를 철벽의 요새로 전변시키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의하여 근거지에 확고히 수립된 전인민적방위체계는 그 어떠한 적들의 무력침공도 막아낼수 있는 군사전략상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위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일제의 발악적인 《토벌》을 물리치고 조선혁명의 책원지, 유격근거지를 4~5년간이나 사수할수 있은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있다.

그것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데 있다.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령도밑에 그 모진 곤난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불굴의 투지로 간악한 일제침략자들과 싸워 혁명의 전취물인 유격근거지를 빛나게 지켜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인민혁명정부의 모든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심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민혁명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을 창조하시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실천적모범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한 단련되고 세련된 공산주의자들, 혁명적골간을 키워낼수 있었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때와 살로 맏붙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으며 이로써 인민혁명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완전유격근거지에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경제적관계가 확립되고 항일유격대를 중심으로 한 유격근거지 인민들속에서는 유일사상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룩되였으며 모두가 조선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을 구현하는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의 튼튼한 기초로, 깊고도 억센 뿌리로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제기한 맑스-레닌주의적인민정권로선과 고귀한 사업경험에 토대하여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자라난 공산주의자들의 올바른 지도밑에 내외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인민정권을 세우며 민주주의적 새 조국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를 구현하는 투쟁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제때에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그를 공고발전시키시여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자주독립국가의 슬기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준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위대한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인민혁명정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승불패이며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대회

김 건 식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열돐이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인 과업을 명시하시였다.

실로 당 제4차대회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이땅우에 이룩한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들과 당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 단결의 대회였으며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인민 앞에 새로운 투쟁강령을 제시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승리자의 무한한 긍지와 우리 혁명의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을 새로운 전투에로 고무하는 강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대회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현명하고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부단히 새로운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전체 인민을 확고히 인도하는 조선인민의 믿음직한 향도력인 우리 당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은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빛나게 총화되였다.

실로 우리 당 제4차대회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과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대회였다.

* *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사회주의기초건설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 위대한 전망을 제시한 승리자의 대회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 제3차대회로부터 4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에 중첩되는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농업 국가로 전변시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끝내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데 대한 력사적인 혁명과업은 승리적으로 완수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60페지)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실현된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총화하였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과업이며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다하더라도 생활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한 그것을 담당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였을 때에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능히 실현할수 있으며 또 지체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현명한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는 불과 4~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또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나라의 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이렇듯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흥겹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할수 있었으며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 제3차대회로부터 4차대회에 이르는 기간은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였으며 이 기간에 우리 당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5개년계획의 과업을 기한전에 완수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력사적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축성됨으로써 농업까지도 포함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가 창설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하고도 복잡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확립과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하나의 력사적단계를 총화한 승리자의 대회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4차대회에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총화하시고 이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력사적전변을 가져올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

4차대회보고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이 력사적과업의 수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공업화를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꾸리며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08페지)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장기적인 전망계획이였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제문화건설의 위대한 리정표였다.

7개년계획,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강령이였으며 우리 경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전면적기술혁명의 자랑찬 설계도였다.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실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인 7개년계획의 수행은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각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우리 나라를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국가로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위대한 전망을 펼쳐주신 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에서 자기들의 휘황한 앞날을 환히 내다볼수 있게 되였으며 천리마의 진군을 세차게 벌려 우리 세대에 부과된 력사적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4차대회와 당대표자회가 내놓은 로선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데 대한 력사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놓은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7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 몇세기에 걸쳐서야 수행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동방에서 처음으로 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였다.

수령님께서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없애고 세계선진국가대렬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의 모든 대소민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떳떳하게 국제무대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당 제4차대회로부터 5차

대회에 이르는 기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한것은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그이께서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하여준다.

*　　　*

우리 당 제4차대회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위업을 수행하였음을 만족스럽게 총화하고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한것으로 하여 당자체의 강화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단결의 대회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반당종파분자들과 그들의 사상여독을 반대하는 굳센 투쟁을 통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오래동안 우리 나라 로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종파를 때려부시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어려운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당 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54페지)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파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반당반혁명적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청산하는것이였다.

종파분자들은 당의 옳은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어려운 난관이 제기될 때마다 당에 도전하여나섰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헤아릴수 없이 막대한 해독을 끼친 고질적인 종파오물들을 청산하는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과업이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1956년 8월전원회의와 그이후 력사적인 회의들을 통하여 당안에서 반당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을 청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청산한것은 수령님의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 승리였다.

이때로부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걸출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세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당 제4차대회는 우리 당 사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인 대회였다.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당이 자기에게 맡겨진 무거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관철에로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기

간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복잡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교훈, 철저한 주체적립장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당사업 체계와 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당사업을 심화하고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전당에 정연한 당사업 체계와 방법이 확립됨으로써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당 제4차대회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고질적인 종파분자들을 청산하였음을 총화하고 정연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인 당의 통일을 일층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심화과정은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순한 사상들은 결국 부르죠아사상의 각이한 표현이며 그것이 당안에서 자라면 당과 혁명에 커다란 손실을 줄수 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계급투쟁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르죠아사상이 당안에 침습하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당의 통일을 마스려는 자그마한 현상들과도 타협없는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85페지)

수령님의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우리 혁명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대렬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되고 단결되였을 때 우리는 어떠한 간악한 원쑤들의 침공도 어떠한 풍파와 난관도 다 물리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전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와 어긋나는 반당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만 당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당안에 꽉 들어차게 되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된다.

전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전일적인 산 조직으로 되며 어떠한 풍파라도 뚫고나갈수 있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조직으로 된다.

수령님께서 당 제4차대회에서 당건설분야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한 결과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단결시켰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그이와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당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한 기초로, 우리의 불패의 힘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추진하고 조국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4차대회에서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재천명하시면서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한 전조선적인 자유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남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밝히시면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변동된 정세에 대처한 남조선혁명의 구체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대회에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기치로 되였다.

당 제4차대회는 이렇듯 우리 혁명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회였을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회였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리고 당건설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경험들은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유일하게 정확한 길을 밝혀주었으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혁명과 건설에서 쌓은 우리 당의 창조적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일반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새 과업들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대회의 보고는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함에 있어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천재적인 로작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4차대회이후 시기 우리 당의 활동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과 경험을 빛나게 총화하시고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올 6개년계획의 보다 휘황한 새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로운 더 큰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이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펼쳐주신 6개년계획의 강령적과업을 기한전에 넘쳐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전투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달려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반드시 기한전에 완수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와 혁명적조직생활

전 영 훈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탁월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촉진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그이께서 오랜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몸소 이룩하신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공산주의자, 혁명가 육성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이 차지하는 위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을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며 탁월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이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의 하나는 강한 혁명적조직성에 있습니다.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져야만 참다운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6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화된 인간의 중요한 표징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신 고전적명제이며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이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참다운 공산주의자, 혁명가는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일관된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낡고 부패한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으며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싸우겠다는 높은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함께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가질 때야만 사람들은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는것이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이란 곧 자기의 정치적생명, 혁명적조직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으로부터 나오는 혁명가적품성이다. 그것은 자기가 속한 혁명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며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혁명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에 무한히 성실한 공산주의자에게만 고유한 혁명적품성이다.

공산주의자, 혁명가는 혁명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그의 정치적생명은 다름아닌 혁명적조직생활에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한다는것, 여기에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으며 그들의 참된 삶의 가치와 더없이 귀중한 영예, 보람이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언제나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한이 있어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바쳐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조직의 리익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는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이러한 혁명적품성, 강한 혁명적조직성은 오직 오랜기간의 혁명적조직생활, 정치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루어지게 되며 더욱 강화되게 된다.

원래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 혁명가들은 처음에는 혁명조직의 도움에 의하여 의식화, 조직화되는것이며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키워나가는것이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란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혁명가,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되자면 혁명적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강한 혁명적조직성을 배양하여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과학적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입니다.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참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6페지)

조직생활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게 하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근거가 또한 여기에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통하여 그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화의 훌륭한 학교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기본은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그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도록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와 자연을 인식하고 변혁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관점과 립장, 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에는 혁명의 원쑤들을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관통되여있으며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만 계급적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높은 혁명의식을 가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옳바른 방도를 찾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를 확립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적이며 제일차적인 임무로 삼는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빛나는 혁명력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확고한 계급의식과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도덕품성과 혁명적기풍을 소유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화하기 위한 혁명사상을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넣어주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칙적인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조직생활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는 용광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여야만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당성과 계급성을 부단히 높일수 있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267페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자면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원칙적인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런데 혁명조직은 바로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게 하며 일상적인 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결함과 부족점을 미리 깨우쳐주고 그들을 혁명의 옳바른 한길로 계속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준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사업과 생활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할수 있으며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그것을 시정하고 자신의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부단히 높일수 있으며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을 키울수 있다. 누구든지 혁명적조직생활에서 리탈하게 되면 개인주의에 물젖어 안일해이해지고 과오를 범할수 있으며 사상적으로 그릇된 길로 나갈수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서 과오를 범하지 않고 혁명의 전개를 끝까지 지키며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만병통치의 수단으로 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은 또한 사람들을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조직생활이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9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개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과정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가장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실천, 그들의 혁명활동은 당 및 근로단체의 조직생활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조직생활을 떠난 혁명가의 실천활동, 혁명투쟁과정이란 있을수 없으며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혁명조직을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 혁명가의 일생, 공산주의자의 정치생활은 혁명조직에 들어가 혁명적조직생활을 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을 실천하는것으로써 충만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자기의 혁명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에 대해서는 그 어떤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달갑게 접수하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게 된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누구나 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의 규약상 요구와 규범에 따라 생활하며 조직의 위임과 분공에 따라 혁명과업을 실천하고있다.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맡기는 혁명과업은 곧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투쟁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혁명과업수행에 대한 성실성을 검증받게 된다. 또한 그들은 혁명조직의 위임분공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하게 만들고 혁명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는 혁명가적기풍과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사람들은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령님의 전사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도 한몫하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되며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과 혁명성을 더욱 키우게 된다.

이 모든것은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혁명적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과정으로 해결하게 하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훌륭한 학교로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인 방침과 그 구체적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에서 주는 위임분공을 성실히 실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며 끊임없이 혁명적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6페지)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는것은 그들이 혁명조직에 망라되면 저절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참말로 사람들을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로, 혁명적교양의 학교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이 자기의 정치생활, 조직생활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조직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규약상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노력하는것이다. 또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주는 위임분공과 조직에서 포치하는 모든 사업을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성심성의 집행하며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사업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인 학습을 자각적으로 꾸준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생활을 실속있게 하는데서 특히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고 사상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사상투쟁을 통하여 교양개조하는것, 이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66～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주는 독창적인 사상이며 탁월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무엇보다먼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과 혁명적비판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은 심각한 사상개조사업이며 사상혁명이다. 사상혁명은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만으로써는 실현할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그들에 대한 정력적인 사상교양과 함께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은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하여 혁명조직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상교양의 중요한 방도이며 사상투쟁의 힘있는 무기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비판을 하는것은 다른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털어놓고 말하며 그것을 고치려는 결심을 다지는데만 그 목적이 있을뿐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결불에 맞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양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남을 비판한다는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결함을 다른 사람이 일깨워주는것이며 한사람을 비판하여 열사람, 백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자는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혁명조직에서 자기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하여 호상비판도 하는 과정에 자기의 사상을 끊임없이 단련하여나가는것이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할수 있는것이다.

원래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팔방미인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누구한테서 《호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결함과 부족점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없이 조직앞에 솔직히 내놓고 비판하며 비판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을 끊임없이 혁신하여나가는것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정치생활에서 뗄수 없는 한 구성부분이며 혁명사업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여 자고난 얼굴의 때를 씻어내는것과 같이 원칙적인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고치며 자기를 끊임없이 사상적으로 수양해나가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 혁명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판의 무기를 한시도 놓아서는 안되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비판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투쟁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비판으로 사상투쟁을 벌리며 투쟁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사상은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과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과 목적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자본가들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은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이며 그것은 결코 사회성원들이 서로 반목질시하기 위해서 하는 계급투쟁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을 하되 통일과 단결을 목적으로 하여 협조의 방법으로 계급투쟁을 하는것입니다.…우리가 계급투쟁을 하는 목적은 농민을 로동계급화하여 계급으로서의 농민을 없앨뿐아니라 지난날의 인테리와 도시소자산계급을 비롯한 중산층을 혁명화하여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자는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

고있는 계급투쟁의 주요형식입니다.》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41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을 할 때의 계급투쟁은 주로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하는 투쟁이였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진행하는 계급투쟁은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이다. 그것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자신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은 철두철미 비판을 통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상투쟁의 중요대상과 비판으로 투쟁을 벌리며 투쟁을 통하여 개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투쟁에서 혁명조직들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의 중요대상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과 그 표현들 특히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들과 일군들의 사업과 작풍에서 나타나는 결함들과 부족점들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상투쟁을 위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지고 단결을 강화하는 립장에서 출발하여 원칙적이면서도 따뜻하게 혁명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여서도 안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또한 비판사업을 깜빠니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투쟁의 대상과 원칙은 혁명조직들로 하여금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에서 바로 어디에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며 사상투쟁의 목적지향성과 사상투쟁에서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취하여야 할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고있다.

이 방침에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을 혁명의 일시적동반자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커다란 신임과 육친적배려, 끝없는 사랑이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는 투쟁의 시대,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임무,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수 있다.

우리는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때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모두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길을 따라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김 하 명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로동계급의 새 문화건설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더욱 빨리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문화혁명의 전반적 과업을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에 맞게 옳게 수행하며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건전하게 건설할수 있는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명시한 현명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문화건설분야에서 온갖 기회주의적편향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본성에 맞게 민족문화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사상문화령역에서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전반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힘있게 촉진시키는데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우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심오한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 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새 문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는 문화령역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건설된다. 그것은 문화가 일정한 계급의 정치생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문화는 철저하게 로동계급의 리익을 대변하기때문이다.

온갖 착취사회의 지배계급의 문화는 철저하게 착취제도를 미화분식하며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것을 합리화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로동계급의 문화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착취사회의 온갖 썩어빠진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조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더우기 로동계급의 문화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문화인것만큼 종래의 낡은 문화와 근본적으로 구별되

여야 하며 그와 결코 량립될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고 우리 내부에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적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창조과정은 온갖 반동적문화조류를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착취계급의 모든 문화는 로동계급의 새 문화건설의 기본장애물이다. 따라서 온갖 낡은 사회의 문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없이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건전한 개화발전을 기대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새 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오직 온갖 부패한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타승하고 문화령역에서 사회주의적인것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는 투쟁속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건설분야에서 온갖 반동적인 문화를 반대하는 투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되면 될수록 로동계급의 문화적요구가 더욱 높아진다. 이것은 문화건설분야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그와 어긋나는 온갖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철저히 세우며 공산주의적 당성과 인민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문화와 부르죠아반동문화를 철저히 뿌리빼고 문화와 예술의 모든 내용이 공산주의사상,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일관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9페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은 반드시 경제, 사상, 도덕과 함께 문화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한다는것은 곧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문화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의 모든 부문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서 기본장애물은 근로자들의 의식과 생활에 남아있는 봉건적, 부르죠아적 낡은 사상과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의 잔재들이며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이다.

근로자들의 의식과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들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후에도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방해하며 부식작용을 한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촉진되고 전반적세계혁명이 급속히 추진될수록 사상문화적침투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바로 여기로부터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문화혁명, 사회주의적민족문

화의 건설과업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는 동시에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서 부식작용을 노는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가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문화건설분야에서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극복함으로써만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빨리 건설하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창조적방침은 교육과 과학, 문학과 예술 등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관철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된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이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2~53페지)

문화건설분야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본질과 악랄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시기 문화혁명의 임무를 과학적으로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서 공공연한 무력침공과 함께 경제 및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하는것은 놈들의 해외침략을 위한 상투적수법이다.

현시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문화적침투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과 관련된다.

오늘 사회주의의 기치는 세계의 광범한 대륙들에서 휘날리고있으며 사회주의력량은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다. 또한 세계적범위에서 반제혁명력량은 계속 장성하고있으며 제국주의의 반동세력을 압도하고있다. 지구상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피압박인민들이 각성되여 력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찾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화살을 쥐고 휘두르면서 핵공갈과 《평화적침투》, 탄압과 회유기만을 결합하여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을 침략하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문화적침투로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사상적으로 나약하고 반제적

립장이 견결하지 못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반혁명적공세에 문화적침투의 방법을 쓰고있다. 이리하여 놈들은 이 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반제의식과 혁명성을 마비시키고 온갖 반동적인것을 되살리며 점차 사회주의제도를 변질시켜 자본주의를 복구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또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선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을 다시금 식민주의올가미에 끌어넣기 위하여 이 나라들에 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원조자》, 《개발자》의 탈을 쓰고 이 나라들에 침투하여 썩어빠진 문화를 퍼뜨림으로써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반제의식을 마비시키고있으며 반동들을 매수하고 규합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을 우경에로 끌어내우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문화적침투를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 리용하는것은 문화의 특성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문화는 사람들의 의식발전과 세계관형성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착취자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며 생활의 진실을 외곡한 썩어빠진 부르죠아지의 반동적문화는 사람들에게 인간사회의 사회적관계와 그 발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주며 반동계급의 허위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추악한 작용을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의 이러한 역할을 악용하여 그것을 놈들의 야수적본성을 가리우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길잡이로, 식민지들에 대한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한다.

바로 오늘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그 뚜렷한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주한미공보원》과 같은 반동적인 문화적침투기구를 남조선에 두고 인민들에게 《반공사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고취하며 양키식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 역시 제놈들의 재침책동의 일환으로서 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 썩어빠진 문화와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미일반동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발맞추어 박정희괴뢰역적은 문화의 《근대화》를 구실로 미일반동문화를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이리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일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양키문화》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있으며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좀먹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제놈들의 반동문화를 침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방송,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만일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지 않고 그 잡습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킬수 없는것은 물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릴수 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적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실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인 동시에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을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침습을 막기 위한 투쟁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무엇보다먼저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데 돌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온갖 썩어빠진 부르죠아 문화와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문화건설분야에서 조그마한 부르죠아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4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데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뿐만아니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방도의 하나를 밝혀준 창조적사상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막는데 문화혁명의 기본화살을 돌려야만 놈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을 철저히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수 있다. 또한 우리 내부에 조그마한 부르죠아요소의 침습도 철저히 막아내고 교육, 과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을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막아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특히 그이의 사회주의문화건설에 관한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온갖 부르죠아반동적문화의 요소를 정확히 식별할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수령님의 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교활하게 사상문화적침투를 강화하는 조건에서도 그것을 똑바로 가려내고 그와 강하게 투쟁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철저히 분쇄하고 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사소한 부르죠아적요소와도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것이 조금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부르죠아적요소라도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리용될수 있다. 우리는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며 조그마한 부르죠아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그러한 요소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수정주의는 반동적문화침투의 안내자로서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문화와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바탕으로 된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수정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철저히 인식시켜 우리 내부에 수정주의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강

명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 반동적본질과 해독성, 그를 극복할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복고주의는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맑스주의적사상조류입니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봉건적 문화가 머리를 쳐들게 되며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됩니다.》(우와 같은 책, 5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은 로동계급문화의 본질적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문화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요구와 근로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옳게 반영한 문화로서 그것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문화이며 인류력사상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문화이다.

그런데 시대의 요구와 계급적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며 찬미하는 복고주의는 로동계급의 이러한 문화건설의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우리 시대의 요구와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의 반동성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기초한 탁월한 사상이다.

복고주의의 반동성은 문화건설에서 로동계급적선을 흐리게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가 허용되면 지난날의 온갖 낡은 문화가 되살아나게 되고 인민들의 의식속에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이 자라나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게 된다. 문화를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토대우에 확고히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문화건설분야에서 복고주의적경향을 조금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의 문화를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우리 혁명위업에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문화건설분야에서 과거의 낡은것이 조금도 되살아나지 못하게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 모든것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로동계급의 새 문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필수적요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복고주의의 해독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그것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정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며 인민적인것은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4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강령적지침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같이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훌륭히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인민적인것과 반동적인것을 정확히 가려내야 할뿐아니라 인민적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비판적태도는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인것과 반동적인것을 가려내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오늘의 시대적 및 계급적 요구에 맞게 개작하여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비판적태도를 가지고 낡은 사회의 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것과 생활에 유해로운것을 옳게 가려내야 하며 좋은것이라 하더라도 그 력사적제한성을 똑똑히 밝혀놓아야 한다.

또한 오늘의 사회주의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유산에 담겨져있는 민족적특성과 민족적형식의 긍정적측면을 살리는 동시에 그 제약성을 극복하고 혁명적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적극 창조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혁명적태도이며 이러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함으로써만 복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문화를 민족적바탕에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과 문화혁명수행의 근본 원칙과 립장이 독창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 문화혁명의 주되는 대상과 투쟁방침 및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 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

문화혁명과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 립장과 원칙,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 등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들로 하여금 문화건설분야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며 혁명적인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사상리론적 및 실천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할데 대한 창조적사상은 맑스-레닌주의문화건설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킨 빛나는 사상으로 된다.

우리는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문화건설의 창조적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참말로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로 만들어 그것이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더 훌륭히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농촌경리발전의 중심과업

장 윤 필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총결기간 농촌경리분야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면서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과업과 그 구체적인 방도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4페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탁월한 방침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탁월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며 사회주의농촌경리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제시하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키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집약화, 이것은 영농사업에서의 우리 당의 기본방침이다.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농법은 가장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며 그것은 농사에서 다수확의 기본으로 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농업생산의 특성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토지가 기본생산수단으로 되여있는 농업에서 생산을 높이는데는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경지면적을 늘여 총수확고를 높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위면적에 생산수단과 로력을 집중적으로 투하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것이다. 그런데 토지면적이 나라마다 일정하게 제한되여있는 조건에서 경지면적을 늘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방법만으로써는 농업생산을 계속 높이는데 제한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서는 농업기술의 보다 빠른 발전을 가져올수 없으며 농업생산의 자연기후적영향을 성과있게 극복할수 없다.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현대적과학기술과 선진영농방법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

여야만 토지면적의 제한성과 농업생산의 자연기후적영향에 좌우됨이 없이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나갈수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와 같이 산이 많고 경지면적이 적으며 자연기후적영향이 심한 조건에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경리발전의 선진적경험이 잘 증명해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후 근 반세기동안에 걸쳐 실시한 식민지략탈정책으로 말미암아 토양은 대우 척박해지고 황폐화되였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이와 같은 구체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농업생산을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에로 이끌어주심으로써 농업생산은 해마다 장성하였다.

또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되는것은 전반적경제발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과 관련되여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를 보장한다. 따라서 현대적기술로 장비되면서 빨리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우며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적과학기술과 선진적영농방법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업발전에 농업을 따라세울수 있으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현시기 우리 나라 농촌경리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농촌경리분야에서 이룩하여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6개년계획기간에 700만~750만톤의 알곡, 40만톤의 고기, 30억개의 알, 80만~100만톤의 과일, 4만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이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농업생산에 현대적인 물질기술수단들을 더 많이 투하하고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도입할 때라야만 그 어떤 자연기후적영향도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며 적은 땅에서도 수확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 특히 그렇게 해야 한해에 두번농사도 잘할수 있다. 이것은 현시기 농촌경리부문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담보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데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심과업의 하나인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하여 나서는 농촌경리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

고에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정보당 투하되는 로력을 평균 논에서는 60∼80공수, 발에서는 20∼30공수로 낮추어 한사람이 논은 5∼6정보, 밭은 8∼10정보이상 다룰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하여야 할 이 방대한 과업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방향으로 반전시켜야만 해결할수 있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요구와 관련되여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의 본질적요구는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단위면적에 현대적물질기술수단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하하며 반면에 로력은 적게 투하하여 생산의 보다 빠른 장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함으로써 농촌기술혁명을 촉진하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농업생산공정을 현대적기술공정으로 전환시키고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빨리 줄여나갈수 있으며 농민들도 로동자와 같이 점차 8시간 로동제로 넘어갈수 있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또한 현시기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수입과 생활수준을 로동자들의 수준에까지 올리자면 농업생산을 더욱 집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또한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36페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없애는것은 현시기 인민생활분야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며 농업에 대한 공업의 강력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켜 농민들의 수입을 늘여야 한다. 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는 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것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여야만 토지가 제한되여있고 농호당 차례지는 경지면적이 적은 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켜 농민들의 분배몫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늘일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는 단위면적에 보다 많은 생산수단을 지출하게 하는 반면에 로력투하를 종전보다 적게 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장성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을 급격히 늘일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빨리 높여 로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한편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이 창설되였으며 농촌경리를 포함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올라서게 됨으로써 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였다. 또한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업생산의 집약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실로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이 현시기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과업으로, 성숙된 문제로 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발전의 기본방향인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밭관개를 널리하여 2모작면적을 늘여야 하겠습니다. 밭관개를 하면 논농사뿐아니라 밭농사에서까지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될것이며 밭곡식의 정당수확을 훨씬 높일수 있을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4페지)

밭관개를 널리 실시하여 2모작면적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고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며 그것은 그만큼 새 땅을 더 늘이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밭관개를 널리 실시하여 2모작면적을 늘여야만 밭곡식의 정당수확고를 높일수 있으며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실천적경험은 분수식관수체계를 하고 2모작을 한 밭에서는 관개를 하지않은 밭에서보다 2~3배의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여기에 알곡증산의 큰 예비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밭관개를 널리 실시하여 2모작면적을 늘이는것은 또한 이미 이룩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과 토양 및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농촌기술혁명과 집약화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수리화를 규정하시고 그를 전당적, 전국가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령도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미 논관개가 끝났고 밭관개도 적지않게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논에서는 어떤 왕가물이나 큰물이 져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농촌기술혁명과 집약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우리는 수리화에서 달성한 이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논관개뿐만아니라 밭관개까지 널리하여 밭에서도 정당수확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현시기 우리나라에서 농업생산물을 늘이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수리화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들을 잘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2모작을 할수 있는 곳을 위주로 하여 30만정보의 밭에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관개체계를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논에서뿐만아니라 밭에서도 영원히 흉년을 모르게 하며 농업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6개년계획기간 우리는 도마다 주철관과 비닐관 공장을 꾸려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하며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분수식관수와 고랑관수를 배합하는 밭관개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시설들을 더잘 관리하고 물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밭관수면적을 적극 늘이며 특히 알곡대 알곡을 기본으로 하여 알곡대 남새, 알곡대 사료작물 등 2모작포전에 대한 전면적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기 위하여서는 밭관개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쳐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4페지)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농촌경리를 화학화하여야 농업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수단들을 더많이 투하하여 농업생산의 고도의 집약화를 촉진할수 있으며 농산물을 더욱 늘일수 있다. 농촌경리에서 화학화는 또한 토양을 개량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높이며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을 촉진하며 병해충을 없애게 함으로써 농

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을 화학의 힘으로 하게 함으로써 농촌에서 가장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하나인 김매는 일에서 농민들을 빨리 벗어나게 할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다그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6개년계획기간에 정보당 화학비료 시비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하고 그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며 우리 나라 토양과 작물에 맞는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다. 이것은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토양의 성질과 작물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성분을 가진 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만 땅을 비옥하게 만들수 있으며 적은 땅에서도 더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토양과 작물의 특성에 맞는 질소, 린, 카리 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비료시비량을 높이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워 비료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은 선진과학기술에 기초한 집약적농법의 기본요구이다. 더우기 오늘 화학비료시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조건에서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실천적경험은 화학비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비료들을 아무리 더많이 생산공급하여도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토지의 비옥도를 높일수 없으며 투하된 생산수단과 로력 등이 그 은을 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토양의 특성과 작물의 영양생리적특성에 맞게 3요소비료와 미량비료를 잘 배합하여 농작물의 생육기별로 제때에 알맞춤하게 주도록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농약을 효과있게 사용하여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는것은 집약화농법의 성과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병충해의 발생동태를 장악하고 상습지대에는 예방시약체계를 세우며 예찰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병해충이 발생하는 초기에 제때에 박멸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를 집약화하기 위하여서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작물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 커다란 예비는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4~45페지)

농업생산과정이란 곧 생물학적과정이다. 그런것만큼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적극 도입하여야만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과 토양조건에 맞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종자를 얻어내고 그의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울수 있으며 따라서 농업생산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생물학적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농업생산에 널리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 특히 봄에는 가물며 7~8월에는 장마가 지고 비바람이 부는데 견디는 다수확품종을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2모작이 널리 적용되는데 맞는 우량품종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밭 2모작 앞그루에 적합한 밀보리품종과 뒤그루로서 밭벼, 강냉이, 수수를 비롯한 알곡작물들의 품종을 길러내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파재배에 적합한 벼품종과 강냉이, 콩을 비롯한 작물들의 품종을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채종사업과 육종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방침대로 적어도 3~4년간 재배시험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확신성있는 종자들을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심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농촌경리의 기계화는 농업에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농민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은 더 많이 내게 하는 중요한 집약화방도이다. 더우기 오늘 이것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과업의 하나인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하여 제기되는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는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보다 효과있게 리용하며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 특히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널리 실현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기간에 무엇보다먼저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과 벼직파를 하는 논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점차 그 성과를 확대하여 가까운 앞날에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

토지정리사업은 모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집약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물질기술적조건들과 가능성을 적극 리용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벼직파를 하는 논과 관수체계가 실시되는 2모작밭들 그리고 하기 쉽고 투자가 적게 드는 대상부터 먼저하는 방향에서 토지정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중심과업과 함께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을 널리 진행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 땅을 얻기 위한 간석지개간사업도 널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으며 비교적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 좋은 농경지를 새로 많이 얻어내도록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5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에는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동시에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데 대한 원칙적요구가 구현되여있다.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켜야 할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현실은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동시에 경지면적확장의 가능성을 최대한 리용하여 농업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간석지개간사업을 널리 진행하여 좋은 농경지를 더 많이 얻어내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경지면적확장의 중요한 예비이며 농산물의 총수확고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6개년계획기간에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으며 비교적 빨리 개간할수 있고 관개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 좋은 농경지를 새로 많이 얻어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전체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공산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그리고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며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모두다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내놓으신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

김 원 삽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시면서 인민생활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향상에 관한 방침에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원칙, 그 구체적실현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그이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문제의 옳은 해결을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보다 고르롭고 넉넉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또한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창조적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한 위대한 리론적재부로 된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당의 립장과 그 해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전체 인민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74페지)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다 잘살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스-레닌주의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의 생활향상문제는 오직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제기될수 있고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에 기초하여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구경은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뿐아니라 고된 로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더욱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넉넉하고 골고루 높일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실시하여왔으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은 오늘 매우 유족

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그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향상되고있다. 이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인민생활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5페지)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이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여나갈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날 인민들이 다같이 넉넉하고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은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혁명에서 승리한 매개 나라는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제국주의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협을 면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과 건설을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지 않을수 없으며 인민생활문제를 그와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해결하여나가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하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에 철저히 부합되며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길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은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살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도 계통적으로 높여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다.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축적하여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하는 도상에 있다.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위업은 아직 이룩되지 못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결코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수 없으며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사람답게 검박하게 살아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마련하여놓은 거대한 경제적밑천을 다 인민생활에 돌린다면 우리 인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수 있으며 남보다 못지 않게 잘살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참다운 맑스-레닌주의적길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근본리익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면서 당면한 인민생활문제의 해결도 결코 소홀히 함이 없이 동시에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

다. 물론 이렇게 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당은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 하여도 이 문제를 다같이 틀어쥐고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선차적으로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게 할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고있다.

원쑤들의 임의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는 전쟁준비와 조국통일의 물질적준비를 위한 경제건설의 선차적보장은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요구하며 인민생활의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향상은 소비의 동시적장성을 요구한다.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동시에 소비를 끊임없이 장성시키는것은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설정하며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국민소득의 분배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인민생활의 당면한 요구뿐만아니라 전망적요구를 옳게 해결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여나갈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누구나 다 넉넉하고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는 오직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여나갈 때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생활문제를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현시기 인민생활의 균형적발전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과업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5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향상의 본질적내용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생활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그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면서 다같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상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그들이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다 잘 살아나갈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인민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상 차이와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인 과정으로 다같이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생활분야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나선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결은 인민생활분야에서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의 기본계급인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나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도시의 강력한 지원밑에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있게 전개되여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훨씬 줄어들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급속히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민들은 지난 시기 너무 어렵게 살았기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아직도 로동자들의 생활보다 못하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제대로 발양시킬수 없으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칠수 없다.

다른 한편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빨리 없앨수 있는 현실적가능성이 튼튼히 마련되였다. 이와 같이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6페지)

현시기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없애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민생활향상에서 군이 노는 역할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직접 농촌을 지도하며 농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그러므로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은 군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군이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더 잘 복무하자면 모든 군들에서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공급기지로서의 그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모든 군들에 랭동공장과 과일, 남새, 고기 가공공장을 잘 꾸리고 이동식가공설비도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고기, 과일, 남새 등 농산물을 제때에 수매하여 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의 공급기지를 잘 꾸리고 농촌상점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가공된 식료품과 여러가지 공업제품을 농촌에 공급하는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농촌을 뻐스화, 수도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

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7페지)

농촌에서의 뻐스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나라 농촌을 공산주의적농촌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민들의 생활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나갈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농촌리들에 뻐스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들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교통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될뿐아니라 군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는 더욱 밀접하여질것이며 이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인 농촌의 락후성을 더 빨리 없앨수 있게 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수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77페지)

농촌수도화의 실현은 현시기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을 도시주민들의 생활조건에 따라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이다.

농촌에서 수도화가 실현되면 농촌녀성들은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훨씬 벗어나게 되며 모든 농촌주민들이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살수 있게 될것이다.

농촌의 뻐스화와 수도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전면적으로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농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촌전기화가 완성되였고 교육 및 상품류통분야에서의 차이도 없어졌다. 또한 농촌의 편의봉사, 문화후생 조건들도 근본적으로 일신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년간에 농촌텔레비죤화가 실현되고 모든 농촌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기르게 되며 농촌보건사업과 주택조건이 결정적으로 끌리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서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도시주민들의 수준에 따라세울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탁월한 방침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상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상 차이를 없애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르롭게 빨리 높일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77페지)

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해마다 도시에서는 10만세대, 농촌에서는 15만~20만세대씩의 쓸모있고 현대적인 살림집을 지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 과업의 실현은 모든 근로자들을 아담하고 문화적인 집에서 살게 할데 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면모를 사회주의, 공산

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더욱 일신시키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또하나의 획기적인 시책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까운 몇해동안에 또한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로임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특히 낮은 로임을 받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로임을 훨씬 올리며 모든 소비품의 값을 대폭 낮출데 대한 과업을 내놓으시였다.

로임을 올리고 물가를 대폭 낮추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에 따라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월평균 로임수준은 90원에 이르게 될것이며 1976년에 벌방지대는 물론 산간지대에서까지 협동농민들의 세대당 화폐수입은 1,800원이상에 이르게 될것이다. 또한 소비품의 값은 30% 이상 낮추게 되고 대중소비품의 값은 무려 50%이상 낮추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훨씬 더 높아져 더욱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또한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그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보건사업은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모든 근로자들이 무병장수해야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병원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현대적의학과학을 더욱 높이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의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군병원을 잘 꾸리고 농촌리의 진료소를 병원화할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내놓으시였다.

군병원을 잘 꾸리는것은 근로자들의 치료예방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농촌리의 진료소를 병원화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누구보다 멀리 내다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구상될수 있고 실현될수 있는 웅대한 사회주의농촌보건강령이며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수준을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선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는 력사적인 사변이다. 우리는 군병원을 잘 꾸리는 동시에 농촌리의 진료소들을 병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쳐야 한다.

이와 함께 6개년계획기간에 사회문화시책비를 1.5배로 늘이는것을 비롯하여 인민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시책들을 실시하는데 계속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더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이 모든 조치들이 실현되게 되면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더욱 넉넉하고 골고루 잘살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방침에는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며 우리 인민에게 더 유족하고 더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덕성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중중첩첩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따라 싸워오셨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시려고 항상 심려하시고계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국방건설에 많은 자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난해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또다시 대폭 올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그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적지않은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추시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눅은 값으로 옷을 공급해주시는 등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유족하고 흥겨워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해빛보다 따사로운 품속에서 살며 일하고있는것을 최대의 영예로, 행복으로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라야만 그이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취하시는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특히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깊이 학습하여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수령님께서 회천명에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생산과 기술 발전에서 일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그이의 인민생활향상에 대한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있는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새와 알, 고기 생산을 더욱 다그쳐 부식물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생산을 더 늘이며 담수양어와 천해양식을 발전시켜 기름과 물고기, 김과 미역 등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도는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전국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

리 상 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과 함께 조국통일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원칙적인 립장을 재천명하시고 조국통일의 구체적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현괴뢰정권을 타도하며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이 기본방도는 남북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경험, 남조선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 유일하게 정당한 강령적지침이며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전국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아감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야 할것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현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1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에게 미치고있는 엄중한 후과와 조선인민의 근본적리해관계,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이다.

남북조선의 분렬은 특히 60여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외래침략자들의 군사적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파국의 일로를 걷고있으며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이 계속되고 나라가 분렬되여있는 한 남조

선의 현사태를 수습할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의 현사태를 바로잡으며 남조선인민들을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오직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나라의 분렬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 나라가 갈라진탓으로 우리 인민들은 벌써 26년동안이나 그리운 부모형제, 처자들과 친척, 친우들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보는것은 고사하고 서로 편지거래조차 하지 못하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있다.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조선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가고있으며 지어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져가고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이러한 민족적재난을 가실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국토의 량단은 또한 남북조선간의 모든 련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전조선사회의 통일적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남북조선의 경제적잠재력이 통일적으로 개발리용되지 못하고있으며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이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모두 어지지 못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하루빨리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종식시키고 분렬을 청산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함으로써만 이러한 불행과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이 민족최대의 과업을 더는 미룰수 없으며 후대들에게 갈라진 조국을 물려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인민은 시종일관 조국통일의 민주적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4페지)

자주적원칙과 민주주의적원칙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있는 이 조국통일방침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주적원칙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의 우리 당의 근본립장을 구현한것으로서 그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방안의 전체내용과 방향을 규제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오직 자주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조선에서의 모든 정세발전과 력량관계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목적에 유리하게 주동적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자주적원칙이 관철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원칙도 현실적의의를 가질수 있고 그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 즉 자주적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야만 조국통일문제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의 통일위업실현에서 자주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것, 이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성과적실현을 위한 기본전제로 되며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조국통일의 민주주의적원칙은 자주적원칙에 종속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조국통일의 정확한 수행을 규제하는 원칙으로 된다.

조국통일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전

체 인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 없으며 그들의 근본리익도 보장될수 없다. 민주주의적원칙이 관철됨으로써만 나라의 통일문제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해결의 실제적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의사와 근본리익에 맞게 해결될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적원칙은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서 뗄수 없는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참을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전체 남북조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전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매번 침략적인 도발책동으로 대답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 매달리면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도 반대하고 남북조선련방제도 반대하였으며 남북조선의 평화협정체결과 무력축소도 반대하였다. 놈들은 남북간의 경제문화교류, 인사래왕, 남북조선 대표들간의 접촉과 협상, 남북간의 서신거래 등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우리 당의 모든 제안들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닥치는대로 체포, 구금, 학살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92~93페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이 입버릇처럼 부르짖고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를 꿈꾸는자들의 허황한 망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있으며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고있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심장을 확고히 틀어잡았으며 허물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힘으로 전변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것은 사실상 통일은 하지않겠다는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 것이다.

놈들이 떠벌이고있는 《남침의 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속일수 없는 거짓이다. 《남침의 위협》이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려는 제놈들의 범죄적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가 만들어준 각본에 따라 요즘 남조선괴뢰들이 떠들어대는 《평화통일구상》에 대한 너두리도 역시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모략선전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 모략선전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는 자주적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더욱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힘있게 틀어잡고있는 우리 당의 자주적통일방침을 훼손하며 제놈들의 범죄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기만극이다.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남북적십자단체들에 의하여 남북의 접촉과 교류의 길이 트이게 된 오늘에 와서까지도 이 고질적인 악습을 되풀이 하고있다.

놈들은 남북의 《대화》와 《접촉》을 《경계》해야 한다느니, 《유엔감시하의 선거》라는 종전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남조선에서 급격히 높아가고있는 조국통일의 기운을 막기 위하여 파쑈폭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러한 매국노들과는 통일문제를 운운한다는것조차 절대로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그 더러운 개박정희도당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여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 20여년간의 줄기찬 투쟁의 력사적경험 그리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4페지)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괴뢰도당을 타도하여야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때려부시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것은 남조선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이다. 미제침략군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있고 현군사파쑈독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폭력으로 남조선혁명력량을 미친듯이 탄압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들고일어나 폭력적방법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며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한다면 민족분렬의 화근을 없애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정치적기초가 마련될것이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이와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반제민족해방혁명의 리익과 전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부합되게 자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전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도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원래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 나라 인민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남에게 의존해서 독립을 하며 남의 덕에 잘살아보겠다는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며 또한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의 힘으로 완수해야 하며 조선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3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

에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 내정문제로서의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이 명시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사상리론적기초이며 그 지도적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에서 그 위대성, 창조성, 정당성이 확증된 필승불패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세계사적인 대변혁들과 빛나는 업적들은 오직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었다는것을 확증하고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해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그 승리의 필수적요구이다.

조선인민의 주체적력량과 자주적립장만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들을 능히 주동적으로 극복할수 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의 위업은 오직 자주적립장에서 우리 인민의 주체적힘에 철저히 의거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그것만이 조국통일문제를 전민족의 의사와 조선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또한 철저한 반제반미적인 혁명적원칙성으로 일관되여있다.

분렬된 나라의 통일문제에서 반제혁명적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의 진정한 통일독립을 이룩하는가 못하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력사적경험은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분렬된 나라들에서 반제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통일문제해결에서 반제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특히 미제를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엎는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중심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는것은 우리 나라 내부문제, 내정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인 기초우에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부합되게 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미군의 남조선주둔과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우리 조국 통일의 근본장애입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371폐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남조선에서 놈들이 감행하고있는 범죄적책동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다.

미제는 100여년전부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였으며 특히 8.15후부터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고있다.

오랜기간 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감행해왔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뒤받침해준 장본인도 미제국주의자들이였으며 국경아닌 국경을 조작하고 하나의 조선을 남북으로 갈라놓은것도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또한 남조선에 기어든 첫날부터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나아가서는 아세아대륙을 침략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고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장본인도 미제국주의자들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앞에 수많은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면서 그를 한사코 반대하는놈도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현하자면 우선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또한 외래침략세력의 반판으로 되고있는 매국세력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지난날에는 일제의 번견이였고 그후에는 미제의 주구로 변신하였으며 오늘 미일제국주의의 충실한 앞잡이로 되고있는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은 타도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력을 그대로 두어두고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71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오늘 미일반동의 충실한 2중주구인 박정희와 같은 매국노들을 때려엎는것이 자주적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명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정권을 때려엎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미제가 의거하고있는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허물어뜨리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놈들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지배의 구실을 없애버리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미제를 등에 업고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을 발판으로 하여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마수를 꺾어버릴수 있게 한다. 즉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는것과 함께 괴뢰정권을 때려엎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조건을 조성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해서는 오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주체적이며 반제혁명적인 조국통일의 기본방도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괴뢰정권을 때려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우리 인민이 자신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게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주동적으로 통일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도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을 새로운 위대한 승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위업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성취하려는 남북조선인민들의 지향과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원쑤들의 발악적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힘에 의한 나라의 통일은 실현되고야말것이며 그날은 더욱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은 쫓겨나고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은 타도되고야말것이며 남조선혁명은 승리하고 우리 조국은 통일되고야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방침

김 경

현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책동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거기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과 투쟁방침들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을 저지파탄시킬데 대한 원칙적투쟁방침들은 아세아에서 미일반동들의 침략책동을 힘있게 짓부시고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촉진시키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투쟁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아갈 때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저지파탄시킬수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튼튼히 지켜나아갈수 있다.

⁘ ⁘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아세아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 앞에는 미제국주의침략을 좌절시키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매우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 모든 반제력량들의 중요한 투쟁과업으로 된다는 원칙적인 전략사상이 천명되여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사상은 미제의 아세아전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에 기초하고있다.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아세아를 지배하려는 극히 침략적인 계획밑에 재무장책동을 날로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지금 일본에서는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른바 《자위대》는 현대적장비를 갖춘 약 30만명에 이르는 륙해공군병력을 가지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골간으로 하여 미제가 도발하는 침략전쟁에 아무때나 수백만의 군대를 편성하여 동원할수 있는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놈들은 《국력에 상응한 군사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침략무력을 증강하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재무장을 발악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국가기구를 더욱 반동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파쑈화를 급속히 추진시키고있다. 한편 전반적인 군국화를 위한 중요한 고리로서 천황숭배사상과 민족배타주의 및 복

수주의 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인 군국주의적사조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으며 수많은 우익테로단체들이 반동지배층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활개치고있다.

나라의 전면적인 파쑈화와 군국화가 강화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온갖 진보적인 요소들이 마구 탄압당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재무장책동을 다그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아세아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머리를 쳐들고일어났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그것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로골화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전반적인 반제반미투쟁의 승리와 아세아 및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하여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보여준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특히 놈들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군사정치적으로 결탁되여있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의 적극적인 《돌격대》로 복무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커지고있다.

아세아에 대한 공통적인 침략야망으로 하여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침략적결탁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이른바 《새 아세아정책》에서 일본군국주의를 앞장에 내세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에 추종하여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보다 강화하면서 손아래동맹자, 침략적군사기지로서의 일본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더욱 적극 리용하고있으며 한편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수행의 충실한 앞잡이로, 《돌격대》로 복무해나서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침략적공모결탁은 1969년 11월 닉슨도당과 사또도당이 발표한 《공동성명》이후 더욱 더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동성명》에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을 아세아침략의 주되는 타격력으로 내세우며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지난날의 식민지세력권에 다시 침투하도록 보장해줄것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였다.

닉슨—사또도당이 이른바 《태평양새 시대》를 부르짖으면서 미일제국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식민지 략탈과 지배의 《새 질서》를 세우겠다고 떠벌인것은 아세아에 대한 놈들의 강도적침략의 흉악한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놈들이 그 무슨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미제침략군이 이 지역에 계속 눌러앉아있어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일본은 미제와 《협력》하여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공헌》할것이라고 개친것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놈들의 침략적공모결탁과 아세아에 대한 공통적인 침략야망의 직접적반영인것이다.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자체의 해외팽창정책의 요구에 따라 침략적군사동맹인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자동연장되였으며 그것은 더욱더 로골적인 침략조약으로 개악되고있다.

미일반동들은 지어 지난 6월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협정》까지 꾸며냄으로써 일본본토까지도 미제의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고 아세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의 길을 공공연히 터놓았다.

이와 같이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 두 강도배들의 반동적결탁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엽고엽히면서 저들의 침략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있다.

현실은 최근년간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침략적공모결탁이 날로 강화되고있으며 그것을 저지파탄시키지 않고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침략 책동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없을뿐아니라 미제의 아세아전략도 성과적으로 분쇄할

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지금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의 길에 더욱더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를 등에 업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공공연히 뻗치고 있으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에서 우리 나라는 그 첫번째 공격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에 본격적으로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극히 모험적인 전쟁계획을 짜놓고 조선전선에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투입할데 대한 모략을 공공연히 꾸미고있을뿐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까지 선포하였다.

미제의 비호밑에 박정희괴뢰도당과 맺은 《한일협정》을 계기로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일《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조선에 대한 군사적침략에 더욱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중상비방을 늘어놓으면서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제놈들의 침략무력을 조선에 출동시킬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았을뿐아니라 지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도 생각해야 한다고까지 꺼리낌없이 떠벌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가 퍼뜨리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감축》설에 발맞추어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미제침략군이 해온 역할을 제놈들이 대신하려고 획책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파병음모책동을 더욱더 로골화하고있다.

지난 7월초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놈이 미제과쑈호진광인 부대통령 애그뉴놈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 기여들어 박정희괴뢰도당과 밀담을 벌려놓은것은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 공동작전태세를 완비하며 일본 《자위대》무력을 남조선에 직접 끌어들이기 위한 흉계를 구체적으로 꾸미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로 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이미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놈들은 지난날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오늘 또다시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전면적인 재침책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또반동정부의 적대시정책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첨예화된 우리 나라에서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으로 남조선은 미일제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새로운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의 《맹주》가 될것을 참망하면서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지금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일본령토를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내여맡기고있으며 일본사또반동정부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적극적인 지원자로 협력해나서고있다. 놈들은 미제의 침략정책에 추종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 집요하게 추구하고있으며 대만에 대한 령토적야심을 품고 《두개중국》조작음모에 앞장서날뛰고있다.

해외팽창야망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아세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재침책동과 때를 같이하여 세계의 더욱 넓은 지역

에로 침략의 더러운 발길을 뻗쳐나가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제재도 받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103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원조》의 간판밑에 아세아지역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를 더욱더 예속시키고있다. 따라서 아세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투의 지반은 날로 확장되여가고있으며 이것을 미끼로 놈들은 군사정치적침략의 길에 더욱 깊이 들어서고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사람이라는 간판밑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나라들에 침투하여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실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책동은 경제적침투의 범위를 벗어나 령토적야욕을 서슴없이 제기하는데까지 나아가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제놈들의 이른바 《방위권》이 북쪽은 알라스카이남으로부터 남조선, 대만, 남부웰남을 거쳐 서남으로는 마락카해협에 이르기까지, 남으로는 아라후라해협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아세아전역에 이른다고 떠벌이면서 미제와 함께 이 지역에서 《새 질서를 창조》하겠다고 오만하게 고아댄 사실은 놈들의 팽창주의적야망이 지금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제와의 공모결탁밑에 감행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재무장과 해외침략 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는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로 하여금 놈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책동에 더욱더 경각성을 높이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한 원칙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질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습니다.》

(우와 같은 책, 10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일본독점자본의 대변자로 복무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침략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일본반동정부는 일본독점재벌의 리익의 철저한 대변자이며 그 침략과 전쟁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이다.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정책은 일본독점자본의 부활과 그 지배체제의 확립에 기초하여 실시되고있으며 일본반동정부가 실시하고있는 모든 정책은 철두철미 일본독점자본의 침략적 및 략탈적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에 따라 미제에 종속된 체제밑에서 급속히 팽창되였으며 다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미제는 아세아침략수행에서 일본군국주의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적극 리용하려는 흉악한 야망밑에 패망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재무장책동을 강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일본군국주의의 온상인 일본독점재벌을 다시 부활시켰다.

전쟁으로 자랐고 전쟁으로 망한 일본독점자본은 특히 미제가 전후 20년도 못되는 사이에 아세아에서 일으킨 두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또다시 배를 불리고 살찌였으며 오늘 팽창될대로 팽창되였다.

오늘 일본에서는 독점자본에 의한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촉진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거대한 금융자본의 지배체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일본독점자본은 경제적령역에서뿐만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 걸쳐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 커다란 정치적세력을 형성하였으며 국가정치적권력을 틀어쥐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팽창될대로 팽창된 일본독점자본은 지금 새로운 안정된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는 살아갈수 없는 심각한 모순에 부닥치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심각화되고있는 위기의 출로를 대내적으로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증강, 국내체제의 파쑈화와 인민대중에 대한 탄압 및 략탈의 강화에서 찾는 한편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더욱 로골화하는데서 찾으며 하고있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은 바로 독점자본의 이와 같은 침략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와 함께 어제날의 패망을 앙갚음하려는 복수심, 독점자본의 급격한 팽창으로 《대국》이 되였다는 과대망상, 옛《식민지제국》을 다시 세워보려는 광신적인 침략적야망, 아세아와 세계에서 급속히 장성하는 불패의 혁명력량에 대한 공포심과 증오심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더욱 무모한 침략의 길로 나가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적요구와 저들자신의 커가는 침략적야망에 따라 또다시 모험적인 침략전쟁의 길에 뛰여들리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더우기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와 밀접히 결탁하여있으며 그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의 가장 야수적이고 강도적인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으며 그것은 독점자본의 날로 늘아가는 팽창야욕으로 하여 더욱더 증대될뿐이다.

그러므로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그와의 투쟁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미일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아야 한다. 미일간의 모순이 있다하여 그것을 과대평가하면서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리용할수 있다는것만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적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여전히 종속적동맹관계로 결탁되여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따라서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기대도 가질수 없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성을 보지 않고 그와 투쟁하지 않으며 일본반동정부를 미화하거나 놉들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아세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며 놈들의 해외팽창을 조장하고 고무해주는것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또한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해주며 전반적반제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 철저한 혁명적립장과 태도를 견지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의 흉악한 해외팽창야망을 저지파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로 된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은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도 거

대도 가지지말고 놈들의 위선적정체를 날날이 발가놓을 때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책동을 반대하여 힘있게 투쟁해 나갈수 있다.

아세아와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일떠서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책동을 저지파탄시킴으로써 놈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며 침략의 더러운 손길을 뻗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무마하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놈들의 《평화》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며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놈들의 책동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할 때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기 위하여서는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책, 10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인민의 투쟁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침략과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으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오늘 일본인민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이 강화되고 일본이 미제의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된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하고있다. 아세아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때 일본인민은 더욱 큰 고무를 받게 될것이며 그들은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에서 투쟁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짓부시며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을 저지파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책동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의 반동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아세아나라들에 대한 재침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조건에서 아세아인민들은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놈들의 침략책동을 힘있게 짓부셔버릴수 있다. 따라서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은 미일반동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전략적요구로 된다.

아세아나라인민들은 오래동안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혁명투쟁을 함께 벌려 승리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있다.

조선과 중국 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웠으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이겼다. 오늘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서 어깨겯고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인도지나인민들은 프랑스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며 지금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벌리고있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하여주고있다.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전선을 펴고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며 놈들의 침략책동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할 때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공모결탁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며 놈들의 침략적야망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 *

현시대의 걸출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을 저지파탄시킴데 대한 원칙적인 투쟁방침들은 아세아에서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힘있게 수호해나가는데서 강력한 무기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투쟁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시종일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재침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나아감으로써 놈들의 해외팽창야망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와 결탁하여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에 흉악한 재침의 미수를 뻗치려고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으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되였으며 오늘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은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였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침공도 물리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우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력이 또한 비할바없이 강화되였고 영웅적웰남인민을 비롯한 인도지나인민의 해방투쟁의 세찬 불길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타오르고있으며 일본인민의 투쟁도 또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만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선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 모험의 길에 뛰어든다면 놈들은 우리 인민과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력량앞에서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말것이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과 아세아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위업은 필승불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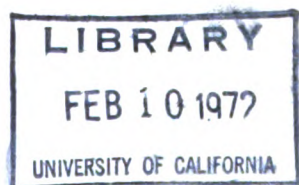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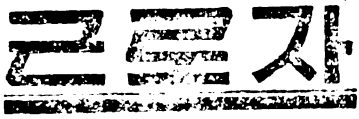
근로자 제9호 (루계 354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71년 9월 1일 발행 • 1971년 9월 5일

ㄱ—11227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0 호(355)

차 례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 성 애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3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 공화국녀성들의 대중적혁명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총결기간 녀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창조적활동을 벌렸으며 우리 녀성들은 당의 붉은 전사로서, 당당한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자랑찬 업적들에는 우리 녀성들의 줄기찬 투쟁과 숭고한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정세와 혁명발전의 객관적현실은 당의 방조자이며 인전대인 녀성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그 역할을 한층 더 높일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는 전반적조선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내놓았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녀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오늘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나라 모든 녀성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임무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는 전체 인민들과 녀성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열리였습니다. 이 대회는 조선민주녀성동맹의 강화발전과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이며 5차당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녀성들을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입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녀성해방의 위대한 강령과 그 실현을 위한 녀성동맹의 과업

동지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업적을 총화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5차당대회보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면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다 같이 고르롭게 높일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특히 우리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방침들은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의 승리적전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입니다.

녀성문제는 오랜 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는 중요한 사회적문제이며 녀성운동은 사회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습니다. 녀성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새 사회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 반세기에 이르는 혁명투쟁의 전기간 녀성문제해결에 시종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었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나아갈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투쟁방도를 밝혀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녀성들의 사회적처지와 생활에서는 실로 놀라운 세기적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녀성들은 오래동안 봉건적예속과 일제의 민족적억압과 자본의 착취밑에서 2중 3중의 압박과 착취를 받았으며 심한 불평등과 완전한 무권리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녀성들은 한평생을 두고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하면서도 언제나 헐벗고 굶주려야 하였으며 썩어빠진 봉건유교도덕에 얽매여 인신적인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지난날 녀성들은 사회정치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을뿐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것은 하나의 옛말로 되였으며 그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미 오래전에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과 예속에서 해방되였으며 사회적평등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제통치시기에 15성상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을 해방하여주시였으며 해방후에는 몸소 인민정권을 세우시고 남녀평등권법령을 반포하시여 우리 녀성들을 수천년에 걸친 봉건적 예속과 질곡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녀성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전기간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육친적인 배려에 끝없이 고무된 녀성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로동으로써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녀성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은 비할바 없이 높아졌으며 그들의 도덕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의 한 부대를 이루고있으며 나라의 경제문화건설과 정치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녀성문제해결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녀성운동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것은 결코 아니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아직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으며 사회와 가정에서의 이중적부담을 걸머지고있습니다. 일부 녀성들의 머리속에는 자본주의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않게 남아있으며 그들은 낡은 도덕과 뒤떨어진 생활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적극 벌려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에게 남자들과 완전히 꼭같은 조건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녀성들을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천명하신 녀성해방에 대한 위대한 사상이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로선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녀성문제해결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로력자구성에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오늘 녀성들은 공업부문에서 로력자수의 45.5%를 차지하고있으며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거의 6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업부문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유해로동과 고열로동이 남아있으며 농업로동이 계속 힘든 로동으로 남아있는 한 녀성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문제는 해결될수 없습니다. 오직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공업부문로동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고 농사일을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하게 될 때 비로소 근로자들과 녀성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3대기술혁명의 하나로 규정하심으로써 녀성들을 사회생활령역에서뿐아니라 가정생활령역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이 걸머지고있는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은 그들의 사회적활동을 적지않게 제약하고있으며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것을 저애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힘과 재능을 사회주의건설에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모든 식료품들을 공업적방법으로 가공하여 공급하고 가정용 랭동고와 세탁기, 전기밥가마를 비롯한 부엌세간들을 많

이 생산하여 공급하며 옷공장, 세탁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설들을 잘 갖추어준다면 녀성들은 시간을 얼마 들이지 않고 부엌일과 가정일을 헐하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농촌수도화방침에 따라 군소재지들과 모든 농촌부락들에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농촌녀성들도 수천년동안 물려내려오는 물동이를 이는 일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녀성들은 남자들과 다름없는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가지게 될것이며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이와 같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강령일뿐아니라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에서 해방된 우리 녀성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하며 그들에게 가장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녀성해방의 력사적인 과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5차당대회보고에서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기를데 대한 문제를 문화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녀성들의 완전한 해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놓으신 또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는 커다란 배려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탁아소, 유치원들의 수용능력을 더 늘이며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모든곳에 그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추어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다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66년 10월에 진행된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 이후 탁아소, 유치원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전국보육원, 교양원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에는 수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새로 훌륭히 꾸려졌으며 어린이 양육과 교양 사업이 혁신개선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250만에 이르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이 훌륭한 양육조건과 교육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녀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의 광범한 사회적진출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됩니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였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우리 녀성들을 이제 부엌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고 어린이양육에서 걸머지고있는 부담에서까지 완전히 해방한다면 그들에게는 실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게 될것이며 모든 녀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칠수 있게 될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월한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이 싹트게 되며 조직적인 생활기풍에 몸젖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교양을 받는다면

그들이 커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녀성들은 국가사회생활과 가정생활 특히 자녀교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는것만큼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여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할수 있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될뿐아니라 녀성운동자체의 근본요구로 됩니다.

녀성들이 착취와 억압, 예속과 무권리에서 해방되였다고 하더라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 뒤떨어진 생활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녀성들의 해방은 완전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또한 녀성들이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문화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들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여있는 사회적 평등과 권리마저 제대로 행사할수 없습니다.

녀성들이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유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 때 비로소 그들의 해방은 완전하고 종국적인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녀성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사상의식과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모든 녀성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과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녀성문제해결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보고는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밝혀준 위대한 투쟁강령일뿐아니라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녀성운동의 근본원칙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방도를 뚜렷이 천명한 녀성해방의 위대한 력사적선언입니다.

5차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는 우리 나라 녀성들에게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주고 그들을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고있으며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에게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여주고있습니다.

5차당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보고를 심장으로 접수한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은 커다란 감격과 새로운 투쟁결의에 충만되여있으며 자기들에게 해방과 평등과 행복을 주시였으며 보다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고계시는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기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위대한 혁명적 로선과 방침들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녀성동맹조직들은 수령님께서 5차당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녀성들을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이 영예로운 투쟁에서 자기들의 모든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들에서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행정에서 기술혁명을 당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과학과 기술발전에 크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당한 사회주의건설자로서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는것만큼 기술혁명수행에서도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특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녀성들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녀성들은 이 영예로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이 기술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기술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술학습을 널리 조직하며 모든 녀성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녀성들은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꼭 배우도록 하며 기술을 아는 녀성들은 새로운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젊은 녀성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그들이 모두 기능자, 기술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나이많은 녀성들도 모두 근로자중학교에서 일반지식을 배우는것과 함께 일정한 기술지식을 배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대담하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많은 녀성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산설비와 기계들을 개조하며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낡은 생산기준을 대담하게 마사버리고 새 기준을 창조하는 사업에 녀성들이 적지않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는곳마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대담하고 창조적인 발기로써 기술혁신운동의 앞장에 서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고있는 모범적인 녀성방직공과 제사공, 녀성신반공과 녀성뜨락또르운전수를 비롯한 수많은 녀성로력혁신자들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혁명수행에서 녀성들이 놀고있는 역할은 우리 녀성들에 대한 수령님의 높은 기대와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비해볼 때 아직 부족합니다.

녀성들은 기술발전에 대한 낡은 사상관점과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대담하게 깃부시고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자기 부문의 기술과 설비, 자기 기대에 정통할뿐아니라 생산설비들을 끊임없이 개조하며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경리부문과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강

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녀성들은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내놓으신 농촌기술혁명의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분수식관수를 비롯한 발관개체계를 널리 실시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 화학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녀성들은 자기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산업공장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성들은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참가하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유선방송이 들어가고 거의 모든 리들에 텔레비존이 들어갔으며 집집마다 신문 또는 잡지가 차례지고있습니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늘어나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문화적혜택을 받고있으며 그들의 문화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난날 글 한자 배울수 없었고 문화생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였던 우리 녀성들도 오늘은 수령님의 따뜻한 배려에 의하여 모두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당당한 주인으로, 창조자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녀성들의 문화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형편에 있으며 특히 40살이상 되는 녀성들의 문화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지난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혹시 받았다면 부르죠아사회에서 자본주의적교육을 받았을뿐입니다.

오늘 녀성들의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빨리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객관적요구이며 따라서 이것은 우리 녀맹조직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의 일반지식수준과 전반적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의 지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 어머니학교를 잘 운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머니학교는 녀성들속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선전하며 일반지식과 문화지식을 보급하여 녀성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기관, 기업소들과 농촌, 가두에 어머니학교를 잘 꾸리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좋은 동무들을 강사로 배치하여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머니학교들에 좋은 교재와 교양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주며 어머니학교운영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전국에 널리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어머니학교를 통하여 문화수준을 전반적으로 한 계단 더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자기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뿐아니라 나라의 전반적 문화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자기 가정과 인민반, 자기 마을과 직장을 언제나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정치생활과 문화생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문화혁명수행에 대한 당의 모든 방침들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본성에 맞게 살며 행동하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당이 취한 현명한 조치들과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과거 사회에서 물려받은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낡은 도덕과 생활유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도덕과 생활유습을 반대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함으로써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도덕과 생활유습 가운데서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것은 대담하게 버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살려서 사회주의적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녀성들은 생활에서 필요없는 허식을 차리고 랑비를 가져오게 하거나 아들딸들을 락후한 방법으로 기르는것과 같은 낡은 관습은 버려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례절이 바르며 시부모를 존경하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도덕과 관습은 살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녀성들은 또한 개체생활을 잘하고 사회적인 공동생활질서와 공산주의도덕의 모든 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한편으로는 녀성들속에서 낡은 생활유습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있으며 계급적원쑤들의 반혁명적준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첨예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을 더욱 높이며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지 않는다면 부르조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협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지 않고서는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없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당과 근로단체조직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자기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겨야 하며 여기에 가장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과 그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녀성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모든 녀성들을 로동계급적관점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미워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녀성들속에서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높이며 모든 녀성들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이느때나 동원될수 있도록 그들을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천리마작업반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할수 있게 하는 대중적운동입니다. 다시말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과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목적은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은 결코 그들의 혁명실천, 생산활동과 떨어져서 진행될수 없습니다. 사상혁명과 혁명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훌륭한 방도는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확증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심화발전시키는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이 일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인민반들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속에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결정적으로 뿌리빼고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모든 녀성들이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이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곳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생산에 참가하고있는 녀성들속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녀성들이 로력전선에서 위훈을 떨치도록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계획과제들을 언제나 어김없이 완수 또는 넘쳐완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어린이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청년들과 아동들은 우리의 교대자들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후대교양문제는 곧 혁명의 장래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후대들을 옳게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위업의 참된 계승자로 키울수 있으며 우리가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어놓은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고 잘 교양하여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것은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녀성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자이며 교양자일뿐아니라 사회적으로

도 어린이 양육과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양을 담당하고있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모두 녀성들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가운데서 녀성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교양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녀성들에게 달려있으며 학교교육의 질도 녀성들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어린이 양육과 교양사업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며 모든 녀성들이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이미 있는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잘 꾸리고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 5차당대회에서 내놓으신 방침대로 우리 나라의 모든 학령전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 로동자구들에 새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많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탁아소, 유치원 건설사업을 전 사회적운동으로 널리 벌려 이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탁아소, 유치원들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보육원, 교양원들의 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보육원, 교양원들을 좋은 동무들로 선발육성하며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 모든 보육원, 교양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어린이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양육사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질좋은 식료품과 놀이감들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것입니다. 과학연구부문과 식료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어린이식료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널리 진행하며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맛있고 영양가높은 어린이식료품을 많이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용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으며 어린이들의 지능발전에 도움이 될 맵시있고 아름다운 여러가지 놀이감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군들에 산원시설을 강화하고 아동병동을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습니다.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산원시설과 아동병동을 꾸리는 사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녀성들은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합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닉슨주의》의 새로운 기만적간판뒤에서 남조선에 현대적대량살륙무기들과 침략적군사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으며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남조선에 기여들고있습니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도발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새 전쟁 준비에 더욱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음모와 온갖 도발책동에 대하여 언제나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어떤 불의의 시각에 원쑤들이 쳐들어와도 그것을 단호히 맞받아나가 싸울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절대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그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물자예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을 대신하여 자기 공장과 자기 협동농장을 운영하여 전시생산을 보장하며 자기 마을과 자기 일터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도록 생산기술과 관리운영방법을 꾸준히 배우며 로농적위대훈련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인민군대후방가족원호사업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군장병들로 하여금 조국보위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그 가족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녀성동맹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녀성동맹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인정하시고 언제나 녀맹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녀성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총결기간에만 하여도 1968년 10월 11일교시와 1969년 8월 20일교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시와 로작들에서 매 시기 녀맹사업의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녀맹일군들과 녀성들을 친히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세심한 지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녀맹일군들은 언제나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과 녀성동맹사업을 한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녀성동맹조직이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녀성들의 혁명적대오로 자라난것입니다.

지난날 녀성동맹은 이름만 있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직체계도 웃기관만 형식적으로 있고 아래에는 똑똑한 조직이 없었으며 일부 있는 녀맹조직들도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회조직에 용해되여 그에 복무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적지않은 녀맹지도일군들은 수정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았으며 국제대회에나 다니면서 행세식으로 일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녀맹제3차대회는 유야무야하던 녀성동맹사업을 개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녀맹제3차대회에서 수령님께서는 녀성동맹조직들과 우리 나라 녀성들이 나아갈 앞길을 또다시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녀성동맹이 당의 강력한 인전대로서, 근로녀성들의 사회정치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녀성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산 조직으로서 늘 움직여야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제구실을 할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조직체가 이름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 조직이 아니라 죽은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소용이 없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을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전투력이 강한 혁명적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녀맹조직체계를 사회주의사회의 근로녀성들의 정치조직답게

혁명적으로 개편하고 녀맹대렬을 정리하였으며 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동맹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또한 녀성동맹의 기본구조와 기반, 휘장을 새롭게 제정하고 모든 동맹원들에게 맹원증을 수여하였으며 가맹사업과 이동절차에 이르기까지 동맹조직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격한 제도와 규률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지도되는 통일적인 혁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녀성동맹의 기본임무는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을 하나의 문화계몽단체로 여기는 그릇된 경향을 없애고 녀맹사업의 기본을 녀성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 두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근로녀성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이후 녀성동맹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으며 녀성동맹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녀성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학습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하며 체득하기 위한 운동이 군중적으로 벌어진 결과 수많은 녀성들이 수령님의 로작들과 혁명활동략력의 기본사상과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통달하였습니다.

녀성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학습함으로써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과 혁명의 뿌리를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충성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있으며 살아도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투쟁하다가 한목숨바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가득차있습니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제시되면 제때에 집행대책을 토의하고 그 관철에로 녀성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였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녀성동맹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벌리였습니다.

한때 수정주의분자들은 녀성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수정주의분자들은 녀성들속에서 《현모량처》, 《녀필종부》와 같은 썩어빠진 봉건유교도덕을 설교하였으며 안일부화한 사상과 양풍을 퍼뜨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녀성들을 옛날과 같이 집에 들어앉아 남편의 시중이나 드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화타락하게 만들어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서 떼여내려고 책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님께 언제나 충직한 녀성동맹과 녀성들은 수정주의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제때에 짓부셔버렸습니다. 수정주의분자들과 그들이 뿌린 사상독

소를 반대하는 심각한 사상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녀성들속에 봉건유교사상과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가 들어오는것을 철저히 막았으며 녀성동맹의 사상의지의 순결성을 튼튼히 지켰습니다.

오늘 조선민주녀성동맹안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전동맹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으며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사상과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섬으로써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녀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동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참으로 조선녀성운동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녀성들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결속된 때는 없었으며 오늘과 같이 녀성동맹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전동맹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찬 혁명적대오로 꾸려진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녀성동맹은 조선로동당의 강력한 인전대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녀성들의 혁명적대오로 자라났다는것을 대회앞에 떳떳이 보고할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들은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전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동맹조직생활체계를 세우고 녀성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지난날 녀성동맹에는 동맹조직생활체계가 없었으며 맹원들은 동맹의 조직적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초급녀맹단체들에서 회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고 동맹생활총화를 하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동맹조직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엄중한 상태를 수습하고 각급 녀맹조직들에서 녀맹회의와 동맹생활총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엄격한 제도를 세웠으며 모든 동맹원들이 늘 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녀성들이 언제나 녀맹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생활하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단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든 녀성들이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시며 열렬한 녀성혁명가이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초급녀맹단체들에 어머니학교를 안뜰히 꾸리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녀성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강습과 강연회들을 통하여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활동을 널리 선전하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특히 녀성들속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자》 백번읽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녀성들이 강반석녀사의 열렬한 혁명정신과 고매한 품성을 본받도록 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는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지난날 적지않은 녀성들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과 자기 가정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사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가정생활이나 안온하게 해나가려는 리기주의사상에 물젖어있었으며 집안에 들어앉아 남편의 시중이나 들고 아이를 기르는것으로 만족해하는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지 않고서는 녀성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울수 없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빼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공산주의적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한편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들이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가정살림보다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그들을 집단적로동속에서 단련시키는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성과적으로 개조되며 빨리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집단적로동을 통해서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로동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체득할수 있으며 혁명적으로 단련될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모든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집단적로동속에서 자신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며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과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근로녀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두터운 배려가 더 잘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건설되어 운영되고있으며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이 근로녀성들을 위하여 충實히 봉사하고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그 어디에서든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놓고 힘자라는껏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보장받고있습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총결기간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대렬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200만에 달하는 녀성들이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다바쳐 일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보람찬 로동속에서 자신을 로동계급화,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안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 녀성들은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녀성혁명가로 자라났으며 녀성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계급적원쑤를 끝없이 미워하고 부정적현상과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습니다. 모든 녀성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조직생활과 집단적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을 다투어 나서며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것도 서슴지않는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속에서는 혁명적인 기백이 차넘치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가정과 인민반을 혁명화하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녀성들은 강반석녀사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이 혁명가로 될뿐아니라 자녀들을 혁명적으로 키우고 온 가정을 혁명화하며 더 나아가서는 마을과 인민반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녀성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낡고 뒤떨어진 생활유습에서 벗어나 혁명적가정으로 꾸려졌으며 6천여개의 인민반이 천리마인민반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들과 인민반들에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 가득 들어차고 모두가 다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서있습

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간부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맹일군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난날 어떤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나온 인테리들만 될수 있는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녀맹에서 상대해야 할 녀성들은 공장과 농촌에서 일하고있는 근로녀성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장과 농촌에서 실지 로동을 통하여 단련된 견실한 동무들을 간부로 쓰는것이 좋습니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부르죠아인테리녀성들만이 녀맹사업을 할수 있다고 하던 그릇된 사상관점을 없애고 녀맹의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녀맹의 간부대렬을 꾸리는데서 우리는 로동자, 농민 출신 녀성들 가운데서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시련된 녀성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키워낸 젊은 인테리녀성들을 녀맹 각급 지도기관에 대담하게 등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의 간부대렬은 계급적바탕이 좋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능력있고 대중속에서 신망이 높은 일군들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간부대렬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간부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정당적으로 진행되는 1개월강습에 모든 녀맹일군들이 빠짐없이 참가하여 자기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자체로 녀맹일군들을 위한 강습과 방식상학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습니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녀성동맹후비간부양성체계도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중앙당학교와 근로단체중앙학교, 공산대학을 비롯한 각급 양성기관들에 녀맹일군양성반을 내오도록 하여주시였으며 연구기관들과 대학들에서도 녀맹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낼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녀맹조직들은 생산현장과 군대에서 단련된 녀성들과 혁명학원을 졸업한 녀성들을 계획적으로 각급 양성기관들과 대학들에 보내여 지식있고 능력있는 후비간부를 전망성있게 키워내고있습니다.

녀성동맹간부사업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녀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며 앞으로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그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조선녀성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매우 많으며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우리는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으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이러한 중대한 혁명과업은 녀성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계속 강화하며 녀성대중과의 사업을 더욱 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둔 성과를 튼튼히 하면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입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적녀성동맹건설의 근본원칙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

저히 세워야 녀성동맹이 자기 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당의 인전대로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의 총적과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녀성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적용하여 발전시킨 창조적혁명사상이며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혁명과 건설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올바른 전략과 전술이며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한 지도적지침입니다. 수령님의 이러한 위대한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실패와 동요를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옳게 수행하여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사상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녀성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천재적리론이 담겨져있는 그이의 불후의 로작들과 강령적교시들을 모든 녀성들에게 깊이 연구체득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녀맹사업부문에 주신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들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녀성들이 그 전반사상과 진수 그리고 투쟁과업들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깨닫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녀성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이르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도록 하며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반석녀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와 방조 밑에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이십니다. 수령님의 지도와 방조 밑에 강반석녀사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첫 녀성혁명조직이 출현하였으며 공산주의녀성운동의 훌륭한 모범과 빛나는 전통이 창조되였습니다. 강반석녀사는 온 생애를 조국의 독립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바치신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시였을뿐아니라 혁명가의 충직한 안해였으며 자제분들을 위

대한 혁명가로 키우신 혁명가의 훌륭한 어머니이시였습니다. 참으로 강반석녀사는 조선녀성혁명가의 귀감이며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녀성의 전형적모범이십니다.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은 혁명의 시대에 사는 우리 녀성들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거울처럼 비쳐주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학교와 강연회, 담화들을 통하여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자》 백번읽기운동을 계속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다 가까운 앞날에 그것을 완전히 통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녀성들이 강반석녀사의 모범을 따라 오직 혁명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열렬한 녀성혁명가로, 자녀들의 훌륭한 공산주의적어머니로 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된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은 로동당의 강력한 인전대입니다. 우리 당과 녀성동맹안에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있을뿐이며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그 어떤 사소한 반동적사상독소도 녀성동맹안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녀성동맹안에 언제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가득차게 하며 그이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녀성동맹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은 녀성동맹과 녀성들의 최대의 과업이며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뇌수이며 심장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높이 모시며 그이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녀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수령님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하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녀성동맹안에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녀성들속에 철저히 해설침투시키며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세우고 그 관철에로 모든 녀성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제시된 과업을 끝까지 실속있게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녀맹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간부들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간부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잘 준비시켜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총결기간 우리는 녀맹간부대렬을 당과 수령님께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녀맹일군들의 준비정도

는 당의 요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녀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이 낮기때문에 녀맹조직들이 사업에서 독자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으며 적지않은 녀맹일군들은 자립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녀성들의 전반적기술문화수준도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습니다. 녀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녀성군중과의 사업을 잘할수 없으며 녀성동맹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 특히 사상혁명이 더욱더 심화되여가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누구보다먼저 간부들자신이 철저히 혁명화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상혁명을 옳게 지도하고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녀맹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빠른 시일안에 모든 녀맹간부들을 당과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며 정치리론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유능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발전할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녀맹일군들은 수령님의 참다운 혁명전사가 되기 위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하겠습니다. 녀맹일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2시간이상 학습하며 당조직들과 녀맹에서 진행하는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맹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체득할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을 깊이 소유하며 자기 맡은 사업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간부들속에 엄격한 학습기풍을 세우고 그들의 학습을 철저히 지도통제하며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의 토요학습과 강연회를 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전당적으로 진행하는 1개월강습에 모든 녀맹일군들을 빠짐없이 참가시켜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녀맹간부들가운데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일군들을 각급 양성기관들에 보내여 재교육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부개별교양체계를 잘 세워 웃간부가 아래간부들을 교양하고 교양받은 간부가 또 자기의 아래간부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간부들이 늘 남을 교양하면서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물교육과 실천을 통한 교양은 간부들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실지 사업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한편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널리 조직하여 간부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녀성동맹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녀맹조직생활은 녀성동맹의 전투력을 높이며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동맹조직생활이 강화되여야 녀맹조직들이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될수 있고 자기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녀성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시킬수 있습니다. 결국 동맹조직생

활을 강화하는것은 녀맹사업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본고리이며 출발점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근로단체조직생활이 강화되여야 맹원들의 사상개조도 혁명화도 다 잘되고 당이 내세우는 로선과 정책이 잘 관철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녀성동맹조직생활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녀맹원들속에 녀맹조직생활에 대한 영예감을 높여주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녀맹조직생활은 녀맹원들의 정치생활이며 혁명활동입니다. 녀맹원들은 녀맹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며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것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에게 동맹조직생활은 곧 정치활동이며 정치적생명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여주신 녀맹조직의 한 성원이 된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동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원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조직생활에 충실하였던 부녀회원들처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녀맹생활규범에 따라 동맹조직생활에 충실히 참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녀맹원들에 대한 분공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기본방도의 하나입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녀맹원들에 대한 분공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빠짐없이 분공을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며 이미 준 과업을 다 수행하면 총화하고 또 새로운 과업을 주어 모든 녀맹원들이 언제나 동맹조직으로부터 받은 분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생활총화와 녀맹회의를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맹원들이 자기의 조직생활정형을 스스로 총화해보는것을 습성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녀맹생활총화를 매달 충분한 준비밑에 진행하며 녀맹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맹조직생활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비판사업을 강화하는것입니다. 비판은 사상투쟁의 무기이며 사업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녀성들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때에 고칠수 있고 녀맹사업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녀맹조직생활에서는 비판의 분위기가 매우 약합니다. 적지않은 녀성들이 비판받는것을 싫어하며 남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고있습니다. 비판을 싫어하고 비판하기 두려워하는것은 소부르죠아사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판에 대한 이러한 그릇된 사상관점을 없애고 녀맹조직생활을 강한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안에서 비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녀맹원들이 비판에 대한 원칙적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결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비판에서 결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여서는 안되며 비판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여서도 안되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치적감투를 씌우거나 비판받은 사람들을 덮어놓고 처벌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이러한 원칙적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녀맹안에 혁명적비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녀성들이 그릇된 현상들과 제때에 비타협적으

로 투쟁하며 비판을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화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맹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초급녀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초급녀맹조직은 녀성들속에서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이며 모든 녀맹원들이 소속되여 조직생활을 하는 녀성동맹의 기층조직입니다. 우리는 초급녀맹조직의 핵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초급녀맹조직들이 녀맹원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녀맹위원회들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녀맹위원회들은 동맹조직생활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녀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녀성동맹은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운동은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운동이 아니라 전반적사회운동의 한고리를 이루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녀맹사업과 녀성들의 모든 활동은 전반적사회생활과 합류되여야 하며 전반적사회운동을 발전시키는데로 지향되여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내부사업을 강화하는 목적은 결국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자는데 있는것입니다.

지난 기간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많이 높아졌으나 당의 요구에 비하면 아직 매우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않은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며 사회에 진출한 녀성들도 남자들만큼 일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녀성들의 활동분야는 그리 넓지 못하며 녀성들가운데 이름있는 사회활동가도 적고 학사나 박사도 많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녀성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이 더 큰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도는 모든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사회주의건설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여야만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배울수 없으며 점점 더 락후해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것입니다. 녀성들에게 아무리 법적으로 남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인격을 존중해준다 하여도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면 아이나 보고 남편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남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수 있고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이 더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도록 하며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은 나라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녀성들은 가내작업반에 참가하여 힘자라는껏 일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부문과 편의봉사부문에 녀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며 이 부문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아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속에서 학사와 박사, 공훈교원과 공훈의사, 공훈배우와 인민배우를 비롯하여 이름있는 사회활동가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며 국가,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역할을 높이

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남편의 덕에 안일하게 살아나가려는 그릇된 현상들과 결혼을 하면 마땅히 집안에 박혀있어야 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옳지 못한 사상관점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녀성들이 결혼하면 더 발전할수도 없고 사회에서 별로 큰 역할을 할수 없다고 하면서 되는대로 살아가려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과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누구나 다 직장에 나가 불편없이 일할수 있고 마음껏 배울수 있고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보장받고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잘하여 모든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하며 꾸준히 공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교양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귀한 일과 천한 일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일터가 다 중요한 혁명초소이며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입니다. 우리는 녀성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녀성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영예롭게 여기며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사회생활에서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녀성들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녀성동맹이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녀성동맹은 우리 나라 근로녀성들의 혁명적정치조직입니다. 그러므로 녀성동맹의 사업방법은 어디까지나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기본으로 되여야 하며 녀맹조직들과 녀맹일군들은 깜빠니야사업과 행정경제사업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동맹내부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모든 녀성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동맹내부사업에 자기의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녀맹조직들은 또한 사업을 포치하고는 그 정형을 검열하며 제때에 총화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녀맹사업에서 중요한 결함의 하나가 사업을 포치하고는 그것을 제때에 검열하고 총화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녀맹조직들이 사업을 많이 널어놓기는 하지만 제대로 집행되는것은 얼마 없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이러한 형식주의적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일단 포치한 사업은 이악하게 맡라붙어 끝장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포치하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실속있게 일해나가야 합니다.

녀성동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군중의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우에 앉아서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을 없애고 웃기관일군들이 직접 아래에 내려가 아래일군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업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중앙은 도를 도와주고 도는 군을 도와주며 군일군들은 초급조직들에 늘 내려가 초급일군들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모든 녀맹일군들이 근로녀성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동맹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며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것은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녀맹조직들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모든 녀성들에게 철저히 해석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높은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조직들은 또한 정치사업을 앞세워 한사람이 열사람을 움직이고 열사람이 백사람을 움직이고 백사람이 천사람을 움직이며 이렇게 하여 전 동맹과 모든 녀성들을 움직이는 혁명적방법으로 동맹조직사상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앞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에게는 남조선인민들의 앙양되고있는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로 인한 식민지파쑈통치는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헤아릴수 없이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녀성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의 학정밑에서 그리고 썩어빠진 봉건유습의 구속밑에서 2중3중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있으며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있습니다. 남조선사회에서 녀성들은 아무런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초보적인 자유와 생존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실업과 빈궁에 허덕이고있습니다. 특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야수적인 폭행과 강간, 살인 만행으로 하여 남조선녀성들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심하여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비호밑에 되살아난 우리 인민의 철천의 원쑤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에게는 새로운 엄중한 재난의 위협이 들씌워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도 남조선녀성들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오늘의 남조선녀성들은 결코 침략자와 억압자들에게 순종하던 어제날의 조선녀성들이 아닙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자기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녀성들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질수 없으며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셔야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과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원쑤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수많은 녀성혁명가들과 애국적녀성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원쑤들의 야수적탄압속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 남조선녀성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투쟁은 자기들의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실현하고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적투쟁입니다.

나는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녀성들의 이름으로 원쑤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을 무릅쓰고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녀성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며 그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남조선녀성들은 하루빨리 오늘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화국북반부녀성들과 같이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여야 합니다. 남조선녀성들은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녀성들은 당면하게 반파쑈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야 하며 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탄압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녀성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온갖 야수적만행과 민족적멸시를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을 다시금 저들의 노예로 만들어보려고 망상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남북조선녀성들의 공동의 민족적과업입니다.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녀성들의 반미, 반일,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하며 그들을 식민지노예의 불행한 처지에서 하루빨리 구원하려는 높은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인 공화국북반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자기의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은 매우 간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전략적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기들의 대오를 더욱 확대하며 투쟁을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며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오늘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전체 재일본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재일본 조선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천재적로작들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우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널리 벌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녀성들과 가정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총련의 지도밑에 일본에 있는 모든 조선녀성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총련 제9차전체대회결정관철에로 그들을 훌륭히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나는 이 대회의 이름으로 재일본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재일본 조선녀성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전체 60만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뜨거운 혁명적인사를 보냅니다.

3. 세계 진보적녀성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대외활동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언제나 세

계진보적 녀성들과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서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진보적녀성단체들과 서로 녀성운동경험을 나누고 호상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며 친선과 단결의 뉴대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 수많은 벗들과 전우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세계민주녀성단체들, 조선녀성들과 세계 진보적녀성들사이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 녀성단체들과 녀성들이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으며 우리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전체 조선녀성들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녀성단체들과 녀성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제적규모에서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세계의 모든 혁명적 인민들과 녀성들이 반제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 혁명적변혁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국제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격렬한 투쟁속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쇠퇴몰락하고있으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평화애호력량은 계속 장성강화되고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혁명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혁명적 인민들과 녀성들의 강력한 항쟁에 부딪치고있으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오늘 인도지나 인민들과 녀성들은 반미구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영웅적인 웰남, 라오스, 캄보쟈 녀성들과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호되게 족치면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있으며 미제의 《새 아세아정책》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비롯한 아랍 인민들과 녀성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기네(비싸우),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애국자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날을 따라 전과를 더욱 확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의 불길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과떼말라, 꼴롬비아,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이 지역 인민들과 녀성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영웅한 무장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믿어오던 라틴아메리카에서조차 《안식처》를 구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발전하고있으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평화애호 인민들과 녀성들이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탄압 정책은 미국내 인민들과 녀성들 속에서도 배격당하고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탄압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녀성들의 반전운동이 대중적인것으로 되고있으며 자유와 계급적해방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확대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폭동적진출이 강화되고있습니다. 미국 인민들과 녀성들의 이와 같은 투쟁은 미제의 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놓고있습니다.

제국주의지배층내부모순도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사이의 갈등이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

어가고있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사회주의와 혁명력량에 유리하게,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에는 불리하게 반전하고있습니다. 세계혁명력량이 끊임없이 장성하고 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이 강화발전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현시대의 기본추세이며 제국주의가 완전히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물러가려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날이 가까와올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에 매여달리고있으며 거기에서 출로를 찾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변함없는 목적밑에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행위를 감행하고있으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평화를 교란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반광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평화》니 《협상》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이른바 《평화전략》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습니다. 요즘 파쑈호전광 닉슨도당은 《대결의 시대》로부터 《협상의 시대》로 넘어갈것이라느니뭐니 하면서 마치도 침략과 전쟁 정책을 포기하는듯이 가장하여나서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인민들앞에서 저들의 침략정책을 가리우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야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극히 교활하고 음흉한 모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반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날을 따라 그 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으며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침략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아세아에서 극도에 이르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력량과 반제혁명투쟁을 압살하고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악명높은 이른바 《닉슨주의》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 수십만의 자기 군대를 직접 동원하는것과 함께 전쟁의 《웰남화》란 간판밑에 아세아와 인도지나의 고용병들을 끌어들여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계속하고있으며 라오스와 캄보쟈에 대한 침략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강점 《미군감축》이라는 기만극의 막뒤에서 대량살륙무기를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괴뢰군을 더욱 늘이고 현대화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매일과 같이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은 이미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화되고있으며 전반적세계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이며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전세계 인민들과 녀성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쑤입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며 미제에 공격의 창끝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나라 녀성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 녀성들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세계 진보적녀성들은 자유와 해방과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웰남 인민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인도지나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며 아세아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은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여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아세아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려는 미제의 모략을 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혁명하는 나라, 싸우는 나라의 모든 인민들과 녀성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타격을 주며 미제의 각을 떠야 합니다.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이 사면에서 미제에 공격을 들이대고 모두 달라붙어 각을 뜨면 미제는 맥을 추지 못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고야말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것과 함께 그의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적극적인 부추김을 받아 되살아났으며 이미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 인류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력사적으로 큰놈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버릇되여온 교활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제의 아세아전략에 편승하여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섰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문화적 침투를 강화하고있으며 인민들의 반제투쟁을 말살하며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침략에서 먼저 조선을 정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다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조선에 기여들기 시작하였으며 《도꾜를 중심으로 한 반경 1천해리의 방위권》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 기후와 지형 조건에 류사한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중국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침략정책에 적극 가담하고있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하고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의 아세아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입니다.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과 녀성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과 해외팽창 정책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하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반동적인 미일결탁을 긴장적으로 파탄시키며 그의 침략적야망을 꺾어버리야 할것입니다.

조선녀성들은 일본녀성들과 중국녀성들 그리고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 녀성들과 굳게 단결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녀성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동방초소를 튼튼히 지켜나갈것입니다.

동지들! 조선 인민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 인민들과 녀성들의 공동투쟁의 한 고리이며 조선녀성운동은 국제녀성운동의 구성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선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과 함께 국제녀성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제주의적의무로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들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녀성들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조선녀성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자기의 신성한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기 위한 형제적중국 인민과 녀성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미제의 침략정책과 일본군국주의재생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일본녀성들을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모든 아랍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아프리카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서반구에서 미제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 형제적꾸바 녀성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녀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열렬한 형제적인사를 보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녀성들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자본주의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언제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녀성들과 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을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우리 녀성들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하며 동정하는 혁명동지들과 국제적벗들의 대렬을 늘이며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의 진보적인 녀성단체와 녀성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의 진보적녀성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주녀성

동맹은 국제민주녀성련맹의 모든 진보적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더 많은 국제민주단체들과의 련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무대에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제녀성운동이 건전하게 발전하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세계 녀성들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반드시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조선녀성들은 전세계 진보적녀성들과 함께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싸울것이며 국제녀성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포기하며 녀성들의 국제적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책동을 단호히 배격할것입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조선녀성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녀성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녀성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녀성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공동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조선민주녀성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민주녀성동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녀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전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섰으며 녀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고 질서정연한 사업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습니다.

지난 기간 녀성동맹이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녀성운동에 관한 리론의 불패의 생활력이 가져다준 고귀한 열매입니다. 이 모든 승리와 업적들은 우리나라 녀성운동력사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찬란히 기록될것입니다.

오늘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 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웅대한 강령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동맹과 녀성들은 당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계속 비상한 정력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난관을 박차고 더욱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우리 녀성들의 앞날은 휘황찬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곧바른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주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혁명하는 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있으며 온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우리편에 서있습니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녀성들은 일편단심 수령님을 따라 억세게 전진할것이며 수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혁명과업을 기어이 완수하고야말것입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녀성들과 인민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창조적사상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현시대가 제기한 모든 원칙적인 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 맑스-레닌주의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루어놓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우리 혁명의 실천에서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기된 과업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탁월한 사상과 방침이 철저히 관철된 결과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그이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충천한 기세로 달려나아가는 열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났으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혁명적기상과 지향이 넘쳐흐르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생기발랄한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은 강유력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킨 기본요인의 하나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착취계급을 없애고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다음 점차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의 개조를 완성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데 대한 문제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고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며 온 사회를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

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사회가 로동계급화되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머리속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가 완전히 없어질수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1페지)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의 모든 생활령역에 걸쳐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을 의미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한다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한 중심문제로 되며 선결문제로 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되고 과도기의 임무는 완수된다. 농민과 인테리들을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과도기에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그러나 온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고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것이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를 개변하는것보다 어렵고 오랜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다음에도 그들의 머리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을수 있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서는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없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은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하며 과도기의 전기간과 그 이후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모든 사회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적소유와 착취제도에 근원을 둔 낡은 사상과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만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낡은 사회의 일체 유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성에 맞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한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낡은 사상을 비롯한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잔재들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와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은 사회와 자연을 개조할뿐만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도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성에 맞게 개조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성을 체현하고있는것은 오직 로동계급뿐이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성에 맞는 공산

주의적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근로대중의 높은 혁명적의식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과정은 그 이전 수천년의 력사과정과는 달리 사회와 자연의 발전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혁명적의식이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결정적힘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근로대중의 혁명적의식이 노는 위대한 변혁적, 창조적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여 존재와 의식에 관한 력사적유물론의 리론에 일대전환을 가져오시였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의식을 높이는 문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투쟁에서나 자연을 개조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와 인간자체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근로대중의 혁명적의식과 혁명적열정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보다 광범한 대중이 보다 철저하게 혁명적사상으로 무장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그만큼 더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철저하게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며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켜 열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없고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도 없다.

이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참으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사상은 그이께서 근 반세기에 걸친 혁명활동과정에서 친히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천재적으로 반영하신 탁월한 사상이다.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과 방침이 나옴으로써 우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꾸리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길이 리론실천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며 경제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47～548페지)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조건이다.

우리는 당면하게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이 어렵고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과업은 혁명력량의 확대강화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이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고 그것을 불패의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혁명의 현단계에서뿐만아니라 혁명의 전국적승리가 이룩된 다음에도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며 비단 우리 나라에서뿐만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은 바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가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기 위한 확고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과 방침에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기준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척도로 되는 더없이 귀중한 지침이다.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열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어나가는것은 당면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적응한 새형의 인간들을 육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길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그들을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이 나옴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의 내용과 그 육성방도가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에서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처음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에서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길을 명확히 밝히는것은 오늘의 공산주의운동이 제기한 절박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할데 대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였다.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근로자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조건을 꾸준히 개조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을 사상정신적풍모에서와 사회경제적처지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할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이 나옴으로써 사회에서 계급적차이와 계급자체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도가 밝혀졌다. 로동계급과 농민사이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오직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로동계급화하는 방법으로써만 실현할수 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한 형식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을 정확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 비로동계급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계급투쟁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5페지)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으로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이 계급투쟁의 특성은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는 달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아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들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그것은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 협조의 방법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나옴으로써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하에서 계급투쟁을 아무런 좌우경적편향도 범함이 없이 가장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투쟁의 풍부한 경험들을 천재적으로 일반화하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 인간개조와 공산주의적인간육성, 계급없는 사회의 실현과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고 그 모든 문제들에 관한 리론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과학적공산주의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한 탁월한 사상이다.

2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위업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첫날부터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을 혁명운동의 출발점으로, 혁명승리의 근본조건으로 인정하시고 대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언제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반일군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화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령도하시였다.

대중을 혁명화하여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꾸리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요구이다. 더우기 발톱까지 무장한 간악한 일제를 대상으로 하였던 항일혁명투쟁의 그 류례없이 간고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는 혁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유격대원들과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심으로써 수많은 우수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을 육성하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행정에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무한히 귀

중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쌓아올리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이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오늘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재부로 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중요한 혁명과업들을 해결하심에 있어서 항상 사상사업을 앞세워 근로대중의 혁명적각오와 정치적열의를 높이는 전통적인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을 결속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가장 짧은 기간에 완수하고 점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서던 첫시기에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근로자들의 애국사상과 반제혁명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위력은 전쟁전·평화적건설시기와 특히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체 인민을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고상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날강도들을 때려눕히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수십만의 혁명가들을 키워내시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확대강화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전후시기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 그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더한층 높이도록 하시였으며 치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수한 력사적승리는 나라의 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을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실현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지반을 이루어놓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변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혁명과 건설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지체없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전략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밀고나가심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다른 계급과 계층을 개조할데 대한 혁명적인 원칙을 제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령도를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다른 계층들속에 용해시킴으로써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로동계급은 자기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나아감으로써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이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9~370페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방침은 계급로선에서 물러서려는 기회주의적경향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며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수령님의 철저한 계급적립장의 구현으로 된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우리 로동계급의 력사가 짧고 해방후 우리 나라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대렬이 급속히 늘어난 사정을 고려하시고 로동계급을 더욱 혁명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그들이 령도적역할과 본보기로서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그의 전위부대인 우리 당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혁명이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겪을 때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설계하실 때나 항상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나라의 형편과 당의 의도를 알려주시고 혁명의 령도계급답게 싸워나가도록 그들의 가슴속에 용기와 신심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들을 끝없이 고무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우리의 로동계급은 높은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지닌 영웅적인 로동계급으로 자라났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시는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가의 대부대로 자라났다.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끊임없이 높이시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도록 령도하시였다.

농민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이다.

우리의 협동농민들속에는 지난날의 그들의 처지로 하여 소소유자적, 리기주의적 사상과 습성이 적지않게 남아있으며 오늘도 그들은 로동계급보다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다.

농촌경리를 협동화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세기적인 착취와 빈궁의 온갖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해방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그들을 낡은 사회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철저히 해방하고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민들을 로동계급과 같은 선진적인 사상과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혁명적이며 문명한 계급으로 키우시기에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방침을 관철하는 행정을 통하여 농민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그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조직성이 더욱 배양되었으며 농민들의 기술문화수준이 빨리 높아지고 로동조건, 생활조건에서도 로동계급에 많이 접근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인테리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인테리를 교양개조하여 혁명적인테리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새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와 우민화정책으로 말미암아 민족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 없었고 민족간부

들이 자라날수 없었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부대를 양성하는것과 함께 오랜 인테리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오랜 인테리들은 그 대부분이 부유한 가정출신이고 지난날 착취사회에 복무하기는 하였으나 식민지 사회의 인테리로서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애국적열의와 혁명성을 믿어주시고 그들이 한결같이 보람찬 혁명의 길에 들어설수 있도록 포섭하여주시였으며 공산주의사회까지 함께 가도록 극진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수령님의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의 오랜 인테리들은 훌륭한 사회주의적인테리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붉은 인테리로 자라났다. 오늘에 와서 오랜 인테리들이 누구에게 복무할것인가 하는 2중성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그들앞에는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더 잘 복무할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별한 배려속에서 당의 꾸준한 교양사업을 통하여 떳떳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교양육성된 우리의 인테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된 끝없는 혁명적자부심을 안고 자신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인테리문제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군중에 대한 깊은 신뢰와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성분이나 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이라 하여도 우리 당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 원칙에서 각계각층의 군중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5페지)

수령님께서는 성분과 환경, 과거의 경력이 복잡한 사람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고 사업에서 열성을 발휘한다면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며 꾸준히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확고히 묶어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나라의 분렬 특히 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우리 나라 주민구성의 복잡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결합시켜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문제를 능숙하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당의 방침에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지하고 당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시려는 공산주의적 높은 덕성과 그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과 육친적인 사랑이 깃들어있다. 또한 거기에는 원쑤들의 온갖 리간책동을 분쇄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혁명의 편에 확고히 묶어세워 적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시려는 탁월한 전략적구상이 관통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좌우경적편향에 대하여 엄격히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다 철저히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공산

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의식적인 적대분자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이 당과 수령님의 품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있다.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그것을 혁명적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으로서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당정책교양이며 혁명전통교양이다.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공산주의교양과 결부하여 힘있게 벌림으로써 무엇보다도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된 열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그것을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도록 령도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비판을 통하여 투쟁을 벌리고 투쟁을 통하여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우리 당의 총로선인 위대한 천리마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된 형태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일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훌륭한 학교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대중적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리하여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세찬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전군중적운동으로,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인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풀리게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과 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들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세계관으로 되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단결이 철통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온 사회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붉은 대가정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고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이 더욱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온 사회에 들끓는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흘러넘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혁명적기백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온 나라가 비약의 날개를 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지난날 그처럼 가난하고 무력하고 남에게 수모를 받아오던 우리 나라는 오늘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위력한 방위력과 개화만발하는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것은 그이께서 근 반세기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이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창조적사상과 우리 혁명에서 그것을 구현하여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적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거대한 고무적힘으로 되며 혁명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려는 기회주의분자들에게는 강력한 타격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관한 사상은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그이께서 몸소 지펴주신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야 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것은 항상 당과 수령님께 충성다하여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며 숭고한 혁명임무이다.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오시였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오늘의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싸워나가는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행복으로 간직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더욱 훌륭히 준비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에서 끝까지 충성다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

림 춘 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첫시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들을 이겨내고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닦았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루어놓았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이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발전시켜야 할 고귀한 혁명적재부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제때에 우리 당을 창건하시였으며 그를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워주시였다.

우리 당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당으로, 힘있고 권위있는 전투적인 당으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독창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행정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1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하에 일찍부터 전개되였으며 1925년에는 조선로동계급의 전위부대로서 첫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계급적립장이 튼튼하지 못한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로 구성되였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하고 상층구조만 가진 당이였다.

특히 1925년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에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질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당의 상층부에 잠

입한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파괴책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1928년에는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그치고말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긴급한 과업은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시급히 창건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당의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가끔 자파세력을 중심으로 한《당재건》운동을 국내외각지에서 벌리였다. 종파분자들의 이러한 파벌싸움으로써는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수 없으리라는것이 명백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의 혁명정세와 1920년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전면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가장 정확한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제기된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일부 종파분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우리 형편에서 지금 당장 당을 창건하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와 혁명력량의 축적이 없이 즉시 당을 창건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집을 짓겠다는것과 같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심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력적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직사상적토대를 한걸음씩 축성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파분자들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몇몇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앉아 《당중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는 당을 창건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인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을 위한 이러한 근본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정수분자들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적준비를 충분히 갖출데 대한 문제, 공산주의자들을 조선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켜 그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출데 대한 문제,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 당창건준비를 위한 구체적방침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심과 함께 당창건준비에서 시종일관 견지해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창건준비를 위한 투쟁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창건에 대하여 누가 승인하고 안하는것이 문제로 될수 있겠는가.…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이 주인이 되여 수행하여야 하며 조선의 공산당은 우리가 주인이 되여 조직하여야 한다.…국제당의 비준이 있고 없고 하는것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을 조직하여 조선혁명을 잘 령도해나가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며 이렇게 조직한 당이 혁명투쟁을 잘 수행한다면 자연히 국제당은 따라다니면서 승인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대주의를 비판하시면서 공산당은 그 누가 대신하여 조직해줄수 없으며 오직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제힘으로 조직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

립장을 밝히시였다. 또한 기존공식이나 남의 경험에만 매여달리여 부질없는 론쟁만 벌리고있던 일부 국내공산주의자들의 교조주의적경향도 비판하시고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자주적이고도 창조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은 이때까지 당창건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던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비로소 자기들의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등대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또한 이 방침으로 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물젖어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고 남의 힘에 의거하여 당을 조직해보려던 그릇된 경향들이 결정적으로 극복되였으며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창건준비사업을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실제적인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추진시킬데 대한 원칙을 밝히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습니다.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만 수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검열되고 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실속있게 키울수 있으며 대오의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도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당창건을 위한 원칙적문제들은 일제의 파쑈적폭압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우심하던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가장 올바른 길로 급속히 추진시켜나가게 함에 있어서 관건적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에 따라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힘있게 추진시켜나아갔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가장 정확히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는 우수한 로동자, 농민출신의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로써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시기 위한 사업에 시종일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창건을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과 그 력사적교훈에 비추어 우선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닦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조직적골간을 꾸리는것이다.

맑스-레닌주의세계관이 튼튼히 형성되고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여도 동요할줄 모르며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을 능히 자립적으로 수행할줄 아는 공산주의적지도핵심이 형성되지 않고는 당을 창건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창건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조직적골간이 튼튼하여야 당은 제때에 창건되고 급속히 공고발전될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주위에 결속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귀중히 여기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함없이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로 꾸려야 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대렬이 주로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인테리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산주의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끼친 교훈에 비추어 종파주의와 민족개량주의의 사상적영향을 받지 않은 새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 특히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발된 핵심들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는것을 앞으로 창건될 당의 활동과 그 공고발전을 위한 근본문제로 인정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무엇보다도먼저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투사들로 유격대오를 부단히 확대하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도록 하시였다.

손에 무장을 들고 원쑤와 직접 맞서 싸운 항일무장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는 가장 혁명적이고도 빠른 길이였으며 더없이 훌륭한 학교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과 지휘간부들을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귀중한 밑천으로, 앞으로 창건될 당의 믿음직한 조직적골간부대로 여기시고 그처럼 어렵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도 언제나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주시면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육친적인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과 실천적모범이 있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과 지휘간부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었으며 그이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날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들을 뭇고 그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조직적으로 결속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의 형편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다만 항일무장대오와 공산주의조직들을 통해서만 양성해내는것으로 만족할수는 없다. 우리는 반일통일전선로선을 견지하며 국내외의 광범한 혁명력량을 각종 반일혁명조직들에 단합시켜야 한다. 그리하여…그들을 공산주의자들로 육성해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가르치심은 당시의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조선공산주의운동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당창건의 조직적골간부대를 더욱 빨리 꾸릴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등 각종 혁명조직들을 뭇고 여기에 선진적인 청년학생들, 로동자, 농민들을 결속하시여 그들을 맑스-레닌주의교양과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핵심부대로,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조직들을 내오시고 거기에 로동자, 농민 등 광범한 반일군중을 결속하시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실천투쟁과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부단히 교양하시고 단련시켜 공산주의대렬을 끊임없이 확대하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내외각지에 우수한 정치공작원들을 수많이 파견하시여 대중정치사업과 지하혁명사업을 하게 하시는 한편 분산적으로 활동하고있던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주의그루빠들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시기 위하여 공산당조직들의 조직체계와 활동규범을 더욱 세련시키시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조직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로 당대렬을 꾸리기 위하여 당조직을 밑으로부터 올리 건설하는 원칙을 세우고 당활동에서 중앙집권제원칙을 준수하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당창건을 위한 조직적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사업을 조직령도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내에서와 국내외 각지방들에서는 당조직건설에서 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투쟁속에서 단련된 선진투사들로 당조직을 확대하여나갔을뿐아니라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유일사상체계가 선,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핵심으로 빨리 키울수 있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정확한 당생활규범과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당사업경험이 창조될수 있었다.

이것은 당창건의 준비를 이룩하는 전반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한 기본담보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시였다.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당의 전투력의 원천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로부터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통일단결을 고수하기 위하여 종파분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는 투쟁 특히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우경적후과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원칙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내에서와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적조직들에서는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청산하고 대렬의 통일단결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조직적준비와 함께 그 사상적준비를 갖추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사상적준비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 공산주의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있어서 그이께서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이 집대성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의 최저강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적강령으로서 당창건을 위한 확고한 사상적기초로 되였다.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 명확한 투쟁목표를 밝혀줌으로써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위

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로선,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키시기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는 혁명적구호밑에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임없이 학습을 강화하도록 조직지도하시였다. 학습이 실천투쟁과 결부되여 진행됨으로써 온갖 반혁명적이며 적대적인 사상조류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운동대렬의 사상적순결성이 확고히 보장되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사상적준비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또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민대중속에서 공산주의선전사업을 강화하며 조국광복회 국내 조직망을 확대하여 모든 반일력량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조직결속해야 한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요구의 하나일뿐아니라 선행시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에 비추어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시여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몸소 대중정치사업을 강화하시여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과 지휘간부들,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계급적관점과 혁명적군중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도록 하심으로써 보다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과 반동세력은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혁명과 반혁명간의 계급적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으며 전국적규모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대중운동이 더욱 세차게 발전되여갔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창건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가 확고히 마련되고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는 해방후 우리 당창건의 튼튼한 기초로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전반적발전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으로,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 *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제때에 창건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시여 통일적인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육성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고 여러 지방에 흩어져있던 공산주의그루빠들을 망라하시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전위대인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과 노력의 고귀한 열매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조선혁명의 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였습니다. 조선의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힘있는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아가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86~287페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강유력한 전위부대, 맑스-레닌주의적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시키면서 해방후 짧은 기간에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으며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굳건히 다져놓을수 있었고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으며 전후재더미우에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오늘과 같은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 당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벅찬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자면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아갈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

조　　남　　국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하신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에서 국내외정세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과 평가를 내리시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대내외활동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당대표자회후 지난 5년간은 위대한 변혁의 시기였다.

당대표자회에서 명시된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은 전례없이 강화되고 혁명기지는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는 더욱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특히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로선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조성된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주동적인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우리의 혁명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실로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　　　*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매우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 소집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앞날에 대한 휘황한 전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 제4차대회가 내놓은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고있을 때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더욱 악랄해지고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복잡한 정세가 조성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전반적세계혁명운동 발전에 커다란 난관과 애로가 가로놓이게 되였다.

조성된 사태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극복하고 혁명을 결정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한 수많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 해결방도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 간절하고도 어려운 임무는 오직 반세기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성된 객관적정세에 대처한 진공적이며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우리 혁명의 보루인 북반부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당의 확고부동한 로선으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의 날로 로골화되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첨예화된 정세는 전쟁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동시에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국방력강화에 더욱 큰 힘을 넣을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개편하고 나라의 경제적리익과 국방상리익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립장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나아가서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려는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반영한 독창적 로선이였다.

이 로선의 혁명적본질은 경제건설에 못지 않게 국방건설에 커다란 힘을 돌림으로써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하는 한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늦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간다는데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 혁명적로선은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방력강화와 경제토대의 공고화, 인민생활향상을 다같이 틀어쥐고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은 제국주의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었으며 오늘의 력사적조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혁명과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이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소극성,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그들을 새로운 대고조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긴장된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계속 높은 속도로 진척되였으며 조국보위의 완벽을 기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군사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의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여 원쑤들의 어떠한 침공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위력한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가 확립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보고에서 북반부혁명기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우와 같은 책, 366~36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을 이루는 과학적기초와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형식과 표현형태를 명백히 밝히시면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과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과의 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이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재천명하심으로써 우

리의 혁명대오를 강화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보다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과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방침은 이 분야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당의 전통적인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정확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케하는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창조적방침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공고히 하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급관계의 견지에서 본다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나아가는 과정 즉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는 과정입니다.…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우리 사회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입니다.》(우와 같은 책, 369페지)

수령님께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필연성과 본질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견지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다른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으로 개조하여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도와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방침은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계급적 본질과 내용 및 그 합법칙적요구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준것으로서 우리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당대표자회후 우리 당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온갖 반혁명적, 반동적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고 전당과 전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또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전면적으로 재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남조선정세의 중요특징,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선 당면과업, 현단계에서의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과 그 실현에서 견지해야 할 전략전술적원칙,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92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현남조선정세,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혁명승리의 결정적시기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특히 투쟁을 통하여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이 분렬된 조건에서도 남조선인민들자신이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한데 기초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 일관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투적이고 탄력성있는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고 그 주위에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며 광범한 군중을 반미구국통일

전선에 묶어세우고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킬데 대한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남북조선인민을 남조선혁명에 대한 옳은 립장과 관점으로 무장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방침을 명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00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재천명하심으로써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범죄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인 조국통일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성취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이 나오고 남조선혁명력량이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남조선에서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쓸어버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성취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반미구국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드높아가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반제반미투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제기되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과 그로 인하여 국제무대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우리 당의 혁명적인 반제반미투쟁로선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은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1페지)

최근년간 미제국주의자들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로 분렬되여있는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는 음흉한 전략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더욱더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돌리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아세아의 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이 지역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아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광범한 반제력량을 동원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집중하는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선차적인 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반미투쟁전략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광범한 반제반미력량이 힘을 합쳐 미제에 공격을 들이대여 놈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 힘을 분산약화시킴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어느 한 전선에 힘을 집중할수 없게 하며 매 전선에서 인민들이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를 때려부실수 있게 하는 혁명적이며 진공적인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리는 동시

에 그 동맹자들 특히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세아를 침략하기 위한 미제의 기본전략과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났으며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충실한 《돌격대》로 복무해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날로 강화되고있는 미일반동들의 침략적결탁을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밝히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미제의 동맹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방침은 미제국주의자들을 국제무대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그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동맹자들과 앞잡이들에 의거하여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미제의 세계전략을 성과적으로 짓부시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며 복잡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반제공동행동을 이룩하며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거기에서 제기되고있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더욱 많은 반제력량을 묶어세워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가하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반제반미투쟁로선을 밝히시면서 현시기 반미투쟁의 가장 치렬한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꾸바혁명을 보위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 및 근로자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힘있게 저지파탄시키고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대표자회에서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내부형편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나서고있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원칙과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매개 당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고 세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강화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4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원칙과 방침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일어난 심각한 변화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내에서 발생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가며 형제당, 형제나라들간의 진정한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매개 나라 당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 국내적으로 복잡한 정세하에서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현명한 방침과 방도들을 내놓으시였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도와 과업들을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중요한 전환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당대표자회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반제반미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원칙적문제들에 명백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전반적세계혁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과 방침들은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리론실천적무기로 되였으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에서 밝히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모든 원칙적문제들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모범으로 될뿐아니라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듯 당대표자회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실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 *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된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완수하고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인 당 제5차대회의 성과를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당대표자회이후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혁명적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여주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으신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지금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날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천땅에 지펴올리신 새 기술혁신의 위대한 봉화를 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명년 4월 15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기어이 완수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

김 신 숙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길을 새롭게 밝혀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세워나감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의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밝히시면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이다.

생활양식이란 일정한 사회제도하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을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며 생활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속해있는 생산방식, 다시말하여 사회제도와 생산력발전수준에 의존되며 그 제도하에서의 사람들의 처지와 의식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계급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언제나 그들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게 되며 따라서 계급적성격을 띠게 된다. 생산수단이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 사람들의 활동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적소유와 착취제도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리기주의적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생활양식은 사회주의제도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변화된 처지와 그들사이의 호상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발전하는 생산력의 수준을 반영하며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계급적대립이 없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온갖 낡은 생활양식대신에 로동계급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하나의 생활양식이 형성되고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완성된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이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

주의하에서는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형성되며 끊임없이 완성되여나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것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규범, 사회주의적행동준칙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따라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사회주의적 질서와 행동준칙, 규정, 규범들을 창조해나가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활동하며 그것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양하고 버릇되게 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국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건설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서 장애로 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7～68페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앞에 나서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모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근로자들로 만들뿐아니라 그들을 사회경제적처지와 사상정신적풍모에 이르기까지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며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적지않은 장애로 된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관습과 전통의 힘으로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집요하게 작용하면서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것을 이모저모로 방해한다.

물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낡은 생활양식을 낳게 하는 사회경제적근원이 없어진다. 또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확립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에도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국가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에 적지않게 남아있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있으며 관습과 전통의 힘으로 계승되고 유지되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그에 상응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동시에 생산자, 관리자이며 나라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재부의 향유자이다. 그들은 다 같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혁명과 조국을 보위할 책임을 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계급적대립이 없을뿐아니라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로동계급의 사

상, 공산주의사상이 전사회를 지배한다.

이러한 사회는 우선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치여 수령의 유일적인 명도밑에 움직이며 당과 수령의 요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혁명적기풍,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혁명적기풍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원칙밑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언제나 검박하고 긴장하게 살고 일하며 문화적이고 례절바르게 생활할것을 요구한다.

지난날의 봉건제도와 유교사상에 기초한 가족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인 락후한 생활풍습, 부르죠아적인 개인리기주의적인 활동방식,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류포시키는 퇴폐적인 생활양식이 사회주의사회의 이와 같은 본질적요구에 맞을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데 방해로 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강화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낡은 생활양식은 낡은 사상을 조장시키고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퇴폐적인 부르죠아적생활양식이 반붙일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낡은 사상에서 해방되는것을 방해하며 낡은 사상을 조장하는 온상으로 되며 제국주의자들이 반동적인 사상과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는 발판으로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의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면서 퇴폐적이고 부화타락한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는것을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일부화하고 무규률적이며 비계급적인 생활기풍은 양키식생활양식과 수정주의사상을 끌어들이는 바탕으로 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방해하며 구경은 혁명의 전취물을 위험에 빠뜨리는데까지 이르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낡은 생활양식의 부식작용을 없애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막아내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관한 사상은 과학적공산주의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은 독창적인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이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성에 맞는 새형의 인간육성문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문제에 대한 그이의 독창적인 사상을 더한층 심화시키시고 풍부히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로동계급의 모양과 같은 새형의 인간이란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정치사상의식뿐만아니라 그들의 생활양식, 활동방식에서까지 로동계급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인간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

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창조적인 사상은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의 풍모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볼수 있게 하며 그러한 새형의 인간을 육성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을 더욱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사회와 자연과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련관되여있으며 사회적의식과 사회적존재가 서로 어떻게 련관되여있는가에 대한 리해를 더한층 심화시키고 사람을 개조하고 자연을 개조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을 더한층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68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우선 국가사업분야에서 근로자들을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이끌수 있는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특히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국가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완성하며 사회주의적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회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 국가경제사업에 참가하고있는만큼 사회주의사회의 이러한 본성에 맞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교양하여야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고도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새로운 관리법과 규정들을 제때에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미 습관화된 낡은 생활양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귀중한 국가재산을 공동으로 보위하고 애호할수 있도록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경제사업에서 정연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운영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분야에서 아직 규정이 없는것은 새로 만들며 이미 있는 규정들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고치고 혁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관리법과 규정들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인것만큼 그것은 고정불변할수 없다. 사회경제제도와 생산력이 공고발전하는데 따라 그에 맞게 관리법과 규정들도 끊임없이 완성시켜나가야 한다. 국가경제사업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들에서는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와 질서를 밝힌 규정들 이를테면 고정재산에 대한 등록과 실사, 상품의 보관관리와 취급, 제품의 출고, 자재의 소비와 리용 및 통제 등에 관한 규정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출퇴근질서로부터 시작하여 생산의 모든 고리들에서 생산자들이 지켜야 할 공중행동 질서와 준칙과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를

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있는 관리법과 규정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오직 이와 같이 해야만 국가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68~6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세우며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의 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누구나다 국가사업에 참가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참가하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경제생활에서뿐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생활분야에서까지도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울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령역에서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정연하게 세우며 공산주의적문화도덕규범들을 창조하여야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을뿐아니라 그를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수천년동안 물려 내려오고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인습이 결코 짧은 시일에 저절로 없어질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꾸준한 투쟁이 요구되며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교양이 필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94페지)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것은 국가경제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의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굳어진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창조하며 그것에 관습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일조일석에 해결될수 없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사회적으로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과 준칙들은 의식개변에 영향을 주면서 그 자체가 또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아무리 새로운 규범과 준칙들을 만들어놓아도 사람들이 낡은 의식에 물젖어있으면 그것은 자기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며 생활에 철저히 구현될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주의적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며 공산주의적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한편 근로자들속에서 낡은 사상과 인습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림으로써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본보기를 만들어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 규범들을 없애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운동으로 새로운 도덕생활의 본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일반화하며 점차 공산주의적도덕규범들을 완성하여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9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함께

사회적운동으로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관습과 전통의 힘으로 집요하게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의 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교양과 해설만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우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는것과 함께 사회적운동으로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관리법과 규정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적문화도덕생활규범들을 창조해나가며 본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할 때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본보기를 만들어 그것을 실물로써 직접 보여주고 배워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다.

사회적운동으로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데서도 힘있는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매 개단위들에서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며 특히 본보기를 만드는데서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이 중심이 되고 거지가 되여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을 제시하시고 중앙에서 본보기를 만들어 그것이 도에 내려가게 하고 도에서 군, 군에서 리에 파급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생활양식의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생활양식이 철저히 확립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평양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매 단계마다 우리 인민의 휘황한 앞길이 설계되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혁명의 붉은 수도이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찬란히 꽃피고있으며 공산주의적 도덕과 풍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로동계급적요구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지향을 반영한 생활양식의 전형이 창조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혁명의 붉은 수도 평양에서 혁명적인 생활양식의 본보기를 만들어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할 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혁명적인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방도는 또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지못하여 교양사업만 해가지고 되지 않을 때에는 통제와 제재가 필요합니다.》

교양사업과 함께 통제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과 습성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제정된 질서와 규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상교양, 사상투쟁과 함께 여기에 통제가 옳게 배합될 때 사람들을 사회주의적 규범과 규정, 준칙의 요구에 따라 살며 행동하도록 할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 인민의 정서와 지향에 맞게 그것을 발전시키며 거기에 사회주의적내용을 옳게 담아야 한다. 의복제도를 고치거나 현대적인 살림집을 꾸리는데 있어서도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근로자들이 다 골고루 잘살수 있게 검박하면서도 깨끗하고 알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

홍 동 익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면서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오늘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웅대한 투쟁강령이다. 그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혁명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필수적인 구성부문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방침의 본질과 의의, 그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심오히 파악하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　　　　*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먼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전반적인민경제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로동에서의 온갖 차이를 없앨데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주의하에서 기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다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의 높은 발전수준에 기초하여 모두가 다같이 헐하게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

의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온갖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기술혁신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실현한 다음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중심적인 혁명과업으로 된다.

기술혁명을 높은 단계에로 더욱 전진시켜 온갖 로동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이며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서고있는 마지막 혁명과업이다.

원래 로동에서의 차이는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 와서 극도에 달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제놈들의 최대한의 리윤추구에 있는것만큼 여기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억제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육체로동을 통한 착취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는 로동에서의 차이가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생산의 목적이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있으며 로동의 성격이 동지적협조관계를 반영하고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하에서는 온갖 로동에서의 차이를 낳게 하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없어지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이에 기초하여 손로동이 기계로동으로, 반자동화, 자동화 로동으로 바뀌여지며 힘든 로동이 헐한 로동으로 바뀌여지게 된다. 기술발전의 무제한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로동에서의 온갖 차이가 줄어드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하에서 기술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기술혁명방침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7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전면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근로자들의 어렵고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가 남아있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있으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사이에도 차이가 많으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아직 가정적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힘든 로동을 많이 덜어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채취공업과 기본건설부문, 철도운수부문, 흑색야금공업부문과 화학공업, 세멘트공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공업화단계에서 전면적으로 다 해결될수는 없다. 이 문제는 오직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오늘에 와서 전면적으로 제기되며 또 본격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기술혁명의 과업이다.

우리는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만 이미 이룩하여놓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의 수행은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담보로 된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또한 현시기 긴장된 로력사정을 풀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또한 기술혁명은 당면한 로력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도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7페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로력은 의연히 긴장성을 띠고있으며 그것을 옳게 풀어나가는것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긴장한 로력사정을 풀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무엇보다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을 헐하고 품이 적게 드는 로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로력을 더 많이 얻어내여 로력의 긴장성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오직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여나갈 때에만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분배관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이 결국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을 보다 헐하고 품이 적게 드는 로동으로 전환시키며 육체로동에서의 차이를 줄이게 함으로써 분배에서의 차이를 줄일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마련한다.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의 발전은 생산도구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며 근로자들의 의식도 결국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1권, 245페지)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면서 동시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로동도구와 로동조건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것은 사람들의 의식개변에 중요한 작용을 미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뒤떨어진 기술과 생산방법을 없애고 선진적인 기술과 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일수록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변을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또한 이렇게 하는것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지식수준을 높이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의식개조를 다그칠수 있게 한다.

실로 이 모든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방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새로운 단계에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과업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 수행을 위한 대상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

다.

수령님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데서 무엇보다먼저 채취공업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앨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그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이 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보다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48페지)

채취공업부문은 자연 그자체를 로동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생산자들이 땅속에서나 밖에서 일하며 그들이 다루는 대상물은 크고 무거우며 물동량이 많은것으로 되어있다. 반면에 채취공업부문은 기술장비수준에서 다른 부문보다 뒤떨어져있다. 따라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은 그 어느 부문보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으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는데서 채취공업부문의 로동을 헐하고 생산성이 높으며 안전한 로동으로 만드는것은 가장 선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또한 채취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을 일으켜 생산을 늘여야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원료와 연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전반적6개년계획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중로동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광산과 유연탄광들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점차 반자동화, 자동화에로 넘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나라 석탄생산에서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며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낮은 무연탄광들의 기계화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 어느 부문보다도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을 없애고 안전한 로동으로 전환시킬수 있을뿐만아니라 광물과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림업부문에서 작업의 기계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며 수산부문에서는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부문의 생산자들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생산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채취공업과 함께 기본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과 함께 아직도 중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부문의 하나는 기본건설부문입니다.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 건설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8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본건설부문은 중로동이 많이 남아있는 부문의 하나이다. 기본건설부문의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깊이 내려가거나 일정한 높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중량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자재들을 운반하는 일들이 진행된다. 또한 기본건설부문에는 흙파기작업을 비롯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적지않게 남아있다. 그런것만큼 중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기본건설부문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없애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본건설부문에서 힘든 로동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건설작업의 기계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능률적인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고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흙파는 작업, 무거운 부재를 옮겨놓는 일 등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들을 기계로 하고 건설로동자들이 중로동에서 벗어날수 있다. 또한 그것은 기본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일수 있게 하며 건설물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것을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로동을 없애는데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8페지)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예로운 과업일뿐아니라 작업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새로운 전망계획기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여러가지 능률적인 상하차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를 더빨리 다그쳐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앨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부문에서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49페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은 고되고 힘든 로동의 한 형태이며 그것을 없애는것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애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야만 로동자들의 건강을 계속 증진시키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수 있다.

고열로동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흑색야금공업, 화학공업, 세멘트공업 등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공정전반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고열이 특별히 심한 부문부터 먼저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하며 점차 원격조종에로 넘어가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자동화공업의 발전이 지어주는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고열이 특별히 심한 대상부터 시작하여 고열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부문의 자동화를 빠른 기간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며 자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고열로동과 함께 유해로동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화학공업, 유색야금공업, 채굴공업, 건재공업을 비롯하여 가스와 먼지 그 밖의 유독성물질이 나오는 모든 부문들에서 기술적개건을 다그쳐 하루빨리 유해로동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공업부문들과 작업장들에서 유해로동을 무해로동으로 만들며 고열과 가스, 먼지와 습기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수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일데 대한 사상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육체로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줌으로써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과 국가는 육체로동으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시킬수 있는 강유력한 리론실천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을 힘들고 품이 많이 들며 비능률적인 로동에서 해방하고 모두가 일을 안전하고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낼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할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방침에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하루빨리 해방하여 그들에게 더욱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이 크고 뜨거운 사랑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 *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있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없앨데 대한 기술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특히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기술혁명에 관한 교시를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교시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의 지휘성원으로서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시려는 어버이 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혁명수행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등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대담하게 쓸어버리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께서 회천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 힘든 로동이 헐하고 능률적인 로동으로,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근로자 제 10호 (루계 35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10월 5일　　발 행 • 1971년 10월 9일
ㄱ-14229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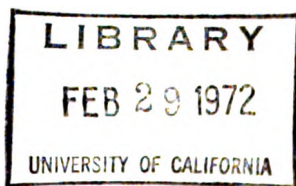
11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1 호 (356)

차 례

이라크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 일 성

물음: 우리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조선로동당의 경험에 감탄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싸우는 조선인민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류의 재부를 풍부히 하는데 이바지한것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나는 먼저 당신들이 우리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지난날 우리 나라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았으며 그것마저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3년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새 사회를 건설하게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전진도상에서 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세기적락후성과 빈궁을 없애고 훌륭한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모두가 서로 돕고 일하며 행복하게 사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섰으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를 철저히 세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남에 대한 의존심을 반대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양하여 자기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는 주체라는 말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이러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원칙과 립장을 표현하는 술어입니다.

생활은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완전히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오래동안 민족자주의식을

줌먹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해방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자기의것을 덮어놓고 깔보고 남의것을 통채로 삼키려는 경향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높아졌으며 자력갱생하는 기풍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였습니다.

정치분야에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이 우리 당의 자주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의 기존공식에만 매여달리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려는 경향을 반대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문제도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군대가 물러간 조건에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외활동분야에서도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크고작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반제반미투쟁과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경제건설분야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입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한것입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로 되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결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인민경제를 계속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우리가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들사이에 유무상통하며 서로 협조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충분히 인정하고있으며 그것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국가들사이의 호상협조를 매개 나라가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우에서 하자는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국방건설분야에서 자위의 방침을 견지하였습니다.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이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어떠한 침략자들과 적들도 능히 때려부실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

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립장입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주체를 세우고 자력갱생한 결과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도 완전한 평등의 원칙에서 할수 있게 되였으며 국제혁명위업에도 더잘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우리 당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함께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수백만 인민대중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담보를 찾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어느 한부분도 전군중적운동으로, 전인민적운동으로 진행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습니다. 군중에 의거하며 광범한 군중을 발동시키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진척되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엄중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과 직접 마주앉아 애로를 타개하며 혁신을 일으킬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대중은 당의 의도를 파악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혁신운동을 일으켰으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대중적혁신운동입니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가장 빛나게 구현하고있으며 바로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모든 지혜와 열성과 창조력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습니다. 천리마운동이 널리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사상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열정과 재능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뒤떨어졌던 나라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어떠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때려부시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존엄을 수호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경험에 감탄을 표시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사업에 대한 고무로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계속 강

점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의 당면한 최대의 민족적과업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입니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꾸리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물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이라크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1968년 7월 17일 혁명이후에야 비로소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라크인민의 2년동안의 혁명의 성과들과 특히는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해결한데 대하여 그리고 이것이 반제인민전선을 강화하는데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답: 이라크인민은 외래제국주의의 지배를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968년 7월 17일 혁명이후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인민의 위대한 승리일뿐아니라 반제민족해방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이며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이였습니다.

혁명후 이라크인민은 반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번영하는 새 이라크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선 이라크인민앞에는 난관이 많았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 그리고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은 이라크인민을 반제전선에서 떼여내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흉책도 이라크인민의 투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이라크인민은 적들의 온갖 파괴음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경각성있게 지키면서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써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쿠르드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라크인민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데서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로서 축하하고있습니다.

민족들사이의 반목과 불화는 제국주의통치의 산물로서 그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에게만 리롭고 인민들에게는 해로울뿐입니다.

쿠르드민족문제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해결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며 이라크에서의 반제인민전선을 강화하고 반미반이스라엘투쟁을 보다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치로 됩니다. 또한 그것은 이라크자체의 내부를 공고히 하며 나라의 진보적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주게 될것입니다.

이라크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대오에 튼튼히 서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이라크인민의 이와 같은 정당한 투쟁은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물음: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은 캄보쟈에 대한 군사적간섭으로써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불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새로운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초래된 후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더욱더 넓은 지역에 전쟁을 확대하려는 그들의 계획적인 책동의 한 고리입니다. 캄보쟈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과 라오스에서뿐아니라 인도지나전역에서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전쟁확대정책은 인도지나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으며 아세아와 전반적세계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지나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의 확대는 그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있으며 침략자들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전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침으로써 전체 인도지나인민들과 온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분노에 찬 규탄과 항거에 부딪치고있습니다. 인도지나에 대한 미제의 새로운 침략은 인도지나의 모든 인민들을 미제를 반대하는 하나의 공동전선에 결합시키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을 반미공동투쟁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지금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거듭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주고있으며 미제를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미제의 타산과는 반대로 온 인도지나땅이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써도 영웅적인도지나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인도지나에서 전쟁을 확대하고있는데로부터 초래된 후과로 하여 반드시 참패의 쓴맛을 보게 될것입니다. 인도지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패망은 불가피합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속에서 인도지나인민들과 싸우는 아세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원밑에 인도지나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더욱 호된 타격을 줌으로써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할것이며 번영하는 새 조국을 건설할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인도지나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자신에 대한 침략으로 인정하며 인도지나인민들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싸우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물음: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귀국인민의 혁명투쟁경험과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20여년전부터 통일과 자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아랍민족의 경험사이에는 류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두 진보적인 경험사이의 관계발전전망과 그것이 세계혁명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조선인민은 이라크인민이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통일과 자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경험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과 이라크인민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친근한 전우입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은 다같이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인민이기때문에 호상간의 처지를 잘 리해하고 서로 동정하고있으며 진실로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에서 긴밀히 협조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이라크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이라크공화국 정부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끊임없이 확대발전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아랍사회부흥당사이의 련계도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 당,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래왕도 많이 하고 호상 유익한 경험도 많이 나누고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경험을 교환하는것은 호상간의 리해를 두텁게 하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으로 되며 서로 많은것을 배울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사이의 관계발전을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단결과 협조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날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게 될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아랍인민의 친선단결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단결의 한부분입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단결과 그들의 공동위업에 커다란 기여로 됩니다.

물음: 우리 아랍조국에서의 무장혁명은 이 지역에서의 제국주의의 리권과 미제의 군사기지인 이스라엘의 존재를 청산할것을 목적하고있습니다.

이와 류사한 투쟁을 진행하시였으며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투쟁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계시는 당신께서 아랍인민의 이 혁명에 대하여 어떤 지지성원을 주실수 있겠습니까?

대답: 아랍인민은 무장을 들고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용감한 아랍인민이 무장한 침략자들에게 무장으로 대항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폭력으로써 인민들을 탄압하고 압박하는 이상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손에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항거하여 싸워야만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반제해방투쟁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무장투쟁은 민족적 독립과 존엄을 수호하며 강점당한 아랍땅을 되찾으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입니다. 아랍인민들의 이 혁명투쟁은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아랍인민의 혁명투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련대성과 지지성원은 일관합니다. 조선인민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유태복고주의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전체 아랍인민의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것이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아랍인민의 친근한 전우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아랍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언제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줄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제와 이스라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더욱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적국방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여 온 세상에 그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빛나는 력사적승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여 지난날 가혹한 착취와 압박,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나라를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심으로써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던 탓으로 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히고 억눌렸던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후부터이며 더우기 전후복구기의 과업을 수행한 다음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기간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공업화력사에서 14년이란 매우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짧은 기간내에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응근 한 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그것도 간고한 난관과 시련이 중첩된 환경속에서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것은 실로 세계가 아직 그 류례를 모르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경험의 창조이다.

인류력사는 아직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과 같이 어제날 식민지였던 뒤떨어진 나라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일떠세우신 혁명의 영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를 더는 알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때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고 식민지노예의 치욕스러운 멍에속에 신음하던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오늘과 같이 힘있고 존엄있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우리 인민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승리와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의 력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적공업화로선이 승리한 력사이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거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력사이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공업국가의 끊임없는 륭성발전에서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한 참다운 보금자리를 보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더욱 광명한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필연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일치한 지향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을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공업화의 임무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공업화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공업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화승대 하나 못만들어서 일제에게 예속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국방력이 강한 공업국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57페지)

《사회주의를 완전히 건설하려면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하여야만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국가로 만들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3페지)

지난날 봉건적압제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 인하여 오래동안 뒤떨어진 농업국가로 남아있었으며 해방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과 건설을 하게 된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혁명의 운명 및 그 전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관건적문제의 하나로 되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략탈의 대상으로 되고 결국 일제침략자들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강한 경제력이 없었던 탓이며 우리 인민의 슬기와 존엄이 짓밟히고 유린당한것도 현대적인 공업을 가지지 못하였던것과 크게 관련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체의 현대적공업을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남에게 추종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현대적공업을 창설하고 나라를 공업화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의 예속을 타파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개조방침에 의하여 전후시기에 인민경제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빨리 실현됨에 따라 더욱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게 되였다.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여야만 공화국북반부에서 확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이 력사적위업은 일찌기 혁명의 장도에 오르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독창적인 공업화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의 력사적투쟁경험과 주체적공업화로선의 내용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이미 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닦아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된데 기초하여 7개년계획기간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페지)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

하는데서 공업화로선을 옳게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민족공업건설의 방향을 규정하며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더우기 지난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았으며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인민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정확히 세우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객관적요구를 심오하게 분석하시고 주체적공업화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해명을 주시였으며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으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공업화로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의 민족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발붙이도록 하며 새 기술로 튼튼히 장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으로 되게 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는것이다.

이것은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현력사발전단계와 세계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객관적과정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들에서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독창적인 공업화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위력한 중공업기지를 창설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함으로써 사회주의법칙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복리를 전면적으로 높일수 있는 강력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는 민족적차이가 남아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야 한다.

따라서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공업화는 다 자립적인 기초우에서 전진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반드시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현대적공업, 주체공업을 건설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하며 그와 함께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이와 같이 되여야 매개 나라들은 자립적인 사회주의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대한 공업제품의 수입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생산을 안전한 기초우에서 빨리 발전시키며 농촌경리와 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공업화가 이와 같이 되여야 사회주의나라들은 세계 사회주의경제체계의 매개 단위를 강화하고 제국주의와 맞서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서의 자기 임무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공업화로선은 사회주의공업화와 기술혁명의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고있는 과학적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기술혁명을 수행할수 없으며 기술혁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공업화를 실현할수 없습니다. 공업화자체가 기술혁명을 요구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4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하여야 하며 공업화자체가 곧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는 기초우에서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공업화로선은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통일적과정으로 해결함으로써 나라의 경제기술적락후성을 완전히 없애고 과학과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공업화로선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이 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방도들도 명확하게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공업은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계속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증명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입니다.》(우와 같은 책, 210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에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인 길이 밝혀져있다.

이 로선은 사회주의공업화의 중심인 중공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인민생활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공업화력사가 그 류례를 알지 못한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방법이다.

지금까지의 공업화력사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의 호상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풀어나간 전례를 알지 못하고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공업의 우선적장성과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발전에 관한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인 길을 제시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세계최초의 완벽한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의 독창성과 현명성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기본으로 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는 중공업을 건설할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중공업과 경공업의 호상관계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여 이 두 부문의 발전을 다같이 최대한 촉진하고 공업화의 자금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게 한데 있으며, 공업부문과 농촌경리사이의 호상관계를 옳게 설정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인 공업부문전반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하면서도 농업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하여 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시장과 원료문제, 식량문제 등 공업화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한데 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농업을 희생시키고 경공업을 먼저 발전시켜 중공업을 건설한 자본주의적공업화방법이나 일정한 기간 중공업만을 강행적으로 발전시켜 공업화를 실현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공업화의 전혀 새로운 혁명적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나서는 자금과 기술인재문제의 해결방도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업화의 자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소비를 동시에 발전시키며 중공업공장들의 복구와 개건, 신설을 합리적으로 배합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규모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지방의 무진장한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히여 적은 자금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는 한편 중공업건설에 더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공업화에서 필수적요구로 나서는 기술인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오랜 기술일군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인입하는 한편 기술자, 전문가들의 양성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인테리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탁월하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공업화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모든 원칙적방도들은 철저하게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관통되고 있다.

이 로선과 방침들에는 나라의 공업화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주로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립장이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공업화로선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을뿐아니라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시고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발전시키는데 또 하나의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선행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사회주의공업화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완전히 밝힐수 없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세계 대다수나라들이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채 사회주의의길에 들어서게 되며 매개 나라들이 민족국가단위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사회주의공업화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뒤떨어진 경제를 넘겨받은 나라들에서는 생산력발전의 과업을 반드시 사회주의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자립적인 사회주의적 민족경제건설의 기본방도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보신 수령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공업화의 기본내용을 주체가 철저히 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민족공업창설문제로 제기하시고 사회주의공업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전면적인 리론적해답을 주시였으며 그 생동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와 국제혁명운동의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신 불후의 공적에 속하며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리론적재부로 된다.

2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력사적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공업화로선을 관철하는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인민앞에는 뚫고나가야 할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관철하여나아갔으며 현대적공업을 건설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옳게 령도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2~13페지)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공업의 창설, 사회주의공업화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수많은 난관과 애로들을 뚫지 않으면 안되였던 간고한 투쟁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 서시여 공업화의 앞길에 겹겹이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애로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시였다.

지난날 뒤떨어졌던 탓으로 하여 남에게 수모받고 천대받아온 우리 인민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첫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건설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나라를 앞으로 공업화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신 다음 만경대고향집에도 들리시기전에 먼저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우리 로동계급에게 부강한 새 조국건설의 밝은 앞길을 가리켜주시였으며 뒤이어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면서 일제가 파괴하고간 우리 인민경제의 복구를 위한 전반적실태를 장악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심으로써 나라를 장차 공업화하기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도발한 3년간의 전쟁으로 우리 인민의 평화적로동이 일시 중단되였던 준엄한 시기에도 우리 당과 인민을 전쟁승리에로 확신성있게 령도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앞으로 공업화하는데 모체로 될 강력한 기계제작공업기지를 하나하나 마련하여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이 시기 우리 공업의 지리적배치를 개선하고 믿음직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며 앞으로 대량적으로 요구될 민족간부를 양성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몸소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실현하는데로 빛나게 이끄시였다.

전후 모든것이 파괴되고 벽돌 한장, 세멘트 한그람 없는 빈터우에서 인민경제를 복구개건하면서 령락된 인민생활도 속히 안정향상시킨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그때에는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우리 형편이 어려웠으며 우리앞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나섰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197페지)

미제와 온갖 반동들은 당시 우리 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놓고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여댔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이 있고 인민정권이 있는 이상 전쟁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페허우에서 또다시 새 생활을 창조하며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인민을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끝난지 불과 며칠밖에 안되는 1953년 8월 5일에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후복구건설과 나라의 장래 공업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아직 그 누구도 내놓은적이 없고 그 어디에서도 해본경험이 없는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사회주의공업화의 독창적인 길을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앞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실현하는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열어주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따라 나라의 공업화를 빠른 속도로 밀고나갈수 있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일관하게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위대한 천리마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현대적공업의 창설과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게 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실현에 착수한 5개년계획시기 내외정세와 경제형편은 더욱 복잡하고 첨예하게 조성되였다.

우리 인민은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가셔내고 인민경제의 복구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하여도 아직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며 중공업의 토대는 매우 미약하였다. 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모자랐으며 기술력량도 적었다. 게다가 당내에 숨어들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외부의 지지자들과 결탁하여 우리 당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건설로선을 반대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또한 더욱 격화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새로운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반당종파분자,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주되는 힘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원회의에 뒤이어 강선제강소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여러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과 혁명의 요구, 당의 결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일대 생산적앙양이 이룩되고 천리마운동이 일어나게 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높은 전진속도를 끊임없이 추동한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에게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들로 하여금 침체와 보수를 반대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사상혁명을 앞세워 그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며 거기에 과학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창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공업화의 전진속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과업이 빨리 진척됨에 따라 도처에서 요구되는것은 새로운 기술이였다. 그런데 이 시기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낡은 공칭능력》에 계속 매달리면서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공업화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일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을 꿰뚫어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을 하자면 반드시 사상혁명을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신비화하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그리고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그들을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이 시기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공작기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는 군중적인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기계제작공업의 토대를 빨리 늘이는것과 함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기계나 다 만들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도록 하여주시였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엑스까와또르, 8메터타닝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이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하여 새로 련이어 생산되였으며 우리 나라 기계공업에서는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고 자기의 힘과 재능을 더욱 굳게 믿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완강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시고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힘차게 추동하시면서 한 문제를 푸시고는 련이어 다른 문제를 제시하시여 대중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에로 이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시고 거기에 힘을 넣어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시면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5개년계획기간에 이미 자립적민족공업의 토대가 튼튼히 닦아지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성과적으로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시여 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부문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심적인 과업은 공업생산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기술로 튼튼히 꾸려진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11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5개년계획시기에 중공업발전에 큰 힘이 돌려짐으로써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모든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이 기본적으로 건설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빨리 발전한 우리의 중공업은 부차적인 여러부문들을 채 갖추지 못하고있었으며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중공업의 골간은 꾸려졌으나 거기에 미처 충분한 살이 붙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정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부문에서 무엇보다먼저 중공업의 부족점들을 보충하고 그 골간에 살을 붙이며 나아가서 중공업기지를 더욱 늘일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와 함께 수령님께서는 소비품생산분야에서 대규모중앙경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품종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경공업의 기술장비를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7개년계획기간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문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그

에 필요한 기술인재의 대부대를 마련하여나가도록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이렇듯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7개년계획에 들어선 첫시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이러한 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매우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첨예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1966년 10월에 력사적인 우리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시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은 그처럼 첨예하였던 정세하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이 추호의 동요없이 나라의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자기의 정당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견결히 관철하여나갈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였다. 우리 나라에서 그 후의 모든 사태발전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우리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얼마나 정당한 로선이며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대담하고 능동적이며 매우 현명한 조치였는가를 웅변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새로운 혁명적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두 전선에서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공업화의 위대한 승리를 더욱 앞당길수 있었던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공업화의 길우에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나설 때마다 늘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과 건설장을 찾으시여 대중속에 정치사업을 앞세우시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불러일으키시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힘을 굳게 믿우시였으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함께 계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할것없이 그 어느 단위에나 수령님의 직접적지도와 뜨거운 육친적배려가 미치지않은 곳이 없으며 공업화의 어려운 시기에 새로 일떠선 수많은 현대적공장과 기업소들, 새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와 모든 제품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나에도 그이의 직접적발기와 깊은 관심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에 나섬에 따라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던 공업관리를 개선하는 문제도 철저하게 혁명적군중로선에 의거하여 풀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맑스-레닌주의적 공업관리체계인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본담보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한 7개년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이 결정적단계에 들어섰던 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전진속도를 높일수 없다는 궤변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심으로써 새로운 천리마속도 《강선속도》를 창조케 하시였으며 웅대한 공업화강령의 실현을 승리적으로 결속시으시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군중로선이 승리한 력사이며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령도가 수놓아져있는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다.

3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업화의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을 창설하며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투쟁은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오늘 우리 공업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부문구조가 잘 조화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공업제품을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는 생활력있고 자립적체계가 선 위력한 주체공업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화의 전기간 공업생산이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지금 우리 공업은 해방전 1944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 공업제품을 단 12일동안에 생산하고있다.

전반적공업부문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공업이 더욱 빨리 발전하였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갖출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춘 완비된 중공업으로 확대발전되였으며 그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인민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됨으로써 지난날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6,000톤프레스, 중량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전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 대형선박 등 복잡한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있으며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들을 종합적으로 생산하고있다. 지난해 우리의 중공업은 165억키로와트시의 전력, 2,750만톤의 석탄, 220만톤의 강철, 150만톤의 화학비료, 400만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다.

오늘 우리의 중공업은 나라의 정치경제적자립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적토대로서 경공업과 농촌경리의 발전 그리고 국방력강화에서 더욱 커다란 힘을 나타내고있다.

경공업발전에서도 획기적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의 경공업은 일용잡화로부터 문화용품, 가정용품, 식료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자체로 훌륭히 생산보장하는 현대적인 소비품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 규모의 증대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이 1956년의 34%로부터 1969년에는 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중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중요공업제품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우리 나라는 이미 발전된 공업국가들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부분적으로는 따라 앞서고있다.

중공업의 힘있는 지원밑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혁명의 과업도 빛나게 수행되였다. 특히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의 과업이 완성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공업화가 전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3페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과학과 기

술,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할수 있는 힘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공업화가 실현된 결과 우리 인민은 더욱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강한 자위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려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더욱 활짝 꽃피여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위대한 승리는 또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 2중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남반부인민들에게 더욱 커다란 힘과 투지를 안겨주고있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와 그 력사적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의 경험은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인민은 불패이며 그러한 인민은 시대와 인류앞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여놓을수 있는가를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우리의 경험은 또한 혁명의 앞길에 수많은 곤난이 중첩되고 비록 일시적이나마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아껴가며 악전고투하더라도 혁명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고수하며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의 창설을 위하여 모든 힘을 돌리는것이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바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그이께서 창시하신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뚫고 전진함으로써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털어버리고 세계선진국가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더욱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치명적타격으로 되며 싸우는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더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공업화의 믿음직한 터전우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바라볼수 있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더욱 앞당길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웅대한 강령, 6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것이다. 이 강령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더욱 강한 자립적경제력과 자위적군사력을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될것이며 우리 혁명력량은 불패의것으로 장성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은 보다 너너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이 영광, 이 행복, 이 긍지를 안겨주신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롭고 영명하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 끝까지 충직한 혁명전사로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욱 큰 승리와 휘황찬란한 앞날이 약속되여 있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강령적문헌,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기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발표 서른네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집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발표된 때로부터 서른네돐이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37년 11월 10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조선혁명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 문헌이다.

수령님께서 이 로작을 집필하실 당시 우리 나라 혁명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포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극도의 무권리와 민족적멸시, 2중3중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망국노의 쓰라린 설움을 겪고있었다.

더우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중일전쟁은 조선인민을 더욱더 무서운 도탄속에 몰아넣었다. 일제교형리들은 후방의 안전을 기할 목적밑에 이 시기에 와서 파쑈적폭압기구를 전례없이 늘이고 가는곳마다에서 혁명력량에 대한 광란적인 공세를 벌리였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학살하였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말그대로 하나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변되였으며 온 나라는 피바다속에 잠겨있었다.

이러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혁명의 배신자들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일제와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완전한 시정배로, 놈들의 주구로 전락되였다.

한편 이 시기 국제혁명정세도 매우 첨예하였다.

일본, 독일, 이딸리아 등 파쑈적인 제국주의나라들에 의하여 인류는 새로운 세계전쟁과 파쑈노예화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은 세계제국주의자들의 뮤혈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조선의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통일적인 로선과 전략전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였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주동적으로 이겨낼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로선과 전략전술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할수 있었다.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혁명발전의 이러한 객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나온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전투적강령이며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위대한 기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력사적문헌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길을 밝힌 불멸의 홰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다. 혁명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우고 그를 철저히 옹호관철해나갈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41페지)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고수하고 반제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견결히 진행할데 대한 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에 일관되여있는 기본사상이며 그 진수이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독창적인 리론과 심오한 과학적분석으로 당시의 조성된 혁명의 주객관적조건과 제국주의진영의 내부모순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제국주의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취약성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전도를 명시하시고 조선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 제반전략전술들은 모두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이다. 로작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당시 조선혁명앞에 나섰던 근본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과학적해답을 줌으로써 우리 혁명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앙양시킬수 있게 한 강유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세계혁명을 전진시키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불멸의 고전적문헌이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맑스-레닌주의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결합시키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식민지나라에서의 사회경제관계와 계급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여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신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인민민주주의독재에 관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으며 철저한 반제혁명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이 일관되여있다.

로작은 실로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의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인류해방투쟁사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게 한 위대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간고한 시련과 영웅적사변들로 가득찬 조선혁명의 진행정과 세계혁명의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을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집필하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로작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와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증대되고있다.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혁명투쟁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집필되고 력사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검증된 로작은 그가 담고있는 사상리론적재부의 풍부성과 심오성, 보편타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수억만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심장을 더욱더 힘있게 틀어잡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계속 승리에로

이끌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오늘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투쟁의 신조로 되고있으며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떨쳐나선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을 끝없이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의 첫부분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조선혁명의 근본문제들인 그 성격과 과업에 대한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해명을 주시였다.

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혁명투쟁을 옳게 조직령도하며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혁명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다.》 (우와 같은 책, 5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단계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시였다.

이는 수령님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내리신 유일하게 정확한 독창적인 규정으로서 우리 혁명을 조선사회의 객관적조건과 맑스-레닌주의원칙에 맞게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수 있게 한 기본적인 혁명로선이며 강령적지침이였다.

혁명의 성격은 매개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사회계급적제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의 우리 나라를 일제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시는데로부터 출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혁명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이며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및 이전의 봉건관료배들이 하나로 결탁되여있기때문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은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수령님의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우리 혁명의 과업들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세우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혁명의 기본류형의 하나를 새롭게 밝히신것으로서 그 리론은 맑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운동발전에 대한 위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혁명의 임무와 성격은 그 대상과 동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으며 이 모든것은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규정되여야 한다.

혁명의 대상과 동력을 정확히 규정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주되는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침략세력이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조선혁명의 대상은 다음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굴종하면서 그의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고있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친일관료배들이다.》(우와 같은 책, 6페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는 조선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온갖 사회적질곡의 근원이였다. 따라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과 우리 나라의 사회적진보를 위한 근본조건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첫단계 조선혁명의 대상을 주되는 원쑤인 일제침략자들과 그 충실한 앞잡이로서 그들과 한짝이 되여 우리 인민을 억압착취하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기타 매국매족의 무리들에 국한시키시였다. 여기에는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크게 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켜 주되는 적 일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릴데 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적구상이 깃들어있다.

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혁명의 동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현단계에서 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의 광범한 반제민주력량이다.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 종교인들도 반제투쟁에 참가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모든 력량이 빠짐없이 동원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우리 혁명의 력량을 편성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도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 된다는것을 명확히 규정하신것이다.

이것은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부르조아지와 로동계급의 립장과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상이다.

식민지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의 상층은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야합하여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전락하며 중소자본가층은 비록 반제적립장에는 설수 있지만 철저한 혁명성을 가지지 못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할수 없다. 오직 로동계급만이 전체 근로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고있으며 그 계급적처지로 하여 혁명성과 조직성이 가장 강하고 모든 근로대중을 조직령도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능력을 가진 선진적인 계급이다.

일제통치하에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당하고있던 비참한 처지는 그들의 혁명성을 더욱 높여주었고 실제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계급적으로 더욱 조직되고 단결되게 하였으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앞장에 서게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로동계급이외의 어떤 계급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령도적역할을 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령도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민주주의적혁명과업의 철저한 수행여부,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과적인 계속이행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지위에 대한 리론과 그 실천적모범은 오늘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문제로 되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강력한 고무적힘으로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구성에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농업국가들에서 농민은 주민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할뿐아니라 비참한 사회계급적처지로 인하여 강한 혁명성을 가진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지난날 우리 나라와 같이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농민을 쟁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된다.

농민을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신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식민지, 반식민지 농업국가들에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력량편성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방침에서 독창적인것은 또한 각계각층 주민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혁명에 대한 태도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시고 그들을 남김없이 묶어세우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동력으로서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민족자본가, 량심적인 종교인들에 대하여서까지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과학과 진리를 탐구하기때문에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발전의 추세에 민감하며 심한 민족적억압과 차별대우를 받는데로부터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며 로동자, 농민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 안내하는 선각자적역할을 수행하고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령도하에서만 혁명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민족자본가들도 그들이 비록 착취계급이기는 하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항상 파산의 위협에 처해있는데로부터 불철저하게나마 반제의식과 민족적독립의 념원을 가지고있으며 반제민족해방혁명에 참가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민족자본가들을 반제민족해방투쟁에 끌어들이는것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력량편성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혁명의 편에 설수 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남김없이 포섭하고 조직결속함으로써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조성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심오한 리론을 전개하시고 이어서 이 혁명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미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도 규정하신바와 같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가장 선차적이고 근본적인 과업은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야합한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등 모든 반동세력을 타도하는것이며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힌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우는것이였다.

주권문제는 혁명의 근본문제이며 주권을 틀어쥐지 않고서는 완전한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없고 계급적해방도 실현할수 없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건설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권문제해결에서 중요한것은 해당시기 혁명의 성격과 임무, 계급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주권형태를 규정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를 타도한후 우리가 세워야 할 정권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인민적민주주의정권 즉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이다.》(우와 같은 책, 16페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정권 즉 인민적민주주의정권이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정권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적민주주의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적과업을 수행하는 정권이지만 그 계급적내용으로 보면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가 참가하여 광범한 로동자, 농민 기타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이며 장

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나갈것을 지향하는 정권이다. 때문에 그것은 프로레타리아정권의 범주에 속하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관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주권의 형태와 계급적내용을 독창적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한 수령님의 창조적사상은 이미 1930년대초 동만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들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에 의하여 실천에 옮겨졌으며 해방후 북반부의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서 정권을 세운 다음 거기에 튼튼히 의거하여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제국주의잔재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것이며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워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면 혁명을 계속하여 압박과 착취가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계속혁명의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의 첫 부분에서 전개하신 사상과 리론의 본질적내용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민주주의혁명과 민주주의정권에 대한 리론, 다시말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인민민주주의독재에 관한 리론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의 두번째부분에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당면임무를 밝히시였다.

여기에는 조선혁명과 식민지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창조적사상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먼저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는것을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첫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그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우와 같은 책, 19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견결한 반제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본성과 조선혁명의 객관적요구, 그 력사적경험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시고 빛나게 실현하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선이며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하게 담보한 유일하게 정확한 로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장투쟁을 견결히 전개하는 길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수 없다. 오직 무장투쟁을 견결히 진행할 때에만 자기 인민의 힘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반혁명무력을 혁명적무력으로 격파하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이며 가장 높은 형태를 이루는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군대의 불패의 힘의 원천을 그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서 보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모든 지휘성원들과 전사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시였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 전체 성원들을 혁명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조선혁명의 제반 로선과 전략전술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투쟁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게 하며 인민의 참다운 교양자, 대중운동의 능숙한 조직자로 자라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포악한 일제침략군을 타승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동시에 그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오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군사전략적방침과 명활한 유격전술로 무장시키며 우수한 군사기술에 정통하게 함으로써만 놈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유격전술적우세로 타승할수 있었으며 적들을 계속 피동에 몰아넣고 마침내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

당시 일제가 중국대륙침략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조건에서 놈들의 배후에서 능동적인 유격전술로 대대적인 무력공세를 들이대며 무장투쟁을 국내깊이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전인민적항쟁을 배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은 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며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전략사상과 군사예술은 맑스-레닌주의 군사과학에서 새로운 발전으로 되며 유격전쟁에서뿐아니라 현대전의 조건에서도 혁명군대가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조직진행할데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둘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힘있게 조직진행하여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보다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와 같은 책, 23~24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결속하여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강력한 정치운동으로,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였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혁명의 기본계급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쟁취하고 단합시켜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대한 이러한 독창적인 사상을 다시금 심오하게 밝히시고 그 실현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개괄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사상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을 타승하기 위한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 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독창적인 전략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당시 파쑈화의 위험이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는 환경에서 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다시금 명확히 제시하심으로써 국제적으로 련합된 파쑈세력을 약화시키고 국제민주력량의 승리를 촉진할수 있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통일전선조직인 동시에 강력한 지하혁명조직이였던 조국광복회조직들을 전투적으로 꾸리고 그 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에 공산당이 창건되지 못하였던 조건에서 반일애국력량을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결속하며 조선혁명에 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이 운동에 대한 지도에서 좌우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고 혁명적군중로선과 계급로선을 옳게 결합할데 대한 문제, 통일전선내에서 단결과 투쟁을 정확히 결합할데 대한 문제 등 이 운동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관한 전략적방침과 그 빛나는 실현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전반적조선혁명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반파쑈인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놀았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셋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 혁명투쟁에서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와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가지는 의의를 명철하게 밝힌 독창적인 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던 첫시기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웃나라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반일유격대와는 물론 각종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데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조중반일통일전선형성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깊이 분석하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승리한 혁명을 무력으로 옹호하며 국제로동계급과 식민지피압박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것은 당시 아세아제패를 위하여 날뛰던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며 사회주의국가 쏘련에 대한 침략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세계평화를 교란하던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그 멸망을 촉진시키며 세계혁명과 우리 나라 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넷째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초기조선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과 심각한 교훈을 분석하시고 이미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밝히시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

적준비를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당창건준비사업을 철저히 갖출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창건방침은 초기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심각히 분석총화하고 혁명적당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발전시킨 독창적인 방침이다. 거기에는 유일적인 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당조직건설을 아래로부터 우로 올리 진행할데 대한 문제,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고 혁명적핵심을 육성할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의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엄격히 지키며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전위적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원들을 당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불굴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문제 등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건설에 관한 리론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은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였으며 무장투쟁과 모든 대중운동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전위적역할이 제고되여 전반적조선혁명은 더욱 힘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앞으로 멀리 전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밝혀주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로선은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땅우에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우리 인민은 이미 오래전에 공화국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러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조국 절반땅에는 아직도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이 남아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한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마수를 깊이 뻗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속히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전국적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귀중한 혁명의 량식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그 진수와 전반사상, 리론실천적의의를 깊이 체득하며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녀성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터운 배려와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민주녀성동맹 제4차대회는 녀성동맹건설과 전반적혁명위업수행에 거대한 기여를 한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의 획기적리정표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력사적단계에서 녀성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면서 녀성동맹앞에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녀성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며, 각계각층의 모든 녀성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4가지 큰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교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 녀성운동의 총적로선을 새롭게 제시하신 위대한 강령이며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녀성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등대와 같이 휘황히 밝혀준 지도적지침이다.

그것은 또한 녀성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녀맹조직건설에서 온갖 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녀성운동을 건전한 길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지도리론이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녀맹 제3차대회이후 우리 나라 녀성운동발전에서 이룩된 빛나는 업적과 경험들을 총화하고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밝히신 전투적강령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의 과업을 제시한 김성애동지의 녀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가 있었다.

녀맹제4차대회는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나라 전체 녀맹원들과 녀성들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녀성운동발전과 녀성문제해결에 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확증하였다.

대회의 전과정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우리 나라 녀성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불같은 충성심으로 일관되였으며 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조직에 이르기까지 전동맹대렬이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이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동맹대렬의 완전한 통일을 확고히 이룩한것은 총결기간 녀성동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다.

대회보고와 토론들에서 일치하게 강조된바와 같이 오늘 녀성동맹이 위력한 대중적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나라 녀성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생활에서 세기적변혁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녀성해방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건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과 함께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된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할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시여 녀성해방의 종국적실현을 위한 휘황한 진망을 펼쳐주시였다.

이번 대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켜주신 대로를 따라 녀성해방의 력사적과업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를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전체 녀성들을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획기적계기로 되였다.

대회는 또한 녀성동맹의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을 한층 더 높이며 녀성동맹이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오늘 녀성동맹과 전체 녀성들앞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녀성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영예로운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모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사상이다.

수령님께서는 녀맹 제4차대회가 녀성들의 혁명화의 대회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녀성혁명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분석하시고 모든 녀성들과 새세대들을 완전히 혁명화된 공산주의적새 인간으로 육성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방침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인전대인 녀맹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방향과 중심과업을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근로단체들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0페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녀성들의 혁명화는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녀성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다운 역군으로 키우는 문제로서 온 사회의 혁명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현단계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녀성들은 사회주의건설자인 동시에 가정의 주부이며 아들딸들의 양육자인만큼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가정을 더 잘 혁명화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이룩할수 있다.

남자들과 함께 녀성들이 모두 혁명화되여야만 혁명의 두 수레바퀴가 다 같이 힘있게 움직이며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의 점령이 앞당겨질수 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전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며 녀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각급 녀맹조직들은 녀성혁명화를 자

기의 기본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비롯한 부르죠아사상을 빼고 개인의 리익보다도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인다는것을 말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6페지)

사람들을 혁명화하자면 낡은 사상을 뿌리빼는 사상투쟁과 새로운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의 정신으로 일관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다.

누구나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선 견결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각급 녀맹조직들은 녀맹사상교양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녀성혁명화의 거점인 어머니학교를 더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당면하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이번 녀맹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체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수령님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강화하여 그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과 고매한 풍모를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며 녀성혁명화의 귀감이신 강반석녀사를 따라배워 모든 녀성들이 열렬한 녀성혁명가, 혁명가의 참다운 안해, 아들딸들의 훌륭한 공산주의적어머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녀맹조직들은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녀성들로 하여금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도록 하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이 제도를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 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낡은 생활유습을 없애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문화도덕생활의 본보기를 만들어 일반화하여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여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녀맹제4차대회에서 명백히 밝혀주신바와 같이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녀성들을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여야만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에서 뒤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녀성들이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배울수 없으며 점점 더 락후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면 집단생활을 하고 여러가지 모임에도 참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녀성들은 사상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소양을 높일수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품성을 기를수 있습니다.》(《녀성동맹사업에 대하여》, 40페지)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야 집단생활,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교양개조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될수 있다.

녀성들이 가정에 파묻혀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쌀이 어떻게 생산되고 천과 신발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똑똑히 알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법적으로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실지에 있어서는 아이나 보아주고 남편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녀성들의 사상의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투쟁, 집단로동을 통해서만 더 빨리 개조되고 발전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녀맹조직들은 아직 직장에 나가지 못한 녀성들을 빠짐없이 사회에 진출시키도록 하며 이미 사회에 나와 일하고있는 근로녀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그들모두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더욱 혁명적으로 단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사회적운동으로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더 많이 더 좋게 건설해주는것을 비롯하여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더 잘 마련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의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을 사상이 견실하며 건강하고 명랑한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 훌륭히 기르는것은 녀성동맹과 녀성들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는만큼 어린시절부터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혁명의 장래발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녀성들은 자녀들과 자라나는 후대들의 주되는 양육자, 교양자로 되고있다.

따라서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들에 공산주의적어머니가 되여 자녀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키우도록 하는 동시에 보육원, 교양원 대렬을 더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모든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자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교육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녀맹조직들은 우선 녀성들을 혁명화하고 가정을 혁명화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녀성들의 정치적 및 기술실무적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일것을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날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치기술실무적자질과 능력을 한계단 더 높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녀맹조직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녀성들의 정치기술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그들이 자기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며 누구나 자기 초소에서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숙히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녀성간부들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녀성들속에서 학사, 박사, 공훈교원, 공훈의사, 공훈배우를 비롯하여 이름있는 과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녀성간부들을 많이 길러내는것과 함께 녀성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배우고 그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높이는것은 녀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3대기술혁명과업을 내놓으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다 빨리 이룩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녀성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만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근본적으

로 개선하고 녀성들을 힘든 로동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보다 앞당겨 수행하며 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제품의 질도 훨씬 높일수 있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술학습을 널리 조직하여 모든 녀성들이 자기가 맡아보는 기계와 설비에 익숙하게 할뿐아니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며 집단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도록 그들을 적극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녀맹조직들은 문화혁명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녀성들의 일반지식수준과 전반적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녀성들이 높은 기술과 문화를 소유하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며 자신들을 부엌과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녀성들은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고 잘 관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나라의 모든 재산은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이며 전체 인민의 행복한 살림을 마련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살림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쌀, 남새, 과일, 고기, 천, 일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것은 녀성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것이 없다. 녀성들은 농업,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 상업류통, 편의봉사 부문 등 나라살림살이의 중요한 부문들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맡고있다. 따라서 제품의 질, 특히 식료품과 일용품의 질을 높이며 모든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는데서 녀성들이 담당하고있는 임무는 실로 크다.

녀맹조직들은 녀맹원들과 녀성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속에서 모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마을과 일터를 주인답게 꾸리며 공동재산을 소중히 다루고 한오리의 실, 한개의 못, 한장의 종이라도 랑비하지 말고 극력 아껴쓰는 투쟁을 전군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속에서 가정과 나라살림살이를 거칠게 되는대로 하는 현상들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모든 녀성들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고 깐지고 알뜰한 살림군이 되여 국가, 사회재산을 애호관리하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할것이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주신 교시에서 녀성동맹이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쟁할뿐아니라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서도 적극 투쟁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녀맹조직들은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녀성들로 하여금 미제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며 조국통일과 녀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조국이 통일된후 남조선에서 혁명을 전진시키며 녀성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정치사상적, 물질적 준비를 더욱 훌륭히 갖추게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녀맹조직들이 모든 녀성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모든 녀성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는것은 당의 인전대, 녀성들에 대한 정치교양단체로서의 녀성

동맹의 근본사명의 하나이며 녀맹조직들이 우리의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녀맹조직들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녀성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전개하며 혁명의 편에 설수 있는 모든 녀성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모든 녀성들이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며 녀성동맹의 전체 대렬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활기있고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게 하여야 한다.

녀성동맹앞에 나서고있는 모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녀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을 더 한층 높여야 한다.

녀성동맹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녀맹조직들이 동맹내부사업에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녀맹 조직들은 동맹내부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붉은 전사로, 견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차게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31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녀성동맹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녀성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녀성동맹은 녀성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녀맹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중앙으로부터 초급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동맹안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차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녀맹조직들은 모든 녀성간부들과 전체 녀성들이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일념으로 불타게 하고 수령님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동맹조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우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서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걸린 고리를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녀맹조직들은 맹원들에게 동맹조직생활은 곧 정치활동이며 혁명활동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로 하여금 녀맹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분공을 옳게 조직하고 모든 녀맹원들이 언제나 움직이도록 하며 자기 조직을 생기발랄한 전투적인 산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녀맹조직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전체 녀맹조직들과 녀성들은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녀성운동의 보다 새로운 발전과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인 회의

방 문 권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된 1931년 11월의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마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에 따라 력사상 처음으로 항일무장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명월구회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게 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이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과 그 정당성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하에 진행된 명월구회의는 그이께서 이미 카륜회의에서 천명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한 력사적인 회의로서 조선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제의 낡은 반동통치기구를 뒤집어엎고 주권을 전취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매우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이르러 일제는 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더욱 정비보강하고 파쑈적인 군사독재에 매달려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최신기술수단으로 장비한 일제의 침략군대는 그 어느 나라 침략군대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독하였다.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오직 조성된 혁명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가장 옳바른 무장투쟁형식과 방법을 규정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속에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력량을 축적하여야 하였으며 일단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지체없이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결정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명월구회의는 당시에 조성된 국내외의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이미 제시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회의였다.

명월구회의를 전후한 시기의 국내외 정세는 매우 첨예하고 복잡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군사파쑈통치는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1931년 9월 18일 일제의 만주에 대한 침공으로 인하여 혁명정세는 더욱 급변하게 되였으며 국내외의 광범한 지역에서는 폭동적성격을 띤 대중적인 혁명투쟁이 꼬리를 물고 련이어 폭발되였다.

이에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만주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면서 소위 《후방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류례없는 파쑈적인 폭압을 감행하여나섰다.

일제침략자들의 류혈적인 백색테로행위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은 앉아서 죽

느냐, 일어나서 싸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일제침략자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보고 앉아서 한탄만 하거나 아우성이나 치는것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오직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은 손에 무장을 잡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 일제를 처부시는 길외 다른 길은 없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국내외정세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이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투쟁방법은 결코 독립군들이 하는것처럼 권총이나 가지고 군자금이나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장을 들고 유격투쟁을 해야만 강도 일제를 무찌를수 있다.…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고있다.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투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고 무장투쟁형식과 전략전술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무장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된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투쟁은 각이한 력사적조건과 환경에서 그 나라 인민에 의하여 진행된다.

혁명투쟁의 이 합법칙성은 무장투쟁의 형식과 전략전술을 규정함에 있어서 항상 주체적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만 자신의 판단과 신념에 기초하여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적아간의 력량관계, 조성된 혁명정세의 주객관적요구에 맞게 무장투쟁의 형식과 전략전술을 정확히 규정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규정하시고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매개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따라 규정된다. 이러한 형식의 무장투쟁은 아무리 현대적무기와 최신과학기술수단들로 무장한 적들일지라도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 의거하여 전투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을수 있게 하며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하면서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소멸할수 있게 한다.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켜 무장한 반혁명을 혁명무력으로 타승하고 혁명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반제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그가 의거하여야 할 혁명근거지와 대중적지반을 축성할데 대한 구체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상비적인 혁명무력으로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절박하게 제기된 근본문제였다.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인류력사는 아직 그 어떤 반동통치계급이 반혁명적폭력을 쓰지 않고 공순히 자기의 지배권을 양보한 실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피압박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통치계급의 낡은 통치기구를 전복하는 혁명적폭력, 혁명무력이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무력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통치계급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놈들의 대중적학살만행으로부터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육성강화하고 민족해방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창건될 항일유격대는 일제를 타도하고 장차 조국땅우에 착취와 억압이 없는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조선인민의 상비적인 혁명무력으로 되여야 하며 이러한 사명을 가진 항일유격대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도록 정치사상적준비가 되여있는 로동자, 농민, 애국적청년들로 조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창건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주권전취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근본문제를 밝힌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하게 하는 창조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창건될 항일유격대의 무기해결방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적들로부터 빼앗아 무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무장해야 한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혁명을 어디까지나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수행할데 대한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구현하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적의 무기를 빼앗을뿐만아니라 자체로 만들어 무장할데 대한 수령님의 방침은 나라가 이미 일제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여 주권도 없으며 외부의 지원도 없는 조건하에서 무장을 해결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하는것과 함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떠한 혁명운동이든지 자체의 튼튼한 력량, 자기의 믿음직한 근거지가 없이는 승리를 달성할수 없는것입니다.》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247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근거지를 가져야 한다. 근거지를 가져야만 창건될 항일유격대는 군사활동의 거점과 자체의 후방기지를 가질수 있으며 장기성과 간고성을 띤 무장투쟁에서 항상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 또한 근거지를 가져야만 당시 일제의 파쑈적폭압만행으로부터 자체의 력량을 보존강화하면서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앙양된 인민대중의 여러가지 형태의 혁명투쟁을 유일적이고 통일적인 반일투쟁에로 정확히 인도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실로 근거지창설문제는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조성된 혁명정세와 혁명투쟁, 무장투쟁

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창설될 유격근거지는 항일무장투쟁의 거점으로, 후방기지로 되여야 하며 일제의 백색테로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육성강화하기 위한 혁명거지로, 전반적인 조선혁명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책원지,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보루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은 국가적후방도, 이미 마련된 아무러한 군사, 경제적 지원도 없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무장투쟁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 형편에서 오직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강력한 보루를 축성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강력히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한 정당한 방침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유격투쟁의 숭고한 목적이 있으며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싸워나가야만 우리의 목적은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광범한 군중이 동원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독불장군이란 말그대로 혁명은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수행되지 않는다. 혁명은 오직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할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혁명투쟁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또한 혁명적군중토대가 없는 무장투쟁은 승리할수 없으며 무장대오 그자체도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없으므로 오래동안 유지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무장투쟁은 그가 의거하여야 할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항일무장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으로 완수하려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적립장을 반영한 정당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다음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린접국가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이 공동의 적인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있어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단 반일부대뿐만아니라 중국의 광범한 인민대중들과의 공동전선을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관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린접국가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의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여 국제적범위에서 단합된 힘으로 일제침략자들을 고립시키고 그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여야만 무장투쟁의 승리를 거둘수

있었다.

린접국가의 광범한 인민들과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과의 호상관계, 주체적혁명력량의 강화와 국제적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모든 반제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 공동의 적, 일제침략자들에게 주되는 타격을 가하게 함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은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키고 조국광복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룩할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실로 명월구회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명월구회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침을 처음으로 밝혀주신것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월구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비로소 무장투쟁을 어떤 형식과 수단으로, 어떤 대중적지반우에서 전개하며 누구와 어떻게 단결하며 어떻게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여야 하는가 하는 명확한 방도를 알게 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무장투쟁에로의 혁명적전환의 시기에 곧바로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더 줄기차게 떨쳐나서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혁명투쟁,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여주심으로써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놓게 하시였으며 무장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무장투쟁, 유격투쟁에 관한 완성된 리론이 없었다. 따라서 종래의 유격투쟁은 다만 국가적후방의 지원하에 진행된 유격전이였으며 그것은 주로 정규군의 작전임무수행을 보장하는 보조적역할밖에 놀지 못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무장투쟁, 유격투쟁을 뒤받침해주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야 할 피압박인민들에게 무장투쟁의 명확한 길을 밝혀주는것은 혁명가들 앞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식민지나라들에서 절박하게 제기된 무장투쟁, 유격투쟁에 관한 정연한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유격투쟁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유격전을 기본형식으로 하는 무장투쟁의 구체적방침으로서 상비적인 혁명무력의 건설, 혁명근거지의 창설, 대중적지반의 축성 그리고 모든 반제혁명력량들과의 공동전선의 형성 등 당시의 력사적조건하에서 절박하게 제기되였던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이것은 무장투쟁, 유격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

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로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처음부터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었다.

더우기 주권도, 민족군대의 토대도, 외부의 지원도 없으며 온 나라가 일제의 파쑈적인 폭압망이 그물처럼 뒤덮인 조건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혁명적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련이어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시면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인민대중의 다른 모든 형태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형태로 되였으며 그를 중심으로 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공산당창건을 위한 사업 등 전반적조선혁명이 빨리 발전하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를 확립하시여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발전시키시였으며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창조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종국적으로 패망시켰으며 우리 나라의 계급적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려놓으시였으며 전반적국제혁명운동의 강화발전을 비상히 촉진시키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력사적행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명월구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조직적인 무장투쟁만이 반혁명세력을 쳐부시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며 고귀한 밑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인 혁명전통을 따라배우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며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살며 싸우는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우리는 력사적인 명월구회의 마흔돐을 맞이하여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심오히 학습하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어김없이 기한전에 넘쳐완수함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문헌

김 남 철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영원히 불리울 승리자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있은때로부터 1년이 된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당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들을 집대성한 백과전서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교과서이다.

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로정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력사적문헌이며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주는 홰불이며 투쟁의 기치이다. 보고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현시대가 해명을 요구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을 줌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당 제5차대회가 있은후 지난 1년간에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전진은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의 정당성과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우리 당과 인민이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면서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그리고 당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를 총화한 위대한 력사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며 그 빛나는 구현입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웠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우선 사상분야에서 이룩된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 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상에서 주체확립, 이것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한 사상혁명령역에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13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 사람들의 사상의식령역에서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로운 인민으로 되였으며 제정신으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살며 싸우는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승리이다.

사상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게 되고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지난날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완전한 통일단결이 이룩된 결과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적련계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또한 인민들속에서 당의 권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영원히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온 사회가 정치사상적으로 굳게 단합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된 오늘의 현실은 사상분야에 주체가 확고히 수립된 결과에 이룩된 고귀한 열매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4폐지)

우리 당과 인민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걸음마다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물리치면서 보통 자본주의나라들이 용근 한세기 지어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어려운 과업을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완비된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경공업 그리고 완성된 수리화체계와 전기, 기계,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발전된 농업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뒤떨어진 경제를 가지고있었던 탓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아오던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나 힘있고 발전된 민족으로서 세계선진국가의 대렬에 떳떳하게 들어서게 되였다.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이것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경제건설분야에 구현한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국방분야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방침에 따라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온 나라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자위력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7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총결기간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결과 우리 인민군대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되였다. 이와 함께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어떤 침략자들이 그 어느때 그 어느 곳으로 불의에 덤벼든다 하더라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철벽의 방위력을 가진 자위의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국방분야에 구현된 자위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들도 총화하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이러한 투쟁과정에서 그들은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투쟁의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남조선혁명은 오직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조직된 힘으로 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투쟁과정에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을 창건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통일혁명당의 지도하에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리고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및 세계혁명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국제관계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여놓았다는것을 총화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총결기간 변천되는 복잡한 국제정세를 제때에 옳게 평가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그들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없이 고무해주었다.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작성된 우리 당 대외정책, 반제반미투쟁전략의 정당성으로 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적위신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되였다. 국제관계분야에서 달성한 이 모든 승리는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자주적인 우리 당 대외정책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이렇듯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인 주체사상이 대내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승리한 찬란한 업적을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한 위대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전투적강령이다.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제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방도와 구체적과업들을 과학적으로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두 요새점령에 관한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이 집대성되여있는 보고는 우리 인민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전면모를 산현실과 같이 확연하게 바라볼수 있게 한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무엇보다먼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사회적소유를 확립하며 현재까지의 그 어느 사회에서도 도달하지 못하였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이 요구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점령의 이러한 본질적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여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39페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망계획인 6개년계획은 이미 이룩한 공업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며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 가장 명확한 길을 밝혀준 계획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여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생활을 다같이 고르롭게 높이는 등 물질적요새점령의 길을 밝혀준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기술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아가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의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사상은 착취로부터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하고 로동조건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 구체적로정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이후시기에 대중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다음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힘차게 나아갈수 있는 곧바른 승리의 길을 가르쳐주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였다 해도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그들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유능한 새 사회 건설자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의 건

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적요새와 함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우선 사상적요새점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여 재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는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입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하여야만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해야 과도기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고 계급없는 사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할데 대한 문제 등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구체적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앞세워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혀준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정과 방도들을 가장 정확히 밝혀준것으로서 공산주의적새인간육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두 요새 즉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당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고전적 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총적과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사업을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책, 119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총적과업으로 제시하여주심으로써 당의 조직사상리론적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그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되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을 더욱 발전완성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에 관한 학설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사업이 다름아닌 바로 당을 이루고있는 간부들과 당원들과의 사업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직접적집행자인 근로대중과의 사업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당사업의 기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였으며 당사업을 기술실무화하려는 온갖 편향들을 극복하고 당이 본래의 사명에 맞게 당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당적령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창조적사상을 제시하시면서 당적령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방도들도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 보고에서 당사업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과업들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문제와 당사업의 근본원리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건설리론발전에 대한 위대한 공헌으로 된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시면서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절박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전면적해답을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반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혁명의 성격, 대상과 동력에 관한 문제, 혁명적맑스-레닌주의당을 건설하고 그를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꾸릴데 대한 문제,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전국혁명과 지역혁명의 호상관계 문제 등 민족해방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과 분렬된 나라 인민들에게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승리의 길을 밝혀주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및 세계혁명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총화보고에서 세계혁명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더욱 풍부화하시고 가일층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내리막길에 들어선 현대제국주의와 그 우두머리인 미제에 대한 전면적분석에 기초하시여 미제의 각을 뜰데 대한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심으로써 미제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미제의 손아래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의 위험성과 그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재천명하시였다. 또한 반제혁명투쟁에서 아세아혁명적나라인민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반미통일전선과 반미공동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전략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제혁명에 관한 정확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는 현시기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절박하게 해명을 기다리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며 혁명의 백과전서이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회가 내놓은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전투적강령입니다.》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명시한 이 웅대한 강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에서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을 내다보면서 커다란 포부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투쟁하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여 지난 1년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오늘 전국의 로동계급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6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 끝낼것을 결의하고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으며 전국의 협동농장원들도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심장으로 받들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특히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회천과 구성의 로동계급들을 비롯한 전국의 로동계급들은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자기들이 싸워나갈 승리의 앞길을 찾은 남반부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 안겨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미제와 일본군국주의 그리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다.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들의 지도리념으로 삼는 통일혁명당의 지도밑에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있는 남반부인민들의 거세찬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보고는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수령님의 보고에 접한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사회정치활동가들은 보고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조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와 신뢰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세계의 혁명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현시대가 해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준 수령님의 보고를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촉진시킬데 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명한 가장 위대한 문헌이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는 전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강령적투쟁의 지침》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전세계혁명가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해빛을 비쳐주시는 위대한 붉은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심오히 학습하여 그를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세계의 수많은 우리의 벗들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무한히 고무하는 반면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원쑤들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는 폭탄으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더욱 깊이 학습하여 보고의 구절구절마다에 담겨져있는 그이의 심오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본질을 깊이 체득하며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그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수령님께서 회천땅에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기술혁신운동을 도처에서 세차게 벌림으로써 당면하여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 15전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며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들은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정치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며 그의 령도적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모두다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승리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근로자들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주 학 석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지난 기간 당사상교양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함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3페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우리 인민들앞에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승리적으로 실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조국의 통일위업을 완수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와 자각적인 로력투쟁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서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과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고 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이 또한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근로자들이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 그 이중 주구인 박정희괴뢰도당과 세계의 온갖 반동파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세계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주의라는것은 말 그대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앞으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타도되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민족들의 차이가 없어지고 국가도 조락한 다음에는 물론 애국주의문제가 서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잊어버릴수 없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도대체 그 어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매개 나라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적인것이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대렬이 점차 확대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경이 있고 제가끔 자기 나라를 가지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수 없고 그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싸울수 없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때려부시고 세계혁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을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63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제도가 있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은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하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 없이는 조국의 륭성발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도 생각할수 없다.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은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뿐아니라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고 보다 행복한 미래를 안겨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이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고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으로서 사회주의조국의 정치적독립과 자주권의 물질적기초로 되며 그 불패의 위력과 무궁무진한 생활력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떠나서는 살수 없으며 행복할수 없다. 실로 나라와 주권이 없는 식민지노예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애국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며 이것은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의 계선을 똑똑히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저 애국주의라고만 하지 않고 반드시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것도 우리의 애국주의를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 갈라보기 위한것이며 그 계급적본질을 똑똑히 밝히기 위한것입니다.》

부르죠아적애국주의는 소수 특권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한것으로서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 바로 이러한 애국주의만이 민족의 절대다수인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최고형태의 애국주의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떠나서는 민족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길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몰락의 길이며 사회주의만이 계급적착취와 함께 민족적억압을 근절하고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번영을 보장한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철저한 애국자로 되는것이며 자기의 계급적해방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만이 참다운 애국적감정을 가질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적감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기초한 계급의식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이란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과 계급적성격을 과학적으로 밝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가장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우리 인민이 피땀으로 쟁취하고 이루어놓은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3~64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의 혁명적본질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자부심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사는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나라와 인민을 구원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시여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과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건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이 령우에 세기적인 변혁과 민족적대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우리 나라에 세워진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위대한 결실이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백전백승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이있고 보다 휘황찬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나라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은 결국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한없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키우는것으로 된다.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은 그이께서 세워주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사랑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투쟁에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전취물을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의 발현이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더욱 활짝 꽃피우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보람찬 일이다.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절대적인 권위와 인민대중속에서의 허물수 없는 높으신 위신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굳건히 옹호보위하며 우리 인민을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자랑찬 투쟁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근본문제로 되며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그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부강한 사회주의조국 건설에 더 많이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64페지)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며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의 구체적발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자기 가정과 직장, 자기의 도시와 농촌을 사랑하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며 도시와 농촌, 공장과 농장을 깨끗이 꾸리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감정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은 공장을 잘 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계와 기대를 깨끗이 다루며 농장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농장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알뜰히 돌보며 기술혁신을 일으켜 질좋은 제품들과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등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통하여 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백년대계로 후대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까지도 마련하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늘이기 위하여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이 인민들에게 낟새와 기름, 고기를 더 많이 공급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자기들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그들을 나라와 인민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하는 참다운 주인으로,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알뜰한 살림군으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발전된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끝없이 사랑하며 계속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공산주의자,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의 반동적본질

최 필 원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0페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제침략자들을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가장 음흉하고 교활한 신식민주의수법으로 남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제놈들의 손에 틀어쥐고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재난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반동적본질을 철저히 발가놓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반동사상의 영향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높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적침략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지배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날에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총독정치를 하였는데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앞잡이로 리용하여 더욱 교활한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남조선을 통치하고있는것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01페지)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놈들의 처지가 더욱 곤난해지고 멸망에 가까와갈수록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은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해질뿐이다.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지난날의 일제의 직접적인 《총독》통치대신에 제놈들이 길러낸 앞잡이들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조작한 후 그것을 통하여 간접적인 통치, 신식민주의적방법에 의한 통치를 실시하고있는것은 결코 미제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다만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신식민주의통치방법을 적용하는데로 나간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제놈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우며 공화국북반부의 강력한 혁명적영향밑에 진정한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진출을 가로막음으로써 식민지통치의 정치적《안정》을 확보해보려는 음흉한 목적에서 나온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제반민주개혁과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무

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끓어번지는 자유와 독립에 대한 불같은 지향과 민족해방의 투쟁기세는 미제침략자들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직접적인 식민지통치를 할수 없게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교활하게 《보호자》, 《원조자》의 탈을 쓰고 신식민주의정책에 매달리게 되였다.

따라서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신식민주의는 놈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그 취약성을 보여주는것이며 멸망하여가는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식민지지배에 유리하게 사회정치, 경제적지반을 꾸리는데 기초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실현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방법의 가장 주되는 본질적특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소위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괴뢰정권으로서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가리는 위장물이며 미국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389페지)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통치자로서의 제놈들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남조선이 마치도 《독립국》이며 거기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부》가 존재하는듯이 떠벌이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그 어떠한 기만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범죄적인 침략책동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의 이른바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으로서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있다.

남조선《정권》은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으로서 미제의 현지지배기구에 완전히 종속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수많은 현지지배기구를 설치하여놓고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종하고있으며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통제장악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국제개발처》, 《주한미공보원》, 《미중앙정보국남조선지부》 등 각종 너울을 쓰고 기여든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의 현지지배기구들이 괴뢰정부의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주한미대사관》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지휘, 감독하는 사실상의 《총독부》로 되여있다. 《주한미국제개발처》는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경제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고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군사기지화정책을 집행하면서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괴뢰군을 지휘통제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각종 형태의 현지지배기구를 통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종하고 철저히 예속시키고있을뿐아니라 식민지지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괴뢰정권에 들어앉아있는 앞잡이들을 제마음대로 갈아치우고있다. 지난 기간 미제의 조종밑에 단행된 남조선에서의 빈번한 괴뢰교체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남조선괴뢰정권은 《헌법》을 뜯어고치고 《법률》을 제정하는것으로부터 《예산》을 세우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미제국주의자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의 괴뢰정권이야말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장물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의 실제적통치자가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신식민주의 통치형태이다. 그것은 남조선괴뢰정권의 철저한 예속성과 미제의 직접적인 정치적지배가 제놈들의 그 어느 식민지에서보다도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남조선괴뢰정권이 인민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가 인민들의 거세찬 반미구국투쟁에 의하여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는 조건하에서 미제침략자들은 괴뢰정권에 대한 지배와 장악을 더욱 강화하면서 제놈들의 현지지배기구를 통한 통치를 더욱더 로골화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가 더는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지배는 방대한 괴뢰군을 조작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제놈들의 군사침략기지화정책을 강화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남조선을 전조선과 아세아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나아가서는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요충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사기지화정책, 군사적잠재력동원에 중점을 두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제놈들의 수많은 침략무력을 주둔시키고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막대한 현대적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하여 무려 70만에 이르는 남조선괴뢰군을 고용하고있으며 200여만의 《향토예비군》을 만들어내여 침략전쟁에 내몰려 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군사침략기지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대한 괴뢰군을 고용하게 되는것은 마치도 남조선괴뢰군이 민족적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처럼 가리우면서 제놈들을 그 어떤 《원조자》로 가장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또한 제놈들의 침략군대에 식민지나라 청장년들을 개별적으로 편입시키는데서 눅거리 괴뢰군을 만들어냄으로써 거액의 군사비를 《절약》하면서도 제놈들의 침략목적을 그대로 실현해보려는 악랄한 책동이다.

방대한 규모에 달하는 이 남조선괴뢰군은 철저한 식민지고용군대로서 그 어떤 《독자성》의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 미제는 어느 괴뢰국가에서도 볼수 없을 정도로 남조선괴뢰군의 통수권을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장악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밑에 일련의 나라들을 침략적군사블럭과 쌍무적군사동맹, 군사조약에 얽매여놓고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키고있습니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7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는데서 이른바 《반공》, 《호상안전》의 간판밑에 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예속시키고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시키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소위 《닉슨주의》를 제창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고있다. 《닉슨주의》의 침략적교리에 따라 미제가 집행하고있는 《새 아세아정책》은 미제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치렬한 투쟁전선으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는 아세아에서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고 거듭되는 제놈들의 패배를 만회하며 총붕괴상태에 빠진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부지해보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더욱 침략적이며 교활한것으로 만들어놓은 아세아

침략정책이다. 《닉슨주의》간판밑에 미제는 일본군국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이에 남조선을 비롯한 아세아괴뢰들과 반동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반공》군사동맹을 꾸며내며 이미 만들어놓은 군사동맹을 더욱 보강함으로써 아세아에서 궁지에 빠진 제놈들의 처지를 건져내고 침략과 전쟁책동을 확대강화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미제와 일본사또반동정부와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 쌍무적군사협정을 통하여 사실상 3각군사동맹을 형성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얼마전에도 미국방장관이란놈을 직접 일본과 남조선에 보내여 일본군국주의침략무력을 더욱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그들이 미군대신으로 아세아침략작전을 담당하도록 하며 남조선에서의 《미, 일, 한 공동작전체계》를 더욱 완비할데 대한 모의를 꾸미게 하였다.

미제의 군사뿔럭과 군사동맹의 조작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으며 남조선에서의 침략과 전쟁정책이 강화되고 조선에서 또다시 새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 놈들의 모험적인 전쟁정책이 남조선에서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화정책과 결합됨으로써 식민지통치는 력사상 류례없는 횡포성과 야수성을 띠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민지통치와 군사기지화정책수행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어떠한 악랄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각종 파쑈악법을 조작하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었으며 남조선천지를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놈들은 인민들의 온갖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완전히 말살하고 애국적민주력량을 횡포하게 탄압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군사파쑈독재는 횡포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침략적본질은 놈들의 이른바 《원조》정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을 〈원조〉로 가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위 〈원조〉는 그들의 군사침략정책과 무제한한 략탈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강점과 함께 《원조》를 리용하여 남조선에서 정치군사적지배는 물론 남조선경제에 대한 무제한한 통제권을 틀어쥐고 식민지략탈을 감행하고있다. 소위 《원조》는 미제의 경제적침투를 가리우기 위한 수단이며 직접적인 자본투하, 침략과 략탈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원조》정책은 특히 군사기지화정책과 관련하여 강한 군사적성격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가장 침략적이고 략탈적이다. 놈들은 아세아에 대한 《원조》총액의 40%를 남조선에 투입하고 그의 80%이상을 군사장비의 공급과 괴뢰군유지비에 충당하고있다. 미제는 《원조》의 이름밑에 침략전쟁도발을 위한 각종 현대적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있으며 남조선괴뢰군을 제놈들의 무기로 장비시키고있다. 그러므로 미제의 군사《원조》는 본질에 있어서 원조가 아니라 남조선괴뢰군을 유지하며 새로운 침략전쟁준비에 필요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한것이다. 미제의 군사《원조》는 그것을 미끼로 매년 남조선사회총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군사비에 충당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결국 미제의 군사《원조》는 신식민주의통치방법에 기초한 침략과

략탈의 수단이며 제놈들자신을 《원조자》로 가장하는 은페물로 되고있다.

군사《원조》와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원조》도 놈들의 군사기지화와 전쟁정책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으며 군사적목적에 복무하고있다. 미제는 《경제원조》를 미끼로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남조선경제의 중요명맥을 이루는 부문들을 제놈들의 군사적부속물로 완전히 만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경제를 군사물자의 현지조달과 군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물질적지반으로 전환시키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원조》가 본질상 군사《원조》와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지배하며 남조선경제를 미제의 군사력강화에 부종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원조》정책에 의하여 남조선경제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남조선시장은 미제의 잉여상품판매시장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미제독점자본은— 남조선에 소요되는 기계설비와 거의 전부와 주요 원자재공급의 70~80%, 수입무역의 약 80%를 독점하고 남조선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경제원조》가 남조선의 생산력발전을 억제하고 민족경제를 파괴하며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략탈과 군사적침략에 복무하는 미제의 침략과 략탈의 도구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적통치를 실시하는데서 사상문화적수단들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서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3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상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해외침략과 신식민주의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놈들은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신식민주의정책과 그 침략적, 략탈적 본질을 가리우며 식민지통치의 사상적지반을 축성하며 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략에서 특징적인것은 침략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반공》사상과 숭미사대주의사상을 퍼뜨리는것이다.

미제의 《반공》소동은 남조선에서 저지르고있는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식민지통치의 위기를 모면하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미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영향력을 막아보려는데 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이 날로 더욱더 높아가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지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궁지에 빠진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진보적인 사상문화활동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반동적사상공세를 강화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반공》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전쟁정책과 군사파쑈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사상정치적수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다. 《반공》의 간판밑에 미제와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책동의 길을 열어주고 수많은 남

조선의 청장년들을 남부웰남의 죽음터로 끌어가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에서 숭미사대주의사상을 고취하는데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을 은폐하고 그것에 의하여 초래된 남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숭미사상과 잡다한 반동리론을 퍼뜨리는데 미쳐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교활한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서 저지르고있는 제놈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할수 없으며 침략과 략탈의 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 *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하며 가장 야수적인 식민지정책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은 그 침략적, 략탈적 본질로 하여 남조선에서 심각한 계급적 및 민족적 대립을 격화시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나온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반동적본질을 더욱더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식민지파쑈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자유와 해방,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야말것이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구

김 영 남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며 여기에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철저히 구현되여있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시여 국제관계분야에서 언제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심으로써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이 대외정책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은 가장 공고한 기초우에서 강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날을 따라 확대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과 전략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더 빨리 이룩할수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의 승리는 남북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별적인 나라들의 혁명운동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서로 지지하고 보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세계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고있다.

세계혁명의 대조류속에 합류하여 전진하고있는 매개 나라들이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법칙이며 개별적나라들의 혁명과 세계혁명전반을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개별적나라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물론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나라내부의 주체적혁명력량이다. 주체적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은 조건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아무리 커도 혁명투쟁은 승리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 때 더욱 강력한것으로 된다. 따라서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과 함께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긴밀한 뉴대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국제혁명운동의 한고리로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고있다.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그와의 긴밀한 뉴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승리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우리 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이 공화국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앉아 새 전쟁준비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로골적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다. 우리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 이것은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우리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107페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전세계적규모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반제반미투쟁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세계혁명력량이 더욱 강화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갈수록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의 지반은 더욱 약해질것이며 조선혁명의 승리는 더 빨리 실현될것이다.

우리 인민과 온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의 강화와 국제무대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약화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게 되며 조국통일에 더욱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세계의 더욱 많은 인민들로부터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우리 혁명발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혁명이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혁명력량이 강화될뿐아니라 국제혁명력량도 더욱 자라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국제혁명력량이 노는 중요한 의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국제혁명력량을 조국통일을 위한 3대혁명력량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그와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또한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켜 세계혁명의 전반적승리를 더욱 앞당기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전략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주권을 잡은 인민들이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사회주의혁명의 다른 부대들의 믿음직한 후원을 받아야 하며 만국의 로동계급과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광범한 국제적협조를 받아야 한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5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프로레타리아트가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 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오늘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제놈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아세아와 중근동,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구라파와 대양주 그리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할것없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 모든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하여나서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합된 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온갖 술책을 다하여 혁명하는 나라들, 투쟁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것을 방해하며 혁명력량을 하나하나 말살하는 전략으로 나오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악랄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전투적련대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미제의 음흉한 세계전략을 파탄시키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과 긴밀한 뉴대는 반제반미혁명력량을 수배, 수십배로 강화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성과적으로 격파하는 불패의 힘으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반제반미투쟁에서 국제혁명력량이 더욱 우세한 힘을 가지고 세계제국주의의 련합전선을 힘있게 짓부셔버리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게 하는 탁월한 전략사상이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은 이와 같이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다같이 부합되며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그이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행정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손수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민족에 대하여 평등적으로 대우하는 민족 및 국가와 친밀히 련합하며 우리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선의와 중립을 표시하는 나라 및 민족과 동지적친선을 유지할것.》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동의 적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도 항상 린접국가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시였으며 국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촉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이룩하신 고귀한 전통을 해방후 더욱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고있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방침들을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

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단결하며 공산당, 로동당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과 방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그 기치밑에 단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반제반미투쟁은 국제혁명력량의 공통된 지향을 반영하고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만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은 진실로 건전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은 또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하에서만이 더욱 광범하게 이루어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반미투쟁은 세계의 모든 인민들의 회피할수 없는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세계인민들이 벌리고있는 그 어떤 진보적인 운동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은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반미투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며 반미투쟁의 기치하에서만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은 전투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원칙들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감으로써 우리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강화할수 있으며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반제반미투쟁의 원칙을 지키면서 반드시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자주성은 모든 나라들간의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되며 그 기초로 된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다른 나라들과의 단결이 참말로 자원적이고 동지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수령님께서 밝히신 원칙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인 원칙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을 비롯한 국제로동계급과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나라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호상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반제반미투쟁은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가 자유롭지 못하면 아세아가 자유로울수 없으며 아세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하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2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념원과 지향을 가지고있다. 라틴아메리카가 제국주의기반에서 신음하면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이 편안할수 없으며 아세아와 아프리카에서 미제국주의가 망하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에도 유리한 국면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은 이 지역에서의 혁명력량을 더욱 위력한것으로 되게 하며 그것은 미제의 침략과 국제반동들의 련합전선을 짓부시는 불패의 힘으로 되게 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그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나갈 때 이 지역에서의 반제반미투쟁은 커다란 고무를 받게 될것이며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이 지역이 더욱더 치렬한 반제반미투쟁전선으로 전변되면 될수록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지게 될것이며 놈들의 힘은 심히 약화될것이다.

우리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미제의 종국적멸망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는것을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이 지역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 뉴대로 련결되여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하여서는 특히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00페지)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현시기 반제반미투쟁과 세계혁명에서 아세아가 차지하는 위치와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이 노는 역할 그리고 우리 인민과 아세아 인민들과의 반제반미공동투쟁의 빛나는 전통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 아세아는 혁명적폭풍이 가장 세차게 휘몰아치는 지대로, 반제혁명투쟁의 기본무대로 되고있다. 아세아의 혁명적인민들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미제침략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놈들을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아세아에 혁명하는 나라들, 싸우는 나라들이 많고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자

들의 지반이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게 됨에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더욱더 집중하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는 한편 악명높은 《새 아세아정책》에 따라 일본군국주의를 비롯한 아세아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을 동원하여 주로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아세아에 대한 저들의 침략책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제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전투적단결을 강화하여 단합된 힘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집단적반격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고있는 조선과 중국, 웰남과 라오스, 캄보쟈를 비롯한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나라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침략에 더욱 강력한 타격을 가할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릴수 있다.

우리 인민과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강화발전되여왔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웠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같이 싸워이겼다.

제국주의 특히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언제나 아세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은 미일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오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인민과 아세아의 혁명적나라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의 뉴대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아세아혁명적인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지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저지파탄시키게 하는 탁월한 전략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혁명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들과의 단결을 최대한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있는 각이한 부류의 혁명력량들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에서 견해가 같지 않으며 립장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력량들이 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은 모두 반제반미력량으로 된다. 따라서 공동의 적을 때려부시고 공통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 모든 력량들의 반제반미공동전선을 이룩하는것은 중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국가사회제도가 다르고 정치적견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반제반미공동전선에 더욱 광범히 동원하여 미제에 공동으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더 많은 동맹자들을 전취하여 국제무대에서 미제를 더욱 고립약화시킴으로써 반제반미투쟁의 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모든 방침들은 그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 ＊

혁명의 영재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령도하시여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 제5차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많은 혁명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9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간의 전투적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맺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지구상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지지하는 각종 련대성조치들이 광범히 취해지고있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매일과 같이 우리 나라를 찾아와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세계의 많은 형제당들과 나라들, 세계의 수많은 혁명조직들과 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는 더욱 공고히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몸소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며 국제혁명위업에 더 큰 기여를 할 확고한 결의를 다지고있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아세아와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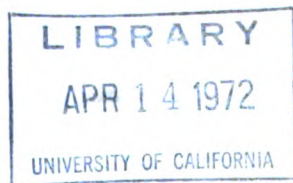
근로자 제 11 호 (루계 35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11월 1일 발 행 • 1971년 11월 5일

ㄱ—14230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 양 근로자사 1971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2 호(357)

차 례

축 하 문

근로자사 기자, 편집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창간 스물다섯돐에 즈음하여 근로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과 잡지발행에 복무하는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간된 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기관지 《근로자》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수령님께서 발간하신 잡지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계승자이며 사상리론전선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있는 위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당보외에 당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리론잡지를 꼭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선전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리론적으로 전개하여 일반화하며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그 잡지가 큰 역할을 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위대성을 깊이있게 해석선전하여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키며 수령님을 사상리론적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힘있는 리론선전수단이다.

《근로자》는 지난 25년동안 수령님의 일상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보살핌속에서 자랑찬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근로자사 기자, 편집원들은 자기의 적극적인 리론선전활동을 통하여 우리 당을 공고발전시키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보장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동무들은 언제나 확고한 당적원칙성을 견지하고 날카로운 혁명적필치로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는 온갖 반당적 및 반동적 사상경향들을 폭로비판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근로자사 편집집단은 당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그리고 그이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적극 해설선전함으로써 부단히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당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며 당조직들의 령도적기능과 그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한편 그들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잡지《근로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하며 옹호관철하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로자사 편집집단은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리론들을 내외에 널리 해석선전함으로써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간부들과 당원들이 새 조국 건설의 뚜렷한 진로를 알고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편집집단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수령님의 위대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옳게 해설선전하며 예리한 필봉으로 침략자 미제를 사상리론적으로 단죄하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동무들은 특히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리론과 방침들을 체계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통하여 당, 국가 경제 분야의 모든 일군들이 부단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도록 하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근로자사 기자, 편집원들은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널리 선전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함으로써 국제혁명운동을 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잡지《근로자》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견결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성을 견지하고 우리 당의 정치리론기관지로서의 영예로운 전투적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과학리론적수준과 거대한 혁명적영향력으로 하여 국내외의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사랑과 두터운 신임을 받고있으며 세계혁명적출판물의 최선두대렬에 서서 맑스-레닌주의적출판물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근로자사가 이룩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과 빛나는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출판보도사상과 리론선전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 근로자사 편집집단에 돌려주신 수령님의 육친적인 배려의 결과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로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과 잡지발행에 복무하는 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 리론선전의 전초선에 서있는 붉은 문필전사들인 동무들이 지난 25년동안 일편단심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자랑찬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과업

이 나서고있다.

이 강령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근로자사앞에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리론선전거지인 근로자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놀아야 한다.

근로자사는 무엇보다먼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리론선전활동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

근로자사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한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무들은 잡지 《근로자》를 비롯한 당적출판물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정치리론선전을 더욱 실속있게 전개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적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사는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세기에 걸치는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사는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으로 일관된 예리한 정치론설들과 자료들을 통하여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경향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근로자사는 사상혁명을 앞세워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견결히 반대하고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임무와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간부들을 요구하고있다.

근로자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해설선전하며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간부들의 정치리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사는 우리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실행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을 높이 받들고 세 기술혁신의 봉화를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을 세차게 벌려 명년 4월 15일전으로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완수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여야 한다.

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사업에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근로자사 편집집단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 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재침책동을 폭로분쇄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준렬히 단죄하여야 한다.

근로자사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세계혁명에 관한 전략과 전술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 사상전선의 붉은 문필전사들인 근로자사 기자, 편집원들 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은 매우 중대하며 보람차다.

동무들은 현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 투쟁하여야 한다.

근로자사 편집집단앞에 나서고있는 이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동무들자신이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여야 한다.

동무들은 수령님의 로작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며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생각하고 일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꽉 들어찬 글을 쓰고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

동무들은 실천활동속에서 사상단련을 강화하고 혁명적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문필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동무들은 잡지편집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로동계급적선을 뚜렷이 하며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모든 론설들의 과학리론적수준을 한층 높이며 그 문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동무들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요구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편집출판조직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출판물발행에서 문화성과 시간성을 보장하고 집필편집활동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언제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에서 일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근로자사 전체 기자, 편집원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실하며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당과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71년 12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가장 우월한 기업관리형태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맑스-레닌주의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영생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과 과학적공산주의를 위하여 이바지하신 가장 위대한 공적의 하나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은 경제관리체계의 발전력사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사변이다. 그것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종래의 모든 관리운영체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기때문이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경제건설분야에서 그 불패의 힘과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발휘되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무엇보다도 경제관리분야에서 자본주의적요소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의 확고한 승리를 가져왔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또한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리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생활은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떠미는 가장 훌륭한 기업관리형태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혁명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창시자이시며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싸우는 더없는 영예와 행복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더욱 훌륭히 발양시켜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1

로동계급이 착취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다음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의 하나는 인민경제를 옳게 지도관리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난다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제도는 자본주의제도에 비할바 없는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은 결코 스스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목적의식적인 활동과 경제건설에 대한 옳은 령도에 의하여서만 전면적으로 발양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하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경제를 지도관리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생산력과 로동생산능률을 이룩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문제의 옳은 해결이 가지는 의의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옳게 푸는것은 발전하는 생산력에 생산관계를 적응시키고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정신적풍모와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준비하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정확한 로선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빛나게 완성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할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열렸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우고 완성하는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그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낡은 전통과 질서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사업이기때문이다. 더우기 이 문제는 경제관리분야에 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 일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되였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야만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열어주는 생산력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킬수 있었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었다.

사회주의기초축성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나라의 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이 추진됨에 따라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섰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관리체계가 어떤것이며 사회주의경제를 어떻게 지도관리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으며 본받을만한 경험도 창조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맑스-레닌주의당과 공산주의자들앞에 시급히 풀지 않으면 안될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를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하나하나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근본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것은 1960년 2월의 수령님의 청산리지도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산리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심으로써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청산리지도이후 경제건설분야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시는 력사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낡은 공장관리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시고 사회주의경제의 성격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나라 현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적공업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우와 같은 책, 32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는 낡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법의 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 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공산주의적원칙을 많이 체현한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형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기업관리운영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구현한것으로 하여 보편타당성을 가지며 빨리 달려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강유력한 힘을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신데 뒤이어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창설하시였으며 도농촌경리위원회를 새로 내오고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개편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심으로써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의 정연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를 세우시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는 농촌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모든 경영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전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이다. 이 농업지도체계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할수 있게 하며 농업생산에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면서 협동적소유를 발전시키고 그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접근과 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하고 촉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사업체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업과 농업 관리체계를 개편하신 다음 전반적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적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실시하는 획기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직속하는 지구계획위원회들과 시(구역), 군 국가계획부와 공장, 기업소 국가계획부를 새로 조직하시고 성, 중앙급 기관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계획부서들을 계획화사업에서 해당기관과 국가계획위원회에 2중적으로 종속하게 하심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지방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확립하시였다. 이와 함께 그이께서는 전반적경제발전과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련결시키며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릴수 있게 하는 계획의 세부화체계를 내오시였다. 수령님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창조된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는 국가계획기관들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생산자들의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다같이 없

애고 당과 국가의 의도와 생산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옳게 결합시켜 참말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게 하는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계획화체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 농업 지도체계와 계획화체계를 사회주의경제의 성격에 맞게 개편하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사업체계를 대안체계의 요구에 따라 재편성하는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통계체계와 가격체계를 철저히 일원화하시고 중앙집권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재정 및 은행 체계를 개선완성하시였으며 정연한 사회주의상업체계와 국토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는 정연한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전면적확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것을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가시는 수령님의 세련된 령도의 또하나의 산 모범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세우시는 한편 경제관리전반에서 새로운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기 위하여 일관하게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자면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을 바로잡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를 풀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성, 국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혁명적사업방법을 구현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본받도록 하시였다.

수령님의 1965년 황해제철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하고 관리수준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수령님께서는 이 제철소에 대한 현지지도과정에서 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상하가 합심하는 원칙과 절차를 비롯하여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구체적방도들을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일군들의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일하면서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정연한 간부양성체계를 세우시고 관리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수 있도록 육친적인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강화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그들의 관리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진행됨으로써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방법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지도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경제관리에서 대안체계의 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사업체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획기적조치들을 취하시였다.

수령님에 의한 성당지도위원회의 조직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완성하는데서 거대한 전진으로 된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성당지도위원회가 창설됨으로써 직접적생산자들을 경제관리에 인입하는 문제가 공장, 기업소들에서뿐만아니라 인민경제 부문별 지도단위에서까지도 훌륭히 해결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의 객관적현실과 전망적 리익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관리체계를 창조하시고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제도가 선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강화하고 혁명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하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혁명적본질은 바로 경제관리에서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답게 일하여야만 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41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관리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사업체계입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2권, 515페지)

군중로선의 관철, 경제관리를 생산자들자신의 직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 이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문제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을 군중로선의 관철로 규정하심으로써 기업관리를 단순한 경제실무사업으로, 공동로동에 대한 일반적지휘로 간주하여오던 종래의 낡은 개념을 마사비리고 그것을 산사람과의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생산력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내리신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사상이다.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경제를 운영하고 생산을 늘이는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높은 창조적 지혜와 열성을 발휘한다.

근로대중은 경제관리의 주인일뿐아니라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이며 생산을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기대와 용광로 앞에 선 로동자들, 생산을 가장 잘아는 사람들을 기업관리에 광범히 인입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적극성을 높이 발휘시키는것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을 늘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이 기업관리운영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여 경제관리운영을 산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독창적인 사회주의기업관리형태이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확립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제는 낡은 기업관리방법인 지배인유일관리제와 대치된다. 유일관리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기업관리방법의 잔재로서 불가피하게 기업관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배인유일관리제로써는 현대적인 복잡한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옳게 지도해나갈수 없으며 한 사람만이 생산관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관리형태로써는 사회주의경제의 성격에 맞게 기업관리를 운영해나갈수 없다. 오직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에 의해서만 광범한 대중을 기업관리에 인입하고 그들의 창조적열성과 지혜를 발휘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성과 자각성을 높이고 그에 의거하여 경제관리를 실현하는 가장 우월한 기업관리형태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

을 돈만 알게 만들어서는 공산주의로 갈수 없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이러한 방법으로써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수 없고 그들을 자각적으로 생산에 동원할수 없으며 결국 사회주의경제제도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오직 정치사업을 앞세워 모든 사람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게 하여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방법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킬수 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 경제관리를 푸는 방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또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경제를 관리운영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우월한 사회주의기업관리형태이다.

자본주의적기업관리는 사람들간의 호상관계에서 명령하고 호령하며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이는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직장들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원칙을 구현하고있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기업관리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가장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사업체계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는 그이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세우시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을 발동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사업체계의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이러한 혁명전통을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시기의 경제관리분야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한것이며 완성한것이다.

실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기업관리형태로서 그의 확립은 경제관리체계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더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라는것을 높은 긍지를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6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수령님에 의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창조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지난 10년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이 힘차게

벌어진 시기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우리 인민은 미제의 날로 격화되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로 인하여 적지않은 제약을 받으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시켜 경제를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켰다.

우리 나라 공업은 1957~1970년에 이르는 공업화의 전기간에 해마다 평균 19.1%의 높은 장성속도로 발전하였고 공업총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지난해에 11.6배로 높아졌다. 이리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에 걸쳐서 한 공업화의 과업을 우리 나라에서는 불과 14년동안에 완수하였다. 이것은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위대한 경제리론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으로 우리 인민은 그이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에 의거함으로써 그처럼 복잡하고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었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가장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실현할수 있었다.

오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밝혀주신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전에 끝내며 전반적 6개년계획을 2년이상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눈부신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또한 도시와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생산자들간의 동지적단결과 협조의 관계,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를 비롯한 사회주의생산관계의 모든 측면들이 더한층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관료주의, 기관본위주의, 개인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들이 현저히 밀려났으며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배워주며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밀접히 협력하면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원칙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관리체계하에서는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이 급속히 높아지고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유기적련계가 더한층 강화되여 협동적소유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으며 더욱더 성과적으로 전인민적소유에로 접근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는 또한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일신하는데도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속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성실히 일하는 미풍이 활짝 꽃피고있으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공고발전,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의 변화, 그들의 혁명적열의의 앙양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의 불패의 힘과 생활력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배합하여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36페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영명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그것이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만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들의 요구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도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혁명수행의 매 단계, 매 시기에 제시되는 당의 경제정책에는 해당시기 혁명앞에 나서는 모든 정치적임무의 요구와 함께 경제법칙들의 제반요구가 과학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경제법칙들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할수 있게 된다.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모든 고리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고 모든 사업을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밑에 진행하게 함으로써 당의 의도와 요구가 거침없이 관통되게 하고 경제건설에서 그것이 철저히 실현될수 있게 한다. 뿐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당위원회의 령도밑에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함으로써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구체적문제들을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로동에 대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과업과 경제건설을 다그쳐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과업을 다같이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배합하는 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것을 위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옳바르게 실시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378페지)

사회주의하에서는 정치도덕적자극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이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만 근로대중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고 경제건설에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정치도덕적자극을 확고히 앞세우는 기초우에서 두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여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맑스-레닌주의적원칙에서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체계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모든 생산자들을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높은 정치적각성과 창조적열성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적극적으로 동원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관리체계하에서는 이와 함께 경제관리를 생산자들자신의 일로 되게 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가장 정확히 지킬수 있게 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을 강화할수 있게 하며 공동로동에서 성실한 태도를 가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적기업관리에서 정치사업을 소홀히 하고 물질적자극을 위주로 내세우는 우경적편향도,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정치도덕적자극 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좌경적편향도 다같이 철저히 극복하고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가장 정확히 결합시킴으로써 근로대중의 생산의욕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거대한 우월성은 또한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기업관리체계는 민주주의적이며 또 중앙집권적입니다.》

경제관리에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국가가 경제를 지도함에 있어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유기적인 련계를 맺고있는 사회주의경제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나갈수 없으며 기업관리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성격에 맞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지도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의 준수는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경제규모가 끊임없이 커지고 그 내부적련계가 더욱더 복잡해지는만큼 일층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특히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체계는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화와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히 결합시킴으로써 인민경제가 아무런 혼란과 침체도 모르고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하면서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게 한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무엇보다도 매개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인 지도와 키잡이역할을 통하여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체계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의 의도가 아래단위에 철저히 관철될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경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진행하며 생산의 세부적과제까지 다 법적과제로 되게 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당의 령도밑에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일상적으로 도와주게 함으로써 생산자대중과 지방의 창의창발성, 근로자들의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는 기업의 자유화, 지방분권화와 같은 우경적편향도, 군중로선을 위반하고 관료주의적으로 내려먹이는 편향도 다같이 철저히 극복하고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민주주의,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계획적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한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독창적으로 이룩하신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가 맑스-레닌주의원칙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완전히 맞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창조는 맑스-레닌주의발전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리론과 그 구현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에 맞는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으며 공산주의적경제관리에로 나아가는 유일하게 정확한 진로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문제로 천명함으로써 경제관리의 원칙과 체계, 방법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리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열어놓았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으로 천명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물질적관심성, 상품화폐관계 및 가치법칙의 리용과 같은 문제들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는 원칙적인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리론, 그 구현인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나아갈 길을 등대와 같이 밝혀준다.

실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를 무시하는 온갖 기회주의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더욱 훌륭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특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며 경제관리실천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리론과 배치되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반당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내면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하여야 하며 수령님의 사회주의경제관리사상을 더욱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그에 상응한 혁명적사업방법을 요구한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자기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용납하지 말고 새 경제관리체계가 더욱 큰 생활력을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그이께서 창조하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영예와 긍지는 한없이 크다.

모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더욱 큰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기계공업 부문앞에 나서는 과업

얼마전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의 첫해 전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우리 나라 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기술혁명을 더욱 촉진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다시금 심오히 밝히시고 사회주의건설과 기술발전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다.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철하게 밝히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고 나라의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하여야 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 공업화가 실현된 이후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가까운 몇해동안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3대기술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7페지)

3대기술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는 우리 당의 전투적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본질적요구, 우리 나라 기술발전의 구체적실정을 심오히 분석하시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력사상 처음으로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리와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을 창조적으로 구현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공업화이후시기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술혁명의 총적목표와 내용, 그 수행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기술혁명로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혁명과업을 가장 명백히 천명한 투쟁강령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길을 가장 선명하게 밝힌 탁월한 사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주요구성부분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공산주의자들앞에 순차적으로 나서는 숭고한 혁명과업이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 특히는 공업화이후시기 기술혁명문제는 과학적공산주의리론에서 지금까지 해명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현시대의 기술혁명문제는 오직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처음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될수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는 성스러운 위업의 구체적로정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3대기술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방침은 기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하에서, 특히는 공업화이후시기 기술발전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것이다. 3대기술혁명은 수령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명하고 명백하며 듣기도 좋은 우리 당의 기술발전의 구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대기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기술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키시였으며 과학적공산주의의 보물고에 또하나의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은 힘든 로동에서 벗어나려는 근로하는 사람들의 수천년래의 숙망을 실현하게 하며 나라의 생산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하는 력사적위업이다. 3대기술혁명은 또한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 그 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게 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3대기술혁명의 수행으로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길에서 다시한번 위대한 비약을 이룩할것이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또하나의 모범을 창조한 나라로, 기술혁명의 선구자, 본보기의 나라로 될것이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 기계공업의 발전은 관건적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는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2페지)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이며 기계공업의 발전을 떠나서는 나라의 기술적진보도, 경제의 급속한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건설을 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기계공업발전에 첫째가는 의의를 부여하시고 빈터우에서 기계공업기지를 손수 창설하시였으며 그것을 오늘과 같은 위력한 일등급의 기계공업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이후 나라의 기술발전을 위한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기계공업, 특히는 공작기계공업의 발전을 그 중심고리로 규정하시고 이에 력량을 집중하여 3대기술혁명수행의 전반적련쇄를 풀어나갈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금년 2월 생눈길을 헤치시면서 몸소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명년 4월 15일까지 1만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할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시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리시였으며 그 불길이 온 나라에 활활 타번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두터운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희천과 구성의 로동계급들은 그이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온갖 보수와 침체를 짓부시고 월 1,000대, 년간 만대이상의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또하나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회전의 봉화는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져 만경대공작기계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기양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한 기계공장들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기계공업은 년 3만대 이상의 공작기계와 수많은 자동차, 뜨락또르를 생산할수 있는 높은 발전수준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의 첫돌파구를 뚫는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실생활에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우리 당의 기술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증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지난 1년간에 거둔 빛나는 성과는 3대기술혁명을 수행하고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3대기술혁명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건설과 기술발전에서 얻은 커다란 성과로 하여 3대기술혁명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시기에 거듭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가장 긴절한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공작기계생산을 늘이고 그 품종을 급속히 확대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6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하며 3대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기본고리로 됩니다.》

공작기계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으로서 기술발전의 기초이며 확대재생산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공작기계가 많이 생산되여야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우선 공작기계생산을 빨리 늘이며 특히 특수공작기계들과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대형공작기계, 능률적인 단능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작기계의 품종을 확대하고 기종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공작기계가 아무리 많아도 기종간의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기계공업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시킬수 없다.

공작기계를 대대적으로 장성시키는것과 함께 품종을 빨리 늘임으로써만 기계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고 3대기술혁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다.

우리는 3대기술혁명과업수행과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공작기계생산을 늘이며 그 가지수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구체적인 계획밑에 설계와 기술준비를 앞세우면서 생산조직을 면밀히 짜고들고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공작기계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 자체의 기술로 인민경제가 요구하는 그 어떤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들도 능히 만들어낼수 있는 충분한 밑천을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자체의 금속공업에 기초한 위력있는 기계공업이 있으며 당과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로동계급과 자체의 믿음직한 기술력량이 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

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공작기계생산을 급속히 늘일것이며 3대기술혁명수행에 보람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자동차와 뜨락또르 생산을 빨리 늘이는것은 공작기계공업의 발전과 함께 3대기술혁명과업과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열쇠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농촌기계화를 다그치며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보내주려고 합니다.》(《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들이다》, 단행본, 11~12폐지)

자동차와 뜨락또르 생산을 늘이는것은 3대기술혁명, 특히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급속히 전진하는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동차와 뜨락또르 생산을 늘이며 그것을 더 많이 농촌에 보내야만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당면하게는 긴장된 로력문제를 풀수 있다. 자동차, 뜨락또르 생산을 늘여 농촌에 더 많이 보내주어야만 농촌경리를 고도로 집약화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급속히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농촌기술혁명에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미 마련된 자동차, 뜨락또르 생산토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한편 그 생산기지를 더욱 확대강화하여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농기계들의 생산을 급속히 늘임으로써 단위면적당 농기계의 보유대수를 현저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뜨락또르 부속품생산과 수리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자동차, 뜨락또르의 실동률을 높이게 하며 그것이 농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동차, 뜨락또르 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라 운전수들을 예견성있게 양성하고 그 대렬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며 사회주의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은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널리 실시되는데 따라 기계공업부문앞에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42~43폐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이 실현된 다음 나라의 생산력발전에서 필수적으로 나서는 문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를 널리 실시하여야만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고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앨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다. 또한 생산공정을 전면적으로 자동화하여야만 생산의 련속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힘을 넣어 인민경제의 주요부문들에서 반자동화, 자동화 수준을 훨씬

높여 유해 및 고열 작업이 진행되는 부문의 자동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기지를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자동화요소와 기구계기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대규모의 자동화기구계기공장건설과 중소규모의 자동화기구계기분공장건설을 병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날 중소규모공장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였던것처럼 중소규모의 자동화기구계기분공장을 꾸리기 위한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자동화공업토대를 튼튼히 닦아야 한다.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자기구요소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야 하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워야 한다.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이 선구자적모범을 보여 기계공업의 기술장비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은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개선하는 물질적기초이며 따라서 3대기술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은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생산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공정을 완비하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기계제품의 질을 훨씬 높여야 한다.

또한 누구나 다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도록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하며 기술인재양성사업을 강화 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올려세우기 위해서는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보장사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부문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는 기계공업에 필요한 질좋고 품종이 다양한 규격별 소재와 강재를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이 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기계공업부문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는 간부들과 지도일군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간부는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간부들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정책을 대중속에 침투시키고 그 관철에로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는것도 간부들이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간부들과 일군들이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열렬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우선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에 관한 방침의 독창성, 그 심오한 내용과 수행방도를 깊이 연구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기술혁

명을 방해하는 온갖 낡고 침체한것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납니다. 투쟁이 없는 혁명이란 도대체 있을수 없습니다. 혁명의 새로운 전진은 오직 낡고 침체한것과의 날카로운 투쟁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혁명발전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86페지)

간부들과 지도일군들은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직업적혁명가이다. 혁명가는 낡고 부패한것을 반대하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위하여 투쟁한다. 혁명과정에는 언제나 새것, 진보적인것이 나오면 그것을 반대하는 소극과 보수, 침체와 답보가 나타나며 따라서 그것을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이 없이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투쟁과정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들은 우리 당의 다른 모든 로선과 마찬가지로 온갖 낡은 사상경향들과의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간부들과 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뼈와 살로,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현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당과 수령님에 대한 간부들과 일군들의 충실성이 그들의 말에서가 아니라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활동에서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간부들과 일군들이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적극성을 억제하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지방주의, 기관본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과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간부들과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는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없애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혁신의 불길을 계속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자기앞에 부과된 혁명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된 3대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완수하며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자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얼마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는 인민소비품생산분야에서 지난기간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과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인민소비품생산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다시금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전원회의에서 하신 수령님의 교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 제5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새로운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과 크나큰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데 대한 이 영예로운 과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발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소비품생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과 방도를 내놓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무르익히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중공업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이 땅우에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현대적경공업기지를 마련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현대적인 대규모중앙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지방공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도처에서는 극히 짧은 기간에 수천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2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를 몸소 마련해주시고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깊은 관심속에서 지난해에는 당 제5차대회에 드리는 500여개의 선물공장을 포함하여 1,7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수령님의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최근년간 현대적인 중앙경공업공장들이 또한 신설확장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남새, 고기, 물고기, 닭알, 기름 등 부식물을 사철 떨구지 않고 공급할수 있게 전국도처에 랭동공장과 고기 및 물고기 가공공장, 과일 및 남새 가공공장을 건설하도록 깊은 배려를 돌

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한해동안에 4억메터이상의 질좋은 천을 생산할수 있는 방직공업과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하여 모든 경공업생산부문들이 다 갖추어졌으며 옷감으로부터 문화용품에 이르기까지 소비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경공업기지가 창설되게 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페지)

경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승리는 오직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그를 한계단 높이 끌어올려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것은 당 제5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가일층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최근년간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대폭 올라가고 대중소비품의 값은 훨씬 낮아졌다. 이리하여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구매력은 더욱더 높아졌다.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날로 더욱 높아지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으로 오늘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빨리 늘이는것은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요구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혁명과업이다.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혁명과업을 능히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강력한 중공업기지 특히 위력있는 기계제작공업을 가지고있으며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중앙경공업과 믿음직한 지방공업을 가지고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발전된 사회주의적농촌경리와 국내자원에 기초한 화학원료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있으며 전국 이르는곳마다에 인민소비품을 생산할수 있는 원료원천이 많다.

이 풍부한 밑천을 옳게 동원리용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양시킨다면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훨씬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지도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가 안달라붙는가, 인민에 대한 높은 복무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가 안하는가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결정적고리가 바로 지도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무한히 충실하며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고상한 품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그들의 실지투쟁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을 위한 그들의 실지사업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사람만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2페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에 대한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님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주관적으로 아무리 수령님께 충실하다고 생각하여도 실제 행동에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충실한것으로 될수 없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모든 경험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때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인민소비품생산이 전후 아무것도 없던 빈터에서 오늘과 같은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것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병진시키는 현명한 로선을 받들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오늘 우리가 인민소비품생산을 한계단 더 높일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무엇보다먼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물질기술적조건은 지난시기와는 비할바없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문제는 오직 우리 일군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하는데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인민생활향상에 무관심한 현상, 당정책관철에서 무책임한 현상들과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그러한것처럼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도 투쟁이 없이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며 그들에게 고유한 특성이다.

지도일군들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심려하시는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미 마련된 밑천과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백방으로 힘써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또한 인민소비품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가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드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다 천리마를 타고 당의 요구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꼭 해내겠다는 사상적준비가 되여있다. 중요한것은 지도일군들이 천리마를 탄 대오를 어떻게 조직하고 지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정책집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코 일군들의 능력이나 수준에만 관계되는 실무적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얼마나 철저히 관철하려 하는가 하는 혁명적기풍에 관한 문제이며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악하게 투쟁하는가 하는 사상적문제이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거기에 빈틈없이 조직사업을 따라세울 때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에는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투쟁방향과 구체적인 방도가 다 밝혀져있다. 지도일군들이 수령님의 교시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때 인민소비품생산에서는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것

이다.

일군들은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그 실행정형을 제때에 알아보고 필요한 때에는 사업을 재포치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하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실천적모범으로 그들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에서 결함의 원인을 련관된 다른 고리에서 찾으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우선 자체에서 찾아야 하며 련관된 고리들에서 걸린 문제도 풀어주기 위하여 같이 노력하는 로동계급다운 사업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중앙공업과 중소규모지방공업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현시기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것이다.

경공업제품생산에서 지방의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한다면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은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지방의 원료원천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중앙공업기업소의 페설물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이다. 중앙공업기업소페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밑천을 들이지 않고 일용품생산을 늘이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중앙공업기업소에서 나오는 철제페설물만 잘 거두어쓰면 이것만으로도 여러가지 철제세소일용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넉넉히 해결할수 있다.

지방산업공장들만이 아니라 중앙공업기업소들에서도 온갖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가지수를 늘이는것은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며 기술공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고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소비품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59페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여 그것을 국제적수준에 끌어올리는것은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의 하나이며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아주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 인민들은 생활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고 물건이 많지 못하였던 지난시기에는 그 질이 좀 낮아도 별로 문제로 되지 않았지만 생활수준이 향상된 오늘 그들은 더 맵시있고 쓸모있는 상품을 많이 요구하고있다.

경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소비품의 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질좋은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어 소비품의 질적구성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정성껏 알뜰히 만들도록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소비품을 되는대로 만드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소비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경공업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을 완비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예비의 하나는 기술장비를 개선하고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여 그것을 중앙공업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러므로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험공정이 없는데서는 시험공정을 갖추고 후처리공정이 없는데서는 후처리공정을 갖추는 등 생산공정을 완비하여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생산자들로 하여금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면서 질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은 특제품작업반과 직장들에 대한 지도를 잘하며 자재와 질좋은 원료를 제때에 대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당조직들과 이 부문 일군들이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새로 일떠세운 지방산업공장들을 보다 실속있게 꾸리고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추켜세우며 6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조직동원하여 새로 일떠세운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완비하고 필요한 생산조건을 충분히 지어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계속 짜고들어야 한다.

지방산업공장을 알뜰하게 꾸리는것과 함께 지방공업이 제발로 걸어갈수 있도록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와 기계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는것은 나라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이며 어떠한 정황하에서도 모든 지방들에서 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공업부문일군들은 새로 일떠세운 공장들을 실속있게 꾸려 그것이 인민소비품생산을 증대시키는데서 더 큰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지방당조직들은 각도마다 탄산소다, 가성소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원료와 보조약재를 자체로 생산하여 쓸수 있도록 중소화학공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당조직들에서는 철제폐설물을 리용하여 자체로 여러가지 규격소재를 뽑아쓰기 위한 압연, 연신 기지들을 꾸리는데 힘을 넣으면서 유리병, 주름판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포장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부문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방공업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지방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소비품의 량과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는 과업은 이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풀기 힘든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오직 전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전사회적지원을 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오늘 지방공업은 우리 나라 소비품생산의 거의 60%를 담당하고있다.

중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부문들에서 사회적운동으로 지방산업공장을 잘 꾸리고 원료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대주며 기술적방조와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

우선 금속, 화학, 기계, 림업 부문을 비롯한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및 기계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지방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주어야 한다.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중공업기업소들이 몇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맡아서 생산설비와 기술장비들을 꾸려주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부문 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책임적으로 달라붙는가 안붙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소비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는것도 역시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이다.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일편단심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견결한 혁명가가 되게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항일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다그치며 특히 간부들과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당조직들과 이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실속있게 깐지게 하며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온갖 정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야 한다.

또한 인민소비품생산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자신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명년 4월 15일전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이께서 당 제5차대회보고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대중혁명화의 빛나는 전통

황 승 혁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대중혁명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불멸의 업적과 경험을 이룩하심으로써 대중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시여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대중혁명화가 가지는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이 문제해결의 가장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혁명화는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는 문제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자기 생명을 혁명에 바칠 결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개인의 리익을 희생하고 조직의 리익에 복종할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말하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16～41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면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는 립장과 태도 즉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열렬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란 결국 사람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과정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아직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혁명적세계관확립과정과 그 본질적요구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처음에는 지주, 자본가계급과 그 제도를 끝없이 증오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는 그것을 때려부셔야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들

어서며 그를 때려부신 다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 투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가르치심은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세계관확립에서 거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들과 동시에 혁명적세계관을 세움에 있어서 나서는 근본적요구들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혁명화는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면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조직에 튼튼히 결속시켜 단결된 힘으로 원쑤와 싸워야 한다.

대중의 혁명화—여기에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다.…

대중혁명화는 혁명투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그들자신의 사업으로서 그 승패는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화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화하여야만 보다 많은 군중이 혁명에 참가할수 있으며 또 그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다. 대중을 혁명화하여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특히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혁명화는 우리 나라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강대한 적을 상대로 하여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1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혁명전쟁이였다.

세계혁명투쟁력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장기적이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자면 대중을 의식화하고 혁명화하여 무장투쟁의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또한 혁명에 나선 모든 사람들이 추호의 동요도 모르고 혁명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이겨낼수 있는 확고한 사상적준비가 항상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대중혁명화는 당시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혁명화의 본질적내용과 그 필연성을 밝히신데 기초하시여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제시하시고 몸소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을 혁명화하심으로써 대중혁명화의 풍부한 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혁명화의 경험과 업적에는 대중을 어떻게 의식화하고 혁명화하여 혁명의 길로 이끌것인가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귀중한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사업은 대중혁명화의 가장 위력한 수단이며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화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여 혁명가로 만들자는 것인만큼 사람들에게 혁명사상, 공산주의사상을 넣어주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 개인주의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과 립장,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의 기본은 대중

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였다.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조선혁명을 완성하고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는 혁명의 원쑤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 관통되여있으며 혁명투쟁의 전략전술이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높은 혁명의식을 가지고 조국광복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혁명화에서 가장 선차적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증오하도록 교양하는것이다.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에게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놈들의 야수적만행을 똑똑히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이 일본제국주의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자본가놈들을 증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계급적원쑤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것은 공산주의자, 혁명가의 본질적특성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참된 공산주의자,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정치교양사업에서는 항상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계급교양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람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사람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이 혁명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정치사상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시여 대중혁명화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때 우리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조직하였습니다. 방학때에는 주변 농촌지역을 학생들이 한사람씩 맡아가지고 나가서 인민들을 혁명화할데 대한 과업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길림근방의 농촌들을 다 혁명화하였습니다. 나도 몇개 농촌부락을 직접 맡아가지고 나가서 다 혁명화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학교

를 만들고 학생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
고 노래도 배워주게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연극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
업을 조직하였는데 청년학생들에게 각
본을 쓰거나 노래를 지을데 대한 과업
도 주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
기에 청년학생들속에서 독서발표회, 웅
변대회, 토론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
법으로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심
으로써 그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
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몸소 키우
신 우수한 핵심들을 도시와 농촌들에
파견하시여 대중속에서 여러가지 형식
과 방법으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시는 한편 자신께서 친히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 등 농촌들에 나
가시여 학교와 야학을 세우시고 청소년
들과 군중들을 교양하시였으며 강연회,
연예공연, 노래보급, 이야기모임, 혁명
적출판물의 발간 등 다양한 형식과 방
법으로 광범한 군중들을 반일사상과 계
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였다. 그
리하여 그들을 혁명의 길로 확고히 이
끄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도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
과 방법으로 강력히 벌리시여 대중을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
명의 전반을 헤아리시는 그 바쁘신 나
날에도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을
혁명화하시기 위하여 몸소 연극대본과
혁명가요를 창작하시였으며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을 비롯한 수
많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보급하시였
다. 그뿐만아니라 수령님께서는 몸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연예대
활동, 강연, 담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으
며 일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
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대중속에서 정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시는 한편 그들
을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
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
을 일상적으로 수양하며 단련해야 한
다. 이렇게 해야만 사소한 경향성도 제
때에 알아내여 고칠수 있을뿐만아니라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대중
을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하
는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
보다 우선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공산주의자의 중요한 표징인 혁명적조
직성을 강화할수 있기때문이다. 공산
주의자의 혁명적조직성은 조직을 귀중
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누구보다도 자각
적으로 지키며 조직의 위임분공과 지시
를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표현된다.

혁명적조직생활이 사람들을 혁명화하
는 좋은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사상교양과 비판, 혁명적실천 등 대중혁
명화에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
로 결합됨으로써 사상수양과 혁명적단
련을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기에
게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뿌
리뽑고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게 된
다. 또한 조직의 위임분공을 실행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무기로 하는 사상
투쟁과정을 통하여 사상의식을 부단히
단련하고 혁명가적기풍을 키워나갈수
있다. 실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대중을 혁명화하는 기본열쇠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
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조직생활을 강화

하심으로써 대중을 혁명화하는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벌써 타도제국주의동맹, 새날소년동맹,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등 혁명적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고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항일유격대안에서는 물론 혁명근거지와 적통치구역들에 당단체를 비롯한 조국광복회, 로동자협회, 농민협회, 공청, 부녀회 등 혁명조직들을 내오시고 그에 광범한 군중을 망라시키시여 조직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는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그 바쁘신 나날에도 개별적당원들과 대중단체조직성원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시여 그들에게 조직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생활하며 조직과 집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바쳐싸우도록 교양하심으로써 그들의 혁명적조직성을 끊임없이 높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또한 친히 개별적조직성원들에게 분공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심으로써 실천투쟁속에서 그들을 훌륭한 혁명가들로 키우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직생활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비판을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혁명조직들에서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킬수 있는 온갖 부정적현상들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서도 융화묵과함이 없이 언제나 원칙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모든 조직성원들이 교양되고 단련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혁명화과정이 더욱 촉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혁명적실천을 통한 단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렬한 투쟁은 그 누구에게서나 혁명의 대학이였소. 우리 모두가 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어떠한 학교에서도 배울수 없는 혁명의 진리를 배웠고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였소. 우리는 자신을 혁명화함으로써만 끝까지 혁명할수 있소.…

사람들은 혁명실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깨닫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된다. 또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적으로 단련하며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키우게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대중을 혁명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몸소 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혁명화하신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청년학생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하고 혁명화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중정치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과업을 주며 계속 활동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을 모두다 사회의 개조자, 개척자들로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직접 원쑤를 치는 가렬한 전투와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혁명적폭풍우속에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로,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시였으며 혁명근거지와 적통치구역의 광범한 군중들을 실천투쟁에 적극 인입하여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근거지와 적통치구역안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항일유격대원호사업, 삐라살포, 통신련락, 적정정찰, 무기탈취 등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함으로써 실천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며 혁명적신념과 억센 투지를 키워나가도록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또한 가정과 혁명조직의 기층단위들로부터 혁명화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대중혁명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요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을 혁명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먼저 혁명가가 되고 다음에는 가족과 마을사람들을 혁명화해야 한다.…

수령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우선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한 기초우에서 자기 가족들과 일가친척들을 모두다 혁명화하여 열렬한 혁명가들로 키우며 나아가서 자기 주위사람들과 온 마을을 혁명화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리고 매개 사람들이 실지 소속되여 생활하는 혁명조직의 기층단위로부터 혁명화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대중혁명화를 촉진시키시였다. 또한 핵심을 튼튼히 키우시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 밖에도 봉건도덕과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 군중들의 계층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화한 경험을 비롯하여 실로 풍부하고도 귀중한 경험들을 창조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서 유격대원들과 광범한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수많은 공산주의자, 혁명가들을 육성하시였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대중혁명화의 풍부한 경험과 업적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과 인민의 끝없이 귀중한 재부로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대중혁명화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하는 행정에서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시고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 *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대중혁명화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며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혁명적당사업방법의 전면적확립

김 배 환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한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창시하시고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지난기간 우리 당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실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수 있게 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적당사업방법이 전당에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정연하게 확립되였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을뿐아니라 국가 및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확립된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린것으로서 모든 맑스-레닌주의당들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1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발전하는 현실과 사업환경에 맞게 당의 사업방법과 사업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2페지)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에 의해서만 건설될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인민대중이 이 력사적운동에 더 광범히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중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도 끊임없이 커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발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자면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야 한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방법에 달려있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또한 수령의 두리에 대중을 결속시키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이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여 대중을 당의 두리에 결속시키는

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에 적지 않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함에 따라 그에 맞게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오는 필연적요구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사회제도의 성격과 그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상의식, 당 및 국가경제기관들의 사회계급적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의 본능적인 사업방법은 개인소총명에 기초한 수공업적이며 호령과 기만, 허식으로 가득찬 관료주의적인 반인민적사업방법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유일하게 본능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이로부터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창조적성격을 띤다. 즉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그 자체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할것을 요구하는만큼 그것은 제기된 혁명과업의 성격과 내용, 지도일군들의 사상, 리론, 실무수준 및 대중의 의식수준 등이 변화발전함에 따라 부단히 심화발전한다.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우선 우리 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집권당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맑스-레닌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일부 일군들속에서 틀을 차리며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더 커지는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정권을 령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많은 일군들은 지난날 혁명투쟁과 군중공작의 경험을 거의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더우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의하여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부식되였던 관계로 군중로선을 어길 위험성이 컸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의 혁명정세가 매우 복잡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당앞에 부과된 혁명임무가 매우 컸다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고 주민의 사회정치적구성이 매우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해야 할 방대한 혁명임무를 수행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혁명적인 사업작풍과 당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서 매우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객관적요구로부터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을 때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현하시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을뿐아니라 혁명적당사업방법을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게 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군중로선과 당사업의 본질에 관한 독창

적인 해명에 기초한것으로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청산리정신이란 그이께서 이미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시하신 군중로선 즉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을 맑스-레닌주의적관점에서 보고 그들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그들을 인내성있게 교양하여 혁명화함으로써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요구를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청산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신 그이의 위대한 사상이다.

이것은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데 대한 가장 혁명적사상이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고 나갈데 대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이 청산리정신과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청산리방법은 그이께서 청산리를 몸소 현지지도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공작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한 수령님의 위대한 군중공작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8～299페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은 명령하고 보고받고 통계자료나 받는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근절하고 당사업을 진실로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것을 요구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당사업이란 그 어떤 물체와의 사업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사람과의 사업이므로 사상사업으로 해야지 행정식 사업방법으로는 절대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각성시키는 방법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아래사람들에게 부단히 반복해석해주고 그 로선에 따라 일하도록 만들며 그 집행정형을 부단히 료해하고 도와주고 총화해주어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당이 모든것을 혼자서 도맡아하려는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행정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할것을 요구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이란 본래 인민을 위한것이고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이기때문에 당이 혼자 도맡아하는 사업방법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다. 그러므로 각급 당조직들은 행정경제기관들과 근로단체들의 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행정경제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로 전체 군중을 조직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당일군들이 모든것을 혼자 도맡아하려고 한다면 많은것을 놓칠수 있을뿐만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이 행정사업에 빠져 자기 사업을 더 잘할수 없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키잡이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을 벌려만 놓고 계속할줄 모르는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하고 일단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내며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할것을 요구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먹어나가는 섬멸전의 방법으로 일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연과의 투쟁에서나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나 항상 견지해야 할 전략전술적원칙이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일군들에게 중심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먹어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안겨주시였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관료, 당세도를 결정적으로 청산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것을 요구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군중로선을 어기고 관료화될수 있는 위험성이 더 커지는것이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제때에 극복하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게 하는것이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자체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 현시대의 맑스-레닌주의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형을 이룬다.

2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상응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이 확립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몇해동안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이에 맞게 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새 환경의 중요한 특징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여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경제형태의 유일적인 지배가 확립되였으며 생산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빨리 늘어났으며 대중의 정치적열성이 더욱 높아진것입니다. 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낡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사회주의경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게 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이 빨리 변화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2～163페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확립될수 있었던 객관적조건을 천재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즉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생산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생산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새로운 환경은 몇몇 사람의 《소총명》에 의거하던 종래의 수공업적방법대신에 보다 광범한 근로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조직동원하는 적극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요구하였다.

또한 모든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경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된 새로운 환경은 분산적이며 자연발생적인 개인경리를 대상으로 하던 때와는 달리 인민들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사업할것을 요구하였을뿐아니라 보다 째이고 조직화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정치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진 반면에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이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된 새로운 환경

은 일군들의 조직지도수준을 빨리 높이기 위하여 아래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보다 실속있게 도와주는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요구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상응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의 확립이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조건이 조성되였다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상응한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방법이 저절로 확립되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다 하여도 그것을 포착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주체적인 요인이 없이는 그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될수 없다.

객관적조건과 함께 위대한 사업방법을 창시할수 있는 주체적인 요인이 반드시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여기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이다.

그것은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자체의 본질적특성과 관련된다.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 당, 계급, 대중을 하나의 전일체로 련결시키는 공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정한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떠나서는 당과 계급,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없으며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전당과 인민을 한몸과 같이 움직일수도 없다.

이로부터 맑스-레닌주의당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대중, 계급, 당, 수령의 전일체속에서 최고뇌수를 이루고있는 수령에 의해서만 확립될수 있으며 또 부단히 심화발전될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만이 전당과 전체 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직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혁명적당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될수 있었다.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체현하고계실뿐아니라 그이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혁명적군중관점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군중관점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민대중의 력량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고 군중을 위해서 복무하고 군중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고 군중이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투쟁으로써 견지하고 관철케 하는 관점입니다.》

혁명적군중관점에 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공산주의운동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혁명적사업방법의 근본초석으로 된다.

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은 그 어떤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의 집중적표현인것만큼 혁명적인 사업방법일수록 그것은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청산리방법과 같은 혁명적당사업방법은 오직 대중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관점 즉 혁명적군중관점에 관한 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반세기동안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워오신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혁명적군중관점과 군중로선에 기초한 군중공작방법의 고귀한 전통을 창시하시였기때문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와 력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군중로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며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중자신의 투쟁으로써 해결하도록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을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각성시켜 모든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풍부한 군중공작방법의 경험을 쌓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오늘에 와서 군중로선을 보다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의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창시하는데서 커다란 밑천으로 되였다.

또한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에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노는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리심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쌓으시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우선 군중로선을 위반하는 반인민적인 관료주의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 하며 항상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할줄 아는것이 군중로선의 본질적요구라는것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뿐만아니라 그이께서는 당이 모든것을 독판치는 행정대행을 비판하시고 키잡이에 관한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행정경제기관들에 대한 당의 령도방법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집중지도방법을 창시하심으로써 종래의 낡은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보다 밀접히 결합시킬수 있게 하시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을 하부지도방법에서까지 심화발전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업의 기본이 사람과의 사업이라는 고전적인 당건설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이렇듯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동안의 혁명투쟁에서 쌓아올리신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계시였기에 사회주의농촌인 청산리에 대한 지도에서 그것을 집대성하여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같은 위대한 정신, 위대한 사업방법을 창시하실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소유하여야 할 가장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다. 이 투쟁을 통하여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지도기능이 훨씬 높아졌으며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수령님께서는 우선 혁명적당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체계—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되게 하심으로써 혁명적당사업방법을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게 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에 확립하는것은 결국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극복청산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그러므로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없애고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

하기 위한 투쟁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 자체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업방법으로서 한편으로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언제나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일하는 창조적립장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주체의 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히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여 일군들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세우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이와 함께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인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자면 그에 상응한 사업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사업방법을 전당에 전면적으로 확립하자면 그에 맞게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사업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사업체계를 사람과의 사업체계로 전환시킬수 있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경제관리에 군중로선을 구현하시여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구와 관리체계를 만들어놓아서도 일군들이 그에 맞게 혁명적방법으로 사업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을 극복청산하도록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구현하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혁명적당사업방법을 급속히 전당에 확립할수 있게 하시였다.

특히 그이께서는 현지에 내려가시여 방식상학과 시범상학을 널리 조직하심으로써 생동한 모범으로 아래일군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주시였으며 이동강습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심으로써 많은 일군들이 이것을 통하여 현지에서 당사업방법을 배울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이 당안에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당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을 보급하는것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6폐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불패의것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켰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당에 확립된 결과 당사업분야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수령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웃사람과 아래사람 그리고 당원들과 혁명동지들 사이의 원칙적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앞에 제기된 모든 혁명과업을 상하합심하여 서로 도우면서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미풍이 전당에 흘러넘치고있다.

또한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것과 같은 어려운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따라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비상히 촉진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계각층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묶이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각계각층군중과의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환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군중을 수령님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경제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켰다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경제관리에 구현된 결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은 청산리방법과 같은 혁명적인 당사업방법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항상 군중속에 깊이 들어갈수 있었으며 사소한 주관주의도 범하지 않고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맑스-레닌주의당의 대중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 당건설리론발전에서와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기간에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의 대중령도에 관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었다.

이렇듯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대중령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산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 그 위대성, 창조성, 과학성과 심오성으로 하여 날에날마다 더욱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진수를 더욱 깊이 체득하고 모든 사업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적과업과 조국통일의 위업수행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가 못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군들속에서 발로되는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행정식사업방법과 행정대행, 일을 널어만 놓고 걷어쥐지 않는 등 온갖 낡은 사업방법의 그 어떤 사소한 표현도 허용하지 말고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청산하여야 하며 혁명적당사업방법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사상혁명

전 순 호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우리 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긴절하게 해명을 기다리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연한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대회에서 더욱 심오히 해명되고 천명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과 방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을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하고 보람있는 과업의 하나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60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에는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사상혁명의 혁명적 본질과 내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건설을 최종목적으로 삼는 로동계급과 그 선봉대인 맑스-레닌주의당은 자기의 력사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상의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을 진행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우선 자본주의정권을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결정적령역인 정치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없애며 도시와 농촌의 모든 낡은 경제형태를 개조하여 사회주의적경제형태를 유일적으로 세움으로써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청산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로동계급의 투쟁이 끝나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상의식령역에서도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하기 위하여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사상혁명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수립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사회생활의 정치 및 경제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청산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인것처럼 사람들의 의식의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인 사상혁명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모든 근로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상혁명은 근로자들의 의식속에서 낡고 뒤떨어진것을 뿌리뽑고 그들을 새롭고 선진적인것으로 무장시키는 두 측면을 가지고있다. 사상혁명의 이 두 측면은 동떨어진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을 과학적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진정한 혁명가로 키우는 동일적과정의 두 측면으로서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있으며 호상작용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사상혁명의 혁명적 본질과 내용에 대

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명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우와 같은 책, 60페지)

사람들의 의식의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필수적구성부분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맑스-레닌주의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이 사상혁명의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이 승리적으로 실현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크게 달려있다.

사상혁명의 수행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의 수행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진행함으로써만 모든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공산주의 도덕과 문화,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소유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있다.

또한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 독소를 뿌리빼고 그들을 로동계급의 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사상혁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과 사상의식이 높아지면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창발성과 열성을 발휘하게 되며 생산장성을 위한 더 많은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생산자들의 정치적각성이 높아지면 또한 그들은 자기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것이며 그것은 생산을 늘이는데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것이다.

사상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의 하나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파괴활동이 계속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부르죠아사상독소가 부단히 침습해들어온다.

이러한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는다면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증대되고 근로자들의 혁명의식이 마비되여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협에 빠뜨릴수 있다.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들을 선

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침습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막아내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이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해나가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뿐아니라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망칠수 있다.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만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적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게 하며 대를 이어가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을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고수하는가 안하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 혁명적립장이며 사상혁명을 수행하지 않는것은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말아먹는 수정주의적립장이다. 주권을 잡은 맑스-레닌주의당은 여기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편향을 반대하고 혁명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가는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공산주의를 지향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힘껏 다그칠수 있게 하시였다.

2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중심과업과 그를 위한 사상교양의 내용 및 사상혁명수행의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있게 끌고나가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32페지)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벌려 그들을 공산주의사상,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킨다는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만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모든 사람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조건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첫째가는 의무이며 최대의 영예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수행하여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illegible]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페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의 신심,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다함없는 긍지와 영예감을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고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게 한다. 또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확고한 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 공산주의적도덕,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자부심을 소유한 혁명가로,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키워나가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사상교양의 내용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근로자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본질적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내용을 밝혀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유일하게 옳은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여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25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은 공동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손잡고나가는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사상혁명은 적대분자들과의 투쟁처럼 진압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사상혁명을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같이 보고 낡은 사상 잔재를 가진 사람을 적대분자처럼 취급한다면 사회주의사회의 기본동력인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공고히 할수 없을뿐아니라 적아의 구분을 흐리게 함으로써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할수 없게 한다.

일반교양과 개별교양의 옳은 결합과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를 기본으로 하는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사상개조사업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만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의 강화 특히는 비판을 통한 사상단련을 사상혁명수행을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로 밝혀주시였다. 사상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넣어주는 사상교양과 함께 반드시 낡고 반동적인 사상독소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여야 한다. 낡은 사상 잔재는 마치 아스팔트의 짬에

서 솟아나는 풀과 같이 틈만 있으면 되살아나는만큼 사상투쟁을 계속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뿌리뽑을수 없다.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켜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 때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을 사상혁명수행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로 제시하시였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는 과거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와 함께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 사회생활의 여기저기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이 계속 존속하고 사람들이 아직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수 없다.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깨끗이 없애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진정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진행하면서 이와 함께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철저히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방도들은 사상혁명의 특성과 사람들의 의식발전의 합법칙성, 인간개조의 풍부한 실천적경험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종국적으로 뿌리빼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방도들이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의 중심과업, 사상혁명을 위한 교양사업의 내용,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과업인 사람들의 사상의식개조를 능숙하게 풀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전면적으로 증시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정확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간 결과 전당과 온 사회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쳤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전사된 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고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상조류로서의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교조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고 사상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탁월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기풍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리론과 방침이 우리 근로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게 됨으로써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생하고 발전하였으며 그 행정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수행되여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와 강

한 자위력과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생활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창조적인 리론과 방침이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기되지 않았고 해명되지 못한 사상혁명의 합법칙성과 그 수행의 방향, 방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사상혁명의 위치 등 사상혁명에 관한 모든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공산주의적인간육성에 관한 체계정연하고 포괄적인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처음으로 창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인간의식개조의 새로운 정연한 리론의 창시는 과학적공산주의리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과 방침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의식의 령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혁명과업으로 제시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신 풍부한 경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상혁명의 본질과 내용, 그 구체적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필수적구성부분으로, 독자적인 혁명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특히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의 특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본질적요구를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혁명이 사회주의하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상혁명에 관한 리론과 방침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혁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그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60~61페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수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기술,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경제건설을 적극 진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풍부히 하시는데 이바지하신것은 또한 근로자들의 의식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들을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기간을 명확히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계급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의 수행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서 위

대한 전환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의 실현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깨끗이 없애고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완전히 점령할수는 없다. 그것은 낡은 사상이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깊이 뿌리박혀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밖으로부터 부르죠아사상이 끊임없이 침투될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투쟁의 법칙과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을 통일적련관속에서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가 실현된 다음에도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는 투쟁의 력사적기간을 과학적으로 밝힌것으로서 사상의식개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상혁명의 리론이 창시되고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는 과학적인 방도가 제시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는 자연과 사회뿐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포괄하는 모든 령역을 개조하여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혁명리론으로 풍부화되였다.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상혁명에 관한 과학적리론이 창시되고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방도와 로정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사회발전의 기본동력에 관한 리론, 사회주의사회의 완성과 공산주의사회에로의 점차적이행에 관한 리론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을 밝히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위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방침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된 사상혁명에 관한 탁월한 리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가는 로정을 더욱 앞당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숭고한 력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탁월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것은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절실한 요구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이 중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사상혁명을 심화발전시켜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혁명에 관한 위대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개조사업을 계속 강력히 밀고나갈것이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

김 일 형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전체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보고와 여러 고전적로작들에서 남조선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중요구성부분의 하나이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워 혁명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관한 로선과 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행정에서 이룩하신 통일전선의 고귀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무장투쟁시기에 통일전선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으며 그를 구현하시여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하시고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심으로써 일제의 패망을 촉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소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해방후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시여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혁명에 끌수 있는 모든 계층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 교양개조하는 능동적인 방침을 취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통일전선사업에서 이룩된 전통과 실천적경험은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남조선혁명조직들과 애국적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국토와 민족이 갈라진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 대처하여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로선과 기본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남조선혁명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관한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승리를 촉진하는데서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 *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여 남조선사회의 광범한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승리를 촉진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8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혁명전략에서 통일전선사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통일전선문제는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전술의 중요구성부분으로서 광범한 대중을 어떻게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은 반혁명세력과 혁명력량간의 치열한 판가리싸움이며 그 승리는 더많은 대중을 전취하여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절대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당은 혁명발전의 주객관적조건과 사회계급적관계에 따라 혁명의 령도계급과 동맹자, 주력군과 보조력량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그를 힘있게 보조할수 있는 력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도로 되며 남조선혁명에서 력량편성개획의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룬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하여서는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고 남조선혁명운동을 남조선인민대중자신의 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그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5페지)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이 혁명승리의 필수적요구로 나서는것은 우선 그것이 남조선혁명력량을 비상히 확대강화한다는데 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전략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이며 혁명승리의 근본요구이다.

남조선혁명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자, 략탈자인 미제를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다. 미제는 제놈들의 허물어져가는 식민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온 남조선천지를 군대와 경찰, 테로, 특무망으로 뒤덮고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총칼로 가로막으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남조선에서 원쑤들의 반혁명적공세를 제때에 물리치고 나아가서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혁명적당을 강화하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이와 함께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기초우에서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층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원쑤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약화시키고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로써 반혁명을 성과적으로 타승할수 있다.

만일 혁명력량을 꾸리는 사업을 혁명의 주력군에만 국한시키고 광범한 중간세력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지 않는다면 반혁명을 고립약화시키고 그를 타승하기 위한 투쟁을 옳게 진행할수 없을뿐더러 주력군자체도 튼튼히 꾸려나갈수 없게 된다.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수 있는 힘있는 부대를 편성케 함으로써 혁명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

다. 그것은 계급적기초와 정치적견해가 같지 않은 사회적력량이라 하더라도 다같이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에서 공통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실지투쟁에서 그들이 로동자, 농민들과 힘을 합칠 때 원쑤들에게 큰 타격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일전선사업을 잘해나감으로써만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혁명의 주력군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관한 방침은 혁명투쟁발전의 이러한 객관적합법칙성과 남조선사회의 계급적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고 혁명운동을 튼튼한 대중적지반우에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촉진할수 있게 한다.

통일전선사업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일전선은 광범한 대중을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촉진하며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투쟁속에서 단결과 련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혁명투쟁을 반전시키고 그 결정적시기를 앞당기게 한다.

또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통일전선에 망라됨으로써만 로동계급과 그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밑에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분산성과 비조직성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벌릴수 있으며 점차 대규모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최후승리를 앞당기게 될것이다.

이렇듯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혁명승리를 앞당기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미구국통일전선방침은 남조선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과 민족부르죠아지 등 남조선의 광범한 계층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다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와 그와 결탁하고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395페지)

수령님의 이 교시는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사회계급적처지와 그들의 공통한 리해관계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말미암아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식민지적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는 한편 자기의 손아래동맹자인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적극 끌어들이면서 침략과 새전쟁 도발책동을 더욱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파쑈폭압의 학정밑에서 신음하고있으며 극심한 무권리와 빈궁, 파산과 몰락을 강요당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의 직접적인 령도밑에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열화같은 지향은 그들의 가슴속에서 움직일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의 심장을 파악하여감에 따라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비상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반미, 반일, 반박정희 감정과 조국통일지향이 날을 따라 급격히 높아가고있으며 놈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질적면에서 더욱 새롭게 발전하고있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더욱 대중적성격을 띠고 폭력적형태로 강화발전되고있는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 평택군내 2천여명 주민들은 집단적폭행에 날뛰는 미제야수들과 몸싸움을 벌린데 뒤이어 미제침략군부대에 몰려가 놈들의 만행을 강력히 항의규탄하는 대중적인 반미시위를 벌렸다. 이것은 미제침략군의 만행으로부터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으로서 그들의 드높은 반미기세를 반영하고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의정부지구의 미제침략군부대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 150여명이 미제야수들의 민족적멸시와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벌려 놈들을 굴복케 한 사실과 경기도 파주군내 1천여명의 주민들과 평택군내 500여명의 녀성들이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린것 등 남조선도처에서 집단적반미항거가 련속 일어나고있다.

또한 일본군국주의두목 사또일당과 《자위대》우두머리들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투쟁과 성토대회, 괴뢰경찰들과의 몸싸움,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호소하는 반일계몽활동 등 반일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다.

반미, 반일 투쟁과 함께 반괴뢰투쟁이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협잡 《선거》놀음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통하여 민주력량이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더욱더 고조되여가고있다. 얼마전 경상남도 고성에서 있은 《향토예비군》 800여명의 폭력투쟁과 경기도 광주군내 5만여명의 농민들과 주민들이 일으킨 대중적인 폭동 등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과 략탈, 파쑈폭압을 단호히 반대하여나선 단적인 실례로 된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객관적정세는 각계각층의 모든 민주력량을 로동계급의 당 주위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적요인을 더욱 성숙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 객관적기초는 충분히 무르익어가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 통일혁명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로서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있다. 통일혁명당은 강령 첫조항에 《일체 애국세력을 총집결하여 거족적반미구국항쟁으로 식민지통치를 전복한다.》는것을 밝히고 자기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인민들을 굳게 묶어세우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발전에서 주동적역할을 담당할 핵심력량이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반미구국통일전선방침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탁월한 방침으로서 혁명운동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 *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반미구국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심과 함께

그 실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옳게 해나가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통일전선사업에서 우리의 기본방침은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조건에서 각계각층 군중을 쟁취하기 위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며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전선을 이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와 같은 책, 92페지)

통일전선사업에서 혁명의 주력군의 지도적역할을 높인다는것은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로동자, 농민의 계급적동맹을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과 그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것은 통일전선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적요구의 하나이며 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실현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것은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즉 당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통일전선의 공고한 사회정치적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전선사업에서 로동계급과 그 당의 령도적역할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혁명적당의 령도가 혁명력량을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을 전진시키는데서 얼마나 사활적문제로 나서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오직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이 보장되여야만 통일전선사업에서 계급적원칙을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에 목적의식성을 부여하며 혁명을 결정적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것은 통일전선사업의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은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사회정치적기초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결속함으로써만 혁명의 후비군으로서의 통일전선을 공고하고 항구적인것으로 만들수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주민의 반수를 차지하는 농민은 식민지반봉건적착취관계에 얽매여 완전한 무권리와 2중3중의 착취와 략탈을 강요당하고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처지로 하여 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강화하는것은 통일전선안에 강력한 주력군을 꾸리는것으로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발전에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혁명투쟁의 력사적경험은 로농동맹이 실현되지 못하고 혁명의 주력군이 튼튼히 꾸려지지 못한 조건에서는 중간층과 일시적으로 통일전선이 이룩되였다 하더라도 견고한것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직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이 실현되고 혁명의 주력군이 강해야만 중간층의 동요성을 극복하고 그들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할수 있다.

통일전선사업에서 중요한것은 하층통일에 기본을 두면서 이에 기초하여 상층통일을 발전시키는것이다.

하층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상층통일을 결합시키는것은 통일전선사업에서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관철하며 좌우경적편향이 없이 그를 전진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본질적요구의 하나이다.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어디까지나 기본군중을 쟁취하는것이다. 혁명군중의 밑으로부터의 행동통일을 강화하여야만 보다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켜 혁명의 편에 전취하고 반혁명세력을 고립약화시킬수 있다.

오늘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에 기본군중이 적지 않게 망라되여있고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리해관계로부터 상층과 첨예한 대립을 이루

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하는것은 통일전선의 형성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하층군중을 전취하여야만 상층의 반동적요소들을 철저히 고립시킬수 있다. 이와 함께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여야 상층통일전선도 잘해나갈수 있다. 하층통일전선에 기초하지 않는 상층통일전선은 튼튼할수 없으며 큰 힘을 낼수 없다.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조건에서만 상층에 혁명적영향을 주어 애국적요소들을 적극 조장시킬수 있고 그들과의 통일전선을 잘해나갈수 있다.

하층통일에 기초하여 상층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통일전선운동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적극화되여감에 따라 상층내에서는 부단한 동요가 일어나고있으며 모순과 알륵이 더욱더 첨예화되여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상층통일전선을 옳게 해나간다면 통일전선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사회적력량을 망라하며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88~89페지)

사회정치생활에서 각이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들속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섭하여 단결시키는것은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에서 비록 불철저하고 견고치 못한 력량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전투대오로 굳게 뭉칠 때 그것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힘을 내게 될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의 해방과 조국통일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항쟁에서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군중과 개별적인사들의 움직임은 커다란 작용력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는데서는 정견과 신앙, 출신의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들을 다 망라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며 그들과 로동자, 농민들과의 긴밀한 조직적뉴대를 실현하는것은 통일전선의 위력을 강화할뿐아니라 남조선혁명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남조선혁명에서 청년학생들이 차지하는 위치 특히 로동자, 농민들과 혁명운동사이에서 그들이 노는 교량적역할과 관련된다.

식민지조건에서 대부분 반제사상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며 시대의 추세에 민감하고 민족적각성이 빠른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들속에 선진사상을 전파시키며 그들자신이 투쟁에 뛰여듦으로써 혁명정세를 조성시키고 기본군중을 더욱 각성시켜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남조선의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처지와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반미구국투쟁의 중요한 력량으로 되고있으며 현실적으로 미제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특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전후시기 4.19인민봉기와 6.3봉기, 8월투쟁,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통하여 남조선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추동적작용을 놀았다.

그러므로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뉴대를 강화하는것은 반미구국투쟁에서 혁명의 기본부대인 로동자, 농민의 역할을 높이고 투쟁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운동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진정한 혁명운동으로 될수 있고 실지투쟁에서 큰 힘을 낼수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이르는곳마다에서 혁명적청년조직들을 결성하고 공장과 농촌, 학원들에서 진보적청년학생들로 핵심대렬을 꾸리며 각계각층 청년들과의 행동통일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로농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굳게 뭉치여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전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통일전선내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의 독자성, 조직들간의 호상존중, 투쟁하면서 단결하는 원칙 등 일련의 문제를 옳게 해결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통일전선운동의 제원칙들은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보조할수 있는 힘있는 정치적부대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전술로서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로써 반혁명을 성과적으로 짓부실수 있는 명확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은 통일전선운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더한층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단결할수 있는 모든 력량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길을 밝혀준 탁월한 방침이다.

수령님의 이 방침은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자체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하며 나라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미일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며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전기간에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전선방침에 따라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 하나의 대오로 굳게 결속되여가고있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조직화되여가고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통일전선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제,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밑에 광범한 계층을 반미구국통일전선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미일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모든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반미, 반일, 반괴뢰 투쟁을 더욱 억세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설 때 남조선혁명은 승리할것이며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력사적위업은 더 빨리 성취될것이다.

현대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

전 필 영

오늘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마치 현대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이 변한듯이 떠들어대면서 이른바 《인민적》인 《복지사회》에 대하여 설교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착취적본질을 가리우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계급적각성을 무디게 하고 그들을 자본의 영원한 노예로 얽어매두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은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본질을 가리울수 없으며 인민대중을 기만할수 없다.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할수 없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계급은 국가권력의 비호밑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 리용하여 《맨몸뚱이》밖에 없는 임금로동자들의 피땀을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악착하게 짜내고있다.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선 현대자본주의는 침략과 전쟁 책동에 미쳐날뛰면서 수억만 인민대중을 악랄하고 교활하게 착취하고 략탈하는 가장 반동적이며 썩어빠진 사회제도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현대자본주의의 착취적본성과 부패성을 똑똑히 인식하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을 분석하시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는 보다 교활성과 악랄성을 띠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세계를 지배하고있는 대독점들은 그들의 높은 리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며 자본주의사회의 더욱더 광범한 계층들의 리익을 침범하고있습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223페지)

자본주의사회는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이다.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은 자본주의의 변함없는 본성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착취적본성이 전례없는 교활성과 악랄성을 띠고 강화되는것은 자본주의제도자체발전의 필연적결과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산업자본주의시기와는 달리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촉진되고 독점이 지배하여 평균리윤이 아니라 독점적고률리윤을 추구하게 된다. 독점적고률리윤의 추구는 현대자본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경제법칙이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은 나라의 일체 정치경제생활을 틀어쥐고 최대한의 독점적고률리윤을 얻기 위하여 서로 물고뜯으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게 된다.

현대자본주의의 착취적본질이 더욱 강화되는것은 또한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더욱 심화된것과 관련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는 더 한층 심화되였다. 현대자본주의는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

이러한 력사적조건에서 독점자본가들은 이미 멸망에 처한 운명에서 벗어나

며 계속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하여 날강도적인 침략과 진쟁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극히 교활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략탈하는데 매여달리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현실은 독점자본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독점자본가들은 주로 상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가르치심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근로대중에 대한 독점자본의 착취형태와 착취방법의 본질적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신것이다.

자본주의발전의 첫단계에서 자본가들은 주로 로동시간의 연장에 의한 절대적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하루의 로동시간을 아무리 연장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자본주의발전과 함께 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이 강화되는 조건에서 절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한 착취는 제한성을 받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독점자본가들은 로동시간을 연장하는것과 함께 주로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 즉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와 기술적진보를 통하여 단위시간내에 로동자들의 피땀을 더많이 짜내는 보다 교활한 방법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자본주의적기계기술의 도입을 통한 착취는 바로 그 전형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기술의 발전,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복무하는 사회주의하에서와는 달리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그것은 로동계급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독점자본이 최대한의 리윤을 얻기 위한 방도로 리용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적》수준에 이르고있다.

오늘 자본가들이 《자동화체계》를 도입하여 로동자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는데 널리 적용하고있는 방법의 하나는 이른바 《예정시간표준제도》(《피.티.에스》)이다.

2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널리 적용되고있는 이 《제도》는 이른바 《자동화체계》에 의하여 매 작업시간에 필요한 표준조작시간을 극히 살인적인 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로동자들에게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간적여유도 주지 않으며 그들을 기계의 단순한 《부속물》로, 《노예》로 얽어매는 악랄한 착취방법이다. 악명높은 이 《제도》밑에서 로동자들은 오직 이미 정해진 《표준시간》내에 고속도로 돌아가는 기계의 움직임만을 따라 해당한 작업동작을 수행할것을 강요당하게 된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이와 같이 전대미문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띤 착취방법이 적용됨으로써 로동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말할것 없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혹사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수많은 로동자들이 아무러한 로동보호도 받음이 없이 더욱 늘어나는 로동재해와 사고로 생명을 빼앗기거나 불구의 몸으로 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이 상대적잉여가치의 생산을 통한 착취를 강화하는데 적용하고있는 교활한 방법의 하나는 또한 이른바 자본주의적경영의 《합리화》이다.

자본주의적경영의 《합리화》는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대량적으로 해고하며 여러가지 기만적방법으로 로동자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최대한으로 짜내기 위하여 고안해낸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착취방법이다. 오늘 독점자본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른바 자본주의적경영의 《합리화》를 적용함으로써 실업자대렬을 급격히 증대시키고 취업로동자들의 처지를 더 한층 악화시킬뿐아니라 아동 및 녀성 로동에 의한 숙련로동과 성년로동의 교체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로동계급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또한 독점가격, 조세

수탈 등을 통하여 류통, 재정, 신용 령역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 독점자본가들은 우선 시장을 독차지하고 생산비에 독점적고률리윤을 붙인 독점가격을 설정하며 온갖 교활하고 기만적인 판매형태를 통하여 근로자들을 착취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이 독점가격을 얼마나 높이 설정하여 근로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소비품의 값을 그 생산비보다 엄청나게 높여 팔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와 함께 독점자본가들은 독점가격을 유지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팔리지 않는 《과잉》상품을 월부제, 외상판매 등의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강화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월부제는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판매에서 독점가격에 높은 리자까지 첨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하는 아주 기만적인 판매형태이다.

독점자본가들은 또한 국가권력을 통하여 온갖 가렴잡세를 근로자들의 어깨우에 무겁게 들씌우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조세, 국채발행, 통화팽창 등은 모두 근로자들의 소득을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는 도구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추가적착취형태이다. 현대자본주의는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며 침략과 전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더욱더 매여달리고있다.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근로자들에게 들씌워지고있는 여러가지 가렴잡세가운데서 특징적인것의 하나는 간접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있는것이다. 간접세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자들에게 들씌우는 보다 은폐된 가혹한 세금수탈형식이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중생활필수품들과 각종 공공료금에 붙는 간접세의 비률은 참으로 살인적인것이다. 일본 한곳에서만 보아도 대중소비품에 대한 간접세부과비률은 60%이상에 달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자본가들이 쓰는 사치품에 대한 간접세의 비률은 아주 낮게 설정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이밖에도 국채의 남발, 통화팽창, 강제저금 등의 교활하고 횡포한 방법으로 인민들에 대한 추가적수탈을 강화하고있다.

*　　*

현대자본주의는 자기 나라 인민뿐아니라 다른 나라 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게 되면 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입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04페지)

최대한의 리윤을 추구하는 독점자본은 팽창하면 할수록 자기 나라 인민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한편 해외에로 침략과 략탈의 마수를 더욱더 깊이 뻗친다. 이것은 현대자본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더우기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극도로 첨예화된 오늘 독점자본은 다른나라 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는데 더욱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여기에서 특히 현대자본주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이 지역 인민들을 략탈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예속국가들,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제놈들의 풍부한 원료원천지로, 값싼 로동력의 공급지로, 과잉상품의 판매시장으로 만들며 최대한의 식민지초과리윤을 얻기 위한 략탈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 많은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은 제국주의강도들에 의하여 계속 혹심하게 략탈당하고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의연히 제국주의 독점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로 끝없이 흘러들어가고있다. 독점자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피압박인민들

의 고혈을 빨아 배불리며 살찌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교활하고 음흉하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으며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또다시 신식민주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습니다.》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5페지)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독점자본가들은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고 대중의 혁명적각성이 높아진 조건에서 과거와 같이 로골적이며 직접적인 형태로 식민지를 지배하여나가기 어렵게 되였다. 이로부터 놈들은 식민지통치의 낡은 수법과 함께 보다 교활하고 은폐된 신식민주의의 수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계속 식민주의제도를 유지하고있다.

독점자본가들은 신식민주의를 추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반동화한 군부상층과 종족상층부의 대표와 같은 우익계층들을 매수하여 괴뢰정권을 조작하고 이를 통하여 이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식민지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독점자본은 제놈들이 내세운 괴뢰들이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 때에는 반동적군사정변을 조작하고 군사파쑈독재를 실시하며 공공연한 무력간섭까지 서슴없이 감행한다.

후진국가들에 대한 현대자본주의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은 신식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지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는 2,000여개의 미제독점회사들의 자본이 국가자본과 함께 침투하고있다.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독점들의 침투는 2차세계대전후 현저히 강화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이 지역 나라들에 수백억딸라를 투하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에 의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의 중요명맥을 제놈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독점적지위를 유지하고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제놈들의 통제밑에 두고있는 나라들에서 얻는 리윤률은 본국에서보다 몇배나 더 높다. 최근년간 미제가 본국에서 얻은 리윤률은 10～12%였다면 예속국가들로부터 얻은것은 30～100% 또는 그 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실로 강도적략탈이다.

독점자본은 식민지, 반식민지 처지에 있는 나라의 근로자들에게 장시간의 고된 로동을 강요하면서도 본국에서보다 몇분의 1, 심지어는 몇십분의 1밖에 안되는 기아임금만을 줄뿐이며 그것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고있다. 독점자본주의나라들 가운데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것으로 알려진 일본로동자들의 임금에 비해볼 때 남조선로동자들의 임금은 그의 20%, 대만에서는 25%, 타이에서는 33%, 필리핀에서는 40%라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 있다. 그나마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아 임금의 체불은 항시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리윤, 리자와 부등가교환으로 착취하여가는 리득만 하여도 해마다 약 300억딸라에 달한다. 이것은 독점자본가들이 이 지역 나라들에서 한시간동안에 340만딸라, 하루동안에 근 1억딸라를 빼앗아가는것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이 1년동안에 략탈해가는 이 금액으로는 5억톤의 밀가루를 살수 있으며 이것으로 20억의 인구가 1년동안 먹고살수 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이 긁어가는 매 딸라, 매 파운드, 매 프랑에는 실로 고역과 빈궁, 기아에 쓰러진 이 지역 인민들의 피와 땀과 원한이 스며있다.

신식민주의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 략탈과 예속화를 강화하는데서 현대자본주의는 이른바 《원조》정책에 특별히 매여달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후진국공동개

발〉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원조〉정책을 해외팽창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으며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독점자본의 해외침투의 길을 개척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폐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이른바 《원조》받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현대자본주의의 추악한 착취적, 략탈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경제를 제놈들에게 예속시키고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이미 이룩한 정치적독립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신식민주의의 교활한 수법으로 제2차세계대전후 구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여 자본주의세계의 패권을 틀어쥐고 식민주의《제왕》으로 등장하였으며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미제가 특별히 힘을 들여 《지원》한다는 남조선에 조성된 오늘의 파국적사태는 제국주의《원조》의 략탈적본질을 가장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일체 경제생활을 통제하고있으며 남조선경제를 제놈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만들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에게 해마다 준다는 명문의 《원조》는 그 대부분이 《군사원조》이다. 이것은 사실상 미제가 전조선과 아세아를 침략하는데 필요한 군사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는 우선 70만이나 되는 남조선괴뢰군을 제놈들의 현지고용병으로 쓰고있다. 만일 미제가 제놈들의 군대를 이만큼 남조선에 갖다두려고 한다면 남조선에 준다는 《원조》의 수십배의 비용을 써야 하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남조선괴뢰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데는 미제침략군 한개 사단을 유지하는것의 25분의 1밖에 안되는 적은 비용이 든다. 미제는 《1딸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로 하여금 5딸라의 군사비를 소비하게 하라.》는 원칙밑에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비지출을 굉장히 《절약》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무거운 군사비부담을 들씌우고있다. 이른바 《경제원조》라는 것도 남조선을 미제에게 예속시키고 남조선의 자원과 생산을 미제의 군사적목적에 동원하며 막대한 리윤을 긁어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의 비호밑에 급속히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도 해외팽창의 더러운 야망밑에 《평화》의 탈,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무런 체재도 반음이 없이 세계의 모든곳을 마음대로 싸다니고있으며 동남아세아와 중근동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략탈을 강화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1969년말 현재 놈들의 해외투자총액은 약 25억딸라로서 이것은 1966년말에 비하여 2.1배로 늘어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막대한 해외투자에 의하여 해마다 남조선에서는 투하자본의 90%, 동남아세아나라들에서는 50%에 달하는 높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은 사실상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세계의 독점들은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등 이른바 여러가지 《국제기구》들을 리용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교활하게 감행하고있다. 또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략탈과 지배를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음흉하게 꾀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야말로 자본의 착취가 극도의 교활성과 야수성을 띤 가장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현대자본주의, 식민주의는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 *

현대자본주의는 국내외인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여 살찔대로 살찐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에게 극도의 기생생활을 하게 하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과 빈궁, 굶주림과 질병, 죽음과 고통만을 주는 썩어빠진 사회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다수의 피착취, 피압박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58페지)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재부는 다 돈있는 자본가들을 위한것이며 가난한 로동자, 농민을 위한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의 한쪽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여 긁어모은 재부를 가지고 온갖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광범한 근로대중이 말할수 없는 비참한 생활고에 헤매고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그들의 취업상태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더욱더 교활하고 은폐된 착취 형태와 방법들이 적용됨으로써 로동자들의 신앙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악화되고있다.

미제국주의소굴에서 완전실업자수는 상시적으로 500만명이 넘고있다. 여기에 반실업자군까지 합치면 그 수는 실로 1,000만명이 넘는다. 물건값이 계속 뛰여오르고 세금부담이 끝없이 늘어나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은 계통적으로 떨어지고있으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 극빈자수는 헤아릴수 없이 많다.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이 독점자본가들의 치부와 모리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은 고등교육은 물론 보통교육마저 받을 가능성을 잃고있으며 병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질병속에서 신음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 식민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나라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한심하다. 초보적자료에 의하더라도 라틴아메리카주민의 3분의 2, 아프리카주민의 대다수, 아세아의 수억만 사람들이 만성적기아를 면치 못하고있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2중식민지로 떨어지고있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겪고있는 《4천년래의 민생고》는 제국주의식민주의 예속밑에 있는 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얼마나 참담한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있으며 이 나라들의 경제는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맞다들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28페지)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적 및 집중이 보다 촉진되여 생산의 사회적성격은 더욱 강화되고있으나 생산물은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고있다. 그리하여 기술발전이 정체되고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있으며 생산력의 발전은 심히 억제당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자본주의세계의 독점들은 날로 심각화되고있는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이른바 《생산의 합리화》를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면서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독점들이 추구하는 군비경쟁과 경제의 군사화가 인공적으로 생산을 일시 자극할수는 있으나 결코 자본주의세계를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구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독점들은 2차세계대전이후 만성적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새 전쟁 도발과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에서 찾으면서 경제를 더욱더 군사화하는 길로 나아갔으나 이미 여러차례에 걸친 심각한 경제공황을 겪었으며 오늘 경제위기는 더욱 첨예한것으로 되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경제생활에서뿐아니

타 사상,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위기에 부딪쳐 썩을대로 썩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세계의 독점물은 멸망하여가는 제놈들의 반인민적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썩어빠진 반동적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고있다.

현대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부식시키고 그들을 부화타락케 하며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있다. 부르죠아생활양식, 이것은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현대자본주의의 잔인성과 퇴폐몰락하는 부패상을 반영한 세기말적생활풍조이다. 모든 사회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순전히 금전관계로 맺어지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건전한 리성과 미덕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패륜과 패덕이 사람들을 질식시키며 사회를 지배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언제나 《자유》에 대하여 떠들기를 즐겨하고있다. 그러나 놈들이 떠드는 《자유》란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략탈하는 자유이며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다만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자유》이다. 부르죠아지들은 바로 산업의 《자유》라는 이름밑에 략탈적인 침략과 전쟁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로동의 《자유》라는 구실밑에 근로자들의 피와 땀을 끝없이 빨아내여 배불리고있다. 놈들이 떠드는 부르죠아적자유는 돼지와 같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며 향락을 누리려는 더러운 짐승들이 추구하는 《자유》이며 극단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고취하고 근로자들의 정치적각성을 무디게 하며 단결을 파괴하는 마취제이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을 인종주의와 민족배타주의 사상의 악취로 중독시키면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마지막흔적마저 줴버렸으며 국내체제를 더욱더 파쑈화의 길로 이끌고있다. 또한 식민지에서 긁어모은 초과리윤의 일부로 로동귀족을 매수하여 로동계급의 전투적대오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날을 따라 파쑈테로통치가 강화됨으로써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완전히 말살되고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의 파쑈테로통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강화되며 제국주의의 종국적멸망은 촉진될뿐이다.

낡은 봉건사회가 멸망하고 자본주의사회가 발생발전한것처럼 자기 세대를 다 산 자본주의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것은 항거할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오늘 현대자본주의는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타격을 받고있으며 더욱더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력량, 로동운동, 민주주의운동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으며 자본주의의 마지막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세찬 혁명적폭풍이 지구상을 휩쓸고있다.

얼마 안되는 제국주의억만장자들이 활개치고 주인행세를 하며 인류를 마음대로 착취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전세계적범위에서 자본주의의 완전한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이다.

근로자 제 12 호 (루계 357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1년 12월 20일　발 행 • 1971년 12월 24일

ㄱ—14235　값 50전

1971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

김성애동지의 보고

편집국 론설

* *

혁명전통

당 건 설

정치사상문제

경 제 건 설

남조선 및 국제관계